

2020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訓蒙字會』에 대한 종합적 연구

일시: 2021년 1월 14일(목) 09:00~19:00

장소: 온라인(Zoom)

주최: 국어사학회

주관: 국어사학회

2020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세부 일정

- 일시: 2021년 1월 14일(목)
- 장소: 온라인(줌)

구분	시간	행사 내용, 발표 주제,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개회	9:00~9:10	개회사: 정승혜(수원여대, 국어사학회장)	이준환 (전남대)
제1부	9:10 ~ 10:40 (발표당 30분)	<p>[개인 연구 발표(1)](9:10 ~ 9:40) 주제: 언해본 『삼강행실도』 최고본(最古本)에 대한 비교 연구 - <<효자도>>를 중심으로 - 발표: 이규범·오민석·김유범(고려대) 토론: 서형국(전북대)</p> <p>[개인 연구 발표(2)](9:40 ~ 10:10) 주제: '휴지(休紙)'의 어휘사 발표: 마원걸(서울대) 토론: 신중진(한양대)</p> <p>[개인 연구 발표(3)](10:10 ~ 10:40) 주제: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에 대하여 발표: 여채려(경희대) 토론: 허인영(고려대)</p>	장요한 (계명대)
개인 연구 발표	10:40~10:50	휴식	
개인 연구 발표	11:05~12:20 (발표당 30분)	<p>[개인 연구 발표(4)](10:50 ~ 11:20) 주제: 고대 한국 속자 "棕"에 대한 재고찰 발표: 서엽(절강대) 토론: 권인한(성균관대)</p> <p>[개인 연구 발표(5)](11:20 ~ 11:50) 주제: '끼치다'의 어휘사 - '기티다[遺]'와 '씨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발표: 정은진(고려대) 토론: 김현주(공주교대)</p> <p>[개인 연구 발표(6)](11:50 ~ 12:20) 주제: 해남 윤씨 어초은공파 윤정현가 언간에 나타난 친족 간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 발표: 선한빛(전남대) 토론: 박부자(성신여대)</p>	이래호 (강원대)
점심	12:20~13:30	점심 식사	

제2부	13:30 ~ 15:00 (발표당 30분)	[기획 주제 발표(1)](13:30 ~ 14:00) 주제: 사자(四字) 구성으로 살펴본 <훈몽자회>의 유의어 분류 체계 연구 발표: 김양진(경희대)	안예리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 주제 발표(2)](14:00 ~ 14:30) 주제: <훈몽자회>의 구조 분석과 수록자에 관한 이해 발표: 이준환(전남대)	
		[기획 주제 발표(3)](14:30 ~ 15:00) 주제: <훈몽자회>의 용기성 분류사 비교 연구 -잔(盞)과 배(杯)중심으로- 발표: 단명결(경희대)	
	15:00 ~ 15:10	휴식	
	기획 주제 발표	15:10~16:40 (발표당 30분)	[기획 주제 발표(4)](15:10 ~ 15:40) 주제: "<동국정운> 'ㅅ'과 <훈몽자회> 'ㅅ'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조선 전기 청·탁음에 대한 연구" 발표: 문성호·배영환(제주대)
[기획 주제 발표(5)](15:40 ~ 16:10) 주제: <훈몽자회>에 반영된 근대 한음계 차용어에 대하여 발표: 소열녕(광운대)			
	16:40~16:50	휴식	
	16:50~18:10	[종합 토론] 좌장: 황선엽(서울대) 주지연(영남대), 위 진(국립국어원), 이소흔(서울시립대) 신성철(순천대), 김석영(한국교원대), 박형우(한국교원대)	황선엽 (서울대)
교육	18:10~18:40	연구 윤리 교육	이준환 (전남대)
폐회	18:40~19:00	폐회사: 정승혜(국어사학회장)	

목 차

제1부 개인 발표

이규범·오민석·김유범 ▶ 언해본 『삼강행실도』 최고본(最古本)에 대한 비교 연구 - 《효자도》를 중심으로 -	9
서형국 ▶ “언해본 『삼강행실도』 최고본(最古本)에 대한 비교 연구 - 《효자도》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29
마원걸 ▶ ‘휴지(休紙)’의 어휘사	33
신중진 ▶ “‘휴지(休紙)’의 어휘사”에 대한 토론문	47
여채려 ▶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에 대하여	49
허인영 ▶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에 대하여 ”에 대한 토론문 ...	75
서 엽 ▶ 고대 한국 속자 “棕”에 대한 재고찰	77
권인한 ▶ “고대 한국 속자 “棕”에 대한 재고찰”에 대한 토론문	83
정은진 ▶ ‘끼치다’의 어휘사 - ‘기티다[遺]’와 ‘씨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85
김현주 ▶ “‘끼치다’의 어휘사 - ‘기티다[遺]’와 ‘씨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105
선한빛 ▶ 해남 윤씨 어초은공파 윤정현가 언간에 나타난 친족 간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	107
박부자 ▶ “해남 윤씨 어초은공파 윤정현가 언간에 나타난 친족 간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에 대한 토론문	125

제2부 주제 발표

김양진 ▶ 사자(四字) 구성으로 살펴본 <훈몽자회>의 유의어 분류 체계 연구	129
이준환 ▶ <훈몽자회>의 구조 분석과 수록자에 관한 이해	145
단명걸 ▶ <훈몽자회>의 용기성 분류사 통시적 연구-잔(盞)과 배(杯)중심으로-	173

문성호·배영환 ▶ <동국정운> '쓰'과 <훈몽자회> 'ㅅ'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조선 전기 청·탁음에 대한 연구	187
소열녕 ▶ <훈몽자회>에 나타난 근대 한음계 차용어	205
김부연 ▶ <훈몽자회>에 대한 국어교육적 의미 탐색	221

종합토론

주지연 ▶ “사자(四字) 구성으로 살펴본 <훈몽자회>의 유의어 분류 체계 연구”에 대한 토론문	247
위진 ▶ “<훈몽자회>의 구조 분석과 수록자에 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249
이소흔 ▶ “<훈몽자회>의 용기성 분류사 통시적 연구-잔(盞)과 배(杯)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51
신성철 ▶ “<동국정운> '쓰'과 <훈몽자회> 'ㅅ'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조선 전기 청·탁음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253
김석영 ▶ “<훈몽자회>에 나타난 근대 한음계 차용어”에 대한 토론문	255
박형우 ▶ “<훈몽자회>에 대한 국어교육적 의미 탐색”에 대한 토론문	257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259

제1부

개인 발표

언해본 『삼강행실도』 최고본(最古本)에 대한 비교 연구 - 《효자도》를 중심으로 -

이규범·오민석·김유범*

- | | |
|--------------------------|-------------------|
| 1. 머리말 | 3. 최고본 언해문의 비교 |
| 2. 최고본 논의를 위한 배경 | 3.1. 영인본 간의 비교 |
| 2.1.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편찬과 체제 | 3.2. 이후 판본을 통한 비교 |
| 2.2. 최고본의 계보 | 4. 맺음말 |
| 2.3. 기존 연구의 문제점 | |

1. 머리말

본 발표에서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최고본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일련의 판본들, 즉 김영중 씨 소장본(이하 <김영중본>), 대영도서관 소장본(이하 <런던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하 <성암본>)을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 및 원간본(또는 초간본)의 본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고본’이라는 용어는 志部昭平(1990)에서 제1종으로 분류된 판본들 중 현존 최고의 판본인 <성암본>과 <김영중본>을 지칭했던 것으로부터 가져왔는데, 본 발표에서는 여기에 <런던본>까지 포함해 이 세 이본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 발표를 통해 원간본(또는 초간본)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판본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이본 연구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최고본의 비교에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志部昭平(1990)에서 <성암본>의 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민손단의’와 ‘강혁거효’를 대상으로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최고본에 해당하는 <성암본>과 <런던본>, <김영중본>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이들 자료의 관련성은 물론, <성암본>을 대변하고 있는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에 대해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최고본 논의를 위한 배경

* 이규범 : 제1저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오민석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연구원.
김유범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2.1.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편찬과 체재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세종 16년(1434)에 간행된 한문본 『삼강행실도』를 고본(稿本)으로 해 만들어졌다. 한문본을 바탕으로 난상에 언해문을 붙여 만들어진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성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 내용들을 참조해 볼 수 있다.

- 세종 26년(1444) • 이전에 정창손(鄭昌孫)에게 『삼강행실도』를 언문으로 번역할 것을 하교함
[世宗實錄 卷103 世宗 26年 2月 20日(庚子)條]
- 단종 1년(1452) • 세조(世祖)가 요동(遼東)에서 강맹경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멀리 있지만 《병요(兵要)》·병서(兵書)·《삼강행실(三綱行實)》 등 선조(先朝)로부터 맡은 일을 차마 잊을 수 없다. 내가 서울을 떠날 때 이미 상세히 아뢰었다. 또 《병요》는 속히 반포(頒布)하여서 선왕(先王)께서 여러 장수를 가르치고자 하던 뜻을 이루고, 병서는 먼저 《손자(孫子)》를 인쇄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돌아갈 때를 기다려라. 《삼강행실》은 먼저 《효자도(孝子圖)》를 반포하는 것이 옳겠다.” 함
[端宗實錄 卷4 端宗 卽位年 11月 12日(庚午)條]
- 성종 12년(1481) • 근자에 사족(士族)의 부녀 중에도 실행(失行)하는 자가 있는 것을 염려하며 언문(諺文)으로 된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의 질(帙)을 약간 박아서 경중(京中)의 오부(五部)와 제도(諸道)에 반사(頒賜)하여, 촌향(村巷)의 부녀가 다 강습(講習)할 수 있게 하라고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함
[成宗實錄 卷127 成宗 12年 3月 24日(戊戌)條]
-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를 서울과 외방의 부녀자들에게 두루 강습(講習)시킬 절목(節目)을 마련해서 아뢰라는 성종의 전지에 예조에서 경중(京中)에서는 가장(家長)으로 하여금, 외방(外方)에서는 촌로(村老) 가운데 명망(名望)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이로 인해 깨달아서 절행(節行)이 남보다 뛰어난 자에게는 특별히 정문(旌門)하는 은전(恩典)을 더하고, 그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도 아울러 논상(論賞)하도록 하는 절목을 마련함
[成宗實錄 卷128 成宗 12年 4月 21日(乙丑)條]
- 성종 20년(1489) • 경기 관찰사 박송질(朴崇質)이 임지로 향하기 전에 하직 인사를 하며 『삼강행실도』가 한만(汗漫)하니 그 중 절행(節行)이 특이한 것을 골라 간략하게 초출(抄出)하여 반포하되, 도내(道內)에서의 간인(刊印)이 어려우므로 주자(鑄字)로 인쇄해 반포할 것을 청함
[成宗實錄 卷229 成宗 20年 6月 1日(戊子)條]
- 허침(許琛)과 정석건(鄭錫堅)에게 『삼강행실도』의 산정(刪定)을 명함.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의 행적을 구본(舊本)을 써서 한 책으로 묶을 것을 청하자 가함을 전교(傳敎)함¹⁾
[成宗實錄 卷229 成宗 20年 6月 18日(乙巳)條]
- 성종 21년(1490) • 『三綱行實圖』를 경성의 오부(五部)와 팔도의 군현(郡縣)에 반사(頒賜)하고 우부우부(愚夫愚婦)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함이 없게 하라고 명함
[成宗實錄 卷239 成宗 21年 4月 1日(癸未)條]

1) 命侍講院輔德許琛，吏曹正郎鄭錫堅刪定《三綱行實》。琛等啓曰：“臣等於《三綱行實》內，擇人所易曉可以觀感者，各得三十五，摠一百五人，其所記事，實皆簡約，無可刪之辭。且祖宗已成之書，似不宜增損。校書館所藏《三綱行實》板本，以一人之事，各爲一張，今所抄一百五人，稟旨取捨，用舊本印出，粧爲一冊，廣布何如？”傳曰：“可。”

이로부터 우리는 『삼강행실도』의 언해를 세종대에 하교한 바 있으며, 언해된 『삼강행실도』의 존재는 성종대에 가서야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성종 12년(1481)에 언급된 언문으로 된 『삼강행실도』는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를 모두 갖춘 현존하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와는 달리, 언해된 《열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음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언문으로 된 이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烈女圖)》가 어떠한 모습으로 편찬되어 간행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성종 20년(1489)에 기존의 『삼강행실도』를 산정(刪定)해 각각 110명씩이던 효자, 충신, 열녀의 수를 35명씩으로 줄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현존하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형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종 12년(1481)에 언급된 《삼강행실열녀도》는 35명으로 줄어진 형태가 아닌, 110명 전체 또는 적어도 35명 이상의 열녀 이야기를 다룬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35명씩의 효자, 충신, 열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성종 21년(1490)에 간행된 이른바 산정본(刪定本)으로서 한문본과 달리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난상에 언해문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²⁾



[그림 1] 언해본 『삼강행실도』(‘강혁거효’)의 체제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여러 장면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 내용을 한문으로 쓰는 것과 함께 시(詩)와 찬(贊)을 붙여 둔 것은 한문본 『삼강행실도』와 동일하다. 언해본은 여기에 난상을 이용해 언해문을 추가했는데, 이 언해문이 중세국어 자료로서 지니는 가치는 크다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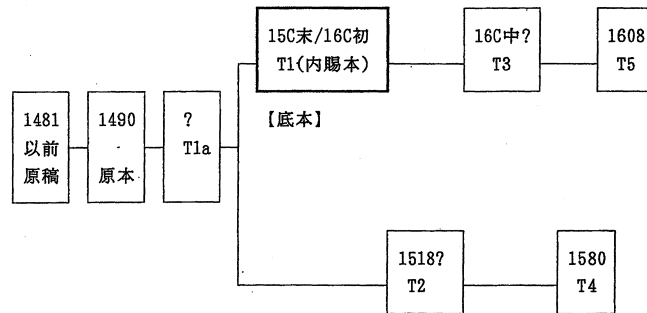
2) [그림 1]의 언해본은 김유범·이규범·오민석(2020:164)에서 제시한 정본 사진의 모습이다.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완전한 초간본이 전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초간본의 정본을 수립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있다. 특히 세종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삼강행실도』의 언해 작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 성종대에 와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언해문은 15세기 중후반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김유범·이규범·오민석(2020:146-148)에서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이본들 중 최고본의 《효자도》 부분을 비교해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초간본이 15세기 중후반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³⁾ 성종 20년(1489)의 실록 기사 중 밑줄 친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의 행적을 구본(舊本)을 써서 한 책으로 묶을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초간본이 지닌 이와 같은 성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구본’이 세종대 이래로 언해 작업을 해 온 원고라고 볼 때, 성종대에 나온 초간본은 ‘구본’이 지닌 특성에 성종 당대의 특성이 곁들여져 편찬이 이루어졌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2. 최고본의 계보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기념비적 연구인 志部昭平(1990)은 22종의 이본들을 상대적인 간행 시기에 따라 T1~T5로 분류하고 그들 간의 유사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보도를 그렸다.⁴⁾



[그림 2] 志部昭平(1990:423)의 계보도

[그림 2]에서는 <김영중본>을 T1a, <성암본>을 T1로 보아 두 문헌을 T1로 분류하였다.⁵⁾ 다만,

- 3) ‘너무’와 ‘너므’의 표기 차이, [상거평거]와 [상평거거]라는 ‘도흐니라’의 두 성조 유형의 차이, 그리고 ‘헝덕으 로’와 ‘남진이’와 같은 분철 표기의 존재가 그 구체적인 예이다.
- 4) 이미 志部昭平(1990)의 계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원간본 간행 시기는 1490년이다. 하지만 국내 논의에서는 주로 1481년을 그 간행 시기로 잡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 2.1.절에서 소개한 실록의 기사를 통해 1481년에 언해본 『열녀도』가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책이 간행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志部昭平(1990:460)은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언어적·표기적 특징이 세종조의 것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열녀도』가 간행된 1481년 이전에 이미 나머지 『효자도』나 『충신도』의 원고도 있었으리라 추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전 최고본에서 많은 보각과 함께 성조와 한자음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조의 양식이 더 길게 깔려 있었을 1481년 이전의 원고와 성종조의 영향을 더 받은 1490년의 원간본이 언어적·표기적으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이때의 T는 Text를 가리킨다. 志部昭平(1990:385)에서는 ‘5종 6류’ 내지 ‘6종’의 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편의상 전자(5종 6류)의 가설에 따라서 T1~T5로 5종을 구분한 것이다. 이때 6류 내지 6종으로 파악하는 데는 T1a를 T1과 분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성암본을 T1로 설정한 이유는 김영중본(T1a)이 성암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효자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T1을 저본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

T2~T5와 달리 T1만 T1a를 분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T1a와 T1이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⁶⁾ 일부 예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志部昭平(1990:389-392)에서 살펴본 T1a와 T1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⁷⁾

(1) 탈자와 보각

- 가. 101a06, 07에서 첫 번째 글자인 {비}와 {토} 부분, 또 101a12에서 아홉 번째 글자인 {도} 부분이 매목으로 보수되었으며, 모두 방점이 없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비}와 {토}가 엇갈려 끼워져 있고 그 위에 {토}와 {도}라는 글자는 좌우가 거꾸로(거울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T1a>에서는, 같이 보수되고는 있지만 엇갈리지도, 거꾸로도 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 있어서 <T1>과 <T1a>는 분명히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 諸本은 <T1a>를 따른다.
- 나. 106a01부터 13까지의 첫 번째 글자가 모두 탈락하였다. 그러나 <T1a>에서는 이 부분을 매목 보수하고 있다. 이 점에서도 <T1>과 <T1a>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諸本은 <T1>을 따른다.
- 다. 131b10에서 14까지의 첫 번째자의 보각처럼 <T1>과 <T5>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T1a>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제본에도 답습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착오*은 志部昭平(1990)의 교정

- 가. *·휼ᄃᆞ·장(盡力 102b01) > ·휼ᄃᆞ·장<T1> || ·휼ᄃᆞ장<T1a>
- 나. *·열·새·히러·라(十三 104b07) > ·열·새·히러·라<T1> || ·열·새·히러·라<T1a>
- 다. *·꾸·러(跪 110a07) > 이러<T1> || 【과손】 <T1a>
- 라. *·눈(眼 110a18) > ·눈<T1> || 【과손】 <T1a>
- 마. *·드·외·아·지·라(爲 111a05) > ᄃᆞ·외·아·지·라<T1> || ᄃᆞ·외·아·지·라<T1a>
- 바. *·뵈·논(織 111a11) > ·뵈·논<T1> || ·뵈·논<T1a>
- 사. *·사·으·를(三日 124b08) > 사·으·를<T1> || 사·으·를<T1a>
- 아. *·뵈·름·과(風 125a09) > ·뵈·름·와<T1> || 뵈·름·과<T1a>
- 자. *·고·타·며(改 126a11) > 고·타·며<T1> || 고·타·며<T1a>
- 차. *·너·흐·리(嚙 13115) > 너·흐·리<T1> || 너·흐·리<T1a>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志部昭平(1990:473-4)에서는 광곽 내부의 한문과 그림은 두 판본이 상당히 유사하여 T1이 T1a의 후쇄로 보이지만, 난상의 언해 부분은 분명히 두 판본에 다른 점이 있어 난상 언해부만 별도로 판각을 하여 난상에 인쇄를 하였다고 추정하였다.⁸⁾

그러나 한편으로는 (1가)에 대해서 “내사본(즉 <성암본>)의 착오는 중쇄(重刷) 혹은 중각(重刻) 때 보

6) 志部昭平(1990:386)에서는 <T1>과 <T1a>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특징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 ① 탈자와 이를 보충하는 보각이 있음.
- ② 그리고 이것은 언해부의 각행 첫 번째 글자에 집중됨.
- ③ 衍文이 있음.
- ④ 방점의 혼란·착오가 있음.
- ⑤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혼란·착오가 있음.

7) 志部昭平(1990)에는 (1), (2)의 정리 외에 더 많은 예를 소개하고 있으나, <T1>과 <T1a>의 어형이 동일하여 두 판본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는 예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충신도》와 《열녀도》에서 확인된 <T1>의 오류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인 <T1a>가 없으므로 검토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충신도》와 《열녀도》에만 확인되는 특징으로는 탈자와 보각, 착오 이외에 衍文(군더더기 글)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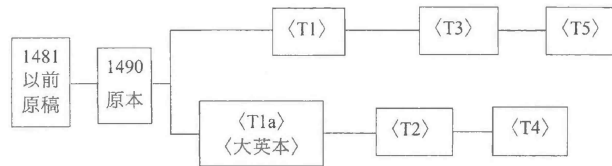
8) 옥영정(2008:45)에도 언해 부분만 탈락되거나 도판의 판형과 분리되어 인쇄된 일부 간본을 통하여 언해본 『삼강행실도』에서 언해 부분만 별도로 각판되어 인쇄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수 부분이 다시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목에 의한 부분이 내사본에서 좌우가 교체되어 있는 것은 매목을 잘못 쫓은 결과인 것 같다.”(志部昭平 1990:391)라고 하여 후쇄본(중쇄)과 복각본(중각)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았다. 다만 T1a를 분리해 6류로 설정하고, T1a에서 T1과 T2로 분화하는 계보도를 그린 것은 T1이 T1a의 복각본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석주연(2001)에서 <런던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런던본>의 성격을 <김영중본>과 가까운 자료로 판단하였다. 그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 가. 런던본은 (성암본처럼) 글자의 좌우가 뒤바뀐 경우를 거의 볼 수 없다.
 - 나. 성암본에서 보이는 오각이 김영중본에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런던본 역시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 다. 도판의 그림도 김영중본과 런던본이 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3)은 앞서 <김영중본>과 <성암본>의 차이점을 정리한 (1), (2)에 <런던본>을 그대로 대입하여 나온 결과로 <런던본>의 추가 이외에 志部昭平(1990)의 견해와 다른 입장은 아니다. 이후 志部昭平(1990)의 입장은 비교적 최근까지 수용되어 오다가 澁谷秋(2019)에 의해 계보도의 수정이 가해졌다.⁹⁾ 다음은 澁谷秋(2019)가 추정한 계보도이다.



[그림 3] 澁谷秋(2019:168)의 계보도

[그림 3]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T1과 T1a이다. 志部昭平(1990)에서는 T1a를 원간본과 직접 연결하고 T1a에서 T1과 T2가 분화되었다고 보았으나, 澁谷秋(2019)는 원간본에 T1a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T1a와 T1이 원간본에서 분화되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런던본>을 실사 후 T1a는 <런던본>과 매우 유사한데 반해 T1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히 T1a 및 <런던본>에서도 크기나 배열에서 주변 글자와 차이를 보이는 글자들이 여럿 발견되었기 때문에 계보도에서 T1a를 원간본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澁谷秋(2019)가 이러한 계보도를 상정한 주요 근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⁰⁾

9) 이상훈(2018:36)에서도 계보도를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澁谷秋(2017)의 영향을 받아 그 계보도가 거의 같다. 澁谷秋(2017)은 澁谷秋(2019)의 발표문이다.

10) <런던본>, <T1>, <T1a> 간 난상 언해부 이외의 차이에 대해서는 내제와 배열의 차이를 들고 있다(澁谷秋 2019:153). 《효자도》의 내제에서 <T1>은 ‘孝子’라는 글자가 기울어져 있는 반면, <T1a>와 <런던본>은 기울어져 있지 않다. 다음으로 《열녀도》의 8장과 9장의 배열이 서로 바뀌어 있다. 곧, <T1>은 목록에 제시된 순서대로 「禮宗罵卓」이 여덟 번째, 「貞義勿死」가 아홉 번째에 배치되어 있으나, <런던본>은 잘못 새겨진 판심의 장차순대로 「貞義勿死」(장차 八), 「禮宗罵卓」(장차: 九)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T1>의 ‘孝子’는 탈획이 심하여 글자의 기울어짐이 판목의 훼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열녀도》의 배열 문제도 편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차이점이 계보의 차이를 보이는 근거로

(4) 탈자와 보각

- 가. <T1>101a06, 07에서 제1자의 {비}와 {토} 부분, 또 101a12 제9자의 {도} 부분이 매목에 의해 보수되어 방점은 보이지 않는다. <T1>에서는 {비}와 {토}의 순서가 바뀌고, 101a06에 {토}, 101a07에 {비}가 새겨지며, 동시에 {토}와 {도}는 좌우가 뒤바뀐 문자로 되어 있다. 같은 장소의 <T1a>, <런던본>은 보각되어 있지만 올바른 순서로 새겨지며, 뒤바뀐 문자도 아니다. 제본은 <T1a>를 따른다.
- 나. <T1>106a01행에서 13행까지 첫 글자가 모두 탈락하였다. <런던본>과 <T1a>에서는 106a01행에서 106b02행까지의 제1자를 보각하여 방점은 없다. 또한 <런던본>은 106a08행 제1자를 오각, {라}여야 할 부분을 {다}로 썼다. 그러나 제본은 <T1>를 따른다.
- 다. <T1> 106b07, 08의 제1자인 {데}와 {斛}이 보각되어 있어서 방점이 없다. <T1a>도 이것에 따른다. 제본도 같다. <런던본>도 보각되어 방점이 없다. <런던본>과 <T1>에서 106b07행은 {네}로 오각되었다.¹¹⁾
- 라. <T1> 124a13행에서 124b08행까지 제1자가 보각이고 방점이 없다. <T1a>도 이것에 따른다. 제본도 같다. <런던본>도 보각되어 있지만, 124b01, 02, 06의 제1자째에는 방점이 보인다.
- 마. <런던본> 123b08행에서 12행까지의 제1자가 보각되어 있다. 123b09행은 {즈}로 새겨져야 할 부분이지만 방점이 없다. 그 외에는 올바른 어형으로 보각되어 있다. 또한 <T1>의 해당 부분이 보각이라고 하는 기술은 없지만 방점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

(5) 착오(교정과 동일할 경우 음영으로 처리)¹²⁾

該当箇所	志部(1990)による校正	<T1>	<T1a>	<大英本>
102b01	*·꺾·ㅁ·장	·꺾·ㅁ·장	·꺾·ㅁ·장	·꺾·ㅁ·장
104b07	*·열·세·히러·라	·열·새·히러·라	·열·세·히러·라	·열·세·히러·라
110a07	*·쭈·러	이러	破損	·쭈·러
110a18	*·늑	·늑	破損	·늑
111a05	*·드·외·아지·라	ㅁ·외·아지·라	드·외·아지·라	드·외·아지·라
111a11	*·뽕·논	·(口+卜)·논	·뽕·논	·뽕·논
124b08	*·사·으·를	사·으·를	사·으·를	사·으·를
125a09	*·뵈·름·과	·뵈·름·와	뵈·름·과	뵈·름·과
126a11	*·고·티·며	고·티·며	고·티·며	고·티·며
131a15	*·녀·흐·러	녀·흐어	녀·흐러	녀·흐러

(4가-라)는 志部昭平(1990)에 제시되었던 <T1>과 <T1a>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런던본>과의 차이점을 추가한 것이고(밑줄은 필자), (4마)는 澁谷秋(2019)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5) 역시 앞서 (2)에서 언급된 志部昭平(1990)의 정리에 <런던본>을 추가한 것이다.¹³⁾

특히 <T1>, <T1a>, <런던본>이 모두 갖추어진 《효자도》는 3종 모두 보각 부분이 일치하지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志部昭平(1990)이 ‘난상 언해 부가 방식’으로 언해가 별도로 판각되었다고 보고 있고 澁谷秋(2019)도 그 입장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계보도의 핵심은 언해 부분의 비교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11) <김영중본>의 해당 글자는 ‘데(ㄸ)’이고, <런던본>은 윗획이 많이 마멸된 ‘데(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암본>의 ‘네’는 오각보다 탈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2) <T1>에서, 111a11은 ‘뽕·논’인데 ‘·(口+卜)·논’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고, 131a15는 ‘녀·흐러’인데 ‘녀·흐어’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
 13) (1), (2)와 마찬가지로 (4), (5) 역시 澁谷秋(2019:154-8)의 논의에는 탈자와 보각 및 착오의 예들이 더 제시되어 있지만, <T1>과 <T1a>의 어형이 동일하여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는 예들은 본고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충신도》와 《열녀도》에서 확인된 <T1>의 오류에 대해서도 비교 대상인 <T1a>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배제하였다.

보각 내용에서 <T1>은 잘못된 어형이나 순서로 보각되어 눈에 띄는 반면, <런던본>과 <T1a>는 잘못 보각된 부분이 없고 비교적 올바르게 새겨져 두 간본이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瀧谷秋 2019:158-9).

이상으로 두 연구자의 계보도의 변화 및 최고본에 대한 계보도 설정의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1가, 나), (3가, 나), (4가, 나)에서 <T1>과 <T1a> 분화의 주요 근거로 반복된 내용은 첫 번째 이야기인 ‘민손단의와 여섯 번째 이야기인 ‘강혁거효’에서 <T1>이 보각의 오류가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T1>에서 발생한 보각의 오류가 계보도상 <T1a>와의 분화를 설정할 정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둘째는 瀧谷秋(2019)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T1a와 T1은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인데 입력본으로서의 한계는 없는가, 셋째로 그 한계로 인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없는가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T1>과 <T1a>의 관계와는 별도로 원간본과 <T1a>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瀧谷秋(2019)에서 원간본과 <T1a>의 관계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내놓지 않고 계보도의 수정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志部昭平(1990:389)은 최고본에서 확인된 탈자와 보각, 착오 등에 더하여 다음의 특징들을 바탕으로 현전하는 최고본이 원간본과 다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 (6) 가. 원간본 본래의 착오로 생각되는 것(이 T1에서 발견됨)
 - 나. 성조와 한자음의 혼란
 - 다. 인쇄가 잘 되지 않은 탈자와 탈획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오류나 보각이 거의 없는 가상의 원간본을 상정해서 <T1a>가 원간본과 다르다고 추정하는 것이 기술상 어떠한 이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우선 발견되지도 않은 원간본의 특징을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처럼 최고본과 원간본 간의 관계를 모호하게 기술하여 국내 논의에서 최고본의 성격을 다소 혼란스럽게 처리한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제기된 착오는 주로 <T1>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T1a>에서의 착오는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원간본에서도 그 정도의 착오는 있었을 수 있다. 탈자나 탈획의 경우도 <T1a>가 원간본과 판이 다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원간본의 후쇄본으로 보더라도 추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보각의 경우, 일부는 마멸로 인한 누락을 보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보각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고영근(1995)에서 ‘인/의그해’와 ‘인/의개’의 사용 비율, ‘즉자하’의 사용, ‘과’와 ‘개’의 사용 비율 및 표기법적 특징들을 근거로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번역 시기를 세종 조로 추정한 바가 있으며,¹⁴⁾ 김유범·이규범·오민석(2020)에서는 ‘너무~너무’의 혼용, 세종 조의 성조 유형과 이후 변화된 성조 유형의 공존(도흐니라[상평거거~상거평거]), 분철표기의 출현(형덕으로, 남진이) 등을 이유로 세종 이후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이 언해본 『삼강행실도』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세종대의 언어 및 표기 특성과 성종대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이 혼재되는 과정에서 원간본의 초쇄본에서도 어형의 혼란이나 성조와 한자음의 혼란 역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그

14) 이밖에 홍윤표(1998:145)에서는 이전 학자들의 추정 간행연도를 정리해 놓았다.

것이 1490년에 초쇄본으로 간행되기 전에 교정쇄에서 보각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더 앞선 판본이 발굴되지 않는 이상 T1a를 ‘원간본과 가장 가까운 판본’이라고 모호하게 지시할 것이 아니라, T1a를 원간본의 후쇄본으로 파악하는 것이 기술의 편의상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3. 기존 연구의 문제점

기존 연구들에서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이본들 중 최고본의 판본에 대해 언급했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 가. 志部昭平(1990)

- ① 1490년 원간으로 생각되는 성종초간판(成宗初刊版)[=산정언해삼강행실도(刪定諺解三綱行實圖)]의 원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 ② 원간본에 가장 인접한 판본은 <T1a>(김영중 씨 소장본)이며, <T1>(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은 이것의 복각본일 가능성이 있다.

나. 석주연(2001)

대영도서관 소장본은 성암문고본보다 김영중 씨 소장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훈(2018)

- ① 성종대 판본은 총 24종이 조사되었는데, 초간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초간본에 근접한 판본과 그 판본의 후쇄본 및 복각본들만 발견되었다.
- ② 초간본의 복각본으로 보이는 <A1>에는 김영중씨 소장본과 대영도서관 소장본이 있으며, 현전하는 성종대 판본 중에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A1>과 마찬가지로 초간본을 복각한 판본이지만 그보다 후대에 간행된 <A2>에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 있다.

라. 시부야 아키(瀧谷秋 2019)

- ① 지금까지 현존하는 ‘산정판 諺解 삼강행실도’ 중 最古本으로 생각되는 <T1a>와 <대영본>은 동일 간본이다.
- ② 지금까지 <T1a>와 가까운 연대의 간본으로 생각된 <T1>과 <대영본>은 다른 계통의 판본이고, <T1a>=<대영본>가 <T1>보다 오래된 판본이다.
- ③ <대영본>의 특징은 <T2>에 잘 반영된다.

이처럼 언해본 『삼강행실도』 이본들 중 최고본에는 <김영중본>, <런던본>, <성암본>이 있으며, 이들의 선후 관계에 대해 대략적으로 <김영중본>과 <런던본>이 <성암본>에 앞서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각 이본들의 원본을 직접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고본의 판본 연구는 나름대로의 한계와 불완전함이 동반되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간본(또는 초간본)과 최고본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이상훈(2018)에서는 성종대 판본의 초간본 계통의 판본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이들이 초간본을 복각한 것으로 언급했다. 다시 말해 최고본에 해당하는 세 판본이 모두 초간본의 복각본이라는 것인데, 이때 이들 최고본이 복각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고본 중 어느 하나가 초간본일 가능성과 더불어 이들이 복각본이 아닌, 같은 판목으로부터 인출한 후쇄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⁵⁾

둘째, <성암본>에 대해 志部昭平(1990)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성암본>에 관한 한 우리는 志部昭平(1990)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志部昭平(1990)의 치밀한 연구에 신뢰를 가지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志部昭平(1990)이 <성암본>의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는 점 때문이다. 志部昭平(1990)에서 볼 수 있는 몇 장의 사진 자료를 통해 우리는 <성암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志部昭平(1990)의 언급 내용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⁶⁾ 따라서 志部昭平(1990)이 <성암본>의 모습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이본들 중 최고본의 판본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원간본(또는 초간본)의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는 데 유의점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3. 최고본 언해문의 비교

3.1. 영인 자료 간의 비교

현재 성암고서박물관의 폐관으로 <성암본>의 조사는 어렵다. 하지만 志部昭平(1990)에는 <<효자도>> 중 ‘민손단의’와 ‘강혁거효(앞면만)’의 <김영중본>(T1a) 영인과 <성암본>(T1) 영인을 함께 실고 있어서 이 두 이야기에서만은 <김영중본>, <성암본>, <성암본>의 전산 입력본, <런던본>을 모두 비교해 볼 수 있다.¹⁷⁾ 3종의 해당 영인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최고본으로 <김영중본>, <런던본>, <성암본>을 언급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 3종 이본들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국내 논의에서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성암본>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피고 정리한 유일한 학자이자 계보도를 처음 세운 志部昭平(1990)에서는 최고본이 원간본과 달랐으리란 추정만 했을 뿐 원간본과 최고본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특히 志部昭平(1990:473-474)의 각주 26)에서는 최고본(특히 <성암본>)의 경우 난상 언해에 잘못된 인쇄나 탈락 및 보각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 난상 언해의 중심이 관심과 어긋난 경우가 있다는 점(127ab, 305ab, 310ab), 각수에 따라 난상 언해의 글씨체가 다른 부분이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전하는 최고본이 원간본과 다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계보도에도 반영되어 최고본이 원간본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논의에서는 별다른 검토 없이 최고본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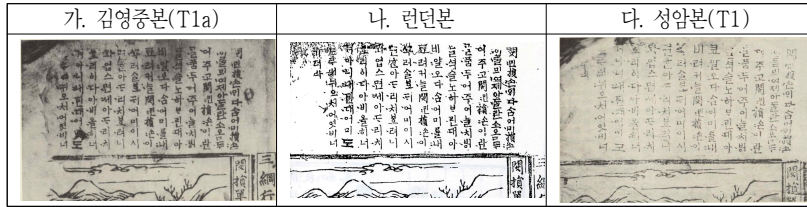
안병희(1992): 원간본(T2~T5는 후쇄본), 송일기·이태호(2001): 원간본(T2~T5는 복각본 계통), 김명남(2012): 가장 오래된 자료(성암본), 원간본(런던본), 백두현(2015): 원간본 계통(T1~T5를 아우름.), 홍윤표(1998): 원간본 추정(성암본), 박종국(2003): 원간본(T2~T5는 후인본), 김정수 역(2017): 가장 오래되고도 상태가 좋은 책(런던본), 홍현보(2017): 중종 5년(1510) 간행본(런던본), 이상훈(2018): 초간본의 복각본(김영중본과 런던본을 A1, 성암본을 A2로 구분해 다른 계통의 복각본으로 봄.), 디지털한글박물관(2021년1월9일 확인): 원간본(T2~T5는 복각본 계통)

이러한 혼란은 최고본이라는 용어가 문헌이 가진 상대적인 특징 중 하나일 뿐 문헌을 규정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志部昭平(1990)의 논의가 다소 와전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志部昭平(1990)은 최고본을 원간본의 후쇄본인지 복각본인지 고민한 것이 아니라, 최고본 중 성암본을 김영중본의 후쇄본인지 복각본인지를 단정하지 못하고 다소 느슨하게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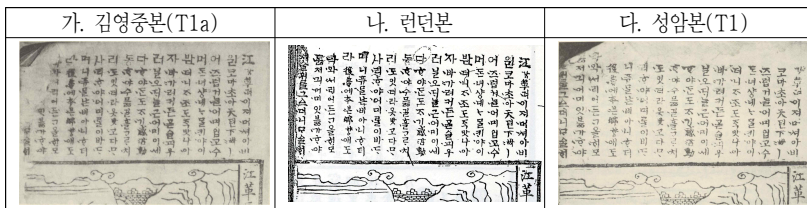
16)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7) 런던본의 영인은 김정수 역(2017)에 실린 것과 연구자들 간에 전해지는 복사본을 이용하였다. <김영중본>의 경우, 志部昭平(1990)에 실린 부분과 함께 홍윤표 선생님께서 소장 중이신 복사본을 이용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홍윤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8) '민손단의'의 영인 자료(10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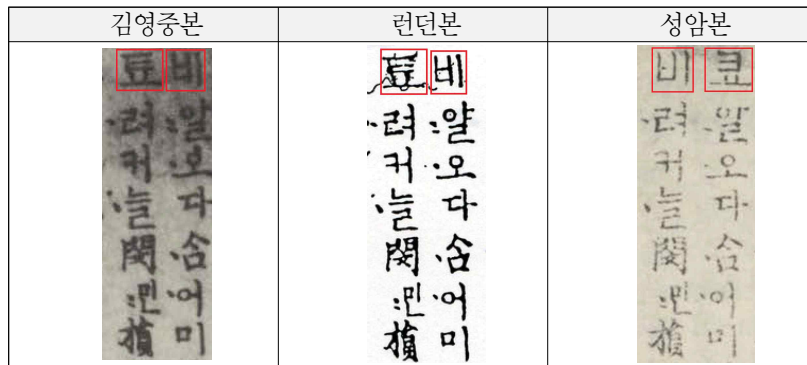
(9) '강혁거효'의 영인 자료(10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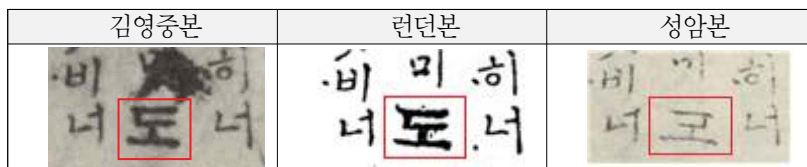
(8)과 (9)에 제시된 3종의 영인 자료를 비교해 보면 글씨체를 비롯하여 글자의 배열까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3종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후쇄본 내지 복각본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기존 연구에서, <성암본>을 <김영중본>의 후쇄본이 아닌 복각본으로 보고 계보도에서 <성암본>을 분리한 주요 근거를 두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부분만 확대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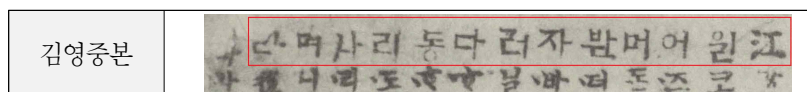
(10) 가. 101a06, 07에서 제1자의 {비}와 {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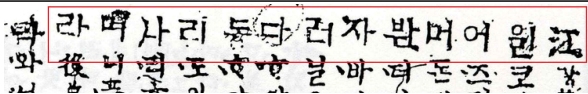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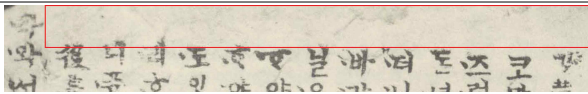


나. 101a12 제9자의 {도} 부분



다. 106a01행에서 13행까지 첫 글자






런던본	
성암본	

(10)은 모두 <성암본>에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이다. (10가)는 두 글자의 위치가 바뀌었고, (10나)는 글자의 좌우가 반전되었다. (10다)는 해당 줄의 글자가 탈각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성암본>과 다른 2종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이 계보도에서 분화를 상징할 만큼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성암본>이 앞선 두 판본의 복각본이라기보다 후쇄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를 검토하려면 <김영중본>과 <런던본>의 특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의 <김영중본>과 <런던본>을 살펴보면 매목이 <성암본>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가)의 <김영중본>과 <런던본>을 보면 ‘바’는 아래에 이어지는 ‘알오 다슴어마’의 글자 위치보다 좌측으로 치우쳐 따로 새겼음을 알 수 있다. ‘토’라는 글자 역시 아래의 ‘려 커늘’의 글자 위치보다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 곧 ‘바’와 ‘토’는 <김영중본>과 <런던본>의 인출 시기부터 이미 어떠한 이유¹⁸⁾로 매목에 의한 보각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인쇄를 거듭하여 떨어진 것을 <성암본>에 와서 조약하게 다시 새겨 붙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10나)의 <김영중본>과 <런던본> 역시 ‘도’의 글씨체, 크기, 위치 등에서 주변 글자들과 차이를 보여 이미 매목된 글자임을 알 수 있고, (10다)의 <김영중본>과 <런던본>도 아랫줄의 글자들과 비교해 보면 매목에 의한 보각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매목된 부분의 재매목이나 재탈각은 그것이 비록 조약할지라도 후쇄본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복각본은 새로운 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목된 부분이 다시 매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두 개의 이야기에서 세 군데가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T1계열과 자형이 비슷한 T2, T3에서 해당 부분의 자형이 보각된 것처럼 보여도 <성암본>과 같은 재매목이나 재탈각이 보이지 않는 이유 역시 T2와 T3는 판을 새로 새긴 반면, <성암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성암본>이 <김영중본>의 후쇄본이 아닌 복각본임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서 <김영중본>과 <런던본>의 매목 자리에 <성암본>이 한 번 더 보각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글자들의 비교는 <성암본>이 <김영중본>과 <런던본>의 후쇄본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위치	교정자	김영중본 <T1a>	런던본	성암본<T1>		교정사항
				영인본	志部昭平 (1990) 입력본	
101a01_11	:손				:손	자확 (런던본,T1)

18) 인쇄를 거듭해서 판목의 훼손으로 매목했을 수도 있고 내용 수정이나 교정을 위해 매목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101a04_01	·궐				·궐	자획 ㄱ'(T1)
101a05_01	·물				·물	자획 ㅁ' (런던본, T1)
101a08_01	·우				우	방점(T1), 자획 ㅍ'(T1)
101a08_04	·보				보	방점(모두), 자획 ㅍ'(T1)
101a09_01	·면				면	방점(모두), 자획 ㅁ'(T1)
101a09_04	·드				·드	자획 ㅍ'(T1)
101a10_01	·와				·와	방점(T1)
101a14_03	·라				라	자획 ㄹ'(T1) 훼손(T1a)
106a01_02	강				강	자획 ㅇ'(T1)
106a01_04	·격				·격	자획 ㄱ' (런던본, T1)
106a01_07	·머				·머	자획 ㄴ'(T1)
106a05_09	·나				나	방점(모두)
106a07_10	·세				·세	자획 ㅍ' (모두)
106a08_02	·ㅎ				·ㅎ	자획 ㅎ'(T1)
106a11_09	바				바	자획 ㅍ'(T1)
106a13_03	·흙				·흙	방점(모두)
106a13_06	·본				·본	자획 ㅁ' (모두)

[표 1] <김영중본>, <런던본>, <성암본>(입력본 포함)의 오류 비교

[표 1]은 종이의 훼손으로 인해 비교가 어려운 부분은 가급적 배제하고 ‘민손단의’와 ‘강혁거효’에서 세 판본 중 어느 곳이든 교정이 필요한 글자가 있다면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우리는 [표 1]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교정사항에 (모두)로 제시한 101a08_04(보 → ·보), 101a09_01(면 → ·면), 106a05_09(나 → ·나), 106a07_10(세 → ·세), 106a13_03(·흙 → :흙), 106a13_06(:본 → :본) 등을 보면, 세 판본의 오류가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방점의 오류나 글자의 탈획이 세 판본의 동일 위치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세 판본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101a01_11(:손), 101a04_01(·궐), 101a05_01(·물), 101a08_01(·우), 101a08_04(·보), 101a09_01(·면), 101a09_04(·드), 101a10_01(·와), 101a14_03(·라), 106a01_02(강), 106a01_04(·격), 106a01_07(·머), 106a08_02(·ㅎ), 106a11_09(바) 등을 통해서 탈획의 정도가 <김영중본>, <런던본>, <성암본>의 순으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영중본>에서 <런던본>으로의 탈획은 101a01_11(:손>소), 106a11_09(바>바) 등 일부 예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만을 보이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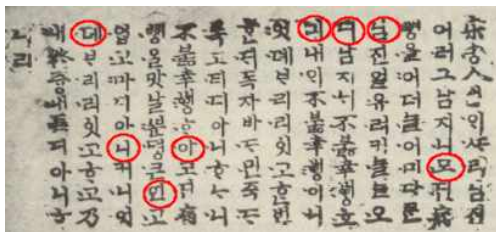
<런던본>에서 <성암본>으로의 탈획은 101a05_01(물>ㄹ), 101a09_04(ㄷ>ㄷ), 101a14_03(라>ㄹ), 106a11_09(바>비) 등과 같은 자획의 탈획뿐만 아니라 101a08_01(·쑤>?)와 같은 방점의 탈획도 확인되어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탈획의 정도성은 기존 논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실로 <성암본>이 <런던본>에 비해 시간적 간극이 큰 후쇄본일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끝으로 <성암본>의 영인 자료와 전산 입력본 간의 차이는 101a01_11(:소 - :손), 101a04_01(·늘 - ·줄), 101a05_01(ㄹ - 물), 101a08_01(? - 쑤), 101a09_04(·ㄷ - ·ㄷ), 101a14_03(리 - 라), 106a01_02(기? - 강), 106a01_04(겨 - 격), 106a07_10(·세 - ·세), 106a08_02(·ᄒ - ·ᄒ), 106a11_09(비 - 바), 106a13_06(:분 - :분) 등에서 확인된다. 志部昭平(1990)에서 상세한 교주와 함께 비교적 정확하게 <성암본>을 입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력본이 2차 자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분적인 탈획으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글자는 별다른 교주 없이 교정자를 본래의 글자인 것처럼 본문에 제시하였는데,¹⁹⁾ 이런 예들을 입력본만 참고해서 나머지 판본들과 비교할 경우 자칫 <성암본>이 앞선 두 판본보다 상태가 좋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특히 106a07_10(·세 - ·세), 106a13_06(:분 - :분)의 경우는 <김영중본>과 <런던본>에도 탈획된 어형이 출현하여서 전산 입력본만으로 세 판본을 비교할 경우 앞서 살펴본 탈획의 방향성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 <성암본>의 계통 파악에 혼선을 주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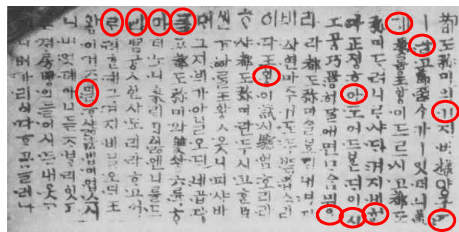
그러므로 <김영중본> 내지 <런던본>에서 자획의 부분적인 탈획이 있을 경우, <성암본>의 입력본이 바르게 적혀 있더라도 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암본>(엄밀히는 <성암본>의 전산 입력본)이 지닌 특수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영인 자료가 없는 <성암본>의 전산 입력본을 보면 <성암본>은 <김영중본> 및 <런던본>과 매우 닮아 있고 탈획의 정도가 특히 방점을 중심으로 <성암본>으로 갈수록 심해짐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김영중본>과 <런던본>에서 확인되는 오류가 <성암본>의 전산 입력본에서 바로 잡혀 있는 경우도 드물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성암본>의 전산 입력본에 대해서 단순히 차이를 보이니까 계보도상에서 분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²⁰⁾

- 19) 그러나 106a15_01의 글자를 ‘ㄷ’ (교정자: ㄷ)로 입력하는 등 부분적으로 탈획의 모습을 [] 안에 제시한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에 대한 범례에서도 “「본문」은 []에서 보충한 부분을 포함하면 거의 「底本」(필자: <성암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성암본>의 원래 모습을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 최고본 3종의 비교를 통해 파악한 논의들은 志部昭平(1990)에 제시된 《열녀도》의 영인 자료 ‘송녀불개’와 ‘미처담초’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영인 자료에서 탈획을 확인할 수 있으나, 志部昭平(1990) 전산 입력본에는 이러한 양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송녀불개’ 12열의 ‘니’처럼 영인 자료에는 방점이 없음에도 전산 입력본에는 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성암본>이 <런던본>에 비해 탈획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나, 두 판본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런던본>의 실물을 확인한 후에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성암본> ‘송녀불개’(志部昭平, 1990: 402)



<성암본> ‘미처담초’(志部昭平, 1990: 399)

3.2. 이후 판본을 통한 비교

그동안 언해본 『삼강행실도』 연구에서 志部昭平(1990)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성암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은 <성암본>을 대신하여 하나의 이본처럼 다루어졌다. 그러나 志部昭平(1990)에 수록된 일부 <성암본> 영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전산 입력본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절에서는 《효자도》를 중심으로 최고본 이후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성암본> 전산 입력본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²¹⁾

<성암본>에 나타나는 일부 착오는 <김영중본>, 나아가 <런던본>과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성암본>의 명확한 오류는 이후 판본에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후 판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지부(1990) 교정	성암 입력본	김영중	런던	T2	T3 ²²⁾	T4	T5 ²³⁾
102b 01	·없 マ ·장	·없 マ ·장						
104b 07	·열 :세 ·히 러 ·라	·열 :세 히 러 ·라			낙장			
110a 07	·우 ·러	이 러						
110a 18	·늑	·늑	혜손					

21) 본고에서 살펴본 최고본 이후 판본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志部昭平(1990)의 계보를 활용하여 이본을 분류하였다.

T2: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296J] (이후 <만송296J>)

T3: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296] (이후 <만송296>)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296C] (이후 <만송296C>)

고려대학교 만송문고본[296F] (이후 <만송296F>)

T4: 駒澤(고마자와) 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灌足632] (이후 <고마자와본>)

T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296H] (이후 <고대296H>)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一簣貴170.951-Se63s] (이후 <일사본>)

22) 본고에서 살펴본 T3본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 분명하게 판독 가능한 이본의 것을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각 어절에 대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다.

102b01, 104b07, 110a07, 110a18: <만송296C>

111a 05	드 ·외 ·아 ·지 ·라	드 ·외 ·아 ·지 ·라						
111a 11	·쁘 ·논	·쁘 ·논						
124b 08	사 ·으 ·를	사 ·으 ·를						
125a 09	·복 ·롬 ·과	·복 ·롬 ·과						
126a 11	고 ·티 ·며	고 ·티 ·며			낙장			
131a 15	너 ·흐 ·러	너 ·흐 ·러						

[표 2] <성암본>의 착오 부분의 반영 양상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 따르면 <김영중본>과 <런던본>은 T2, T4로 이어지고, <성암본>은 T3, T5로 이어진다. 하지만 위의 [표 2]에 따르면 T3는 <성암본>의 착오를 대체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다.²⁴⁾ 그러나 T5는 104b07 ‘열·세·히러·라’를 제외하면 <성암본>의 모습이 그대로

111a05, 124b08, 125a09, 126a11: <만송296F>

111a11, 131a15: <만송296>

23) 본고에서 살펴본 T5본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 분명하게 판독 가능한 이본의 것을 이미지로 제시하였다. 각 어절에 대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다.
























102b01, 104b07, 111a11, 124b08, 125a09, 126a11, 131a15: <일사본>

110a07, 110a18, 111a05: <고대296H>

24) 110a07 ‘·우·러’의 경우 ‘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암본>의 ‘이러’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로 옮긴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나타나 있다. 물론 志部昭平(1990)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산 입력본과 T5가 유사하다는 것이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이 옳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본들과 달리 T5에서만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암본>의 전산 입력본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T5의 형태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암본>과 T5의 비교를 토대로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을 일부 검토하면 다음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제기된다.

	지부(1990) 교정	성암 입력본	김영중	런던	T2	T3 ²⁵⁾	T4	T5 ²⁶⁾
126a 04_05	·물	·물			낙장			
128a 01_02	씨	씨						
128a 05_08	·때	·때						
129b 05_01	령	령						

[표 3] 志部昭平(1990) 전산 입력본에 대한 이본 양상

志部昭平(1990)에서 ‘물, 씨, 때, 령’으로 입력한 자형이 다른 이본에서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성암본>과 가까운 판본으로 판단되는 <김영중본>과 <런던본>에는 ‘물, 씨, 떼, 령’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최고본 이후 판본의 양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T5에서 ‘물, 씨, 떼, 령’으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계보도에서 T5는 <김영중본>이나 <런던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들과 유사한 자형을 보인다는 것은 <김영중본>이나 <런던본>과 최고본으로 다루어지는 <성암본>의 해당 자형이 입력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즉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志部昭平(1990)에서 <성암본>의 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민손단’와 ‘강혁거효’를 대상으로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최고본에 해당하는 <성암본>과 <런던본>, <김영중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매목 위치와 보각 여부, 탈획 상태 등을 토대로 <성암본>이 다른 두 판본의 후쇄본일 가능성을 제기

25) 각 어절에 대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다.
126a04_05, 128a01_02, 129b05_01: <만송296C>
128a05_08: <만송296F>

26) 각 어절에 대한 이미지 출처는 다음과 같다.
126a04_05, 128a01_02, 129b05_01: <고대296H>
128a05_08: <일사본>

하였다. 그리고 두 이야기에 대한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을 검토한 결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글자는 별다른 교주 없이 교정되어 입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후대 판본과의 비교를 통해 <성암본>의 전산 입력본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동안 언해본 『삼강행실도』 연구는 자료 접근의 제한으로 <성암본>에 대한 志部昭平(1990)의 전산 입력본을 <성암본>인 것처럼 여겨 왔다. 그러나 치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志部昭平(1990)의 언급 내용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성암본> 전산 입력본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본과의 비교 작업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원간본의 올바른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 유익함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니시 도시오(1995), 「삼강행실효자도의 한문과 언해문 대조」, 『국어학논집』 2, 태학사, 9-22.
- 고영근(1995), 「<삼강행실도>의 번역 연대」,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365-372.
- 김명남(2012), 「삼강행실도 언해본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경(2009), 「고려본 효행록과 중국의 이십사효」, 『한국문화』 4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14.
- 김영수·진인주(2004), 「『삼강행실도언해』의 번역상의 특징」, 『중국조선어문』 6,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9-13.
- 김원용·김익현·임창제 역(1982), 『삼강행실도 : 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김유범(2006), 「중세국어 문법 교육과 언해본 『三綱行實圖』」, 『새얼어문학회』 18, 새얼어문학회, 185-211.
- 김유범(2007),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1) : 《효자도》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3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465-489.
- 김유범(2008),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2) : 《충신도》를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65-297.
- 김유범(2011), 「행실도(行實圖)류의 역주 방법론 연구」, 『국어사 연구』 12, 국어사학회, 23-48.
- 김유범(2015),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 분석(3) : 《열녀도》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연구』 66, 민족문화연구원, 317-351.
- 김유범·이규범·오민석(2020),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定本) 수립을 위한 연구 -《효자도》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89, 한국어학회, 123-168.
- 김정수 역(2017), 『역주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철상(2008),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中國本 古書の 가치」, 『한국학논집』 3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21-234.
- 백두현(2015), 『한글문헌학』, 태학사.
- 석주연(2001), 「대영도서관 소장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17-137.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여찬영(2005a),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한문 원문 연구」,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53-75.
- 여찬영(2005b), 「행실도류 ‘제상출렬(堤上忠烈)’ 이본류의 번역언어학적 연구」, 『한국말글학』 22, 한국말글학회, 69-95.
- 여찬영(2005c), 「행실도류 ‘길재항절’의 번역언어학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35, 언어과학회, 65-88.
- 오민석(2011), 「晩松文庫本 『譯語類解』下 研究」, 『譯學과 譯學書』 2, 141-187.
- 오민석(2013), 「《清語老乞大新釋》 諸異本 간의 판본 비교 연구 : 선본 확정을 위한 기초 작업」, 『국어사 연구』 17, 국어사학회, 301-336.
- 오민석(2016), 「《清語老乞大新釋》 諸異本 간의 판본 비교 연구 : 선본 확정을 위한 기초 작업 2」, 『우리말연구』 46, 우리말학회, 179-205.
- 오민석·김유범·이규범(2020), 「언해본 『삼강행실도』 효자도의 원전(原典)과 텍스트 성립 과정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 30, 국어사학회, 187-238.
- 옥영정(2008), 「《삼강행실도》 판본의 간행과 유통」,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31-62.
- 유경민(2014),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언해문의 어휘와 번역 양상 연구 : 고빈도어인 ‘사람’ 관련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8, 한국언어문학회, 29-55.
- 윤호진 옮김/권보·권준 엮음(2017), 『효행록孝行錄』, 지식을만드는지식.
- 이규범(2015), 「『삼강행실도』의 국어사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 연구 : 언해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42, 우리말학회, 167-200.
- 이규범(2018), 「국어교육을 위한 행실도류의 분석 및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민(2017), 「조선 초 ‘칙찬권계서(勅撰勸戒書)’의 수용과 『삼강행실도』 편찬」,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7-65.
- 이상훈(2018),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서지학적,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2011), 「행실도류 언해의 분석적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호·송일기(2003), 「초판본 삼강행실효자도의 편찬과정 및 판화양식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5, 한국서지학회, 407-446.

- 임동석 역주/곽수정·고월차 집록(2012), 『이십사효』, 동서문화사.
- 장춘석(2004), 『중한 효행집의 연구』, 신성출판사.
- 최경훈(2017),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현황과 주요 자료」, 『국어사 연구』 25, 국어사학회, 133-165.
- 홍운표(1998), 「『삼강행실도』의 서지 및 국어사적 의의」, 『진단학보』 85, 진단학회, 141-162.
- 홍현보(2017), 「『삼강행실열녀도』의 출처」, 『한글』 316, 한글학회, 251-300.
- 澁谷秋(2017), 「三綱行實圖大英本の特徴と系譜の再考」, 朝鮮學會第68回 大會發表資料.
- 澁谷秋(2019), 「『三綱行實圖』大英本の特徴と系譜の再考」, 『朝鮮學報』 249-250, 朝鮮學會, 139-171.
- 志部昭平(1990), 『언해 삼강행실도연구』, 고려서림.
- 志部昭平(1989), 「언해삼강행실도의 전본과 그계보 (諺解三綱行實圖の傳本とその系譜)」, 『동양학』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65-115.
- 肖瑤楚(2015), 「『孝順事實』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년도 겨울 국어사학회 겨울학술대회

2021. 1. 14.(목) 09:00~18:30 zoom

토론: 언해본 『삼강행실도』 최고본(最古本)에 대한 비교 연구

- 《효자도》를 중심으로 -

서형국(전북대학교)

최신 연구를 담은 발표문을 접하고 발표를 맡은 여러 연구자를 비롯하여 사계의 연구진이 펼친 새로운 관점과 고민을 만나게 되어 토론의 직분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발표문(‘이 연구’)을 접하면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부득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토론문으로만 뵈게 되어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연구는 현전하는 『삼강행실도』 가운데 원본에 가장 가까운 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하지 않는 『삼강행실도』의 원본에 가까운 형태를 찾기 위하여 형태와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부 쇼헤이(智部昭平) 교수의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부야 아키(澁谷秋) 교수의 연구에서 그 선후 관계를 달리 볼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부 교수의 연구는 정전(整典) 확립을 시도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정전 확립’을 달리 말하면 원간본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언어를 재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시부 교수의 서지 검토가 서지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이는 시부야 2019, 이 연구에서 공히 전제), 그 목적이 언어 재구에 있는 것이라고 토론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형태)서지학에 있느냐 언어학에 있느냐에 따라 논점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국도서관본¹⁾ 『三綱行實圖』가 『續三綱行實圖』와 합철, 양장되어 있는 점은 서지학적으로 곤란을 야기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도서관본이 내용상 최고본에 가깝다는 점은 발표자의 한 분인 김유범 교수도 이전에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언어에 주목한 전언이고, 늘잡아도 내용서지학의 결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아쉬워하고 있듯 원전 실사는 논의 전개에 중요한 관건입니다. 몇 장 되지 않는 영인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서지나 언어학의 논점과 구분하여, 실사를 대비하는 형태서지의 관건을 갈무리하는 연구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교수의 “明宗宣祖初葉 刊”(시부야 2019에서 재인용)이라는 서술은, 합철된 『속삼강행실도』와 형태서지적으로 거의 같다는 표현으로서, 내용서지와 배치되기만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에 소장된 책을 ‘런던본’으로 지칭하는 이 연구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런던에 다른 이본이 발견되어 있지 않으므로 ‘런던본’으로 지칭해서 혼란을 겪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처나 소장자(여기서는 기증자 어니스트 사토)의 이름을 따는 관례를 따라 토론자는 ‘영국도서관본’으로 불러 둡니다.

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지 연구가 늘 단점이기만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이본들이 같은지, 비슷한지, 영 다른지를 영상 기기를 동원하여 영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뒤에 단 [참고자료]에서 이런 가능성을 제시해 봅니다. (여기서 쓴 자료는 모두 이 연구에서 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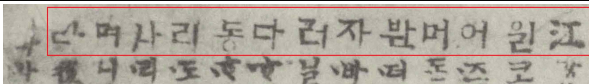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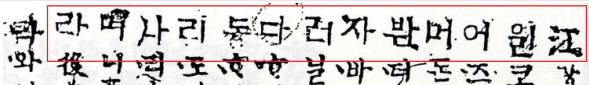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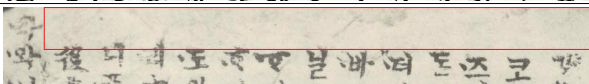
첫째 참고자료에서 ‘閔損單衣’라는 제목 글자와 그 위 상변(광곽)을 언해문과 견주어 보면 김영중본(T1a)과 영국도서관본이 같은 부류, 성암본(T1)이 다른 부류로 볼 가능성을 검증 여부를 논점으로 하여 제안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적어도 후쇄본 여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될 듯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곳에서 언해와 본문·그림을 견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참고자료에서 언해 첫 글자인 ‘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언해와 상변(광곽)의 간격이 다를 수 있음을 관건으로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암본(T1)이 다른 두 본에 비해 간격이 더 먼 듯하고 이를 실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고자료는 각 영인과 실척의 비율 문제, 상대적 위치 조정 문제 등이 기술적으로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정은 신부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책의 이본으로 알려진 책이 광곽의 높이 측정에서 오차를 보이는 일은 아주 흔한 일임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영인의 좌우 기울기가 다를 수도 있고, 사진도 확대 부분과 축소 부분이 편중되어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이런 기법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는 영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실사에서 점검할 관건을 어느 정도 추려볼 수 있고, 이런 관건을 정비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점입니다.

보각 부분도 복각과 대조하여도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본들을 대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번각을 하여 만들어낸 복각본은 관하본보다 획이 두껍고 글자가 투박해진다는 것이 통론인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10다)를 여기에 다시 옮겨 봅니다.

(10) 다. 106a 01행에서 13행까지 첫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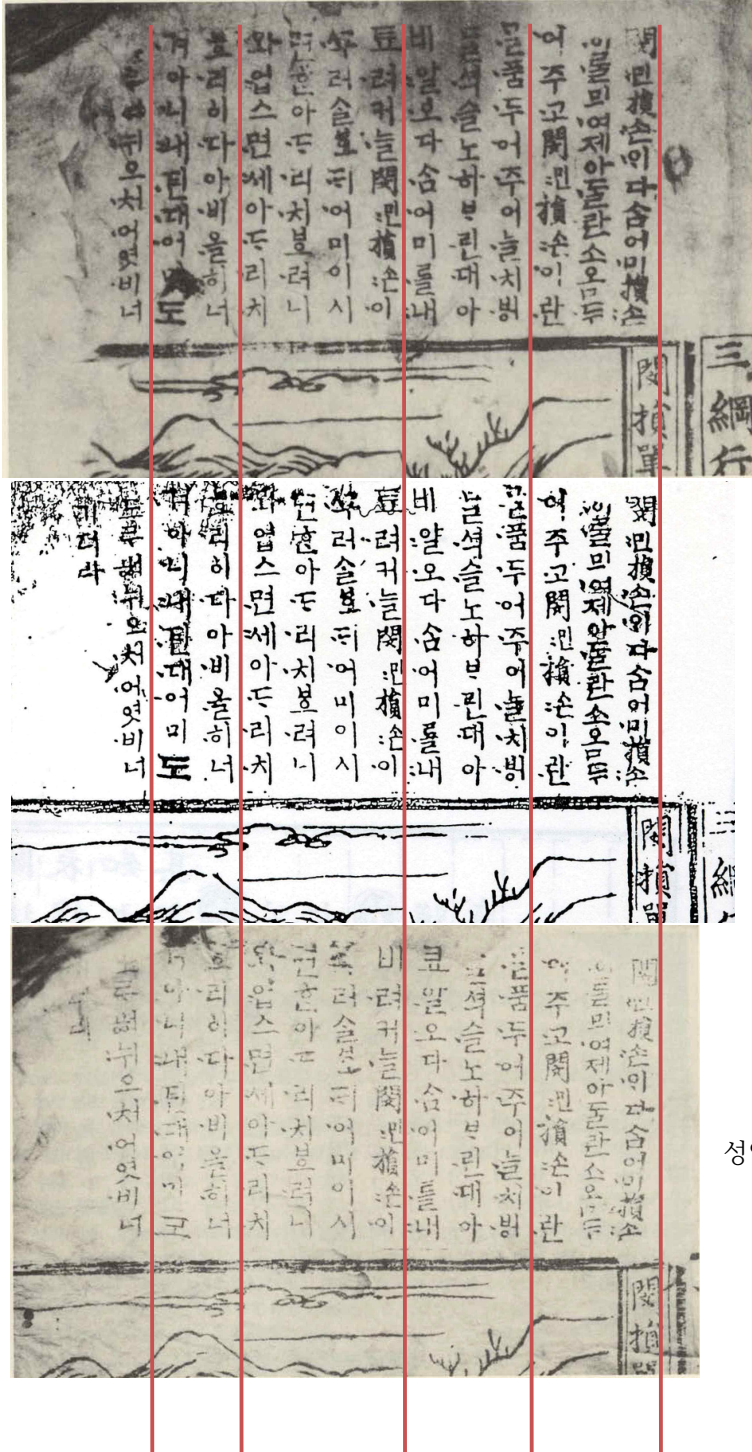
김영중본	
런던본	
성암본	

성암본과 대조적으로 김영중본과 런던본에서 보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글자는 보각된 곳이 크고, 글씨체도 다릅니다. 그러나 획의 두께는 큰 차이를 보기 어렵고, 어떤 곳은 보각 부분이 더 가늘습니다.

매목된 판목은 고려대학교 소장 판목에서도 발견되므로 매목이라는 기교를 사용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쇄본의 글자만으로 ‘토’, ‘비’, ‘도’ 등의 글자가 다른 이본과 비교하여서 특수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고, 다른 글자들이 같아 보인다는 점이 ‘매목’을 추정하는 강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1] <민손단의> 행격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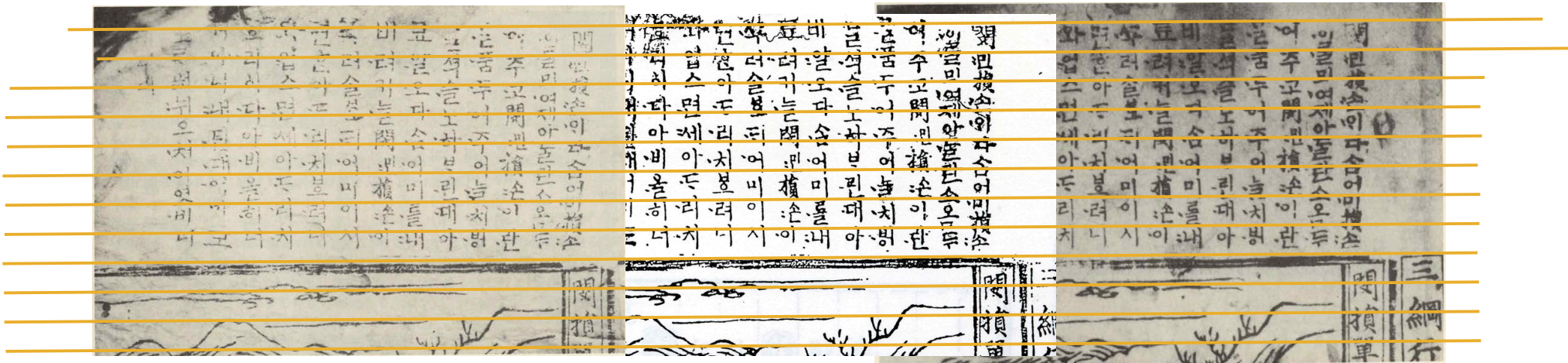


김영중본
(T1a)

영국도서관본

성암본(T1)

[참고 자료 2] <민손단의> 괘선 내외 대조



성암본(T1)

영국도서관본

김영중본(T1a)

‘휴지(休紙)’의 어휘사

마원걸 (서울대학교)

1. 서론

이 글은 韓國 漢字語로 분류되는¹⁾ ‘휴지’의 어휘사를 기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훈민정음> 반포 이전의 문헌에서 ‘休紙’로 표기되었던 ‘휴지’는 이후의 한글 문헌에서 ‘휴지, 휴디, 슈디, 슈지, 수지’ 등 다양한 어형을 보이며, 후기 중세 및 근대, 개화기를 거쳐 현대 한국어에 이른다. 오늘날 ‘휴지’는 (1)에서 보듯 ‘폐지’ 또는 ‘화장지’를 가리키며, ‘휴지시행(休紙施行), 휴지장(休紙張), 휴지통(休紙桶), 휴지화(休紙化)’ 등 여러 단어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휴지-통’을 구성하고 있는 ‘휴지’의 경우, ‘폐지’나 ‘화장지’ 등 종이류 뿐 아니라 외연을 확장하여 ‘폐기물’ 전반을 뜻하기도 한다. 이에 본고는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통시적인 차원에서 ‘休紙’의 의미적 변천, 특히 가치 하락 양상들을 考究해 보기로 한다.

(1) <표준> 휴지²(休紙) 「명사」

「1」 쓸모없는 종이. 「비슷한말」 폐지(敗紙)

¶ 휴지 조각. / 휴지를 함부로 버리면 못쓴다.

「2」 밀을 닦거나 코를 푸는 데 허드레로 쓰는 얇은 종이.

¶ 갑자기 코피가 흘러 휴지로 코를 막았다.

2.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休紙’

어휘의 의미 변화는 대개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므로, 전시기의 영향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한글로 적힌 ‘휴지’는 16~17세기부터 문증되지만, 朝鮮朝의 건립과 함께 작성된 <朝鮮王朝實錄>(이하 <실록>)의 기록만 보더라도 ‘休紙’는 태종 15년(1415)부터 고종 42년(1905)의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맥에서 꾸준히 나타난다. 요컨대 2장에서는 기록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실록>을 중심으로,²⁾ ‘休紙’의 용법과 의미를 분석해 보려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타 문헌의 예문도 언급할 것이다.

<실록>에서 ‘休紙’는 태종 15년(1415) 7월 25일자 기사에 최초로 등장하며(2a), ‘休紙’에 대한 해석은 세종 7년(1425) 8월 22일자 기사의 협주(2b)에 보인다.

- (2) a. 戶曹請以前日議政府上納各道休紙, 造楮貨紙, 以減外方造紙之弊, 從之. (호조(戶曹)에서 전날에 의정부에 상납한 각도의 휴지로써 저화지(楮貨紙)를 만들어서 외방에서 종이 만드는 폐단을 줄이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 15 1415, 7.25>
- b. 各道一年軍器監納休紙元加定之數, 共一千七百五十卷及一千二十斤, … 【古文書不用者, 俗謂之休紙.】 (각도에서 1년 동안에 군기감(軍器監)에 납부하는 휴지(休紙)의 원래 수량과 추가로 정한 수량이 합

1) 참고로 ‘休紙’는 <韓國漢字語辭典>(1992:277)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예문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休紙 휴지】 ● 쓸모 없어서 폐기한 문서. 《朝鮮王朝實錄 29, 7年8月戊子》各道一年軍器監納休紙元加定之數, 共一千七百五十卷(古文書不用者, 俗謂之休紙). ● 못 쓰게 되어 버리는 종이. 《義禁府謄錄, 正祖己亥4月18日》休紙下 罪人李鎮厚·李鎮寬, 右人等拿來囚.

2) 홍운표 외(1993:511)에서는 <실록>을 ‘15세기에 사용된 고유 한자어휘의 실상을 가장 풍부하게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본고의 <실록> 관련 원문 및 현대어역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DB를 참조했다.

- 계 1천 7백 50권과 1천 20근인데, 옛 문서로 소용없는 것을 휴지라 함.) <세종 7¹⁴²⁵, 8.22>
 c. 一, 一朔紙甲十領, 一年一百二十領。 作塑休紙一千二十斤, 裏用表紙一百二十卷…。 (일삭(一朔)에 종이 갑옷 열 벌이면 1년에는 1백 20벌인데, 본뜨는 휴지(休紙) 1천 20근, 이면(裏面)에 쓰이는 표지(表紙)가 1백 20권,) <세종 6¹⁴²⁴, 5.25>

(2a)는 각 도에서 상납한 '休紙'가 당시의 지폐인 '楮貨'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2b)와 (2c)는 軍器監 등에 상납된 '休紙'가 朔紙甲을 비롯한 갑옷 제작에 쓰였음을 보여준다. 그중 (2b)의 '古文書不用者'는 '休紙'의 사전적 해석과 관련 연구의 증거가 되어 왔다. 이 협주에 대하여 <국역본 조선왕조실록>(이우성 역, 1969)에서는 ①'옛 문서로 소용없는 것'으로, <韓國漢字語辭典>(1992:277)에서는 ②'쓸모 없어서 폐기한 문서'로, 정선영(1986:191)에서는 ③'일단 사용했던 종이'로 해석했다. 이밖에 <실록>의 예는 아니지만, 정궁식 외(2019:123)에 조선조 시기李文樾의 <默齋日記>에 나타난 '休紙'(3a-b)를 해석한 대목이 있어 함께 보기로 한다. (3)에서 보듯 해당 문맥의 '休紙'를 ④'활용 기간이 지난 공문서' 정도로 파악했다.

- (3) a. ○以問安求休紙簡, 付命卜達使道前。(문안을 하고 휴지(休紙)를 구하는 편지를 요청하여 명복(命卜)에게 주어 관찰사에게 전하게 했다.) <默齋日記 1551.9.3.> [주 886] 휴지(休紙) : 활용기간이 지난 공문서를 말한다. 문서의 기능을 다했다 해서 쉬는 종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지의 연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b. ○推休紙于州來, 四冊一百斤也。(성주 관아에 가서 휴지(休紙)를 가져왔는데 4책(冊) 100근(斤)이다.) <默齋日記 1552.1.4> [주 964] 휴지(休紙) : 공문서 중에 기한이 지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많은 양반들이 관아에서 휴지를 얻어다 활용하였는데, 이문건 역시 성주 관아에서 이를 받아다 쓰고 있다.

위의 네 가지 해석은 다시 '문서로서의 가치 유무'에 치중한 ①, ②, ④와 '종이의 新舊 여부'에 치중한 ③으로 대별할 수 있다. 아울러 위의 문맥으로 보아 '休紙'가 문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해서, 또는 이미 쓰고 난 종이라 해서 바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他用の 대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실제로 <실록>과 洪柱元의 <無何堂遺稿>에서 발췌한 (4)의 예문에는 각각 '休紙'를 '久藏(오랫동안 간직)'하고, '偶閱(우연히 열람)'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休紙'가 쉽게 버려지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 (4) a. 臣意, 以京外久藏簿書休紙, 多輸本道, 令節度使製造, 赴防軍士中有武才人, 宜先分給何如?(신의 생각으로는 서울과 외방의 오래 간직한 문서와 휴지를 본도로 많이 실어다가, 절도사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방수(防戍)에 나오는 군사 중 무재(武才)가 있는 자에게 먼저 나누어 줌이 어떨까 하옵니다.) <연산 5¹⁴⁹⁹, 10.23>
 b. 垂死病中, 偶閱休紙。得王大監先府君遺墨, 迸淚悲吟。何異杜工部追思高蜀州之感也。(시름 시름 앓던 중에 우연히 휴지를 읽다가 왕대감 선부군의 유묵을 얻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읊었다. 두공부가 고촉주를 그리는 마음과 어찌 다르겠는가.) <無何堂遺稿冊四^{1672이전} 30:447a>

이처럼 '休紙'가 타용의 대상, 즉 [폐기 문서] 또는 [이면지] 정도로 파악되는 (2-4)와 달리, 일부 문맥에서 '休紙'는 그 외형적 측면, 즉 종이로서의 '재질'에 초점이 놓이기도 한다. 먼저 아래의 예문 (5)를 보기로 한다.

- (5) a. 臣爲軍器判官時，適因倭變，造火炮之具。令遠監掌，其所入厚紙，盡數偷用，以休紙填內，外施厚紙，凡四百餘箇。(신이 군기 판관(軍器判官)으로 있을 때, 마침 왜변으로 인하여 화포(火炮)를 만드는 제구를 유원에게 맡겨서 감독하게 하였더니, 거기에 드는 휴지(厚紙)를 모두 훔쳐 쓰고서 휴지(休紙)로 안을 채운 다음에 겉에만 후지로 감아 놓은 것이 무릇 4백여 개나 되었습니다.) <중종 6 1512, 12.10>
- b. 凡啓辭，一覽後則便爲休紙。且政院自有政院應用之紙，御供紙非政院所敢下手之紙也。政院敢取供上紙而用之，猥濫甚矣。前日政院所用紙過好，勿爲如是事傳教，非止一再，而政院不有傳教，猶踵弊習 (대체로 계사(啓辭)는 한 번 보고 나면 바로 휴지가 된다. 그리고 정원은 정원이 사용하는 용지가 따로 있으니 어공지(御供紙)는 정원이 쓸 수 있는 종이가 아니다. 그런데 정원이 감히 공상지(供上紙)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으니 매우 외람되다. 지난번 정원이 사용한 종이가 너무 좋아서 이처럼 하지 말라고 진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원이 진교를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폐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선조 40 1607, 9.1>
- c. 近觀政院所用啓辭等紙，其品色之好，無異於供上紙，極爲未安。各司所用，自有楮注、草注紙，而況如啓辭紙，一覽之後，便爲休紙，何用濫費過厚之紙哉？先朝屢下此教，而猶踵弊習。(근래 정원이 계사 등에 쓴 종이를 보건대 그 품질과 색깔의 좋음이 공상지와 다름이 없으니 극히 미안한 일이다. 각사에서 쓰는 용지는 저주지(楮注紙)와 초주지(草注紙)가 있으며 더구나 계사지 같은 것은 한 번 본 후 휴지가 되는 것인데 어찌 지나치게 두꺼운 종이를 남용하겠는가. 선조께서 누차 이에 대해 하교하셨는데도 오히려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 <광해 1 1608, 4.24>

(5a)의 ‘休紙’는 양질의 두꺼운 종이인 ‘厚紙’와 대립을 이루면서 ‘얇은 종이’ 또는 ‘下品の 종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5b-c)는 上品의 ‘御供紙’와 ‘供上紙’를 ‘休紙’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休紙’란 보통 재질이 얇거나 下品の 종으로 충당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正祖의 <己未御札>에 보이는 (6a)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休紙’의 초점이 ‘재질’에 집중될 경우, 기존에 보았던 ‘폐기 문서’ 또는 ‘일단 사용했던 종이’라는 의미와 달리, ‘전혀 쓰지 않은 새로운 종이’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典客司日記>의 ‘白休紙’(6b) 등이 그 방증으로 된다. 따라서 (6c)와 같이 英祖代의 <承政院日記>에 자주 등장하는 ‘休紙下’는 ‘白休紙’처럼 얇은 재질의 새 종이에 유지를 적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6) a. 潔厚簡紙，用之太多。每於夏秋間，以休紙之還浮者造簡，則京工手劣，不合用，今年試使華城紙工浮出，勝於京造。(깨끗하고 두꺼운 편지지는 사용하기에 너무 사치스러워 매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휴지를 다시 뜬 것으로 편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공장은 솜씨가 졸렬한 탓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화성의 지공에게 시험 삼아 휴지를 떠내게 했는데 서울에서 만든 것보다 더 낫습니다.) <己未御札 정조 23 1799, 10.17>
- b. 圖書所盛匣內外封裏所入紅紬袱去核綿子，白休紙草住紙油紙草席條所等物…。(도서를 담은 갑은 안팎으로 봉하고, 그 속에는 홍주복과 씨를 제거한 솜, 백휴지, 초주지, 유지, 초석, 조소 등 물품들을 넣었다.) <典客司日記 영조 29 1753, 4.2>
- c. 卽者議政府錄事來言，領議政李天輔承命到闕下，而病勢越添，急於調息…敢啓。休紙下。(얼마 전, 의정부의 녹사가 와서 말하기를, 영의정 이천보가 명을 받들어 입궐했으나 병세가 날로 심해져 조식이 시급하니… 감히 아뢰입니다. 휴지에 유지를 적었노라.) <承政院日記, 영조 34 1758, 7.14>

한편, ‘休紙’는 다음의 (7)에서와 같이 ‘…로 보다(視爲)’, ‘…로 삼다(作)’, ‘…에 불과하다(不過, 歸)’ 등의 修辭의 장치들과 공기하면서 ‘쓸모없는 종이 조각’으로부터 ‘무용지물’에 이르

는 은유적 의미로 굳어져 가는 양상을 보인다.³⁾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조 19년(1586) 12월 2일자(7a) 이후로 <실록>에 등장하는 ‘休紙’는 거의 [무용지물]의 의미로 쓰였다. 아울러 (8)의 경우, ‘休紙’가 ‘公事’를 수식해 주고 있는데 이는 ‘休紙’가 ‘물건’의 범주에 제한되지 않고, [무효화]라는 추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 (7) a. 使臣之不謹，誰之過也？移咨禮部，恐歸一幅休紙，朝廷何由知之？(사신들의 삼가지 않은 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예부에 이자(移咨)한들 한 조각 휴지로 돌아갈 듯하니 중국 조정이 어떻게 이를 알겠는가.) <선조 19₁₅₈₆, 12.2>
- b. 頃日宣諭之教，往於外方，徒作一張休紙。渠輩不知朝廷之意，若使小蒙實惠，則宜當矣。(근래 선유(宣諭)하는 교서가 외방(外方)으로 나아갔으나 한 장의 휴지(休紙)가 되었을 뿐이므로 저 백성들이 조정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저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조 30₁₅₉₇, 3.12>
- c. 今年田稅一半，爲先上送事，前日已爲啓下矣，但近來人心解弛，該曹公事，例視爲一張休紙。(금년 전세(田稅)의 절반을 우선 올려보내게 할 것을 전일 계하(啓下)하셨습니다만, 근래 인심이 해이해져서 해조의 공사(公事)를 한 장의 휴지처럼 봅니다.) <선조 32₁₅₉₉, 8.28>
- d. 如是則十行仙札，萬言封章，同歸於該司之一張休紙，其何益於國哉？(임금의 조서와 신하의 상소가 혜사의 한 장 휴지로 되고 말 것이니,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광해 즉위년₁₆₀₈, 4.10>
- (8) 前日武學最好，而今則棄置，不過休紙公事。(전일 무학(武學) 설치 계획이 참으로 좋았는데 지금은 버려두어 휴지 공사(休紙公事)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조 33₁₆₀₀, 8.30>

이로써 <실록>을 비롯한 조선조 시기의 한문 문헌에서 ‘休紙’가 갖는 [폐기 문서]·[이면지], [下品の 종이]·[얇은 새 종이], [무용지물], [무효화]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가령 ‘具體物’에서 ‘抽象化’에 이르는 의미 변화의 방향을 상징하고, 그에 따른 가치 하락의 과정을 설정한다면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 상 ↑ 구 체				[무효화]
			[무용지물]	
		[下品の 종이] [얇은 새 종이]		
	[폐기 문서] [이면지]			

<그림 1> 조선조 한문 문헌 속 ‘休紙’의 의미 변화 가설

3) 해당 용례들에서 ‘休紙’에 선행한 ‘一幅，一張’ 등의 관형사 ‘一’도 가치 하락에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한낱’이 참고가 될 듯하다. ‘한낱’의 선대형인 ‘훈날/훈낫’은 ‘太子 | 훈날 훈날곰 날웨에 훈날곰 좌시고’ <석보상절 3:38b>, ‘萬里에 여희여 돈노물 서르 보니 훈가지로 이 훈날 浮萍 | 꺾도다(相看萬里別 同是一浮萍)’ <중간 두시언해 13:26b> 등 예문에서 보듯 각각 현대의 ‘한 개’와 ‘한낱’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한국어의 ‘한낱’은 ‘기껏해야 대단한 것 없이 다만 <표준>으로 풀이되어 ‘가치 하락’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실록>에는 (a)와 같이 관형사 ‘一’이 ‘休紙’에 선행하여 문맥상 가치 하락의 ‘한낱’으로 풀이되는 예가 있다.

a. 上教于銓曹曰：鄉薦人錄用，每政申飭，而作一休紙。(향천인을 녹용하도록 정사 때마다 신칙하였으나 한낱 휴지가 되었다.) <영조 30, 2.25>

3. 한글 문헌의 ‘휴지’ 추정 표기

1) 후기 중세

후기 중세의 한글 문헌에서 확인되는 ‘휴지’ 추정 유일례는 16세기 <순천김씨묘 출토 83번 언간>(1569~1598, 이하 <순언>)에 보이는 ‘슈지’이다. 여기에서 ‘휴지’ 추정 유일례라고 한 것은 해당 용례를 두고 異見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항범(1998:426)에서는 여기의 ‘슈지’를 ‘ㅎ>ㅅ’ 변화에 따라 ‘休紙(못 쓰게 된 종이)’로부터⁴⁾ 나온 말로 보고, ‘불필요한 말’의 의미로 쓰인 것이라 했다. 즉 ‘[휴지]→[불필요/불필요한 말/쓸데없는 것]’의 변화 과정을 상정한 것이다.⁵⁾ 이와 달리 이동석(2010:209, 각주 6)에서는 해당 ‘슈지’가 문맥상 ‘쓸데없는 말’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휴지’(休紙)에 ㅎ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된 어형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⁶⁾

(9) 수미 집

…나는 벼슬도 과그리 버리디 못흐고 인성은 다 사랏고 네 모시 하 투기도 요동 업스니 내 밍슴도 역시 미 나니 두어라 엇찌리 시브니 내 밍스몬 아모 더도 브튼 더 업시 인노라 버리 방덕도 업서도 흐려니와 바뎛 휘휘호 저긴들 업스마 혈뎛다던 던들 선산 막양 가 호라 놓도 붓그리위호노라 너드려 니르다 속저 리라 슈지로다… 九月 十五日 父 <金燠(父)→순천 김씨(女), 순언 83:13>

본고는 이때의 ‘슈지’를 ‘休紙’의 은유적 용법으로 보고, [무용지물]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려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간의 발신자인 金燠은 조선조에서 省峴 察訪의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는 <순언>의 ‘슈지’와 <실록>의 ‘休紙’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앞서 (7a)를 통해 <실록>에서 ‘休紙’가 은유적으로 사용된 바 있음을 보았다. (7a)는 선조 19년(1586)의 기록으로, <순언>의 추정 연대인 1569~1598년과 합치된다. 따라서 <순언>의 ‘슈지’ 또한 은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일 개연성이 있다. 둘째, 물론 문맥상 <순언>의 ‘슈지’를 ‘불필요한 말’로 처리한다면 가장 구체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지만, ‘休紙’의 은유적 용법을 ‘말’에 한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특히 이처럼 史料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타 용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셋째, 이동석(2010:208)에서도 언급했듯 <순언>에 ‘심심흐니’와 같이 ㅎ구개음화의 예가 있으므로, ‘슈지’ 또한 ‘휴지’에 ㅎ구개음화가 반영된 어형으로⁷⁾ 봄직하다.

2) 근현대 및 개화기

여기에서는 근대·개화기·현대의 순으로 ‘휴지’ 관련 용례의 의미를 살펴 보기로 한다. ‘휴지(슈지)’의 예는 근대 한국어 시기에 이르러 언간, 行狀, 왜학서 등 여러 유형의 문헌에서 다양한 의미를 보인다. 약간의 예를 들면 (10)과 같다.

4) ‘休紙’를 ‘못 쓰게 된 종이’라고 함은 조항범(2006:140)을 참고한 것이다.

5) 한편, 조항범(1998:426)에서는 ‘슈지’의 의미 파생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이라는 의미를 근거로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물어보는 쓸데없는 말’ 즉 ‘수수께끼’의 의미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슈지’가 ‘수수께끼’라는 의미를 갖게 된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했다.

6) 이밖에 박재연 외(2016:494)에서는 해당 ‘슈지’를 ‘편지’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7) 이준환(2007:234)에서는 16세기 후반·17세기 한자음, 그중에서도 曉母字에서 개음 /-j-/를 지닌 것 가운데 ㅎ구개음화를 겪은 사례로 <순언>의 ‘休슈’를 제시한 바 있다.

- (10) a. ① 너일 스이는 날이 도홀가 시보니 집의 나려 초오일 조희 업서 슈지 어더 덕스음(이복길가-4 해미백씨(아내)→이복길(남편), 1586-1632)
 ② 조희를 어들 길 업스면 휴지를 이어 칩을 민드라 벗기신 고로 모하둔 당신 슈적이 거의 다 휴지 칩⁸)이니라 <光山金氏言行錄 1845-1855, 13a>
 ③ 이 칩을 슈지의다 벗기니 붓도 조치 못하고 등하의 스이시이 번역하나 글시 흥잡하니 보느니 웃지 말나 <창난호연록 1893>
- b. ① 이는 나 궂튼 부녀의 맛당히 알 거시 아니라 불과 빨 더 업슨 휴지 훈 당이로시 뜻이 극히 답답하여 감히 서계하느니(此非如我婦女所當與知, 不過無用一張休紙而情極沓沓, 敢此書啓) <조가-丁卯虜難 9:26>
 ② 엇디하야 우리 숲는 일은 다 슈지 사므시고 자니네 맛당홀 썬 문져 하시느고 <첩해신어 4:19b>
 ③ 이리 솔오물 휴지 삼디 마옵소 <첩해 초 9 1676:15b>
 ④ 뭉세훈 화전의 묵적이 모라디 아녀 서당 아래 뵈 슈지 되게 하느노 <玉麒麟 18세기 초, 2:38>
- c. ① 니마히 성혈이 넘니하고 또 다시 드러칠가 두리고 황갑하여 두로 동히고 쥐 숨듯 드러날시 형공이 7이업서 붓드러 도라보내니 니취 흐르는 피를 좌우 슈지를 집어 어즈러이 찢는 등 피 찢던 도헌 금죽헌 거시 잇거늘 <玉鴛再合奇緣 1786-1796, 4:65>
 ② 일죽 훈 글즈를 지으시지 아니시고 뵈 슈지의 가운데 진실이라 쓴 두 글즈를 퍼셔 쇼즈를 띄여 곶오사디 <숙부인녀산송시유스 15a>

위에서 보듯 (10a)는 전래의 [폐기 문서] 또는 [이면지]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0b)는 은유적 용법으로서의 [무용지물]을 뜻하는 것으로, (10b)의 ①에서 '휴지 훈 당'이 '빨 더 업슨'의 수식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용법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방증한다. 한편, (10b)의 ③, ④는 초간본 <捷解新語>(이하 <첩해>)의 예로, 이에 대응하는 일본어 표현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⁹⁾ 해당 부분의 원문을 옮기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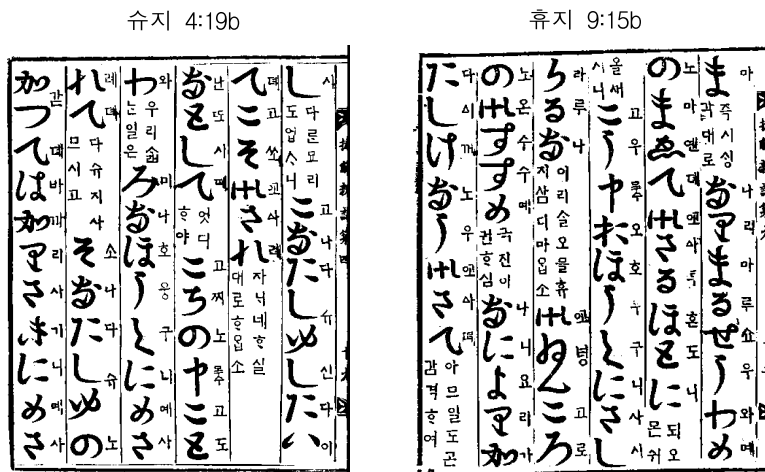


그림2 초간본 <捷解新語>(1676)

8) 정선영(1986:191-192)에 따르면 休紙는 조선 초기부터 冊紙에 이용된 특징적인 재료라 한다. 休紙를 冊紙로 이용하는 방법에는 還紙(休紙로 만든 再生紙)와 休紙 裏面に 인쇄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9) 일본어 해석을 도와준 신현규(서울대) 學兄께 감사드립니다.

〈그림 2〉에서 보듯 〈첩해〉에는 ‘슈지’와 ‘휴지’라는 형태가 공동으로 확인되며, 일본어의 ‘ほうく’에 대응한다. ‘ほうく’의 현대어 표기는 ‘ほうく’(反故/反古)로, 〈精選版 日本國語大辭典〉에서는 (11)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1)에 제시된 세 가지 의항은 앞서 본고에서 확인했던 ‘休紙’의 [이면지], [무용지물], [무효화] 등 의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1번 의항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ほうく’는 주로 ‘쓰고 난 종이’를 뜻하지만, 한국어 문헌의 ‘休紙’는 이외 ‘白休紙’처럼 ‘쓰지 않은, 새 종이’도 나타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11) 反故·反古 (読み) ほうく
 ① 書畫などを書き損じて不用となった紙。(서화 등을 잘못 써서 쓸모없게 된 종이.)
 ② 役にたたなくなつたもの。むだ。不用。(도움이 되지 않게 된 것. 헛됨. 쓸모없음.)
 ③ 取消し。無効。(취소. 무효.)

아울러 (10c)의 ①에서 피를 닦던 ‘슈지’와 ‘도히’가 代用 관계를 이룬다는 점으로부터 이때의 ‘슈지’를 현대의 ‘휴지’와 비슷하게 ‘허드레로 쓰는 얇은 종이’ 정도로 봄직하다. ②의 ‘슈지’는 ‘넛’의 수식을 받는다 ‘슈지’로 ‘얇은 종이’를 가리킬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12)의 〈救急簡易方〉, 〈翻譯小學〉 등에 보이는 ‘故紙’와의 형태·의미적 유사성을 감안할 때 ②의 ‘슈지’를 [폐기 문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문서] 정도의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12) a. 저고돌 브스름 크기만 햐야 더우닐 브티고 덜은 죠히와 오란 죠히로 구디 미야(以油單并故紙密裏) 〈救急簡易方1489, 3:35b〉
 b. 오란 죠히에 五經읜 글 뜯과 성현의 성과 일후미 잇거든 다룬 디 쓰기를 아니햐노라(其故紙, 有五經詞義及聖賢姓名, 不敢他用也) 〈翻譯小學1518, 8:39b〉

이밖에 특기할 것은 다음의 (13)과 같이 기존에 ‘편지’로 해석되어 온 ‘휴지/슈지’의 예이다.

- (13) a. 스창동 마노라 슈지 내 관 속의 녀흐라 〈임일유(아버지)→나주임씨(딸), 1611~1683〉
 b. 이 편지 슈지를 보아라 〈임영(삼촌)→미상(조카), 1649~1696〉
 c. ① 나는 무스이 디내니 평안이 디내게 햐소 휴지 즉 세초10) 햐소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1847〉
 ② 여즐 이만 굿터니 짐작 보소 휴지 쇼화햐소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1849〉
 ③ 이 편지 몇 날 벌너 평부 듯고 섭섭햐 거시나 펴고져 덕습늬이다 이런 휴지는 엿시햐시읏쇼서 〈순원왕후(재종누나)→김홍근(재종동생), 1853〉
 ④ 휴지 즉파 브라운늬이다 〈서기 이씨(미상)→윤용구(미상), 19세기 중반~20세기 초반〉

이러한 용례에 나타난 ‘휴지/슈지’와 관련하여 박재연 외(2016:494)에서는 ‘이 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겸사의 의미와 결부시켜 ‘虛事’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 따르면 ‘虛事’는 ‘보람을 얻지 못하고 쓸데없이 한 노력. = 헛일.’을 가리키는데 이를 (13)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일례로 (13a)의 경우, “*헛일을 내 관 속에 넣어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0) 세초(洗草): 『역사』 조선 시대에, 실록을 편찬한 뒤 그 초고를 없애 버리던 일. 자하문 밖 조지서에서 그 사초(史草)를 물에 씻고, 그 종이를 제지 원료로 다시 사용하였다. 〈표준〉

한편, 황문환 외(2016:823)에서는 본래 휴지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문맥상 ‘편지’ 정도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13b)에서 ‘편지’와 ‘휴지’가 공기를 이루었다는 점, (13c)의 ③에서 ‘편지’와 ‘휴지’가 代用 관계에 놓인다는 점 등은 ‘휴지/휴지’를 ‘편지’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편지’와 ‘휴지/휴지’와의 의미적 연관성을¹¹⁾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본고는 해당 시기에 ‘편지’를 지칭하는 어휘 ‘휴지/휴지’를 따로 상정하고자 한다.¹²⁾ 후기 중세한국어 ‘고초’와 ‘호초’의 예가 보여주듯¹³⁾ 동일한 명칭의 지시 대상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황선엽 2010:7 참조).

개화기(1894-1910)에도 ‘휴지/휴지’의 의미는 (14)에 나열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문맥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 (14) a. ① ‘부인아 이는 방디야의 서신이니 갑시 천금의 지나거늘 엇지하여 못 쓸 휴지로 알고 휴지 속의 너 혼고?’ <진주담 1884, 8:132>
 ② 그 사이에 여러 번 연유를 궤차아 청원을 하였스되 법률 못하다는 관원들이 심상히들 보고 휴지로 돌려 보니여 못습니 엇더타는 디령을 아니 하여 주어<독립신문 1898.11.29.(화), 제3권 제202호>
 ③ 차출돈 만량표를 일코 광고하였거니와 그 표지 뒤등에 청인 이성호의 도장이 마졌스니 누구던지 차즈주면 상급을 후이 주겟스되 이틀 이십칠일을 지나면 그 표는 휴지로 알겟소. -정흥규 고백. *저경궁압 엠벌너씨의 집에 상품 <제국신문 1900, 3.21>
 b. ① 휴지 (休紙, Waste paper)<한영즈던 1890, 141>
 ② 그 문권을 상고한즉 소상치 못헌 신문지뿐이기로 성승지집에 말하고 소지를 써 가지고 립지니라고 양쥬군슈 본집으로 덩?러와다가 덩?러지도 못하고 소지를 서실하였는지라 그것은 휴지로 버렸스오니 첨군즈는 조랑하시오.-고양읍니거 권석현 고백 *왕십리 리문동잇던 약국이 <제국신문 1900, 5.29>
 c. 휴지 업시호옵소서 금일로부터 이만 서신도 못하느니라 <순명효황후→김상덕, 1894~1895>
 d. 春川居는 東內釜岩金議官彌鍾氏가 今年陰八月廿一日에 自京下來하다가 楊川쇠미 金水洗店에서 時症으로 不幸客死하였는디 其姓名圖章을 見失하였기로 廣佈하오니 月廿日以後 踏圖章은 票는 休紙施行홀터이오니 內外圖人은 以此照亮하시오 子 金泳* 告白 <제국신문 1902,11.6>

(14a)는 ‘휴지’의 은유적 용법으로, [무용지물]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4a)의 ①은 앞서 보았던 (10b)의 ①과 마찬가지로 수식 성분인 ‘못 쓸’에 의해 [무용지물]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한편, (10b)는 전과 달리 ‘휴지’가 ‘버려지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각각의 예에 보이는 ‘waste’ 및 ‘버리-’와의 공기 관계가 이를 입증해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오늘날의 ‘휴지’는 ‘폐기물’ 전반을 가리키는데 (10b)와 같은 호응 관계가 그러한 환유적 확장에 가능성을 제

11) 위에 제시된 (13c)의 예들은 ‘편지’로 추정되는 ‘휴지’ 뒤에 [폐기]를 뜻하는 어휘(‘세초하-, 소화하-, 업시하-, 즉파’)가 후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요컨대 [폐기 문서]를 의미하는 ‘휴지’와 ‘편지’를 뜻하는 ‘휴지’가 모두 [폐기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관성을 상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확실치 않다. 한편, 일본어에서 ‘편지’를 뜻하는 ‘手紙’와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해당 문맥에서 ‘휴지’ 뿐 아니라 ‘휴지’도 적지 않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보하기로 한다.

12) 이처럼 [편지]를 지닌 ‘휴지/휴지’를 상정할 경우, 이때의 ‘휴지/휴지’는 [텍스트/텍스트담지물]을 기본 용법으로 하는 다면어(박진호 2012/2016:203-205 참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진호(2012/2016:203)에 따르면 ‘철수는 읽고 있던 책을 집어던져 버렸다.’라는 문장에서 읽는 대상으로서의 책은 [텍스트]이고, 집어던지는 대상으로서의 책은 [텍스트담지물]이 된다. 마찬가지로 (13)에서 ‘보는’ 대상으로서의 [편지]인 ‘휴지/휴지’는 [텍스트]에 해당하고, ‘관 속에 넣’거나 ‘세초·소화·즉파’하거나 ‘업시하’는 대상으로서의 [편지]인 ‘휴지/휴지’는 [텍스트담지물]에 해당한다.

13) 이기문(1998:199)에서는 중세국어의 ‘고초’의 자리를 ‘호초(胡椒)’가 차지하고, ‘고초’는 새로 들어온 고추를 뜻하게 된 것임을 상정했다.

공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 (14c)는 ‘편지’를 뜻하는 ‘슈지’의 용법이 개화기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슈디’가 ‘편지’를 가리키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는 언간에서 ‘폐기 처분’ 할 것을 바라는 격식투 ‘업시흐옵쇼셔’가 사용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서신’과 공기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10d)는 앞서 본 (8)의 경우와 같이 ‘休紙가 [무효화]라는 의미로 ‘施行’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다음에 제시할 (15)는 ‘휴지’와 관련된 현대 한국어의 일부 용례를 모은 것이다.

- (15) a. ① 못 쓰는 슈지들과 니버리는 형질 조각 <遊日錄 1902>
 ② 휴지(紙屑) <新案韓語彙 1910, 139>
 ③ 휴지 ⊖ 버리는 조희 ⊖ 조희 부스러기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1930, 197>
- b. ① 김관일이 가방을 열더니 슈지 멍치를 니어놓고 뒤적뒤적하다가 편지 혼 장을 집어주며 하는 말이 이이 이 편지를 자세이 보아라 이 편지가 제일 먼저 온 편지다 <혈의누 81>
 ② 칩을 쓰더 도비히고 조상의 슈지와 조상의 글장을 쓰더 쓰 바려시니 이런 통곡홀 일 <윤구파평운 씨가 7월 2일>
 ③ 오즈낙셔 만호며 글시 즈연 흥칙ᆞ흐니 네 능문으로 놀너 정으로 보아라 부디 ᆞ너 혼 즈 보고 슈지 즉시 업시여라 타인 눈의 같가 붓그럽다 <윤구파평운 씨가 향즈의 1923> [편지]
- c. 노야 뒤를 보시고 시부니잇가/ 뒤 씨슬 조희 두셋을 날 다고 (‘老爺要拿尿嗎?’/ ‘水紙兩三張給我罷.’) <關話畧抄 19세기 말, 11b>

(15a)는 현대 한국어의 ‘휴지’가 과거와 달리 ‘종이 부스러기’, ‘버리는 종이’ 등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오늘날과 유사한 ‘버림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15b)는 ‘편지’를 뜻하는 ‘슈지’의 용법을 보인 것으로, 그중의 ②번 예문은 ‘편지’ 뿐 아니라 (10c)에서 보았던 [오래된 문서]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제시한 (15c)의 경우, 오늘날의 [화장지]에 해당하는 개념을 ‘水紙’라는 어휘로 표현했음이 주목된다. 다만 이는 유일례로, 과연 [화장지]에 해당하는 ‘휴지’가 ‘水紙(수지)’에서 유래한 것 인지는 확실치 않다.

요컨대 근현대 및 개화기의 한글 문헌 속 ‘휴지’의 용법을 살펴본 결과, 조선조 시기의 한문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편지], [오래된 문서], [버리는 종이] 및 [종이 부스러기] 등의 의미들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었다.

4. ‘休紙’의 조어법적 특징과 ‘休’의 의미

위에서 한국어의 ‘휴지’가 ‘休紙’에 대응하는 한국 한자어이며, 통시적인 차원에서 문증되는 여러 의미들을 살펴 보았다. 아래에는 ‘休紙’라는 어형이 갖는 조어법적인 특징과 ‘休’의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조어법상 ‘休紙’는 부가어인 ‘休’가 핵인 ‘紙’를 수식해 주는 2字語 합성어라¹⁴⁾ 할 수 있다. 고대 한문에서 ‘休’는 대개 동사, 부사, 형용사, 어말어기사 등의 용법을 갖는데(王力 외 2016:428) ‘紙’가 명사이므로, 선택의 범위는 동사와 형용사로 한정된다. 다만 ‘休’가 형용사일 때는 ‘아름답고 선하다(美善)’ 또는 ‘경사스럽다(喜慶)’ 등의 의미를 내포하므로(王力 외 2016:428), ‘休紙’의 부가어 ‘休’는 ‘동사’임에

14) 김창섭(2008:119)에 따르면 한자 낱자의 절대 다수가 단어의 자격을 갖는 한문과는 달리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자 1字는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뿐 단어가 되지 못하고, 한자 2字 구성을 이루어야만 단어가 된다(e.g. 國→國民). 그러므로 2字語는 단순히 두 자로 표기된 단어라거나 두 형태소로 된 단어라는 뜻을 넘어 한국어 한자어의 기본적인 적격 형식이라는 성격도 가지게 된다.

무게가 실리게 된다. ‘休’의 동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아래의 (16)에서 보듯 동사 ‘休’에 명사가 통합된 합성 명사는 흔히 ‘休+講, 休+業’과 같이 ‘휴강하다, 휴업하다’ 정도의 서술명사를 이룰 수 있거나 ‘休+暇’에서 보듯 추상명사가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休紙’는 핵인 ‘紙’가 구체명사일 뿐 아니라 ‘*休紙하다’와 같은 서술명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 (16) 휴가(休暇) 휴강(休講) 휴간(休刊) 휴계(休憩) 휴경(休耕) 휴관(休館) 휴교(休校) 휴등(休燈) 휴면(休眠) 휴무(休務) 휴서(休書) 휴식(休息) 휴양(休養) 휴업(休業) 휴일(休日) 휴재(休載) 휴전(休戰) 휴정(休廷) 휴전(休戰) 휴조(休兆) 휴직(休職) 휴진(休診) 휴징(休徵) 휴처(休妻) 휴퇴(休退) 휴학(休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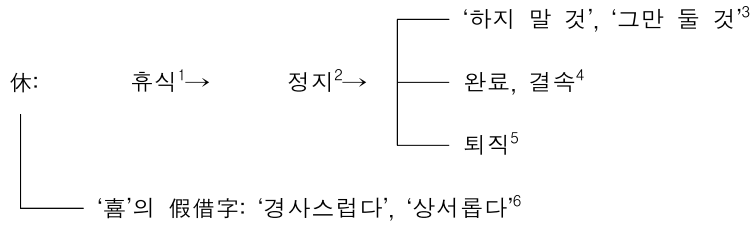
이렇듯 ‘休紙’는 여러 특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합성 명사로서의 ‘休紙’ 자체는 한자어의 조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명희(2007:178)에서는 ‘관형어+명사’의 경우 [-하다, +이다] 결합형만이 발견되는데 그 이유는 명사가 핵이 되어 전체 어휘 범주를 결정하므로, 명사적 용법만 보이게 되는 것이라 했다. 15) 예컨대 ‘애인, 낙수’ 등에서 수식어는 동사이지만 부가어의 자격을 지니므로 전체 어휘 범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애인하다’ 등의 유형이 나타날 수 없다는 분석이다. 16) 이는 ‘休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休紙’의 의미 구조, 즉 종이를 수식하는 데 어찌하여 동사 ‘休’가 사용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대 및 현대 중국어의 합성어를 17) 다룬 董秀芳(2016)의 논의가 참고될 듯하여 제시하는 바이다. 해당 논의(2016:148-149)에 따르면 중국어 어휘 체계 가운데서 합성어가 파생어에 비해 우위를 점하며, 부가어와 핵으로 구성된 합성어의 강제적인 의미 구조를 ‘提示特征+事物類’로 개괄할 수 있다고 했다. 즉 부가어는 지시 대상이 동류의 사물과 구별되는 징표적 특징을 나타내고, 핵은 지시 대상이 소속된 부류를 자리매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제시 특징’과 ‘사물류’는 사물에 대한 언중의 상식적인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동일 사물의 부류와 제시 특징에 대한 선택은 언어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중국어 방언에서 ‘옥수수’를 가리키는 표현이 ‘玉米’와 ‘苞米’로 나뉘는 것은 서로 다른 제시 특징을 선택한 결과이고, ‘苞米’와 ‘苞谷’로 나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물류를 선택한 결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休紙’에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休’字 자체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조명이고, 다른 하나는 ‘玉米:苞米’처럼 ‘참조 대상’을 마련하는 일이다. 前者와 관련하여 周緒全 외(1988:374-375)에서는 문증을 통해 ‘休’의 의미 변화 과정을 (17)에서처럼 상정할 바 있다. 각 의항의 文例는 순번에 따라 도식의 하단에 나열했다.

- (17)

15) 위의 (16)에 나열된 ‘휴관(休館)’·‘휴업(休業)’ 등 어휘들은 형태상으로 ‘휴지(休紙)’와 동일한 ‘휴(休)+X’의 구성을 보이지만, [+이다] 뿐 아니라 [+하다]로도 실현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휴관(이다)’, ‘휴업(이다)’ 등은 ‘관형어+명사’, 즉 ‘부가어+핵’으로 볼 수 있지만, ‘휴관(하다)’, ‘휴업(하다)’ 등의 서술명사를 이룰 때에는 ‘서술어+목적어’의 술목구조(‘館을 休하다’, ‘業을 休하다’)에서 연유하여 핵이 ‘休’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16) 이러한 해석은 ‘자질 삼투’와도 통한다. 박진호(1994:105)에서 언급되었듯 형태·통사적 자질의 삼투는 핵의 자질만이 삼투된다. 따라서 ‘덜개’의 경우, 핵인 ‘-개’가 지닌 자질 [+N]만이 절점(node)으로 삼투되고, ‘덜-’의 자질 [+V]는 저지되어 ‘덜개’ 전체의 통사 범주는 명사가 된다.
 17) 원저에서는 ‘複合詞’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용어 차이를 감안하여 ‘합성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① 行者休於樹。(행인이 나무 아래에서 휴식하고 있었다.) 歐陽修 〈醉翁亭記〉
- ② 少年大駭，急解令休止。(젊은이는 놀라 급급히 (귀뚜라미를) 갈라 놓고 그들의 싸움을 정지시켰다.) 〈聊齋誌異·促織〉
- ③ 先生休矣。(그만 두십시오, 선생!) 〈戰國策·齊策四〉
- ④ 他生未卜此生休。(다음 생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생은 이미 끝났소.) 李商隱 〈馬嵬〉
- ⑤ 名豈文章著，官應老病休。(자신의 명성이 그 어디 문장을 잘 써서 얻은 것이라, 나는 이미 연로하고 지병이 많으니 퇴직함이 마땅하다.) 杜甫 〈旅夜書懷〉
- ⑥ 休祿降於天。(길조와 흉조는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戰國策·魏策四〉

앞서 제2장의 (3a)에서는 ‘休’가 지닌 ‘휴식’의 의미를 취해 ‘休紙’를 ‘문서의 기능을 다했다 해서 쉬는 종이’로 해석한 정공식 외(2019:123)의 예를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 외 ‘休’가 갖는 ‘정지’의 의미(17-②)를 취해 ‘문서를 비롯한 원기능이 정지된 종이’ 정도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하려 한다. 아울러 ‘休紙’와 비교해 볼 유사한 참조 대상으로 (18)에서처럼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 모두 등장하는 ‘故紙’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 (18) a. ① ‘用故紙糊席曝之，夜乃勿收，令受霜露。’ 〈齊民要術·造神麴并酒〉
- ② ‘此等無用故紙，正合付一炬。’ 〈野獲編·台省·六科廓章奏〉
- ③ ‘俗儒好尊古，日日故紙研。’ 〈雜感〉
- b. 且觀於柳星漢職名之不改，先從師文故紙，亟遵筵論，外此數示其責，亦惟於卿等云耳。(그리고 보건대 유성한(柳星漢)의 직명(職名)을 고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우선 사문(師文)의 직명을 휴지로 만든 것처럼 속히 연석에서 유지했던 대로 따를 것과 이 밖에 나의 뜻을 펼쳐 보이라고 아뢰었는데, 그 책임으로 말하면 역시 경들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조실록 43권, 정조 19, 10.22〉

〈중중한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故紙’는 ‘오래된 종이. 고서. 옛날 문서. (주로 옛날 서적을 가리킴)’을 뜻하며, 이러한 의미 외 (18a-②)에서와 같이 [무용지물]의 의미도 확인된다. 요컨대 ‘故紙’와 ‘休紙’의 여러 의미가 상당 부분 겹쳐 유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실록〉의 국역본에서도 (18b)의 ‘故紙’를 직접 ‘휴지’에 대응시키고 있어 이에 힘을 신는다. 한편,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가운데 ‘膳物/禮物’이나 ‘雪糖/白糖’처럼 ‘部分異型的 同義語(ab/cb型)’(채옥자 2004:274)가 적잖이 존재하는데 ‘故紙:休紙’의 경우도 이 부류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가 ‘故紙’와 ‘休紙’로 달리 실현된 것은 지시 대상의 서로 다른 ‘제시 속성’에 기반한 선택의 결과로 생각된다. 예컨대 ‘故紙’는 문서가 존재한지 ‘오래’ 되었다는 [시간적 속성]에 치중한 것으로, ‘休紙’는 문서의 원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기능적 속성]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 권인한(2009), 『중세 한국한자음의 분석적 연구』, 박문사.
- 김광해(1994), 「한자 합성어」, 『國語學』(24), 國語學會.
- 김무식(1997), 「순천김씨묘 출토 인간자료의 국어학적 연구 - 주로 음운현상과 표기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19), 문학과언어학회.
- 김재문(2006), 「조선왕조 기록문화와 종이에 관한 법이론과 정신(3)」, 『司法行政』,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창섭(2001/2008),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김혜지(2020), 「단위사 결합형 명사에 대한 고찰」, 『國語學』(94), 國語學會.
- 盧明姬(2007), 「한자어의 어휘 범주와 내적 구조」, 『震檀學報』(103), 震檀學會.
- 노명희(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國語學』(51), 國語學會.
- 유창돈(1971),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 박영섭(1995), 『국어 한자 어휘론』, 박이정.
- 박재연·양승민(2004), 『玉麒麟』, 도서출판 다운샘.
- 박재연·이현희(2016),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 박정구 역(2005), 『중국어 형태론』, 신성출판사.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國語研究』(123), 國語研究會.
- 박진호(2012/2016), 「單義(monosemy)와 多義(polysemy) 문법화와 유형론의 관점에서」, 『국어 의미론의 심화』, 윤평현 선생 정년퇴임 기념논총, 역락.
- 손계영(2004), 「古文書에 사용된 종이 연구 - 『度支準折』을 중심으로-」, 『古文書研究』(25), 韓國古文書學會.
- 이기문(1998), 「후추와 고추」, 『새국어생활』(8), 국립국어원.
- 이동석(2010), 「중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언어학 연구』(17), 한국중원언어학회.
- 이명규(2000), 『중세 및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 한국문화사.
- 李準煥(2007), 『근대국어 한자음의 체계와 변화 - 성모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2015), 「한자어 어기(漢字語語基)와 고유어 접사성(接辭性)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정신문화연구』(38),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현주(2019),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나는 한자어 접두사성 형태소 고찰」, 『東洋古典研究』(77), 동양고전학회.
- 정금식 외(2019), 『默齋日記(1~6)』, 景仁文化社.
- 鄭善英(1986), 「朝鮮初期 冊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1), 韓國書誌學會.
- 조항범(1998), 『註解 순천김씨묘 출토 간찰』, 태학사.
- 조항범(2006),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5)」, 『새국어생활』(16), 국립국어원.
- 주지연(2020), 「국어 차용 어휘 분류에 대한 소고(2) -차용 방식을 기준으로-」, 제64회 국어국문학회 전국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채옥자(2004), 「韓國한자어와 中國現代漢語語彙의 비교 연구」, 이중언어학(24), 二重言語學會.
- 채현식(1999), 「조어문의 규칙과 표시」, 『형태론』1(1).
- 채현식(2001), 「한자어 연결구성에 대하여」, 『형태론』3(2).
- 최상진(1992), 「복합명사 어순에 있어서의 공감도 연구」, 『언어연구』(11),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 최준호·황정수(2016), 「한자어 ‘人間’의 통시적 의미 변천 과정 연구」, 『冠岳語文研究』(41),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 홍윤표·심경호(1993), 『15세기 한자어 조사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황선엽(2010), 「고추와 후추」, 한국어학회 논문발표집.
- 황선엽(2019), 「한국어 어휘사의 시대 구분」, 2019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논문발표집.
- 황문환 외(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3)·(6), 역락.

-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1992), 『韓國漢字語辭典(卷一)』, 檀國大學校出版部.
原刊本 『捷解新語』,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陳 榴(2012), 『韓國漢字語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 董秀芳(2016), 『漢語的詞庫與語法(第二版)』, 北京大學出版社.
- 董秀芳(2017), 『詞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修訂本)』, 商務印書館.
- 石定栩(2003), 「漢語的定中關係：動－名複合詞」, 『中國語文』(297).
- 石定栩(2007), 「向心結構與離心結構初探」, 『外語教學與研究』(39-4).
- 王力 等(2016), 『古漢語常用字字典』, 商務印書館.
- 武振玉(2009), 「兩周金文中“休”的詞性和用法」, 『長春大學學報』(19-7).
-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 周緒全·王澄愚(1988), 古漢語常用詞通釋, 重慶出版社.

‘휴지(休紙)’의 어휘사

신중진(한양대학교)

이 글은 한자어 ‘休紙’의 어휘사 연구 일환으로 특히 의미사를 考究하고 있다. 의미사를 밝히는 것은 음운사, 형태사, 문법사 연구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더군다나 기존의 개별 한자어 어휘사 연구들은 대부분이 개화기 전후의 근대 한자어가 유입된 경위에 편중된 점이 아쉬웠는데, 이 글은 그 한계를 넘어서 긴 시간을 넘나들면서 방대한 자료에 드러난 전통 한자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미 변천 가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더 의의가 있다. 문외한인 토론자는 필자가 실증한 기술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소소한 부분에서 혹시 달리 생각할 만한 관견을 언급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려 한다.

1. 어휘사 연구는 어휘문화사에 특히 밝아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소신이다. 특히 의미사나 의미체계사 연구가 그렇다. 당시의 문헌자료나 그 해독에 밝다고 해서 꼭 어휘의 의미들이 변천한 史實에 정합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언어 외사, 문화사, 특히 생활사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니 앞으로의 필자 연구에 참조해 주면 좋겠다. 가령, ‘종이’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흔한 물건이다. 그러나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종이는 흔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접할 수는 있었지만 종이는 모아두는 물건이었다. 사실은 요즘도 마찬가지로 값어치가 있다. 더군다나 백년 이상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종이는 귀한 물건이다. 일반 백성이 생활 속에 사용하기는커녕 접하기도 어려웠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사신과 함께 고급 선물로 보내지는 물건이었다. ‘휴지’일지라도 버리다니 가당찮다. 따라서 전통사회에 등장하는 ‘휴지’는 오늘날 휴지 개념이나 감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이러한 관점이 글의 전반에서 좀 더 녹여 들어가면 좋겠다.

2. 이러한 차원에서 제시한 예문 (2, 3, 4)를 보면 결국 ‘休紙’는 “쓰고 남은 종이”인데 이 표현은 다분히 중의적이고 제시한 예문에서도 그러한 중의성이 보인다. 첫 번째 중의적 의미는 “사용하고 남은/남겨진 종이(休紙/故紙)”이고 두 번째 중의적 의미는 “글씨를 쓰고 남은 빈(부분) 종이(잘린 종이)”이다. 그래서 그런지 (6)의 예문에 대한 필자의 기술에서도 “전혀 쓰지 않은 새로운 종이”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하면 (7a~d)의 ‘一幅休紙, 一張休紙’는 “휴지가 되다(쓸모없는 일이 되다)”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한다.

4. 다소 우려스러운 점은 (7c)의 ‘公事, 例視爲一張休紙’와 (8)의 ‘不過休紙公事’가 전후 문맥을 더 살펴도 “공사를 휴지로 본다”는 의미에 귀결되는데, (7)에서는 ‘휴지’의 의미를 [무용지물]로 (8)에서는 [무효화]로 변별하였다. 이해충돌의 한 면으로 볼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더군다나 변천 과정에서 [무효화]가 시기적으로 후대에 의미 확장된 것으로 보는 셈인데, (8)은 1608년 자료이고 오히려 (7c)가 1600년 자료이라서 시기 충돌도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무용지물]과 [무효화]의 의미 경계가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도 언급해 둔다.

필자의 주장가 국어사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자료에서 지나치게 정밀화를 추구하다 보면 통찰적인 시각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5. (14d)에서 ‘月廿 日以後 踏圖章 票는 休紙施行 홀티이오니’는 ‘踏圖章 票는 休紙施行 홀티이오니’로 해석해야 옳고 이때 ‘표’를 ‘休紙施行’한 것이므로 [무효화]보다는 [무용지물]이 더 정확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무의미한 의미자질이기도 하다.

6. 끝으로 (15c)의 ‘水紙’에 대해서는 필자도 “이는 유일례로, 과연 [화장지]에 해당하는 ‘휴지’가 ‘水紙(수지)’에서 유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언급하였다. 토론자의 소견으로는 이것은 전형적인 민간어원(folk etymology)이다. “뒤 씨슬 조희”와 당시 널리 쓰이던 ‘수지’가 서로 교묘하게 간섭하면서 ‘ㅎ’ 구개음화에 대한 감각도 잃고 ‘(휴지)>수지’의 ‘수’가 ‘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생긴 오독으로 어원을 삼은 결과로 보인다. 더 결정적인 믿음의 근원에는 ‘油紙’가 간섭했을 듯하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에 대하여

여채려(경희대학교 박사수료)

1. 머리말

《龍飛御天歌》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다. 《龍飛御天歌》의 서문과 발문에 의하면, 이 책은 1445년에 제작된 125장의 국문 가사와 한시, 그리고 여기에 1447년에 덧붙인 주해로 구성되어 있다. 《龍飛御天歌》의 주해는 중자 단행의 보주(補註)와 소자 쌍행의 협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가시(歌詩)에 나오는 중국 제왕(帝王)들과 조선(朝鮮) 육조(六祖)와 관계되는 사적(史蹟)이고 후자는 한자의 음·형·의, 인명, 지명, 제도 등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에 대한 주석이다.¹⁾

《龍飛御天歌》의 내용을 보기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龍飛御天歌》의 협주에는 한자의 음과 훈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²⁾ 자음(字音)의 경우, 한자의 원래 발음을 표시하는 ‘如字’, 성조형인 ‘平上去入’, 반절법인 ‘○○切’, 직음법인 ‘音○’, 그리고 독약법인 ‘讀曰○’ 등의 다양한 주음 표시 방법이 있다. 주음 표시의 양상을 보면, 대부분 한 글자에 하나의 주음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때로 동일한 글자에 둘 이상의 주음법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표시된 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은 주음법으로 사용되더라도 한 글자가 둘 이상의 성조나 주음자, 또는 반절로 그 음이 표시된 것도 있다. 이 주음 정보는 한자음 연구, 특히 복수 한자음을 연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주음 정보를 통해 조선 초기의 운서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많은 한자 주음 정보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龍飛御天歌》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문 가사와 협주에 나온 정음 표기로 된 지명, 인명 등에 집중되어 있고,³⁾ 한문으로 된 주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訓民正音諺解》,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月印釋譜》, 《楞嚴經諺解》 등의 초기 언해 문헌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 한글로 표기된 협주가 전혀 없을 뿐더러 국문 가사의 한자조차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부기하지 않은 《龍飛御天歌》가 한자음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간주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나온 한자 주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도효근(1979), 강신항(1994)을 들 수 있다. 두 논문은 주로 주음 방법으로 표시된 한자가 한국 한자음으로 읽

1) ‘주해(註解)’라는 용어는 정무룡(2010)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미 최항의 발문(“就加註解”)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논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문 가사와 한시를 아울러 말할 때 ‘가시(歌詩)’라는 말로 사용하고, 중국 제왕(帝王)들과 조선 육조(六祖)의 사적(史蹟)을 ‘고사’라고 하기로 한다. ‘가시’는 발문에서 사용했던 용어이다. “歲乙丑 議政府右贊成臣權躔 右參贊臣鄭麟趾 工曹參判臣安止等製爲歌詩一百二十五章以進”

2) 《龍飛御天歌》 발(跋) 중의 “就加註解 於是粗叙其用事之本末 復爲音訓 以便觀覽(인용한 옛일의 본말을 간략히 밝히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 다시 글자의 음과 뜻을 달았다).”을 통해 알 수 있다.

3)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김수경(1947), 김윤경(1959), 이기문(1962), 이기문(1964), 류재영(1974), 도수희(1982), 최범훈(1982), 최범훈(1983), 김영신(1984), 김영진(1985), 宋基中(1989), 宋基中(1990), 이병운(1991), 연구동(1993), 강영(1995), 조세용(1998), 김태경(2004), 변혜원(2004), 조규태(2006), 김양진(2006), 박병철(2011) 등을 들 수 있다.

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 것이다. 도효근(1979)에서는 처음으로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나온 한자의 주음 방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고, 표기된 한자음을 동운음과 비교함으로써 《龍飛御天歌》의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개신 한자음으로 읽힌 것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음으로 읽혔다고 논의하였다. 강신항(1994)에서는 반절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당시 《古今韻會舉要》, 《洪武正韻》, 《禮部韻略》, 《龍龕手鏡》 등의 여러 운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하였으며, 그 반절이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지 않고 운서의 반절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럼에도 도효근(1979)에서는 한자의 주음 방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였으나 반절법과 직음법에 해당하는 모든 한자 및 그 출현 빈도를 제시한 것이 아니며, ‘古作○’, ‘本作○’, ‘通作○’ 등과 같이 통용자와 관련된 표시 방법을 한자의 주음 방법에 분류시켰다. 이런 점에서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신항(1994)에서는 조선 초기의 운서 사용양상을 보여주었으나 짐작된 운서들 중에 어느 운서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된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운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반절 표기가 있는데, 논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없었기에 발생한 한계라고 생각한다.

결국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언어 사실을 수용하면서 그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⁴⁾ 《龍飛御天歌》에 수록된 한자의 주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다른 문헌에 나오는 주음 방법의 기술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자음 연구, 특히 복수 한자음을 연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자 주음에 대한 기술 방식의 특징 및 양상

중국 고대에는 글자의 발음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독약법(讀若法), 직음법(直音法), 반절법(反切法) 등의 주음 방법이 생겨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독자에게 《龍飛御天歌》의 내용을 쉽게 보는 목적으로, 주해를 추가한 편찬자들은 가시 또는 고사에 나온 한자에 음과 훈을 달았다. 이는 모든 한자가 아닌 몇몇 한자에만 한정되어 필요할 때 음을 달았다. 주음할 필요가 있는 한자는 일정한 형식으로 주음 정보가 협주에 기재되어 있다. 주음 방법에 따라 기술 방식이 다르며, 주음될 한자의 출현 양상에 따라 그 기술 방식도 다양하다. 협주에 기재된 주음 정보에 대한 기술 방식을 주음법별로 정리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가. 如字

讀如字

並如字

나. ○聲

○聲 下同

○聲 下並同

4) 이를 위해 본고는 1612년에 간행된 10권 5책 완질로 전해진 중간본인 《龍飛御天歌》을 택한다. 《龍飛御天歌》 판본에 대해서는 조규태(2002), 이수진(2018), 이호권(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 並○聲
- 並○聲 下同
- 並○聲 下並同
- 皆○聲
- 다. 讀爲○
- 讀曰○
- 讀曰○ 下同
- 讀曰○ 下並同
- 並讀曰○
- 並讀曰○ 下並同
- 라. 音○
- 音○ 下同
- 音○ 下並同
- 並音○
- ○ 二音
- 마. ○○切
- 切 下同
- 切 下並同
- 並○○切
- 並○○切 下同
- 並○○切 下並同
- ○○ 二切
- ○○ ○○ 三切

(1가)는 본음으로 읽히는 글자에, (1나)는 사성 권점으로 부착된 글자에 대한 형식의 표현이다. (1다), (1라), (1마)는 각각 독약법, 직음법, 반절법에 대한 형식의 표현이다. 이 형식의 표현들을 다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2) 가. 기본적인 형식 : 如字, 讀如字, ○聲, 讀曰○, 讀爲○, 音○, ○○切
- 나. 並□ : 並如字, 並○聲, 並讀曰○, 並音○, 並○○切
- 다. 下同 : ○聲 下同, 並○聲 下同, 讀曰○ 下同, 音○ 下同, 등
- 라. 下並同 : ○聲 下並同, 並○聲 下並同, 讀曰○ 下並同, 並讀曰○ 下並同 등
- 마. 二音, 二/三切

(2가)의 ‘如字’, ‘○聲’, ‘讀曰○’, ‘音○’, ‘○○切’ 등의 표현들은 각 주음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형식이다. 이 형식은 일반적으로 피주음자가 해당 발음으로 같은 장(章)의 가시 또는 동일한 주제의 고사에 한 번만 나타날 때 쓰인다.

- (3) 根深之木 風亦不扞【扞 五忽切】⁵⁾<01:01b>

5) 【 】 안에 있는 내용은 협주에 있는 주석을 말한다. 본고는 【 】 안에 있는 내용에 한자 주음만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에 자음과 자의를 같이 제시한다.

- 後乃追稱爲大王焉【大 音泰】<01:04b>
- 去樹幾百步【幾 平聲】<01:13a>
- 罷苦萬民之力【罷 讀曰疲】<01:15b>
- 朋家作仇 脅權相滅【脅 虛業切 相 如字】<01:23b>

첫 번째 한자 주음으로 제시된 ‘扞 五忽切’은 제2장의 한시에 단 한 번만 나타나므로 반절법의 기본적인 형식인 ‘○○切’로 표현되어 있다. ‘大’, ‘幾’, ‘罷’, ‘脅’, ‘相’ 등이 모두 같은 원리로 기본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피주음자는 (3)처럼 단자(單字)로 직접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동일한 글자가 한 구절이나 한 문장에 두 번 이상, 그리고 서로 다른 음으로 나타날 때, 그 중에 하나만 음이 표기되거나 서로 다른 음이 모두 표기되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 주석한 것처럼 그 글자를 포함한 단어가 제시되는 형식으로 구분되거나, 그 글자가 ‘上X’ 또는 ‘下X’로 구분되어 음이 표기되었다.

- (4) 가. 高祖因狎侮諸客 遂坐上坐【上坐之坐 才臥切】<05:03b>
 思得新進驍勇者將之 無如卿者 …… 聞太子奉迎將至【將至之將 如字】<06:29a>
 王之不見何 必以楚爲彊 以漢爲弱也 此臣之所以爲使【爲使之爲 去聲】<08:11a>
- 나. 有坡平君尹彝中郎將李初者 …… 將犯上國【上將 卽亮切】<08:40a>
 韓王信 數使使胡 求和解【下使 去聲】<09:03b>
- 다. 會金使蕭仲恭來使【上使 如字 下使 去聲】<05:16b>
 與我蒸穀種 種之不生【上種 章勇切 下種 朱勇切】<07:38a>

(4가)와 (4나)는 동일한 글자가 두 번 이상 나타날 때, 그 중의 하나만 음이 표기된 경우이다. 주음될 글자(피주음자)는 ‘上坐之坐’, ‘將至之將’, ‘爲使之爲’ 등과 같이 이 글자를 포함한 단어를 제시하는 식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4나)처럼 ‘上X’ 또는 ‘下X’로 구분되기도 한다. (4다)는 동일한 글자의 상이한 주음이 모두 표기된 경우인데, ‘上X’와 ‘下X’로 구분되어 음이 표기되었다.

다음으로 (2나)의 ‘並□’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어떤 글자가 동일한 발음으로 같은 구절이나 문장에서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5) 同力度,德 同德度,義【度 並入聲】<01:22a>
 與享蒸嘗 則予涼德 與有光焉【與 並讀曰預】<02:15b>
 宦者李波羅實 在最下層 急呼曰 令公救人 令公救人【令 並如字】<05:35b>
 人各樂天之樂【樂 並音洛】<08:30a>
 三司左使趙浚 …… 前密直副使南閻 …… 清州牧使趙璞【使 並去聲 下並同】<02:21b>
 太祖馳射 先射一響而斃 二響並走 又射之【射 並食亦切】<06:37b>

(5)의 ‘度’, ‘與’, ‘令’, ‘樂’, ‘使’, ‘射’ 등은 모두 같은 문장에서 동일한 발음으로 두 번이나 세 번 나타났으므로 ‘모두’의 의미를 나타내는 ‘並’으로 사용되어 간결하게 ‘並入聲’, ‘並讀曰預’ 등으로 표현되었다.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두 글자가 같은 구절이나 문장에서 나타날 때, 발음상 공통점이 있거나 동일한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6) 各有分[°]限 不相侵奪 兼并[°]絕而億兆之田宅定【分 并 並去聲】<02:37b>
 貴戚縱[°]橫[°]於都內【縱 橫 並去聲】<08:21a>
 建德將從之【將 從 並如字】<07:49b>⁶⁾
 至噶沱河【噶 本作濞 或作摩 一作呼 並荒胡切 沱 或作池 並徒河切】<04:05b>

(6)의 ‘分’과 ‘并’, ‘縱’과 ‘橫’은 똑같이 거성으로 발음하고, ‘將’과 ‘從’은 각각 본음⁷⁾으로 읽히는 것이다. ‘噶’는 협주에서 제시된 이체자 ‘濞, 摩, 呼’와의 음이 모두 [xu]이다. ‘沱’도 그의 이체자 ‘池’와 똑같이 [da]이다. 이들이 ‘分 去聲, 并 去聲’, ‘將 如字, 從 如字’, ‘噶 荒胡切, 濞 荒胡切’ 등으로 기술되지 않고 간결하게 ‘並去聲’, ‘並如字’, ‘並荒胡切’ 등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글자가 동일한 성조를 가지는 표현인 ‘並○聲’은 ‘皆○聲’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 (7) 遺[°]沛父老 爲[°]陳利害【遺 爲 皆去聲】<04:03a>
 使[°]者慰勞[°]相望於道【使 勞 皆去聲】<05:24a>
 僖宗對宰相[°]泣下[°]【相 下 皆去聲】<06:48b>
 太祖爲[°]之 下[°]箸【爲 下 皆去聲】<07:41a>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서로 다른 두 글자를 ‘並○聲’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3번이 있고 ‘皆○聲’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12번이 있다. 그리고 ‘皆○聲’은 예외없이 모두 ‘皆去聲’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다)의 ‘下同’은 피주음자가 문장에서 뒤이어 한 번 더 나올 때, 해당 한자가 앞과 같은 발음임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즉 협주에서 ‘□ 下同’으로 피주음자의 주음 정보를 밝히면, 뒤의 문장에서 나타난 이 한자에 대한 주음 정보를 다시 그 문장에 이어온 협주에 덧붙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뒤의 문장’은 바로 다음 문장이기도 하고 뒤의 몇 번째 문장이기도 한다. 다만 이 문장들은 같은 장의 가시 또는 동일한 주제의 고사를 기술하는 문장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8) 가. ①其遊戲 好[°]種樹麻菽 麻菽美【戲 香義切 好 去聲 下同 種 朱用切】^②及爲成人 遂好[°]耕農 相[°]地之宜 宜穀者稼穡焉 民皆法則之【相 去聲 視也 下同 稼 居訝切 穡 所力切】^③帝堯聞之 舉爲農師【……】 ……^{④⑤⑥⑦⑧⑨}… ^⑩公劉 雖在戎狄之間 能復修后稷之業 民以富實 乃相[°]土地之宜 而立國於豳之谷焉【復 扶又切 下同 豳 悲巾切】 <01:02b~01:03b>
 나. 狄人與處 狄人于侵 岐山之遷 實維天心【處 昌呂切 下同】
 野人與處 野人不禮 德源之徙 實是天啓 <01:07a>
 다. …… 大耳相[°]을 詔使 | 일큰 조·북·니【相 使 皆去聲 並下同】
 …… 大耳之相 詔使美之 <05:05b>

6) 《龍飛御天歌》의 협주에는 ‘並如字’로 표현하는 한자는 이 두 예시밖에 없다.

7) ‘如字’는 본음으로 읽힌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겠다.

(8가)는 중국 주나라의 선조들에 대한 고사이다. 첫 문장의 협주에서 ‘好’를 ‘去聲 下同’으로 주석하였는데, 이 ‘下同’이 지시하는 ‘뒤의 문장’은 바로 ‘好’가 다시 나오는 둘째 문장인 “及爲成人……”을 말한다. 둘째 문장에서 ‘好’가 다시 출현하였으나,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 문장에 이어온 협주에는 ‘好’의 주음 정보가 없다. 둘째 문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相’이 있는데, 협주에서 ‘相 去聲 視也 下同’으로 주석하였다. ‘相’의 ‘下同’이 지시하는 ‘뒤의 문장’은 “及爲成人……” 뒤의 ‘相’이 나타나는 여덟 번째 문장인 “公劉 雖在戎狄之間……”이다.

(8나)에서 ‘慶’는 한시의 두 시구에서 나타났는데, 첫 번째 시구에 이어온 협주에서 ‘慶’에 대한 주음 정보를 ‘下同’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시구의 협주에 ‘慶 昌呂切’이라는 주석이 없다.

(8다)에서 국문 가사에서 거성으로 나타난 ‘相’과 ‘使’가 한시에 다시 나타났다. 한시에 나오는 ‘相’뿐만 아니라 ‘使’도 거성으로 된다는 뜻으로 국문 가사의 협주에서 이들의 주음 정보가 ‘並下同’으로 표현되었다.

다음으로 (2라)의 ‘下並同’의 사용 원리도 ‘下同’과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下同’은 피주음자가 뒤의 문장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날 때 표현되는 반면에 ‘下並同’은 두 번 이상 나타날 때 표현된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9) 가. ①又發僧徒爲兵 加瑩八道都統使【使 去聲 下並同】<01:36a> …②③④⑤… ①④適本國使^者 卽罷齋【使 去聲】<01:52b>

나. 天爲[○]建國·ᄃᆞ·샤·天命·을·ᄃᆞ·리·오시·니.……【爲 去聲 下並同】

天爲[○]拯民·ᄃᆞ·샤·天才·를·ᄃᆞ·리·오시·니.……

天爲[○]建國 天命斯集【中 去聲】

天爲[○]拯民 天才是出【廿 音入】 제32장, <05:12a>

(9가)에서 조선의 태조에 관한 고사 중의 한 문장인 “加瑩八道都統使【使 去聲 下並同】”에 나오는 ‘使’는 거성이고 그 뒤의 문장에 거성 권점으로 부착된 ‘使’가 다섯 번이나 출현했는데도 ‘使 去聲’이라는 주석이 협주에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렇게 ‘使’가 주음 정보 없이 나타나다가 뒤에 태종에 관한 고사 중의 한 문장인 “適本國使者【使 去聲】”에 등장하는 ‘使’에 대한 주음 정보가 다시 협주에 나타났다.

(9나)는 국문 가사에 등장하는 ‘爲’의 주음 정보가 ‘下並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뒤의 국문 가사부터 한시까지 나타난 ‘爲’는 똑같이 거성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下同’ 또는 ‘下並同’은 주석의 간결성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 특히 주음 정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표현이기도 하다.

(10) ①道有一官人語穉曰【語 音御 下同】 ②汝國崔瑩 將精兵十萬 李(太祖諱)執之 易如捕蠅【將 卽亮切 易 戈鼓切 蠅 余陵切】 ③汝國之民 李(太祖諱)罔極之德 何以報之【……】 ④天子素聞穉名 從容語曰 汝仕元爲翰林 應解漢語【語 如字】<08:28b-29a>

(10)에서 첫 번째 ‘語’는 협주에서 주음 정보와 함께 ‘下同’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뒤의 넷째 문장에서 나타난 첫째 ‘語’의 발음이 ‘御’이며, 협주에서 주음한 ‘語 如字’는 ‘漢語’의 ‘語’에 대한 주음 정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넷째 문장에 나타난 ‘語’는 ‘上語 音御, 下語 如

字’로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문장에 나온 ‘語’가 ‘下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마)의 ‘二音’, ‘二/三切’의 유형이다. 이는 두 개 서로 다른 음을 표시하는 글자 또는 반절로 나란히 주음하는 형식으로 피주음자가 해당 문맥에서 A음으로 읽혀도 되고 B음으로 읽히기도 가능함을 말한다.

- (11)가. 亡匿隱於芒碭山澤巖石之間【碭 宕唐二音】<04:02a>
 作西峙【峙 止市二音】<04:03b>
 其少女緹縈 上書曰【少 詩照切 緹 體啼二音】<09:50b>
 歸馬于華山之陽【華 胡化胡瓜二切】<01:30b>
 咸州以北哈闌【하·란】과 洪肯【홍·컨】參散之地【哈 呼加呼合二切】<04:21b>
 令執送童貫 譚稹 詹度【令 平聲 譚 徒耽切 稹 之忍之仁二切】<05:12b>
 公主使術者言於睿宗曰 彗 所以除舊布新【彗 祥歲徐醉旋芮三切】<08:27a>

- 나. 有炮烙之法【烙 洛閣二音 燒灼也】<01:16a>
 <<正韻>>: 歷各切, 入聲六藥, 洛小韻, 燒灼 又火鍼曰烙 又陌韻
 各韻切, 入聲七陌, 格小韻, 荀子紂爲炮烙之刑音格 又藥韻
 多者一州 至百輦【輦 餘預二音 昇車也】<03:28a>
 <<正韻>>: 雲俱切, 平聲四魚, 于小韻, 車也
 羊茹切, 去聲四御, 豫小韻, 兩手對舉之車

- 다. 或歔歔流涕【歔 香依許既二切 歔歔者 悲泣氣咽而抽息也】<04:27a>
 <<廣韻>>: 香衣切, 希小韻, 止開三平微曉, 說文曰歔也 又喜既切
 許既切, 歔小韻, 止開三去未曉, 歔歔 許既切十八
 令民糴以償之【償 辰羊時亮二切 還也】<03:35a>
 <<廣韻>>: 市羊切, 常小韻, 宕開三平陽常, 報也還也當也復也又音尚
 時亮切, 尚小韻, 宕開三去漾常, 備也還也又音常
 潛然流涕【潛 所姦所版所晏三切 涕流貌】<10:12a>
 <<正韻>>: 師姦切, 平聲十刪, 刪小韻, 涕淚流貌 詩潛焉出涕 又產諫二韻
 數版切, 上聲十產, 潛小韻, 淚下 又刪諫二韻
 所晏切, 去聲十諫, 訕小韻, 淚下 又刪產韻

(11가)에서 ‘二音’, ‘二/三切’이라는 형식은 흔히 인명, 지명, 물명 등의 고유명의 음을 표기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명의 한자가 아닌 경우, (11나)와 (11다)에서 제시한 것처럼 운서에 수록된 정보에 의하면 피주음자가 어느 음으로 읽혀도 해당 문맥에서 그 뜻이 같다. 예컨대, <<正韻>>에 의하면 ‘烙’은 ‘불에 데다(燒灼)’의 의미일 때 ‘洛’으로 발음하고, 또 이런 형벌을 의미할 때 ‘閣’으로 발음한다. 결국 불에 데는 형벌을 말하는 ‘炮烙之法’의 ‘烙’은 이 두 가지 음으로 읽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輦’, ‘歔’, ‘償’, ‘潛’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한 글자에 위에서 제시한 하나의 주음 방법으로 그 음이 표시된다. 이외에 한 글자에 두 종류 이상의 주음 방법을 나란히 표기하는 복수 주음 표현도 있다.

(12) 복수 주음 표현

가. …或… :

以致中興之意【中 去聲 或如字】<08:32b>

匈奴冒頓 因引兵南踰句注 攻太原至晉陽【冒頓 音墨特 或讀如字】<09:03b>

나. …又… :

軍中洵洵【洵 音凶 又上聲】<01:41b>

與諸將約先入定關中者王之【王 于況切 又如字】<06:41a>

番禺【禺 音愚 又魚容切】<07:27a>

中興·을爲·ᄃᄂ·니【中 去聲 又如字 下同】<08:31a>

高祖以陽夏侯陳豨 爲相國【豨 許豈切 又音希】<09:03b-04a>

다. 一說

入請問曰 吏士死傷者多【問 去聲 欲因間隙有請白 一說 問 音閑 欲向空閑處語】<08:20a>

令昌選趙壯士可令將者白見四人【見 如字 一說 賢遍切 謂告白於天子而召見之】<09:05a>

(12가)의 ‘或’ 유형은 해당 문맥에서 피주음자가 두 주음 방법으로 표기된 음으로 발음해도 된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中興’의 ‘中’은 거성으로 읽혀도 되고 본음으로 읽혀도 되는 것이다. 이돈주(1992:595)의 ‘(3) 又音·又切’에서는 ‘又音·又切’이 해당자가 1자 2음 이상이어서 기타 다른 운의 소운(小韻)에도 해당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또 ‘中興’의 ‘中’은 ‘中 去聲 或如字(8회)’로 표현되기도 하고 ‘中 去聲 又如字(1회)’로 기술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12나)의 ‘又’ 유형은 ‘或’의 표현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12다)의 ‘一說’은 기존 견해 이외에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피주음자가 앞의 주음법으로 표기된 음으로 볼 수도 있고 뒤의 주음법으로 표기된 음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양설을 말한다. 이 경우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문맥과 협주에 나온 피주음자의 뜻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3. 한자 주음의 수록 상황

이 장에서는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각 주음법에 해당하는 한자가 어떤 것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본음

고대 중국어⁸⁾에서는 한자가 원래 1자 1음이었다. 이 ‘1음’은 바로 한자 본디의 음, 즉 본음을 말한다. 한 글자가 원의로 쓰일 때 본음으로 읽히면 ‘如字’라고 단다.⁹⁾ 때로 ‘讀如字’로 표현하기도 한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는 ‘X 如字’와 ‘X 讀如字’ 두 표현이 모두 나타난다. ‘讀如字’로 자음이 표시된 글자는 ‘便’이며, 2번 나타난다. ‘如字’로 자음이 표시된 항목은 142개가 있

8) 한국은 일반적으로 ‘한어(漢語)’를 중국인의 언어라는 뜻인 ‘중국어’로 부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관습을 그대로 따라 ‘중국어’로 사용함을 미리 밝힌다.

9) 왕력(2004:253)에서는 “凡是字用本义, 按照本音读出的, 叫做‘如字’. 凡用转化后的意义, 按照变化后的声调读出的, 叫做‘读破’. 由于转化的意义大多数是变为去声字, 古人所谓‘读破’, 也就是大多数读为去声.”라고 언급한 바 있다. 梅祖麟(1980:427)에서도 ‘如字’는 대부분 비거성이고 ‘讀破’는 대부분 거성이라고 지적하였다.

며, 해당 한자는 33자가 있다. 해당 한자 목록과 그 출현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 <표1>과 같다.¹⁰⁾

<표1>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如字’로 표기된 한자

번호	한자	개수	독음	의미	용례
1	將	34	장	장차, 거의, 어찌	遼東城將陷/將何以處之
2	使	26	사	시키다	使吹大螺一通
3	上	9	상	위, 임금	若犯上國之境
4	令	8	영/령	벼슬, 법령	縣令怒笞之/太祖令曰
5	相	6	상	서로	脅權相滅
6	爲	6	위	되다, 삼다	爲東宮衛士
7	復	5	복	회복하다	令國人復胡服
8	中 ¹¹⁾	5	중	가운데	擲毬道中
9	下	5	하	아래, 밑	直抵城下
10	從	4			
11	騎	3			
12	乘	3			
13	易	3			
14	射	2			
15	帥	2	수	장수, 우두머리	若從元帥
16	數	2	수	몇	相國疆賤買民田宅數千人
17	朝	2			
18	陳	2	진	서술하다	道宗具陳在駐蹕時 陳智略(인명)
19	見 ¹²⁾	1			
20	更	1	갱	다시	更思莽朝
21	度	1			副總管王大度先登拔之
22	刺	1			
23	勞	1			
24	聞	1			
25	少	1			
26	勝	1			諸軍乘勝
27	施	1		기뻐하다	施施無憚避
28	語	1			
29	惡 ¹³⁾	1			與世充交惡
30	傳	1			
31	重	1			
32	會 ¹⁴⁾	1			
33	橫	1			

‘如字’로 표시된 한자 가운데 ‘將’은 34개로 가장 많고, 使(26개), 上(9개), 令(8개), 相/爲(6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見, 更, 度, 刺, 勞’ 등 15개의 글자는 한 번만 나타났다.

10) 이외에 ‘僞游雲夢【夢 莫風切 又讀如字】<09:02a>’, ‘匈奴冒頓 因引兵南踰句注 攻太原至晉陽【冒頓 音墨特 或讀如字】<09:03b>’에서 ‘讀如字’도 보이고, ‘與諸將約先入定關中者王之【王 于況切 又如字】<07:41a>’에서 ‘如字’도 보인다. 본고는 ‘又’와 ‘或’ 유형의 복수 주음 표현인 경우, 첫 번째 주음 방법에서 해당 한자를 다루기로 한다. ‘夢’, ‘王’은 반절법에서, ‘冒頓’은 직음법에서 처리할 것이다.

11) (12)에서 살펴본 듯이 ‘中’의 경우는 ‘中興’이라는 단어에만 ‘去聲 又如字’ 또는 ‘去聲 或如字’로 표기된다. ‘中’은 ‘맞다, 맞히다, 적중시키다’ 등의 의미일 때 ‘去聲’로 표기되고, ‘가운데’의 의미로 쓰일 때는 ‘如字’로 표기된다. <표1>에서는 5개의 ‘中 如字’로 나타나는 경우만 제시하였다.

12) 令昌選趙壯士可令將者白見四人【見 如字 一說 賢遍切 謂告白於天子而召見之】<09:05a>

13) 與世充交惡【惡 去聲 謂兩相疾惡也 一說 惡 如字】<07:43a-b>

14) 荊州 北據漢沔 利盡南海 東連吳會 西通巴蜀 ……【會 如字 吳會 謂吳地爲東南一都會也 一說 會 工外切 吳會 謂吳及會稽二郡之地也】<05:07b-8a>

한자의 본음이 흔히 한자 최초의 의미, 즉 원의(原義)와 연관이 있다. 당나라의 《經典釋文》에서는 한 글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지는 경우 원래의 의미로 해석되면 ‘如字’라고 주석을 단다(백은희, 2011:581). 그러나 《龍飛御天歌》에서는 한 글자가 원래의 의미로 해석될 때 ‘如字’로 주음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使’가 원래 의미인 ‘시키다’로 해석될 때 ‘如字’로 표시된 반면에, ‘將’이 원래 의미인 ‘장수’가 아닌 ‘장차, 거의, 어찌’의 의미일 때는 ‘如字’로 표시되어 있다.

3.2. 사성 표기

고대 중국어에서는 한자가 원래 1자 1음이었지만 품사의 전환, 의미의 파생 등의 상이한 용법에 따라 동일한 글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조 교체 현상이다.¹⁵⁾ 즉 동일한 글자가 성조의 변화에 의해 상이한 품사 또는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¹⁶⁾ 파생된 의미는 대부분 거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왕력, 2004:253). 동형이음 한자의 음과 의미를 잘 판별하기 위해 해당 한자의 네 귀퉁이에 권점을 쳐서 표시하는 사성 권점법이 생겨났다.¹⁷⁾ 사성 표기가 당나라 초기에 실점으로 나타났고, 송나라 때 권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우세하였다. 명나라에 들어와서는 반권(半圈)으로 사성을 표시하기도 하였다.¹⁸⁾ 권점을 찍히는 방법은 대체로 왼쪽 아래에 찍는 것은 평성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왼쪽 위는 상성, 오른쪽 위는 거성, 오른쪽 아래는 입성이 된다.¹⁹⁾

15) 이밖의 성모 또는 운모 교체로 실현된 현상도 있다. 성모 또는 운모 교체 동시에 일어난 성조 변화도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조 교체’는 성모와 운모가 변화없이 일어난 성조 교체(단순 성조 교체)와 성모 또는 운모 교체를 일어난 성조 교체를 모두 포함하였다.

가. 단순 성조 교체(同紐同韻異調)

好 : 呼皓切, 曉母, 皓韻, 上聲, 善也美也; 呼到切, 曉母, 号韻, 去聲, 愛好

나. 성모 교체(異紐同韻異調/同調)

見 : 古電切, 見母, 霰韻, 去聲, 視也; 胡甸切, 匣母, 霰韻, 去聲, 露也

다. 운모 교체(同紐異韻異調/同調)

契 : 苦計切, 溪母, 霽韻, 去聲, 約也; 去訖切, 溪母, 迄韻, 入聲, 契丹

라. 성운 교체(異紐異韻異調/同調)

食 : 乘力切, 牀母, 職韻, 入聲, 一米也; 羊吏切, 喻母, 志韻, 去聲, 酈食

16) 성조 교체 현상은 중국어에서 전통적으로 ‘四聲別義’로 알려져 있다. 중국 학자 周祖謨가 <四聲別義釋例>에서 대량의 음주 자료로 사성으로 자의 또는 품사를 구별하는 것이 늦어도 후한 시기부터 일어났음을 입증하였다.

17) 섭보매(2016:262-263)에서는 “한자의 사성 권점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점(點), 발(發), 점발(點發), 점서(點書), 권(圈), 권점(圈點), 주발(朱發), 권발(圈發), 권법(圈法), 권식(圈識), 권독(圈讀), 권성(圈聲), 권파(圈破), 독파(讀破), 파독(破讀), 혹발(或發), 이독(異讀), 동자(動字), 발권(發圈), 발권법(發圈法), 사성권발법(四聲圈發法), 사성권점(四聲圈點), 사각표사성(四角標四聲) 등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18) 管錫華(2002:320-321)에서는 錢大昕이 《十駕齋養新錄》 권5에서 ‘四聲圈點’에 대해 “蓋自齊梁人分別四聲而讀經史者 因有點發之例 觀守節所言 知唐初已盛行之矣 宋以來改點為圈 如相臺嶽氏刊五經於一字異音 皆加圈識之”라고 언급하였다고 하였다. 명나라의 凌稚隆이 《漢書評林·凡例》(1583)에서 “漢書刻本前無句讀 茲圈於中爲讀 圈於傍爲句 而一字有數呼者 則準聲韻 半圈於四週 以別之”라고 한 바 있다.

19) 周祖謨(1966)에서는 정착된 성점 위치를 언급하였다. “以四聲區分字義, 遠自漢始, 至晉宋以後, 經師爲書作音, 推波助瀾, 分辨更嚴, 至陸德明《經典釋文》, 乃集大成. …… 及其日久, 學者濡染已深, 凡點書, 遇一字數音, 隨聲分義者, 皆以朱筆點發, 以表其字宜讀某聲. 若發平聲, 則自左下始, 上則左上, 去則右上, 入則右下. 至宋人復易點爲圈, 以求明晰, 斯即所謂‘圈發’之法”

당나라 張守節 《史記正義》(736년)의 서에는 “古書字少, 假借蓋多, 字或數音, 觀義點發. 皆依平上去入, 若發平聲, 每從寅起 (모두 평상거음을 따르며, 평성으로 발음하면 인위치(글자의 왼쪽 아래(李愛國, 2008:134))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Ishizuka(1993)에서는 이것이 사성점(四聲點)이 아니라 파생 의미를 원의(原義)와 구별하기 위한 파음 가점(破音加點)에 대해 서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

고대부터 문자 생활을 주로 한자에 의존하는 한국이 성조 표기에 있어서 중국의 이런 통례를 따랐다.²⁰⁾ 《龍飛御天歌》에서는 왼쪽 아래가 평성을 나타내는 성조 표기 형태로 되어 있으며, 권점인 ‘◦’에 의한 사성 표기이다. ‘◦’이 부착된 한자는 서, 국문 가사에 있는 한문, 한시, 고사, 주석 등에서 대량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3) 가. 祖宗之德積累深長

나. 麗運·이衰·헝거·든·나·라·홀맛뜨·시랄·씨. <01:11a>

다. 聖孫將興 爰先嘉祥【先去聲】 <01:12a>

라. 其遊戲 好種樹麻菽 麻菽美【好去聲 下同】<01:02b>

마. a. 【慶源 …… 大將尹瓘逐胡人 置鎮爲防禦使°】 <01:02a>

b. 【古者二十而冠°】<01:0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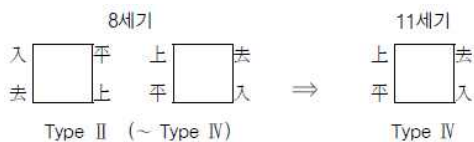
(13가)는 서에서 상성으로 표시된 예이고, (13나)와 (13다)는 각각 가시에 나온 거성으로 표시된 예이고, (13라)는 고사에 나온 것이다. (13마)는 협주 주석에 나온 사성 권점 표기인데, a는 국문가사의 협주에, b는 한시의 협주에 있는 것이다. 그 중에 (13다)의 ‘先°’에, (13라)의 ‘好°’에 거성 권점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협주에서 ‘先去聲’, ‘好去聲’과 같은 주음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²¹⁾

그렇다고 모두 사성 표기로 부착된 한자가 협주에 그에 대한 부가 주음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周國大王·이·幽谷·애·사르·샤.<01:02a>”에서 ‘大°’가 거성 권점으로 부착되어 있지만 국문 가사 뒤에 연이은 협주에 ‘大去聲’이 없다. 또한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下同’으로 처리된 경우, 그 뒤의 문장에 나오는 같은 사성 표기로 부착된 한자에도 주음 설명이 없다.

본고는 협주에 ‘○聲’이 있는 한자만 살펴보기 때문에, 주로 (13다), (13라)의 경우, 즉 가시 또는 고사에 출현하고 사성 권점이 부착된 한자를 대상으로 한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聲’으로 표시된 한자 및 그 빈도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 그리고 “聲點의 起源은 中國에서 派生義를 原義와 區別하기 위한 破音法에 기초한다. 처음에는 문자의 右上方이 平聲을 나타내는 형태이었고, 그 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문자의 右下方이 平聲을 나타내는 형태이 되었다. 이것이 더욱 회전하여 左下方이 平聲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破音의 기능을 벗어나 聲調만을 나타내는 聲點은 8세기 후기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敦煌漢文資料에서 聲點의 용례는 9세기, 10세기 것이 소량 관찰된다.(김혜진·오미영(共譯), 2003)”라고 한 바 있다.

20) 권인한(2016)에서는 8세기 문헌인 大谷大學藏『判比量論』, 東大寺藏 華嚴經 卷12-20, 11세기 문헌인 誠庵古書博物館藏 周本 華嚴經 卷57에 나타난 성점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 한국한자음의 성조 문제를 고찰하였다. 논문에서는 ‘上去無別’의 몇 예를 제외하면 한국한자음의 성조 표시법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21) 협주에서 성조의 부가 주음 설명이 아닌 다른 주음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3나) ‘麗運’의 ‘麗’는 평성 권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협주에서 사성 표기가 아닌 직음법인 ‘麗音离’로 되어 있다. ‘復修后稷之業<01:03b>’에서 ‘復’은 거성 권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협주에 반절인 ‘復扶又切’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한자 ‘復’은 거성인 경우 ‘부’로 읽힘을 알 수 있다.

<표2> 《龍飛御天歌》 협주에서 평성으로 표시된 한자

평성									
번호	한자	개수(93)					독음	의미	용례
		총개수	平聲	並平聲	下同	下並同			
1	승	64	43		12	9	영/령	시키다, 하여금	先令馳奏
2	幾	21	20		1		기		宗社幾傾
3	량	2	2				양/량		
4	요	2	2				요		
5	論	1	1				논/론	(죄를) 결정하다	已論而復有 答罪者
6	望	1	1				망		
7	勝	1	1				승		不勝幸甚
8	號	1	1				호		

<표3> 《龍飛御天歌》 협주에서 상성으로 표시된 한자

상성									
번호	한자	개수(100)					독음	의미	용례
		총개수	上聲	並上聲	下同	下並同			
1	上	55	37		14(1並)	4	상	올리다	上書
2	長	43	31		8(1並)	4(1並)	장	말, 우두머리	長子
3	枕	1	1				침	베개	吾輩枕枕
4	荷	1	1				하	입다, 메다	吾荷國恩

<표4> 《龍飛御天歌》 협주에서 입성으로 표시된 한자

입성									
번호	한자	개수(9)					독음	의미	용례
		총개수	入聲	並入聲	下同	下並同			
1	度	9	6	1	2		탁	헤아리다	度德量力

<표5> 《龍飛御天歌》 협주에서 거성으로 표시된 한자

거성									
번호	한자	개수(617)					독음	의미	용례
		총개수	去聲	並去聲	下同	下並同			
1	爲	94	76	1	9	8	위	위하다	非爲功名
2	使	92	47	3	20(1並)	2 2 (2 並)	사	사신	使者
3	下	81	67	1	9	4			
4	中	62	47	2	9	4			
5	騎	40	18		12	10			
6	相	39	23	1	5	10	상	보다.상국	
7	好	23	15		7	1			
8	間	19	16		2	1			
9	先	17	16		1				
10	間	15	11		4				
11	惡	11	9		2				
12	遣	11	10		1				
13	喪	10	9		1				
14	乘	10	6		4				
15	治	10	6		4				
16	觀	8	5		2	1			
17	勞	9	8		1				
18	分	7	6		1				
19	食	7	5		2				
20	爭	7	6		1				

21	難	6	6						
22	長	5	5					길다, 길이	長二百尺
23	冠	3	3						
24	縱	3	3						
25	右	2	2						
26	左	2	2						
27	論	2	2					의논하다	尙論其功
28	并	2	2						
29	施	2	1		1			베풀다	布施萬錢
30	臨	2	2						
31	枕	2	2					(베개를)베다	吾輩枕枕
32	橫	2	2						
33	監	1	1						
34	供	1	1						
35	當	1	1						
36	累	1	1						
37	三	1	1						
38	旋	1	1						
39	深	1	1						
40	雨	1	1						
41	遲	1	1						
42	稱	1	1						
43	行	1	1						
44	後	1	1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龍飛御天歌》 협주에는 총 819개의 ‘○聲’이 있다. 거성은 61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상성은 100개, 평성은 93개 있고 입성은 9개로 제일 적게 나타났다.

평성으로 표시된 한자는 ‘幾, 論, 令, 量, 望, 勝, 要, 號’ 8자가 있는데, ‘令’과 ‘幾’는 각각 64개와 21개로 많이 나타났다. 상성의 경우, 100개가 있지만 표시된 한자는 ‘上, 長, 枕, 荷’ 4자가 있다. 그 중에 ‘上’은 55개, ‘長’은 43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枕’과 ‘荷’는 각각 한 개씩으로 출현했다. 거성으로 표시된 한자는 가장 많으며, 44자가 있다. ‘爲’와 ‘使’는 각각 94개와 92개로 많이 드러났으며, 다음으로 ‘下(81개)’, ‘中(62개)’, ‘騎(40개)’, ‘相(39개)’, ‘好(23개)’의 순으로 많다. 입성으로 표시된 한자는 ‘度’가 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사성으로 표시된 한자가 총 57자로 되어 있지만 ‘論’, ‘長’, ‘枕’ 세 글자에 두 가지 성조의 구별이 있으므로 실제로 사성으로 표시된 한자는 총 54자가 있다. 《龍飛御天歌》에서는 ‘論’이 평성일 때 ‘(죄를) 결정하다’의 뜻이고²²⁾ 상성일 때는 ‘의논하다’의 뜻이다.²³⁾ ‘長’은 상성으로 많이 나타나며, ‘만’,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거성일 때 ‘長’은 ‘길다’, ‘길이’의 뜻이다. ‘枕’이 상성일 때 ‘베개’의 뜻이고 거성일 때는 ‘(베개를)베다’의 뜻이다.

22) 평성으로 주음된 ‘論’은 “已論而復有笞罪者皆棄市【論 平聲 又音倫】<09:51b>”에서 나타난다. 문맥에 의하면 여기서 ‘論’은 ‘정죄(定罪)하다’의 의미이다. ‘論’의 이 의미는 《洪武正韻·真韻》의 “論 決罪曰論”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論’의 성조와 관련하여, 《석보상절》에서 ‘論’이 ‘의논하다’를 의미할 때 거성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議(·론)論<19:10b>, 戲(·론)論<19:25a>, 議論(·론)<19:25a>, 議論(·론)<19:42a>’ 그 예이다. 그러나 권13 교정본에서만 ‘論(·론)議<13:2b>, 講論(·론)<13:17b>, 講論(·론)<13:21a>’의 ‘論’의 거성점이 개서되어 앞 번란에 ‘論平聲’이란 부전(附箋)이 붙어 있다.((이호권, 2001:91), (안병희, 1974:25)). 또한 《월인석보》에서는 ‘論(론)議<11:18b>, 議論(론)<11:119b>’의 ‘論’이 평성이고, 그리고 ‘道義를 講論(론)하야 <11:31a>, 조려 아니 論(론)하니라<11:81a>’ 등의 동사 용법으로 쓰이는 ‘論’도 평성으로 되어 있다. 起信論(·론)<11:54b>, 十地論(·론)<11:57b>, 瑜伽論(·론)<11:80a> 등과 같이 명사의 용법으로 쓰이는 ‘論’은 거성으로 되어 있다.

‘論’은 평성과 거성의 교체이고, ‘長’과 ‘枕’은 상성과 거성의 교체이다. 이것은 성조 교체 현상이 대부분이 거성과 비거성의 교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표2~5>와 <표1>의 비교를 통해서도 동일한 한자에 품사 또는 의미의 구별이 대개 거성 대 비거성의 대립에 의한 것을 알 수 있다.

<표6> ‘如字’와 사성으로 표기된 한자

번호	한자	주음	개수	의미	주음	개수	의미
1	騎	如字	3	타다	去聲	40	기마, 기병
2	勞	如字	1	수고	去聲	9	위로하다
3	聞	如字	1	듣다	去聲	15	들리다, 알려지다
4	使	如字	26	시키다	去聲	92	사자
5	相	如字	6	서로	去聲	39	상국
6	乘 ²⁴⁾	如字	3	타다(틈타서)	去聲	10	수레
7	施	如字	1	기뻐하다	去聲	2	베풀다
8	惡	如字	1	나쁘다	去聲	11	미워하다, 비방하다
9	爲	如字	6	되다, 삼다	去聲	94	위하다
10	中	如字	5	가운데	去聲	62	맞다, 맞히다
11	下	如字	5	아래	去聲	81	내리다
12	橫	如字	1	가로, 제멋대로 하다	去聲	2	비정상적이다
13	上	如字	9	위	上聲	55	올리다
14	度	如字	1		入聲	9	헤아리다
15	令	如字	8	법령, 벼슬	平聲	64	시키다, 하여금
16	勝	如字	1	승리	平聲	1	견디다

<표6>에서 보듯이 각각 ‘如字’와 ‘사성’으로 표시된 한자는 16자가 있는데, ‘如字’와 ‘去聲’의 교체는 75%(12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勝’자 제외한 나머지 15개 글자의 사성으로 표기된 경우가 수치상 ‘如字’로 표기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예컨대, 《龍飛御天歌》에서 ‘騎’는 ‘去聲’으로 표기될 때 40번이나 나타난 반면에 ‘如字’로 표기될 때 3번만 출현하였다. ‘爲’는 대부분 거성으로 나타나는 ‘위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⁵⁾

3.3. 독약법(讀若法)

독약법은 중국 최초의 주음 방법인 비항법(譬況法)에서 기원한 것이며, 한나라 시대에 생겨난 주음 방법이다. 《說文解字》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음처럼 읽어라’의 의미로서 어

24) 《龍飛御天歌》에서는 ‘乘’자의 자형이 ‘乘’으로 되어 있다.

25) 《훈민정음》, 《석보상절》, 《월인석보》 등에 나온 ‘爲’의 성조 표기를 통해 ‘爲’는 ‘되다’의 의미일 때 평성이고 ‘위하다’의 의미일 때 거성과 상성임을 알 수 있다.

주영 | 爲·嬴·此·概·然·호·야 ·내·이·를 爲·嬴·호·야 ·어·엇·비·너·겨 <훈민정음, 02b:2-6>

則·즉·爲·嬴·脣·瓮·輕·경·흙·흙·호·노·니·라 爲·嬴·는·득·일·씨·라 <훈민정음, 11b:6-12a:3>

:위·호·야 說·說·法·법·호·더·시·니 <석보상절9, 01b:5>

그·:사·를 :위·호·야 날·웨 ·밤·나·줄 八·발·分·분·齋·쟁·戒·쟁·디·너 <석보상절9, 32a:4>

衆·중·生·싱 爲·嬴·호·야 ·큰·法·법 幢·팡·세·오 <월인석보2, 16b:1>

특히 ‘爲’가 ‘위하다’를 의미할 때, 한자 ‘爲’로 사용한 《훈민정음》과 《월인석보》에서는 거성으로 표기되고, 한글 ‘위’로 사용한 《석보상절》에서는 상성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세 한국한자음의 특징이 ‘上去無別(/相混)’임을 보여주지만, ‘爲’가 한자와 한글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거성으로 된 ‘爲’는 중국음이고 상성으로 된 ‘爲’는 한국한자음임을 구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는 한자의 음을 음이 완전히 같거나 비슷한 다른 한자를 빌어 빗대는 방법이다. 보통 ‘X 讀若 Y’, ‘X 讀如 Y’, ‘X 讀曰 Y’, ‘X 讀爲 Y’, ‘X 讀似 Y’ 등과 같은 형식의 표현이 있다. 이 주음 방법으로 표시된 ‘X’가 주음자인 ‘Y’의 음과 뜻을 가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독약법으로 주음된 항목은 73개로 다른 주음 방법에 비해 가장 적다. 표현 형식이 주로 ‘X 讀曰 Y’로 사용되며, 72개가 있다. 이 형식에 해당하는 한자는 23자가 있다. 이밖에 ‘頒 讀爲班布之班’처럼 1개의 ‘讀爲○’가 있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X 讀曰 Y’로 표기된 한자들 및 그 출현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7>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讀曰○’로 표시된 한자

번호	한자	주음	개수	독음	의미	용례
1	陳	讀曰陣	16	진	진열, 진열하다	陳於巴公原
2	帥	讀曰率	15	솔	거느리다	帥騎數十萬
3	與	讀曰預	8	여	참여하다, 협조하다	參與朝廷
		讀曰歟	1			
4	趣	讀曰促	7	촉	재촉하다	世宗趣諸軍亟進
5	說	讀曰悅	3	열	기뻐하다	高祖乃大說
6	倍	讀曰背	2	패	위배하다, 배반하다	不倍德
7	創	讀曰瘡	2	창	부스럼	玉體創癩
8	鄉	讀曰嚮	2	향	대접하다	更爲賊鄉導
9	縣	讀曰懸	2	현	걸다	縣大白之旗
10	卷	讀曰捲	1	권	거두다	卿卷甲兼行
11	頓	讀曰鈍	1	둔	둔하다	器械頓弊
12	邪	讀曰耶	1	야	여조사	誰能老死沙磧邪
13	殺	讀曰弑	1	시	죽이다	放殺其主
14	召	讀曰邵	1	조	성의 하나	召平(인명)獨弔
15	信	讀曰伸	1	신	늘이다	欲信大義於天下
16	繇	讀曰由	1	유	길, 방법	其道無繇也
17	怨	讀曰冤	1	원	원한	恐仇怨妄誣之
18	填	讀曰鎮	1	진	진압하다	填撫天下
19	卒	讀曰猝	1	졸	갑자기	胸腹卒痛
20	質	讀曰鑿	1	질	도끼	斧質
21	趨	讀曰趨	1	추	행하다	方提趨湯
22	畜	讀曰蓄	1	축	쌓다	畜積歲增
23	罷	讀曰疲	1	피	고달프다	罷苦萬民之力

<표7>에서 보는 듯이, ‘讀曰○’로 표기된 한자 가운데 ‘陳’과 ‘帥’가 각각 16개, 15개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²⁶⁾ ‘與’는 9개가 있는데, 실사일 때는 ‘讀曰預’로 주음되고, 여조사일 때는 ‘讀曰歟’²⁷⁾로 주음되어 있다. ‘趣’는 7개로 나타난다. 나머지 한자는 대부분 한 번만 나타났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讀曰○’로 주음된 한자들 가운데 대부분 피주음자 X가 자형상 주음자 Y와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맥락에 의하면 X가 Y의 음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가차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陳’과 ‘帥’는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如字’로 표기될 때 본음으로 읽혀 각각 ‘진솔하다’, ‘장수’의 의미이다. 그러나 ‘陳’은 ‘讀曰陣’으로 표기될 때 ‘陣’의 의미와 같으며 ‘진열, 진열하다’의 뜻이다. ‘帥’는 ‘讀曰率’의 음일 때 ‘率’의 의미와 같으며 ‘인도하다, 거느리다’의 뜻이다.²⁸⁾²⁹⁾

26) ‘讀曰○ 下同’, ‘讀曰○ 下並同’, ‘並讀曰○’, ‘並讀曰○ 下並同’ 등의 표현은 ‘陳’과 ‘帥’에 주로 보인다.

27) 當使誰與【與 讀曰歟】<08:07b>

3.4. 직음법(直音法)

직음법도 한나라부터 있었다. 이는 성과 운, 그리고 성조까지 완전히 같은 글자로 직접 주음하는 것으로서 독약법보다 조금 진보된 주음 방법이다. 표현 형식은 ‘X 音Y’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X Y 音’인 경우도 있다. 또한 직음법은 한 단어의 음을 표시한 경우도 있다. 직음법은 동음자로 주음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직음법으로 표기된 항목은 377개³⁰⁾가 있으며, 대부분 ‘X 音Y’로 사용된 것이다. 피주음자 ‘X’는 단어와 단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단어인 경우에는 ‘可汗 音榼寒, 邯鄲 音寒丹, 單父 音善甫, 琅邪 音郎耶, 鞅鞅 音末曷, 臙臙 音蒙衝, 噬臍 音逝齊, 宿留 音秀溜, 食其 音異基, 於戲 音烏呼, 棗盛 音咨成, 猖蹶 音昌厥, 婕妤 音接予, 冒頓 音墨特 或讀如字, 樂浪 音洛郎’ 등의 15개 단어가 있다. 그 중에 ‘可汗’은 7회 나타나고 나머지 단어는 각 1회씩으로 나타났다. 단자인 경우에는 총 218자가 있다. 그 가운데 217자는 동음자로 직접 음이 표시된 것이고, 오직 한자 ‘準’의 음만 ‘準 音準的之準’처럼 동음자 대신 단어 ‘準的’을 제시함으로써 표기된 것이다. 217자 중에 ‘契 乞喫二音, 烙 洛閣二音, 輦 餘預二音, 緹 體啼二音, 峙 止市二音, 碣 宕唐二音’ 등의 6자가 ‘X YZ二音’에 해당한다.

‘音○’로 음이 표시된 한자가 많으므로 그 가운데 빈도수 2회 이상의 한자만 제시한다. 그 목록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音○’로 표시된 빈도수 2회 이상의 한자

번호	한자	주음	개수	독음	번호	한자	주음	개수	독음
1	樂	音洛	21		16	勾/句	音鉤	2	
2	說	音稅	21		17	其	音基	2	
3	數	音朔	19		18	淪	音倫	2	
4	勝	音升	18		19	魅	音媚	2	
5	屬	音燭	17		20	募	音慕	2	
6	語	音御	12		21	番	音潘/音婆	2	
7	射	音夜	7		22	屏	音餅	2	
8	背	音佩	5		23	俟	音祈/音其	2	
9	賈	音古	3		24	飼	音嗣	2	
10	大	音泰/音太	3		25	縈	音嬰	2	
11	徼	音叫	3		26	給	音怠	2	
12	暴	音僕	3		27	醴	音海	2	
13	諷	音加	2		28	梟	音澆	2	
14	乾/軋	音干	2		29	懦	音軟 又乃亂切	2	
15	契	音乞/乞喫二音	2						

《龍飛御天歌》의 협주에는 ‘音○’로 음이 표시된 빈도수 2회 이상의 한자는 29자가 있고 나머지 189자는 각 1회씩으로 나타났다. 출현 빈도가 많은 한자는 ‘樂(21개), 說(21개), 數(19개), 勝(18개), 屬(17개), 語(12개)’이다.

28) 중국 옛 문헌에서 ‘陳’과 ‘陣’, ‘帥’와 ‘率’이 흔히 통용한다는 기록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청나라 段玉裁가 편찬한 《說文解字注》에서 “率與帥古多通用(‘率’과 ‘帥’은 옛날에 흔히 통용한다.)”라고 하였다.

29) 한자어 ‘나진(羅陳)’이 ‘陳’의 이러한 가차의 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두 단어 ‘솔선(率先)’과 ‘수선(帥先)’이 중국어에서 다 같은 음(ṣuai4 ciæn1)으로 한다.

30) 여기서 ‘豨 許豈切 又音希’, ‘論 平聲 又音倫’ 두 가지 ‘又音’을 제외하였다.

<표8>에서 서로 다른 글자로 주음된 한자는 ‘大, 番, 俟’가 있다. ‘番’은 문맥에 따라 서로 두 가지 다른 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파’로 읽힐 때 “布故與番君婚【番 音婆 卽故長沙王吳芮也】<09:16a>”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명에서 보인다. ‘大’는 ‘音泰’로 주음되기도 하고 ‘音太’로 주음되기도 하지만 ‘泰’와 ‘太’의 독음은 같다. ‘俟’의 동음자인 ‘祈’와 ‘其’도 똑같이 [기]이다. 《龍飛御天歌》에서 ‘俟’는 ‘기다리다[사]의 뜻을 나타낼 때 주음되지 않는다. 오직 인명인 ‘俟利苾可汗’, 지명인 ‘俟利發’, 부족명인 ‘俟斤部落’에만 [기]의 음이 표시되어 있다.

3.5. 반절법(反切法)

직음법은 간혹 음을 달 때 적당한 동음자가 없거나 피주음자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을 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³¹⁾ 그리하여 정확하게 주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이 성모를 표시하는 한자와, 운모와 성조를 표시하는 한자로 한 글자의 음을 표시하는 반절법이었다. 반절법은 주지하다시피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성명학(聲明學)도 수입된 문화적인 배경에서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³²⁾ 반절법은 후한 때에 사용되었으며, 처음에 ‘(音)○○反’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당나라에 들어와서 ‘反’자가 ‘翻’ 또는 ‘切’로 바뀌었고, 송나라 때 ‘○○切’로 정착되었다.³³⁾

권인한(2019:130)에서는 고려시대의 음주에서 ‘○○反’이 ‘○○切’로 전환되는 시점이 대체로 13세기 초엽으로 보았다. 15세기의 자료인 《龍飛御天歌》의 협주에는 나오는 반절법인 ‘○○切’의 표현만으로 되어 있다. 한 글자에 주로 1개의 반절 ‘X YZ切’로 표기되어 있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반절법으로 주음된 항목은 2404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해당 한자는 약 1550자가 있다.³⁴⁾ 동일한 반절로 10회 이상 나타난 한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9>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빈도수 10회 이상 나타난 반절 및 그 해당 한자

번호	한자	반절	빈도	독음	의미	용례
1	將	卽亮切	116	장	장수	密召諸將
2	復	扶又切	63	부	다시, 거듭	復行洪武年號
3	朝	馳遙切	63	조	조정	朝廷, 朝鮮
4	射	食亦切	52	석	쏘다	度祖射黑龍
5	見	賢遍切	36	현	보이다, 보다	何顏以見帝

31) 청대 진례(陳澧)가 《切韻考》卷六에서 직음법은 “그러나 혹 같은 음의 글자가 없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같은 음의 글자가 있더라도 편벽하여 알기 어려우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然或無同音之字 則其法窮 雖有同音之字 而隱僻難識 則其法又窮)”라는 결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에는 방언이 복잡하여 어느 방언에서 음이 같은 글자더라도 다른 방언에서는 음이 다를 수가 있다. 각 방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음을 정확하게 읽히려면 방언마다 따로 그 음이 같은 글자를 택하여 주음하는 것은 쉽지 않다. 唐作藩(2015:42-43)에서 참조.

32) 반절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정광(2016)에서 참고할 수 있다.

33) 《漢書·地理志》卷28에 나온 “遼東郡……沓氏【應劭曰 沓水也 音長答反 師古曰 凡言氏者 皆謂因之而立名】”, 《漢書·陳勝項籍傳》에 나온 “諸侯軍人人惴恐”에 대한 服虔의 주석인 “惴音章瑞反”, 《漢書·禮樂志》에 나온 “寂滲上天知厥時”에 대한 應劭의 주석인 “滲音來朝反” 등과 같이, 동한 시대의 應劭, 服虔이 주석했던 《漢書》에 반절이 있었다. 반절법은 한자음의 음운 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주음 방법으로서 청나라 말까지 한자의 주음 방법의 주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34) 강신항(1994)에서는 《龍飛御天歌》에는 반절법으로 자음이 표시된 자가 전부 1494자라고 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1550자는 《龍飛御天歌》의 협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통계한 후에 얻은 결과이다.

35) 《龍飛御天歌》에서는 ‘刺’자의 자형이 ‘刺’로 되어 있다.

6	從	才用切	36	종	따르다	從者皆醉
7	降	胡江切	24	항	항복하다	率三百餘戶來降
8	幾	居豈切	20	기	몇, 얼마	不知其幾人
9	呼	火故切	20	호	부르다	躍馬大呼
10	少	詩照切	19	소	젊다	太祖少時
11	易	弋豉切	16	이	쉽다	難遭而易失
12	處	昌呂切	15	처	처리하다	處事有疑
13	去	口舉切	13	거	버리다	一舉去之
14	重	直龍切	13	중	겹	圍花園數百重
15	更	工衡切	11		바꾸다	旦出更衣
16	行	下孟切	11	행	다니다	行可居之地
17	亟	紀力切	10	극	급하게	心欲王亟入
18	刺 ³⁵⁾	七迹切	10	척	찌르다	援槩欲刺之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동일한 반절로 10회 이상 나타난 한자는 18자가 있다. 그 중에 ‘將 卽亮切’이 116개로³⁶⁾ 가장 많다. ‘將’은 기본 의미인 ‘장수’를 나타낼 때 이 반절로 음이 표시된다. ‘復 扶又切(63개)’, ‘朝 馳遙切(63개)’, ‘射 食亦切(52개)’, ‘見 賢遍切(36개)’, ‘從 才用切(36개)’, ‘降 胡江切(2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550개의 한자에서 ‘將, 復, 朝, 射, 見’ 등의 한자처럼 대부분 하나의 반절로 그 음이 표기된다. 동일한 한자에 두 개 이상의 반절로 주음된 경우도 있다. 하나는 ‘二切’, ‘三切’의 경우이다. ‘二切’의 경우에는 ‘疆 其良其兩二切, 校 居效後教二切, 償 辰羊時亮二切, 歛 香依許既二切’ 등 30개가 있고, ‘三切’에는 ‘潛 所姦所版所晏三切’과 ‘彗 祥歲徐醉旋芮三切’ 2개가 있다. ‘二切’, ‘三切’의 경우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반절로 표시된 음이 서로 다르다.

다른 하나는 ‘憾’처럼 제13장에서는 ‘戶感切’로, 제99장에서는 ‘胡紺切’로 주음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한자는 총 85자가 있다. 여기서 2개의 반절로 표시된 한자는 74개, 3개의 반절로 표시된 한자는 7개, 4개의 반절로 표시된 한자는 4개가 있다. 두 개 이상의 반절로 따로 자음을 표시하는 경우, 피주음자가 용법 혹은 의미에 따라 표기된 자음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같은 자음을 표시하더라도 사용한 반절의 출현 빈도는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重’에는 ‘直龍切’과 ‘直容切’³⁷⁾로 같은 음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는 13회 사용된 반면에 후자는 1회만 사용되었다.

두 개의 반절로 표시된 한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10> 두 개의 반절로 표시된 한자

반절성격	독음관계	번호	한자	반절	빈도
반절상자만 같음	같음	1	鉗	其淹切	1
				其炎切	1
		2	械	下介切	1
				下戒切	1
		3	姐	當拔切	1
				當割切	1
		4	僮	徒東切	1

36) 강신항(1994)에서는 ‘柳鐸一(1974), 龍飛御天歌에 音解된 漢字索引, 釜山大論文集, 제17집, 25-52’에 의하여 ‘將’을 115회 ‘卽亮切’과 1회 ‘卽兩切’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판본 문제인지 입력의 문제인지를 모르겠으나, 필자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將’에 ‘卽兩切’의 반절이 없고 예외없이 ‘卽亮切’로 표시되어 있다.

37) 楚成王 不殺重耳【重 直容切】<08:43b>

			5	壘	徒紅切	1
					魯猥切	1
			6	秣	魯水切	1
					莫曷切	1
			7	睦	莫撥切	1
					莫六切	1
			8	瘦	莫卜切	1
					所救切	1
			9	邀	所又切	1
					伊消切	1
			10	殿	伊堯切	1
					丁練切	4
			11	暫	丁鍊切	1
					七艷切	1
	12	辟	七豔切	1		
			必歷切	1		
	13	恢	必益切	2		
			苦回切	1		
	14	觀	苦灰切	1		
			古玩切	1		
	다름	성조 다름	15	夭	古喚切	1
於喬切					1	
16		兇	於兆切	1		
			許拱切	2		
운모 다름		17	著	許容切	1	
				陟略切	7	
		18	柵	陟慮切	5	
				測戟切	1	
		19	溺	測革切	1	
				乃歷切	1	
		20	碣	乃鈞切	1	
其列切	1					
21	畜	其謁切	1			
		許救切	5			
반절하자만 같음	같음	22	跨	許六切	3	
				枯化切	2	
		23	饋	苦化切	1	
				具位切	1	
		24	沓	求位切	1	
				達合切	1	
		25	羸	徒合切	1	
				力爲切	1	
		26	挽	倫爲切	1	
				武遠切	1	
		27	弭	無遠切	1	
綿婢切	1					
28	泯	母婢切	1			
		武盡切	1			
				弭盡切	1	

		29	旁	步光切	1		
				蒲光切	1		
		30	裨	府移切	1		
				頻移切	1		
		31	費	芳味切	1		
				扶味切	1		
		32	迓	五駕切	1		
				吾駕切	1		
		33	穎	餘頃切	1		
				庾頃切	1		
		34	勗	于玉切	1		
				吁玉切	1		
		35	獎	子兩切	1		
				卽兩切	1		
		36	籍	在昔切	1		
				秦昔切	1		
		37	噲	古夫切	1		
				苦夫切	2		
		38	殫	多寒切	1		
				都寒切	1		
		39	霸	匹駕切	1		
				必駕切	1		
		40	偕	居諧切	1		
				古諧切	1		
		41	滑	戶八切	1		
				胡八切	1		
		42	詰	去吉切	1		
				契吉切	1		
		43	傳	張戀切	7		
				柱戀切	2		
		반절자 다름	같음	44	比	補弭切	1
						必志切	1
				45	旻	武巾切	1
						眉貧切	1
				46	蕪	儒劣切	1
						而悅切	1
				47	邃	思類切	1
						雖遂切	1
				48	豎	常雨切	1
						臣庾切	1
				49	夙	蘇玉切	1
						息六切	1
				50	徇	辭峻切	1
松閭切	1						
51	柴			牀皆切	1		
				鉏佳切	1		
52	晏	於諫切	1				
		烏澗切	1				
53	踵	主勇切	1				

			54	祇	之隴切	1			
					巨支切	1			
			55	芻	烝夷切	1			
					窻兪切	1			
			56	測	側隅切	1			
					察色切	1			
			57	標	初力切	1			
					婢小切	1			
	58	纓	匹妙切	1					
			么莖切	1					
		다름	성조 다름	59	覆	伊盈切	1		
						芳福切	1		
				60	籠	敷救切	2		
						力董切	1		
				61	呼	盧東切	1		
						火故切	20		
				62	憾	荒胡切	1		
						戶感切	1		
				63	宛	胡紺切	1		
						於元切	1		
				64	橫	委遠切	1		
						戶孟切	2		
				다름	성모 다름	65	沈	胡盲切	1
								式荏切	1
		66	降			持林切	1		
						古巷切	1		
		67	省			胡江切	24		
						所景切	1		
68		底	息井切			1			
			掌氏切			1			
69		抵	典禮切			3			
			都禮切			1			
70		咽	掌氏切	1					
			因蓮切	1					
71		趣	一結切	2					
			七喻切	9					
다름		성운 다름	72	索	逡遇切	1			
					山客切	1			
	73		針	昔各切	1				
				諸深切	1				
	74		榜	七鳩切	1				
				補曩切	1				
				蒲庚切	1				

사용된 반절자가 같으나에 따라 <표10>의 2개 반절로 표시된 한자들을 반절상자만 일치하는 유형, 반절하자만 일치하는 유형, 그리고 반절상하자 모두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반절상자만 같은 경우에는 표기된 음이 대부분 같다. ‘夭, 兪, 著’ 등 7개의 글자에 표기된 2개의 음이 다르다. 반절하자만 같은 경우에는 표기된 2개의 음이 같다. 반절상하자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기된 음이 같은 한자는 15개가 있고, 음이 다른 한자는 16개 있다.

강신항(1994)에서는 당시 《龍飛御天歌》의 편찬자들이 《古今韻會舉要》, 《洪武正韻》, 《禮部韻略》, 《龍龕手鏡》 등의 운서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鉗 其炎切’, ‘械 下戒切’, ‘觀 古喚切’, ‘橫 戶孟切’ 등과 같은 한자의 반절은 어느 운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³⁸⁾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반절 출처가 불분명한 원인을 모르겠으나 《古今韻會舉要》, 《洪武正韻》 등의 운서 이외에 다른 운서 혹은 알려져 있지 않는 운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수록된 한자의 주음 정보를 추출하여 한자 주음의 기술 양상과 수록 상황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자 주음의 표현은 ‘如字’, ‘○聲’, ‘讀曰○’, ‘音○’, ‘○○切’ 등과 같은 각 주음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었다. 이 형식에서 주음될 한자가 한 구절이나 한 문장에 두 번 이상, 그리고 서로 다른 음으로 나타날 때, 그 중에 하나만 음이 표기되거나 서로 다른 음이 모두 표기되면, 이 한자를 포함한 단어가 제시되는 형식으로 구분되거나, 그 글자가 ‘上X’ 또는 ‘下X’로 구분되어 음이 표기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형식들은 주음될 한자의 출현 양상에 따라 ‘並’, ‘下同’, ‘下並同’ 등의 표현으로 기술되기도 하였다. ‘並’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어떤 글자가 동일한 발음으로 같은 구절이나 문장에서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와, 서로 다른 두 글자가 같은 구절이나 문장에서 나타날 때, 발음상 공통점이 있거나 동일한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이다. ‘下同’은 피주음자가 문장에서 뒤이어 한 번 더 나올 때, 해당 한자가 앞과 같은 발음임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下並同’의 사용 원리가 ‘下同’과 같다. 다만 ‘下同’은 피주음자가 뒤의 문장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날 때 표현되는 반면에 ‘下並同’은 두 번 이상 나타날 때 표현된 것이다.

《龍飛御天歌》의 협주에서 수록된 한자 주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유형	개수	사성				주음법					
						본음		독약법		직음법	반절법
		平聲	上聲	去聲	入聲	如字	讀如字	讀曰○	讀爲○	音○	○○切
토큰	3817	93	100	617	9	142	2	72	1	377	2404
타입	1722	8	4	44	1	33	1	23	1	233	1550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로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약 3817개의 주음 정보가 있다. 중복해서 나타나는 한자를 제외하면, 자음이 표시된 한자는 1722자가 있다. 각 주음 유형에 해당하는 한자를 합치면 1898자가 되는데, 이것은 동일한 한자에 다양한 주음 방법으로 음이 표시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한자는 176자가 있다. 예컨대, ‘見 如字/賢遍切’, ‘更 如字/工衡切’, ‘復 扶又切/如字/音福’, ‘間 去聲/音閑’, ‘冠 去聲/古玩切’, ‘令 如字/平聲’, ‘帥 讀曰率/所類切/如字’, ‘行 去聲/下孟切/戶剛切/胡郎切’, ‘長 去聲/上聲’, ‘數 如字/音朔/色主切’ 등이 있다.

지금까지 한자 주음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정리함으로써 《龍飛御天歌》의 한자 주음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협주에 어떤 한자에 대한 주음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지 등 개략적인

38)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와 같이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반절 중에 약 100여개 반절을 《唐韻》, 《集韻》, 《韻會》, 《正韻》, 《龍龕手鏡》 등의 운서에서 확인하지 못한다.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龍飛御天歌》의 한자 주음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록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했다가보다는 그 수치만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을 본고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 보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 영(1995).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고유명사 표기 연구. 『어문논집』 34권. 민족어문학회. 687-708.
- 姜信沆(1994). 龍飛御天歌內 反切의 性格. 진단학보78. 진단학회. 327-341.
- 權仁瀚(2016). 고대(古代) 한국한자음(韓國漢字音)의 연구(研究)(Ⅰ) -최근 발굴된 각필(角筆) 성점(聲點) 자료(資料)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37권. 구결학회. 5-38.
- 權仁瀚(2019). 고대(古代) 한국한자음(韓國漢字音)의 연구(研究)(Ⅱ) -11~13세기초(世紀初)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음주(音注) 자료(資料)들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43권. 구결학회. 127-152.
- 김수경(1947). 「龍飛御天歌」插入子音考. 진단학보, (15), 476-494.
- 김양진(2006). <용비어천가>의 훈민정음 주음 어휘 연구. 역학서와 국어사 연구. 『태학사』. 443-486.
- 김영신(1984). 용비어천가의 언어 분석 - 형태 어휘 -. 수련어문논집 11권. 수련어문학회. 1-32.
- 김영진(1985). 용비어천가 한자의 정음표기. 『논문집』 제4집. 대전대학교. 41-50.
- 김윤경(1959).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옛말의 변천. 동방학지 4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5-231.
- 김태경(2004). 『龍飛御天歌』 한자음과 15세기 중국어 음운 특징. 중국어문학논집, (29), 31-61.
- 남광우(1953). 傍點攷. 국어국문학 제7권. 국어국문학회. 106-109.
- 노요한(2019). 朝鮮初期 官撰 註解書의 文獻學的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수희(1982). 용비어천가 국문가사의 한자음 문제. 어문연구 11.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학회. 77-88.
- 도효근(1979). 용비어천가 한자음 연구. 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류재영(1974). 地名表記의 한 考察 龍飛御天歌 註解를 中心으로. 『논문집』 8권. 원광대학교. 185-206.
- 박병채(1989). 古代國語學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박병철(2011). 《龍飛御天歌》正音 表記 地名과 漢字語 地名의 對立, 變遷에 관한 研究 - 쇠벽록 : 淵遷·金遷을 중심으로. 『국어학』 60권. 국어학회. 3-32.
- 백은희(2011). 문자에 가려진 언어의 진실을 찾아서 --一字多音 현상을 통해서 본 고대 중국

어의 유형학적 특징. 중국어문학지 37권. 중국어문학회. 577-594.

변혜원(2004). 용비어천가의 연구 고사에 나타난 정음 표기 어휘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섭보매(2016). 『훈민정음』해례본의 권점(圈點) 체계에 대하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7(1), 259-289.

宋基中(1989). 《龍飛御天歌》에 登場하는 北方民族語名. 진단학보, (67), 160-164

宋基中(1990). 《龍飛御天歌》에 登場하는 北方民族語名. 진단학보, (69), 103-124.

안병희(1974). 석보상절의 교정에 대하여. 국어학 2. 국어학회. 17-29.

연규동(1993). 용비어천가의 한자어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 언어학 15. 241-251.

李根孝(1999). 漢語 聲調의 起源과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인문과학논총 제2집. 인문학논총. 35-53.

이기문(1962). 용비어천가 국문가사의 제문제. 아세아연구, 5(1), 87-131.

이기문(1964). 용비어천가의 어학적 가치(인명·지명). 『동아문화』 제2호.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26-231.

이돈주(1992). (전정증보판). 한자학총론. 박영사

이병운(1991). 용비어천가 주해 속의 한글표기 어휘에 대한 분석 - 한글표기와 한자표기와 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28권. 문창어문학회. 151-168쪽.

이호권(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이호권(2019). 『용비어천가』 판본의 변개(變改)와 그 해석. 국어국문학 제186호. 국어국문학 회. 5-27.

정경일(2002). 한국운서의 이해. 서울: 아카넷.

정 광(2016). 毘伽羅論과 훈민정음 - 파니니 <八章>에서 받은 한글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 한국어사 연구 2. 국어사연구회. 113-179.

정 광(2017). 反切考 - 「諺文字母」 “俗所謂 反切” 27자의 解明을 위하여 -. 어문논집 81. 민족어문학회. 127-186.

정연찬(1970). 세종대(世宗代)의 한자(漢字) 사성(四聲) 표기법(表記法). 국어국문학, 49·50, 277-291.

조규태(2002). 용비어천가 판본에 대하여. 배달말 31권. 배달말학회. 157-173.

조규태(2006). 용비어천가 주해 속의 우리말 어휘에 대하여.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117-158.

조세용(1998). 「 용비어천가 에 나타난 표기법 연구. 중원인문논총 17권.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17-32.

최범훈(1982). 용비어천가의 정음표기 고유명사연구(II). 『한국언어문학』 21, 한국언어문학 회. 419-441.

최범훈(1983).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정음표기(正音表記) 고유명사연구(固有名詞研究)(I). 『동악어문학』 17. 동악어문학회. 125-143.

Ishizuka, Harumichi(1993), The Origins of the Ssŭ-shêng Marks, ACTA ASIATICA 65, The TŌHŌ GAKKAI, 30-50. (韓國語譯: 김혜진·오미영(共譯)(2003), 「聲點의 起源」,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23-52.

唐作藩 저, 심소희 역(2015). 한자 음운학. 파주: 교육과학사.

管錫華(2002). 中國古代標點符號發展史. 巴蜀書社. 320-321.

- 李愛國(2008). '圈發'源流考. 湖北社會科學. 제9기. 133-135.
- 梅祖麟(1980). 四聲別義中的時間層次. 中國語文 第6期. 427-443.
- 樊榮(2010). 古漢語的注音方法及其影響. 語文學刊. 第10期. 60-61.
- 王 力(2004). 《汉语史稿》. 北京: 中華書局.
- 張群顯(2008). 四角標四聲腭沿革及稱謂. 晉方言研究第三屆晉方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希望출판사. 129-140.
- 张绍诚(2004). 四声定位与圈读. 文史雜誌. 第2期(總第110期). 35-37.
- 周祖謨(1945). 四声別義釋例. 問學集. 中華書局.
- 周祖謨(1966). 四聲別義釋例. 問學集[M]. 北京: 中華書局.

“《龍飛御天歌》의 협주에 수록된 한자 주음에 대하여”(여채려)에 대한 토론문

허인영 (고려대)

이 글은 『용비어천가』의 협주에 사용된 한자 주음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용비어천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문 가사에 집중되어 왔고, 협주에 대해서도 국문으로 된 고유명사 표기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방대한 협주 전체를 분석하고 통계를 낸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며, 앞으로의 분석이 더 기대되는 기초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연구의 저본으로 1612년에 간행된 중간본(아마도 규장각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447년의 원간 초쇄본(가람본)은 1책의 零本이지만 원간 후쇄본은 규장각에 10권 5책이 완질로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주 내용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겠으나) 원간본이 아닌 중간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2. 3.1절에서 “한 글자가 원의로 쓰일 때 본음으로 읽히면 ‘如字’라고 단다.”라고 하였는데, 어떤 음이 본래의 의미 즉 원의(原義)인지 파생된 의미 즉 인신의(引伸義)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한자학적으로 해당 자형이 갑골문에서 본래 어떤 의미였는지와는 별개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발표자는 ‘將’의 원래 의미가 ‘장수’인데도 ‘장차, 거의 어찌’의 의미일 때 ‘如字’로 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홍무정운』에서 ‘將’의 반절을 살펴보면 ‘장차’의 의미는 資良切(평성), ‘장수’의 의미는 子亮切(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주 9)에서 언급하신 대로 보통 평성자가 原義이고 거성자가 引伸義임을 고려하면 ‘장차’의 의미일 때 如字라고 한 것이 특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將’의 원의(또는 기본 의미)가 ‘장수’라고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인지요?

3. 각주 10)에서 “본고는 ‘又’와 ‘或’ 유형의 복수 주음 표현인 경우, 첫 번째 주음 방법에서 해당 한자를 다루기로 한다. ‘夢’, ‘王’은 반절법에서, ‘冒頓’은 직음법에서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복수 주음 표현은 당연히 양쪽에서 다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만 다루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王 于況切 又如字’와 같이 한 글자에 대해 반절법과 본음 표기(여자법)이 모두 제시된 협주의 경우 통계를 낼 때 반절법에만 포함되고 본음 표기의 예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처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표 1-6, 8>에서 ‘독음’, ‘의미’, ‘용례’가 비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독음’이 현대한국한자음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용비어천가』의 주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조를 포함한 중세한국한자음을 제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3.2절에서 본문이나 보주에 권점으로 성조가 표시되어 있고 협주에 성조 주음이 추가된 예가 있는 반면, 본문이나 보주에 권점으로 성조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협주에 성조 주음이 없는 예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의 경우, 즉 협주에는 성조 주음이 있지만 본문이나 보주에는 권점이 없는 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歌詩 및 보주에 권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조를 나타내는 협주가 달려 있지는 않다는 점은 歌詩 및 보주와 협주의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6. 3.5절에서 “‘鉗 其炎切’, ‘械 下戒切’, ‘觀 古喚切’, ‘橫 戶孟切’ 등과 같은 한자의 반절은 어느 운서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살펴본 결과 『홍무정운』에 ‘械 下戒切’(권11 六泰), ‘橫 戶孟切’(권13 十八敬)이 실려 있고, 『吏學指南』에 ‘鉗 其炎切’, 『易纂言』에 ‘觀 古喚切’(권8)이 있습니다. 특히 『이학지남』은 元代에 편찬되어 세조 때 간행되기도 하였고, 역시 元代에 편찬된 『역찬언』은 세종 때 사람인 陽村 權近이 지은 『周易淺見錄』에 영향을 준 책으로 『용비어천가』 편찬 당시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좀 더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反切의 出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 (6)에서 ‘並’의 지칭 대상이 모두 동일한 층위인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예컨대 ‘各有分°限 不相侵奪 兼并°絶而億兆之田宅定’의 협주에서 ‘並’은 보주의 대자인 ‘分’과 ‘并’을 아울러 가리키지만, ‘至滹沱河’의 협주에서 ‘並’은 보주의 ‘沱’와 협주에서 ‘沱’의 통용자로 제시된 ‘池’를 아울러 가리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6)에서 [xu]와 [da]라는 음은 어느 시기의 어떤 한자음을 제시한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 북경음은 아닌 듯한데, 어떤 발음을 제시한 것인지요?

- (11)에서 ‘二音’, ‘二/三切’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피주음자가 해당 문맥에서 A음으로 읽혀도 되고 B음으로 읽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11가)의 ‘哈關{하·란}’은 협주에 【哈呼加呼舍二切】이라고 되어 있어 ‘하’와 ‘합’이라는 두 가지 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란}이라는 한글 표기를 고려하면 ‘어느 쪽으로 읽혀도 되는’ 것이 아니고 呼加切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1절의 ‘본음’이라는 제목이 3.2~3.5절의 제목과 평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음 표기’나 ‘여자법(如字法)’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 (13나)를 거성의 예로 들고 있는데, 左下에 권점이 있는 것을 보면 평성 아닌지요?

- <표 1-5, 7-8>의 경우 배열 순서가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제시하고 출현 빈도가 동일하면 한자음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듯합니다. 그런데 <표 6>은 어떤 기준으로 제시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The Old Korean Vernacular Sinograph ‘*jīng* (棕)’ Revisited

Ye, XU Zhejiang University

1. Introduction

Historians and linguis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have discussed at length the Old Korean (hereafter OK) vulgar sinograph *jīng* (棕), especially after many *mokkan* (木簡, ‘wooden slips’, ‘wooden tablets’ or ‘wooden documents’) were discovered in Korea and Japan—see Inaba (1936), Yi (1997, 2005), Kim (2008), Dài (2016), Kwon (2018, 2020), Lee (2019), etc. Inaba (1936) pointed out that the *jīng* (棕) in the name of the Paekche bureau *jīngbù* (棕部) from a Chinese reference book called *Hànyuàn* (翰苑, ‘Literature Garden’, ca. 660 AD) had the meaning of ‘warehouse, granary’. Inaba (1936) also established that *fújīng* (桴京), meaning ‘warehouse, granary’ in the Koguryō language recorded in the Chinese chronicle *Sānguózhì* (三國志,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ca. 280–290 AD), should relate to Old Japanese (OJ) くら[kura], the Kun’yomi (訓読み, ‘semantic reading’) of the Kanji (漢字, Chinese characters used in Japanese writing system) *sō* (倉, そう).

After the excavation and decipherment of additional *mokkan* in Korea and Japan, Yi (1997, 2005) considered that *jīng* (棕) originated from *fújīng* (桴京) as a compound sinograph combing the Chinese character components *mù* (木, ‘wooden’) and *jīng* (京, ‘capital, warehouse, granary’), then spread to Paekche, Silla and Japan. Kwon (2018, 2020) agreed with Yi, making a chronological comparison of different *mokkan* fragments from Paekche, Silla and from Japan. However, Dài (2016) argued that *jīng* (棕) originated from the Chinese character *jīng* (京) based on the other two pieces of evidence, one is *jīngwū* (京屋), referring to a warehouse for meat that appeared in a mural painting from the Anak Tomb No. 3 (安岳三號古墳, 357 AD) in South Hwanghae province (黃海南道) and *jīng* (棕), which appeared in the epitaph from the Tōghūngri Tomb (德興里古墳, 408 AD) in South P’yōng’an province (平安南道). Recently, Kwon (2020) discovered that *jīng* (棕), as a variant (i.e. *yitizi*, 異體字) of *jīng* (京), appeared in Buddhist texts and Korean historical documents. Thus,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I aim to revisit the origin of the Korean vernacular sinograph *jīng* (棕), its semantic meaning and take a further step in the reconstruction of its phonology in OK, which is based on textual research and comparative analysis using diverse primary sources from China, Korea and Japan.

2. On the origin of “*jīng* (棕)”

Generally, previous studies on *mokkan* from Korea and Japan agreed that *jīng* (棕) meant ‘warehouse, granary’ in OK. There are Korean *mokkan* fragments bearing the sinograph *jīng* (棕). The first piece of *mokkan* from Unified Silla (ca. 8th century) was excavated at the Hwangnam-dong (皇南洞) No. 376, Kyōngju (慶州), in 1994. The inscriptions were determined to read ‘五月廿六日棕食口内之下棕有...石又米...’ (front) and ‘仲棕食有廿二石’ (back), according to the *Korean Mokkan Dictionary* (2011). *Jīng* (棕) appeared three times, in the words *jīngshí* (棕食), *xiàjīng* (下棕) and *zhòngjīng* (仲棕). Second, one piece from Paekche (ca. late 6th century) was excavated at the Nūngsan-ri Monastery site (陵山里寺址), Puyō (扶餘), in 2002. The inscriptions were ‘三月仲棕内上田’. *Jīng* (棕) appeared once in the word *zhòngjīng* (仲棕). Third, a piece from Paekche (ca. 7th century) was excavated in Ssangbuk-ri (雙北里) 280-5, Puyō (扶餘), in 2008. The inscriptions were ‘外棕卍鐵’ (front) and ‘代綿十兩’ (back). *Jīng* (棕) appeared in the name of the Paekche bureau *wàijīngbù* (外棕卍). The character 卍 is a vernacular variant of the Chinese character *bù* (部). Furthermore, one inkstone unearthed from Anabji (雁鳴池) in East Kyōngju was inscribed with *jīngsī* (棕司), and one tile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was unearthed at the Mujin Fortress site (武珍古城遺址), Kwangju (光州), inscribed with one

variant of *jīng* (棕).

In addition, in the *Chiliji* (地理志, ‘monographs on geography’) of the *Samguk saki* (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1145 AD), one Koguryō toponym, *Kyōngamsōng* (棕嶼城), used *jīng* (棕). A Korean name, *Kyōnggong Pokjung* (棕公卜重), appeared in an ancient document called *Chosatang Tongryang ki* (祖師堂棟樑記, ‘’, 1377 AD; See Lee 1987: 236), written during the Koryō period (高麗, 918-1392 AD) and discovered in the Pusōksa Monastery (浮石寺), Yōngju (榮州), North Kyōngsang province (慶尚北道). *Kyōngkong* (棕公) was probably a manager of a warehouse in this monastery and *Pokjung* (卜重) could be his personal name. Furthermore, according to Kwon (2020), *jīng* (棕) appeared in the classic Chinese sentence ‘鑰銅樓棕參間丙向’ in the ancient document *Susōnsa Hyōngjian* (修禪寺形止案, ‘Investigation Report of Susōnsa’, ca. 1230 AD, See Lee 1987: 62), as well in the sentence ‘棕公房梗四間’ in the *Tae’ansa Hyōngjian* (大安寺形止案, ‘Investigation Report of Tae’ansa’, ca. 1230 AD). Moreover, in the Buddhist text the *Mahāprajñāpāramitā Sūtra* (大般若波羅蜜多經) of the Korean Tripitaka (高麗大藏經, ca. 1237 AD), one carver’s name was written as both *jīngzhù* (棕柱) and *jīngzhǔ* (京主) on different pages (see Kwon (2020)). Hence, we can say that *jīng* (棕) was used consistently in Koryō until the end of the 13th century.

Among the Japanese *mokkan*, twenty-two pieces include the sinograph *jīng* (棕). For instance, according to Inukai (2011), one piece, unearthed in the Nishigawaramori no uchi iseki (西河原森ノ内遺跡) site, Shiga prefecture (滋賀縣) inscribed in the latter half of the 7th century, read ‘棕直伝之, 我持往稻者馬不得故, 我者反來之’ (front) and ‘故是汝卜了, 自舟人率而可行也, 其稻在處者, 衣知評平留五十戸且派博士’ (back). On *kyōngjik* (棕直), Kim (2008) proposed that it corresponded to the OK word *ch’angjik* (倉直) of the same meaning, ‘manager of the warehouse’. A *mokkan* was unearthed in the Inoue yakusidō iseki (井上藥師堂遺跡) site, Ogori (小郡市), Fukuoka prefecture (福岡縣), and probably made in the 7th century. The inscription read ‘黑人赤加倍十, 竹野萬皮引本五. 寅年白日棕稻遣人, 山了田母之本廿. 日方□□之倍之. 木田之萬羽之本五’. *Báirìjīng* (白日棕) is interpreted as a name for a warehouse, combining *báirì* (白日) and *jīng* (棕).

Finall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status of *jīng* (棕) in Chinese historical lexicology. According to the *Shimù* (釋木, ‘Explaining Trees’) section of the first surviving Chinese dictionary, *Ēryǎ* (爾雅, ‘Approaching Elegance’, ca. 3rd century BC), *jīng* (棕) is defined as a binding word (i.e. *liánmiáncí*, 連綿詞) *jílái* (棕, 即來.), a kind of tree. Later during the Jin dynasty (晉) Guōpǔ (郭璞, 276–324 AD) wrote that the wood of *jīng* (棕) was used for making the rims of wheels (棕, 材中車輞也.) Meanwhile, the earliest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Shuōwénjiězì* (說文解字, ‘Explaining Graphs and Analysing Characters’, 121 AD), also stated that *jīng* (棕) meant *jílái*, under the section header (i.e. *bùshǒu*, 部首) *mù* (木) and following the phonetic reading of its radical character *jīng* (京) (‘棕, 即來也. 從木, 京聲.’). In the rime book *Guǎngyùn* (廣韻, ‘Broad Rimes’, 1008 AD), *jīng* (京) was recorded only as a kind of tree (木名). However, *jīng* (棕) was arranged in the small rime group of *liáng* (良, 呂張切), which indicated they had the same pronunciation during the Middle Chinese (MC) period (See Yu 2008: 171–172). Later, the *Jìyùn* (集韻, ‘Collected Rimes’, 1037 AD) adopted the same definitions as *Ēryǎ* and *Shuōwénjiězì*. In sum, in the Chinese historical lexicological tradition, as a character and a word *jīng* (棕) referred to ‘the name of a tree’, not ‘warehouse, granary’, and it had the same pronunciation as *jīng* (京), later being pronounced like *liáng* (良; MC *ljan*; See Schuessler 2009: 84).

Yet according to *Collections of Glosses of Chinese Characters*, we can confirm that, in Chinese, the character *jīng* (京) generally has four main meanings: ‘artificial hill, high mound’; ‘large square granary’; ‘grand, big’; ‘capital, metropolis’. Focusing on the second meaning, *Shuōwénjiězì* mentioned that a round granary is *qūn* (囷), comparing it to a square one, a *jīng* (京). In the Explaining Palaces (釋宮) section of *Guǎngyǎ* (廣雅, ‘Expanded Ēryǎ’, 227–232), Zhāngyī (張揖, ca. early 3rd century) stated that the characters *jīng* (京), *yù* (庾), *lǐng* (廩), *lù* (廬), *kuài* (廩), *gòng* (廩), *xiān* (廩) and *qūn* (囷) had the same meaning as *cāng* (倉), that is, ‘granary’ (see Zhang 2019: 503–504).

Hence,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in OK, the vernacular sinograph *jīng* (椋) probably had two different origins. One is from when the OK writing system borrowed the Chinese character *jīng* (椋), but kept the second meaning of its radical character *jīng* (京). The other is from when the OK writing system borrowed the word *jīng* (京) and its second meaning ‘warehouse, granary’, at the same time changed the character to *jīng* (椋) by adding the section header *mù* (木).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latter origin is the more likely one, and at least three pieces of evidence can be provided. First, as mentioned in introduction, we are told in the *Sānguózhì* that, in Koguryō, people do not have a large warehouse but that every family has small granary called a *fújīng* (桴京;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為桴京’). This implies that *fújīng* (桴京) and *jīng* (京) were probably borrowed as Chinese loanwords into the language of Koguryō. Second, since *jīngwū* (京屋) appeared in a mural painting of Anak Tomb No. 3, and *jīng* (椋) appeared in the inscription (‘旦食鹽鼓(鼓?), 食一椋記之’) in the Tōkhūng-ri Tomb, we can suppose that *jīng* (京) and *jīng* (椋) coexisted as variants from the 5th century onward in Koguryō, and possibly other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Third, another variant of *jīng* (京), *jīng* (椋), is attested in both Chinese and Korean chronicles. *Wàijīngbù* (外椋部), as the name of a Paekche bureau, was recorded as *wàilüebù* 外掠部 in the *Zhōushū* (周書, ‘Book of Zhou’, 636 AD) but was written as *wàijīngbù* (外椋部) in *Hànyuàn*, and *wàijīngbù* (外廩部) in the *Běishǐ* (北史, ‘History of the Northern Dynasties’, 659 AD). Furthermore, in the *Samguk saki*, *wàijīngbù* (外廩部) was kept by adopting the same text as the *Běishǐ. Lüe* (掠) could be a misspelling of *jīng* (椋), since the section headers *mù* (木) and *shǒu* (手) were often mixed in Chinese calligraphy, as mentioned by Dài (2016). Certainly, the character *jīng* (廩) in *wàijīngbù* (外廩部) should be another variant of *jīng* (椋) used i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another Koguryō toponym from the *Chiliji* of the *Samguk saki* used *jīng* (廩) in the phrase ‘廩谷縣, 一云首乙吞’ (‘Kyōngkok county is called *Suǐlt’am*’). The character *jīng* (廩) is attested in the *Jiyùn*, ‘*Guāngyǎ* recorded the meaning granary, its *Fǎnqiè* (反切) spelling is *jūqīng* (居卿), and the phonetic reading is the same as *jīng* (京) (《廣雅》: ‘倉也.’ 音 ‘居卿切’, 與 ‘京’ 同音.)’. We can also infer that *jīng* (廩) was used during the Koryō period.

To sum up, I conclude that *jīng* (椋) originated as the Chinese character *jīng* (京), with the meaning of ‘warehouse, granary’ and was widely used in Koguryō, Paekche, Silla, Koryō and Japan. *Jīng* (椋) has the miscopied form *lüe* (掠) and variant form *jīng* (廩).

3. On the phonological reconstruction of “*jīng* (椋)”

On the phonological reconstruction of *jīng* (椋), there are three pieces of evidence to consider. First, in the Koguryō toponym *Kyōngkok* (廩谷) ~ *Suǐlt’am* (首乙吞), *t’am* (吞) should be understood as a miscopied form of *kok* (谷), which occurred frequently in OK texts, due to the similarity of the two characters’ shapes. On the phono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kyōng* (廩) and *suǐl* (首乙), Beckwith (2007) has reconstructed the reading of *kyōng* (廩) as **sur~suir*, and similarly, Lee (2019) deciphered *kyōng* (廩) as *술* [sul]. However, I argue that *kyōng* (廩) should be read as **kol* in OK. As we know, *ǔl* (乙) represented a coda [-l], and *su* (首, MC *sjəu*^{BC}), meaning ‘head, brain’, had its native Korean word *머릿골* [mə.lit.k’ol], *골* [kol], which is attested in the Late Middle Korean (LMK) word *골치* [kol.tʰi] in the *Pōnyōk Nogōldae* (翻譯老乞大, ‘New Translation of the ‘Old Cathayan’’, 1517 AD, Sang 上: 28) and in the *Hunmong chahoe* (訓蒙字會, ‘Collection of Characters for Training the Unenlightened’, 1527 AD, Sang 上: 14). Additionally, *곯집* [kos.t tʰip] in LMK could be regarded as a compound of two native Korean words, *골* [kol] and *집* [tsip], with the elimination of the lateral [-l] and the addition of a possessive -*ㅅ*- [-s-], rather than a compound between a Chinese loan 庫 (*kù*; *고*, *ko*) and *집* [tsip]. The former explanation is more reasonable and conforms to Korean historical morphology.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OJ phonology, *jīng* (椋) has the same *Kun’yomi*,

kura (くら), with the Kanji *kyō* (京, きょう), *sō* (倉, そう), *zō* (蔵, ぞう) and *ko* (庫, こ). If so, it is possible to reconstruct the pronunciation of *jīng* (棕) as *kol in OK, since OK *o usually corresponds to OJ [u], and the raising of [o] to [u] occurred during OJ period (See Miyake 2003, 2017). For instance, OK 곁•마 [ko.ma^H] > : 곁 [kom^R], meaning ‘bear’, corresponds to OJ 久麻 (くま) [ku.ma] and OK 毛羅 *mo.ra, meaning ‘village’, corresponds to OJ 牟羅 (むら, 村) [mu.ra]. Therefore, we can infer that OJ くら [kura] was a direct loan from OK *kol, or even an earlier disyllabic form **kora.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historical phonology, there are two groups of characters that share the same phonological series as *jīng* (京). One group has the onset [k-] (見母, ‘The Groups of the Initial *Jiàn* in MC’), including characters like *jīng* (景), *jīng* (鯨, ‘whale’), *jīng* (鶯, ‘the name of a bird’), *jīng* (嫻, ‘a character used for female names’), *jīng* (獐, ‘the name of a kind of deer’) and *jīng* (麀, ‘black deer’). However, another group has the onset [l-] (來母, ‘The Groups of the Initial *Lái* in Middle Chinese’), such as *liáng* (涼, 涼, ‘cool’), *liàng* (諒, ‘excuse’), *liàng* (晾, ‘sun-dry’), *liè* (掠, ‘rob’), *liáng* (釀, ‘mixed starch’) and *liàng* (鏗, ‘the name of a percussion instrument’). Hence, in Old Chinese (OC), the initial of *jīng* (京) is usually reconstructed as the consonant cluster *kr-, and the whole syllable is *kraŋ in OC, according to Schuessler (2009). Concerning the interval between OC and OK, however, and the different syllabic structures of two languages, I argue that the native OK reading *kol is not relevant to OC *kraŋ. It is better to read *jīng* (棕) and *jīng* (京) with the same modern Sino-Korean pronunciation as 경 [kjəŋ].

4. Conclusion

In a summary, I propose that the Old Korean vernacular sinograph *jīng* (棕) originated from Chinese character *jīng* (京), meaning ‘warehouse, granary’, and was widely used in Koguryō, Paekche, Silla, and subsequently spread to Japan. It had its variant *jīng* (廩), and their phonological reconstruction in OK would be either *kol or **kora.

Primary Sources and Dictionaries

- Chén, Shòu. 陳壽. Ca. 280-290 AD. *Sānguózhì* 三國志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62.
-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eds.) 2011. *Han’guk mokkan chajōn* 韓國木簡字典 [Korean Mokkan Dictionaty].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Hō, Hūng-sik. 許興植. 1984. *Han’guk kǐmsōk jōnmun* 韓國金石全文 [Collection of Korean Epigraphs]. Seoul: Asia munhwasa.
- Kim, Pu-sik. 金富軾. 1145 AD. *Samguk saki* 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Chōsenshigakukai. 1928.
- Kwon, In-han. 權仁瀚. et al. (eds.) 2015. *Han’guk kotae munja charyo yōnku: Paekche* 한국 고대 문자자료 연구: 백제 [Studies on Korean Historical Documents and Records: Paekche]. Seoul: Juluesung Publishing.
- Lee, Ki-paek. 李基白. (eds.) 1987. *Han’guk sangtae komunsō charyo chibsōng*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Collections of Korean Historical Documents]. Seoul: Iljisa.
- Lǐ, Xuéqín. 李学勤. (eds.) 2013. *Ziyuán* 字源 [The origins of Chinese Characters]. Tianjin: Tianjin Ancient Books Publishing House.
- Lǐ, Yánshòu. 李延壽. 659 AD. *Běishǐ* 北史 [History of Northern Dynasties].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74.
- Lǐnghú, Défēn. 令狐德棻. 636 AD. *Zhōushū* 周書 [Book of Zhou].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71.

- Mair, Victor H. 2016. *ABC Dictionary of Sino-Japanese Reading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Nam, Gwang-u. 南廣祐. (eds.) 1997. *Go'ō sajōn* 古語辭典 [Middle Korean Dictionary]. Seoul: Gyohaksa.
- Omodaka, Hisataka. 澤瀉久孝 *et al.* (eds.) 1967. *Jidai-betsu kokugo daijiten Jōdaihen: Jōdaihen* 時代別国語大辭典 上代編 [The great chronological dictionary of the Japanese language: Old Japanese]. Tokyo: Sanseido.
- The Korean Language Society. (eds.) 1992. *Urimal k'ūn sajōn* (1, 2, 3, 4) 우리말 큰 사전 (1, 2, 3, 4) [Urimal Grand Dictionary (1, 2, 3, 4)]. Seoul: Ōmungak.
- Xú, Zhōngshū. 徐中舒 *et al.* (eds.) 2010. *Hànyǔ dàzìdiǎn* 漢語大字典 [Great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Chengdu: Sichuan Lexicographic Publishing House & Chongwen Book Company.
- Yú, Nǎiyǒng. 余迺永 (collated.) 2008. *Xīnjiào hùzhù sòngběn Guǎngyùn* 新校互註宋本廣韻 [New Revised on Guangyun (Song Dynasty Version)]. Final revised edition. Shanghai: Shanghai People's Publishing House.
- Zhāng, Qiyún. 张其昀. (collated.) 2019. *Guǎngyǎ shūzhèng* 廣雅疏證 [Annotation of Expanded Ēryǎ].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 Zōng, Fúbāng. 宗福邦. *et al.* (eds.) 2003. *Gùxùn hùizuǎn* 故訓匯纂 [Collections of Glosses of Chinese Characters].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 Zōng, Fúbāng. 宗福邦. *et al.* (eds.) 2019. *Gǔyīn hùizuǎn* 古音匯纂 [Collections of Pronunciations of Chinese Characters].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References

- Beckwith, Christopher I. 2007. *Koguryo: The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 Koguryoic Languages, with a Preliminary Description of Archaic Northeastern Middle Chinese*, 2nd edition, Brill.
- Dài, Wèihóng. 戴衛紅. 2016. *Hánguó mùjiǎn yánjiū* 韓國木簡研究 [Studies on Korean Wooden Documents]. Nanning: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 Frellesvig, Bjarke. 2010. *A History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ndel, Zev Joseph. 韓哲夫. 2019.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oston: Brill.
- Inukai, Takashi. 犬飼隆. 2011. *Mokkan ni yorunihongo shokishi* 木簡による日本語書記史 [The history of Japanese Written system of Wooden Tablet]. Revised edition. Tokyo: Kasamashoin.
- Kim, Chang-seok. 2014. "Ancient Korean Mokkan (Wooden Slips): With a special focus on their features and uses". *Acta Koreana*, Vol.17, No. 1, 193-222.
- Kwon, In-han. 權仁瀚. 2018. "*Han'guk kotae hanja ūi saengsong'gwa chōngae*"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 전개 [On the creating and developing of Korean vulgar Hanja]. 제 9회 사전학 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Lexicography].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 _____. Forthcoming (20210331). "*Koguryō Kukja 'Kyōng'ja ūi hanjaūm e taehayō*" 고구려 국자 「椋」자의 한자음의 대하여 [On the Sino-Korean Pronunciation of 「椋」 from Koguryō], 문헌과 해석 *Munhōn'gwa haesōk* [Historical Documents and Explanation] 87.
- Kim, Yōng-uk. 金永旭. 2008. "Nishigawaramori no uchi iseki ūi 'Kyōngjik' mokkan e taehan ōhakjōk koch'al" 西河原森ノ内 遺跡址의 '椋直' 木簡에 對한 語學的 考察 [A Linguistic Study on Mokkan 'Kyōngjik' from Nishigawaramori no uchi iseki]. *Mokkan'gwa munja* 목간과 문자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1, 213-232.
- Lee, Kōn-sik. 李建植. 2017. "T'ae'anhae'yōk ch'ult'o mokkan ūi ōhakjōk t'ūkjing"

- 태안해역 출토 목간의 어학적 특징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Wooden Tablets Excavated from the Sea of Tae-an]. *Mokkan'gwa munja* 목간과 문자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19, 137-166.
- _____. 2019. “Ilbon kukja wa hanguk koyu hanja ūi koyusōng p'andan kijun sōljōng ūi p'ilyosōng” 日本 國字와 韓國 固有漢字의 고유성 판단 기준 설정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Setting the Standards for Judging the Inherence of Japanese National Characters and Korean Native Characters]. *Tongyanghag* 東洋學 [Asian Studies] 75, 97-127.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 Miyake, Marc Hideo. 2003. *Old Japanese: a phonetic reconstruction*, Routledge Curzon.
- _____. 2017. “Fishy Rhymes: Sino-Korean Evidence for Earlier Korean *e”, in Vovin, Alexander and McClure, William (eds.) 2019. *Studies in Japanese and Korean Historical and Theoretical Linguistics and Beyond*. pp. 37-44. Leiden; Boston: Brill.
- Oh, Taek-hyun. 2019. “A Review of *Kankoku kodai mokkan no kenjū* : The Life and Culture of Ancient Korea Recorded in the Wooden Strip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22, No. 2, pp 211-221.
- Yi, Sōng-si. 李成市. 1997. “Kankoku no mokkan tsuite” 韓國の木簡について [Studies on Korean Mokkan]. *Mokkan kenkyū* 木簡研究 [Mokkan Studies]19.
- _____. 2005. “Chōsen bunsho no gyōsei — roku sēki no shiragi” 朝鮮文書の行政 — 六世紀の新羅 [Korean Documents and Administration — Silla in the 6th Century]. *Monji to kodai nihon — munji no yoru kōrjū* 文字と古代日本—文字による交流 [Characters and Old Japan — Communications via Characters] 2. Tokyo: Yoshikawa Kobunkan.
- Mikami, Yoshitaka. 三上喜孝. 2009. *Higashi ajia kodai shutto munji shiryō no kenkyū* 東アジア古代出土文字資料の研究 [Studies on the Excavated Historical Documents and Records of Ancient East Asia]. Tokyo: Yuzankaku.
- Schuessler, Axel (許思萊). 2009. *Minimal Old Chinese and Later Han Chines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Vovin, A. 2010. *Koreo – Japonica: A Re-evaluation of A Common Genetic Origi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Inaba, Iwakichi. 稻葉岩吉. 1936. 百濟の棕及び棕部. 釋棕. 大阪屋號書店.

國文抄錄

고대 한국 속자 “棕”에 대한 재고찰

“棕”자는 중국 辭書인 《爾雅》와 字書인 《說文解字》에 나타난 한자로서 고대 한국과 일본의 목간에 빈번히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棕”자는 ‘창고’를 의미하는 한국 속자이다. 본고는 한중일 삼국의 문헌과 목간 자료에 의하여 한중일의 문자 및 언어학적으로 “棕”자의 기원, 고대 한국어 음가 및 의미를 검토하였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棕”는 한국 속자로서 한자 “京”자의 자형과 ‘창고’라는 뜻을 차용하였으며 또 “京”자의 자형을 고쳤다. “棕”자의 이체자인 ‘廩’자는 중국과 한국의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棕”자의 음가는 고대 한국어에서 **kora>*kol로 재구할 수 있으며 고대 일본어에서 차용어로서 “くら[kura]”로 실현되었다.

【키워드】 “棕”, 고대 한국 속자, 고대 한국어, 고대 일본어, 음운 대응, 차자표기법

Abstract

徐燁, “The Old Korean Vernacular Character ‘*jing*(椋)’ Revisited”에 대한 지정 토론

權 仁 瀚(성균관대)

1. 총평

오늘 徐燁 박사의 발표는 최근 고대한국 문자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학계에 각광받고 있는 고구려국자 ‘椋’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논의이다. 서 선생의 논의 요지는 ‘椋’자의 고대한국의 訓音이 “*골 *경” 정도로 재구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의의 핵심은 ‘椋’자와 類意關係에 있는 ‘康’자가 쓰인 고구려 지명 “康谷縣[一云首乙吞]<三國史記37-志6-地理四-高句麗>와 중세국어의 “머릿골, 골치” 등의 예들을 바탕으로 “椋≡康=首乙=골”의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지명례에 의존하고 있고, 그 동안의 논의들에서 “술” 정도로 재구했던 “首乙”에 대응되는 어휘를 “골”로 재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 시도조차 없었던, 현대국어 “창고”에 해당되는 고대국어에 대한 재구에 성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고대일본어 “kura”와의 차용관계에 대한 설명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완을 통하여 좀더 설득력 있는 논의로 발전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 보완 요구 사항

위의 논의 결과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함으로써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순서는 영문 논문에 따름.

- 1) 제목: “The Old Korean Vernacular Character”에서 “Character”만으로는 불충분한(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용어로 판단되므로 “Chinese Character” 또는 최근에 등장한 신용어 “Sinograph”로 수정함이 좋을 듯
- 2) 2장 첫 번째 문단 중: “...at the Inyong Monastery site(仁容寺址) No. 376, Hwangnam-dong (皇南洞), Kōngju (慶州)”에서 ①이 목간은 “인용사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the Inyong Monastery site(仁容寺址)”은 삭제되어야 하고, ②“Kōngju(慶州)”의 로마자표기는 “Kyōngju”로 고쳐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로마자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듯. ex) Pogchung(卜重), kyōngjig(椋直), changjig(倉直) 등
- 3) 2장 두 번째 문단 중: ①수선사형지안 관련 참고논문은 Lee 1987→2019가 아닌지? ②대만야경 각 수명 관련하여 권56의 조성 연도를 1237년으로 수정하고, 말미에 “See Kwon 2020”을 넣어야!
- 4) 2장 네 번째 문단 중: “椋, 即來也”는 “椋=來(=來)”이므로 “椋 is defined as *jilái*”는 “椋 is defined as *lái*”로 수정되어야!
- 5) 3장의 제목: “On the phonological reconstruction of 椋”에서 “phonological→lexical”? 결론 마지막 문장 및 국문초록에서도!
- 6) 3장 두 번째 문단 중: “OK 毛羅 *mo.ra, meaning ‘village’, corresponds to OJ 牟羅 (むら, 村) [mu.ra]”는 “OK 牟羅~毛羅 *mu.ra, meaning ‘village’, corresponds to OJ 牟羅村(むら) [mu.ra]”로 수정되어야 할 듯. 고대한국의 예 “牟羅”는 울진봉평비에서의 “居伐牟羅” 등 다수레이며, 毛羅는 백제 목간의 표기. 그리고 “牟即智~另即智”, “武力智~另力智”에서 발견되는 “牟~武”의 대응과 ‘牟’자의 중세 한국한자음 ‘모’의 음이 특이하다는 점에서 고음은 mu로 재구될 수 있을 듯. 따라서 OK →OJ 고모음화?

‘끼치다’의 어휘사

－ ‘기티다[遺]’와 ‘씨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정은진 (고려대학교)

<목차>

1. 들어가며
2. 현대국어 ‘끼치다’의 공시적 의미
3. ‘기티다[遺]’의 통시적 의미 변화
 - 3.1. ‘기티다’의 기원과 분석
 - 3.2. ‘기티다’의 기본 의미 : “남기다”
 - 3.3. ‘기티다’의 의미 특수화 : “은혜/피해를 주다”
4. ‘씨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
 - 4.1. ‘씨티다’의 기원과 분석
 - 4.2. ‘씨티다’의 기본 의미 : “물을 뿌리다”
 - 4.3. ‘씨티다’의 의미 확장 : “냄새/기운이 밀려들다”
 - 4.4. ‘씨티다’의 환유적 의미 확장 : “소름이 돋다”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동사 ‘끼치다’의 여러 의미와 용법이 형성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국어사전에서 ‘끼치다’는 두 가지 표제항을 가진 동음이의어로 처리되고 있다. 하나는 타동사 ‘끼치다¹’로서, ‘[불편/심려/걱정/영향...]을 끼치다’와 같이 어떤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하여 쓰인다. 이때 ‘끼치다¹’은 주로 부정적인 단어와 공기한다. 다른 하나는 자동사 ‘끼치다²’로서, ‘[찬 기운/술 냄새...]가 끼치다’와 같이 어떠한 기운이 덮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 쓰인다. 이밖에도 ‘끼치다²’의 용법으로는 ‘소름이 끼치다’가 있다. “소름이 생겨 나타나다”를 의미하는 ‘소름이 끼치다’는 다른 용례의 의미와 비교했을 때 다소 특이한데, 그 용법이 어디에서 왔는지 금방 파악되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 ‘끼치다’의 용법이 꽤 다양하나, 각 용법이 형성되어 온 통시적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끼치다¹’과 ‘끼치다²’는 본래 형태와 의미가 모두 구별되었으나, 음운 변화로 형태가 같아져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현대국어의 직관으로는 두 단어의 의미 차이 또한 분명하게 구별짓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끼치다¹’과 ‘끼치다²’는 각각 독자적인 변화를 겪어온바, 두 단어의 용법이 형성된 과정을 연쇄적으로 고찰한다면 ‘끼치다¹’과 ‘끼치다²’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고대국어부터 가까운 현대국어까지의 자료를 살펴, ‘끼치다¹’과 ‘끼치다²’의 여러 의미가 형성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현대국어 ‘끼치다’의 공시적 용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이를 중세국어의 용례와 비교함으로써 연구 문제를 도출한다. 3장과 4장에서는 중세국어의 ‘기티다[遺]’와 ‘씨티다[撒]’가 의미 변화를 겪어 현대국어의 용법을 갖게 된 각각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밝힌다.

2. 현대국어 ‘끼치다’의 공시적 의미

‘끼치다¹’과 ‘끼치다²’는 현대국어 공시적으로는 동음이의어로 처리되고 있으나, 본래는 형태와 의미가 모두 구별되는 단어였다. 두 단어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형태가 같아지는 변화를 겪었으나, 각각의 용법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의미 변화를 겪었다.

우선 현대국어 사전에 ‘끼치다’가 기술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등 대부분의 현대 국어사전에서는 모두 ‘끼치다’를 ‘끼치다¹’과 ‘끼치다²’의 동음이의어로 기술하고 있다.¹⁾ 제시하고 있는 의항의 수가 가장 많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기술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	뜻풀이
끼치다 ¹	「1」 (무엇이 대상에게 영향을) 입거나 당하게 하다.
	「2」 (사람이 후대에 공적을) 뒤로 남기다.
	「3」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 따위를) 셈할 것을 다 치르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 두다.
끼치다 ²	「1」 (소름이 몸에) 생겨 나타나다.
	「2」 (기운이 몸에) 닿치는 듯이 확 밀려들다.
	「3」 (따위가 몸에) 닿치는 듯이 뿌려지다.

[표 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 ‘끼치다’의 기술

‘끼치다¹’은 ‘끼치다²’에 비해 출현 빈도가 높으며, 세 개의 의항을 갖는다. 「1」과 「2」에 대해서는 용례가 제시되어 있으나 「3」의 용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대 한국어 용례 검색기(SJ-RIKS)>²⁾의 검색 결과를 덧붙여 ‘끼치다¹」 「1」, 「2」의 용례를 제시하면 (1)과 같다.

- (1) ㄱ. 「1」 [불편을/심려를/걱정을/피해를/폐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ㄴ. 「2」 그는 전기를 발명하여 인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1') 이 못 後入 부터 기티는 기걸이니 모로매 모다 삼가라. <석보상절(1447) 23:13a>

(1ㄱ)과 (1ㄴ)은 각각 “영향을 입거나 당하게 하다”와 “공적을 뒤로 남기다”를 의미하는

1) 이하 본고에서는 동음이의어 ‘끼치다’를 ‘끼치다¹’과 ‘끼치다²’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2) 현대국어에서 ‘끼치다’의 용법을 살피기 위해 <현대 한국어 용례검색기(SJ-RIKS)>를 활용하였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SJ-RIKS Corpus는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세종 형태의미 분석 코퍼스>를 수정, 보완한 코퍼스이며, 약 1,500만 어절 규모이다.

‘끼치다¹’의 용례이다. “영향을 입거나 당하게 하다”를 의미하는 ‘끼치다¹’는 ‘불편, 심려, 걱정, 피해, 폐’와 같은 부정적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립적인 문맥에서는 일부 쓰이지만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1ㄴ)에서와 같이 “공적을 뒤로 남기다”를 의미하는 ‘끼치다’는 영향력의 대상이 ‘후세(後世)’나 ‘인류’로 넓다는 점, ‘남기다’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1ㄱ)과 의미가 다소 구분된다.

(1)의 ‘끼치다¹’는 중세국어에서 “남기다”의 의미를 갖는 (1')의 ‘기티다[遺]’로부터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1'ㄱ)에서는 “부처가 (중생에게) 남기신 명령”을 의미할 때에 ‘기티다’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1ㄴ)에서 “공적을 뒤로 남기다”의 의미와 연결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1ㄱ)과의 관련성은 다소 멀어 보인다. 본고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중세국어의 ‘기티다’로부터 ‘피해를 끼치다’의 용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표 1]에서 ‘끼치다²’의 세 가지 의항에 해당하는 용례를 제시하면 (2)와 같다.

- (2) ㄱ. 「1」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은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텔레비전에서 들리는 귀신의 웃음소리에 나는 소름이 짝 끼쳤다.
 ㄴ. 「2」 냄새가 코에 확 끼치다
 그녀는 찬 기운이 끼치는 방안에 혼자 누워 있다.
 ㄷ. 「3」 포구에 다가서니 물보라가 온몸에 끼쳤다.

- (2') 독훈 기운이 막스매 들어든 여러 가지 향을 휘우며 가지며 숫브레 초틀 끼터 마궤라
 (毒氣入心仍燒帶諸香及打醋炭以防之) <창진방찰요(1517) 64a>

‘끼치다²’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용법은 (2ㄱ)과 같은 ‘소름 끼치다’이다. 현대국어에서 ‘소름’은 ‘돋다’ 혹은 ‘끼치다’와만 공기하는데, 코퍼스에서는 ‘끼치다’와의 공기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³⁾ (2ㄴ)에서 ‘끼치다’는 기운이나 냄새, 생각, 느낌 따위가 덮치듯이 밀려드는 것을 표현하며, (2ㄷ)에서는 물이 덮치듯이 뿌려지는 것을 표현한다. (2ㄴ)은 (2ㄱ)에 비해 용례가 적은 편이며, (2ㄷ)의 용례는 현대국어 코퍼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2')의 ‘끼티다[撒]’는 (2)에서 살펴본 끼치다²의 직접적 소급형이라고 생각된다. 16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는 ‘끼티다’는 “덮치듯 물을 뿌리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액체만을 목적으로 삼는 타동사였다. (2')의 용법은 의미상 (2ㄷ) 혹은 (2ㄴ)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다. (2ㄷ)에서는 물이 뿌려지는 상황을, (2ㄴ)에서는 기운이나 향이 몰려오는 상황을 표현할 때에 ‘끼치다’가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아한 것은 중세 및 근대국어의 ‘끼티다’가 현대국어의 끼치다²와 달리 타동사라는 점이다. 이는 ‘끼치다²’의 어휘사를 기술할 때에 단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고의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액체]를 끼티다[撒]’로부터 ‘[기체/기운]이 끼치다’가 형성된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한편 ‘끼치다²’의 사전 기술에서 의아한 것은 ‘소름 끼치다’의 용법이다. (2ㄱ)의 ‘소름 끼치다’는 (2ㄴ, ㄷ)과의 관련성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직 ‘소름 끼치다’의 구성으로만 굳어져 쓰이는 (2ㄱ)의 용법은 여타의 용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또한 ‘소름이 돋는’ 것을 ‘끼치다’로 표현하는 이유 또한 얼른 연상되지 않는다. 이는 (2)의 다른 용법과 비교하

3) <현대 한국어 용례검색기(SJ-RIKS)>에서 ‘소름’의 용례는 총 296회 검색된다. 이 중 명사 단독으로 쓰인 예가 2회(영화명), ‘소름이다’의 용례가 4회, ‘타다/훅다/쫄다/치다’ 등 서술어와 공기하는 용례가 각각 1~2회이다. 이외에는 모두 ‘소름 돋다’ 혹은 ‘소름 끼치다’의 용례인데, ‘돋다’와의 공기가 56회, ‘끼치다’와의 공기가 226회 나타났다. ‘소름 돋다’가 소름이 돋아난 상황 자체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소름 끼치다’는 무섭거나 섬뜩한 느낌이 보다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여 ‘소름 끼치다’의 연원을 따로 밝힐 필요성을 제기한다. ‘소름 끼치다’의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은 본고의 세 번째 연구 문제가 된다.

이상 살펴본 끼치다¹과 끼치다²의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티다[遺]’로부터 ‘피해를 끼치다’가 만들어진 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액체]를 끼티다[撒]’로부터 ‘[기체/기운]이 끼치다’가 만들어진 과정은 무엇인가?

셋째, ‘소름 끼치다’가 만들어진 과정은 무엇인가?

3. ‘기티다[遺]’의 통시적 의미 변화

3.1. ‘기티다’의 기원과 분석

이 장에서는 현대국어 ‘끼치다¹’의 의미와 용법이 형성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상술한바 21세기 국어에서 ‘끼치다¹’는 “영향을 입거나 당하게 하다”의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폐를 끼치다’와 같이 부정적 문맥에서 쓰이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또한 “(후세에 공적을) 남기다”의 의미로도 일부 쓰인다.

먼저 ‘끼치다¹’의 어원인 ‘기티다’의 기원 및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용언 ‘기티다’는 “남기다”의 의미를 가진 타동사로, 향가 자료에서부터 존재가 재구될 만큼 연원이 깊다.⁴⁾ 김민수 외(1997)와 김무림(2012)에서는 ‘기티다’를 현대국어 ‘끼치다¹’의 어원으로 보고, 그 형태를 ‘길[遺]-+-이-(사동접사)+-다’로 분석하였다. ‘기티다’는 ‘길다’의 사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하여 타동사로 쓰인다. ‘길다’와 ‘기티다’의 용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3) 가. 體 오으로 緣을 조차 비취유미 기티 나르니 업스며 (學體隨緣而照無遺餘) <금강경삼가해(1482) 4:50b>
- 나. 世家를 넷 史記에 기티니 道德經을 이젧 님굽기 브티스엿도다 (世家遺舊史 道德付今王) <두시언해(1481) 6:27a>

(3)에서 ‘길다’와 ‘기티다’ 모두 원문의 ‘遺’에 대응하여 있다. (3가)에서 ‘길다’는 “남다” 의미의 자동사로 쓰이며, (3나)에서 ‘기티다’는 “남기다” 의미의 사동사이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기티다’는 언해류 문헌에서 대체로 ‘遺’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며,⁵⁾ 협주문 및 자해류 문헌에서도 ‘遺’의 훈이 주로 ‘길다’와 ‘기티다’로 제시되어 있다.

4) 현전하는 향가 중 <도천수대비가>와 <원왕생가>에서 ‘기티다’의 존재가 추정된다. <도천수관음가> “吾良遺知支賜尸等焉”의 ‘遺知’에 대하여 小倉進平(1974)에서는 ‘나에끼티살’으로, 양주동(1987)에서는 ‘나에 기티살든’으로 독법을 추정한 바 있다. 한편 <원왕생가> “此身遺也置遺”의 ‘遺也’에 대해서는 양주동(1987)에서 ‘이몸 기티 두고’, 김완진(1980)에서 ‘이 모마 기티 두고’로 추정한 바 있다(박지용 외 편, 2012: 94 재인용).

5) ‘遺’에 대응하는 고유어 용언은 ‘기티다’ 외에도 ‘브리다’, ‘더디다’ 등이 있다.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법화경언해>의 동일한 한문 원문에 대하여 ‘遺’의 대응어가 문헌마다 다르다. 중세국어 시기에 ‘기티다’, ‘브리다’, ‘더디다’ 등이 일종의 유의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문: 淪浩劫而莫遺者 其誰與記耶

- 큰 劫에 써디여 잇다가도 기티디 아니호믄 누 記를 주노 <월인석보(1459) 13:59b>

- 큰 劫에 빠디여도 브리디 몬호믄 누 記를 주노 <법화경언해(1463) 3:56a>

원문: 安知吾徒非智勝之遺塵. 非未來之弟子

- 우리 智勝 나믄 드트리며 未來엿 弟子 아닌 들 엿데 알리오 <월인석보(1459) 14:56b>

- (4) ㄱ. 遺는 기털씨라 <석보상절(1447) 24:2a>
 ㄴ. 遺는 기틀씨라 <월인석보(1459) 1序:19b>
 ㄷ. 遺 기털 유 <신증유합(1576) 13a> / 遺 기털 유 <유합(1664)칠장사판 24a>

3.2. ‘기티다’의 기본 의미 : “남기다”

“남기다”의 의미를 가진 ‘끼치다(<기티다)’의 용례는 15세기부터 꾸준히 나타나며, 중심 의미를 유지한 용법이 20세기까지 보인다. 세기별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5) ㄱ. 一時랏 말도 부텨 기티산 마리시니 (一時之語 乃佛遺言) <법화경언해(1463) 1:20b>
 ㄴ. 先帝 靈寢을 嚴敬히시고 宗臣은 기틴 詔命 맞도물 切當히 하니라 (先帝嚴靈寢 宗臣切受遺) <두시언해(1481) 3:3a>
 ㄷ. 훗딤에 므서스로 뼈 子孫을 기티리오 (後世何以遺子孫乎) <소학언해(1588) 6:84b>
 ㄹ. 덩유왜난의 상췌이 주거를 아양이 기틴 췌를 거두어 영장하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烈 8:88b>
 ㄹ. 이 법은 넷 사람의 기틴 법이라 <무목왕정통록(1760) 10:22b>
 ㅂ. 예수 승턴히신 후에 모든 종도 삼가 끼치신 명을 좇차 <주님침례광익(1899) 2:22a>
 ㅅ. 만형으로 자녀간 나면 나의 혈육이나 끼치고저 호노라 <명월정(1912) 15>

(5)는 15~19세기 ‘기티다(>끼티다>끼치다>끼치다)’의 용례로, 모두 “남기다”의 중심 의미에 가깝게 쓰이고 있다. (5ㄱ, ㄴ)은 각각 부처가 남긴 말씀과 임금이 남긴 명령(詔命)을 말하고 있다. (5ㄷ~ㅅ)에서 ‘끼치다’는 각각 ‘자손/뼈/법/명령/혈육’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쓰였으며, ‘남기다’로 대응시켜 이해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5)를 통해 “남기다”의 기본 의미를 가진 ‘끼치다¹⁾’는 여러 대상에 대하여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5ㄱ, ㄴ, ㄹ, ㅂ)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처나 임금, 선대(先代) 등 상위자가 후대(後代)의 사람들에게 말이나 명령, 법을 남겨주는 상황을 뜻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끼치다¹⁾’의 현대국어 공시적 용법에서는 “남기다”의 본래 의미가 잘 연상되지 않는다. 다음의 (6)과 같이, ‘공적을 끼치다’ 등의 일부 구성에서만 “(사람이 후대에 공적을) 남기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2장에서 정리한 ‘끼치다¹⁾’의 여러 용법 중 ‘공적을 끼치다’는 “남기다[遺]”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⁶⁾

- 우리 무리 智勝 기티산 들그리 아니며 未來엿 弟子 아닌 들 엇데 알리오 <1463법화경언해 3:165b>
 원문: 或喪之若遺土

- 일허도 홀무적 브리드시 하며 <석보상절(1447) 20:12a>

- 시혹 브로티 홀 더디돏 하며 <월인석보(1459) 18:32a>

6) 광충구(2019)에 정리된바 연변어에서는 여전히 “남다”의 의미로 ‘길다’가 쓰이며, “남기다”의 의미로는 ‘길이다(경신, 밀강, 월청, 삼합)’, ‘기치다(경2, 밀강m)’, ‘지치다(밀f1, 용문, 남평, 용정)’ 등의 어형이 혼하게 쓰이고 있다고 한다. ‘길으돌다(남아돌다)’나 ‘기트래기(찌꺼기)’ 등 복합어 구성도 쓰이고 있다. ‘길다’와 ‘길이다’의 예를 하나씩 옮기면 다음과 같다.

ㄱ. 돈’이 길엇’다.(돈이 남았다. 밀강) (광충구 2019: 464)

ㄴ. 먹으레’무 결’에 홀 먹어’ 치워라. 길이’디 말’구. (먹으려면 먹는 김에 다 먹어 치워라. 남기지 말고. 경3) (광충구 2019: 465)

- (6) ㄱ. 그가 미술사에 끼친 중요한 공적 중 하나는 미술이 반드시 진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인식시킨 점이였다. <1993.06.25 조선일보>

3.3. ‘기티다’의 의미 특수화 : “은혜/피해를 주다”

현대국어에서 ‘끼치다’¹⁾은 ‘피해를 끼치다’에서와 같이, “(무엇이 대상에게 영향을) 입거나 당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는 17세기를 전후로 “남기다”의 의미가 “대상에게 은혜/피해 등 영향을 주다”의 의미로 특수화된 결과이다. ‘기티다’가 겪은 의미 특수화의 단초는 이미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 (7) ㄱ. 父母의 道훈 일홈 깃토물 스랑하야 모로매 果斷히 하며 父母의 붓그러우며 辱드윈 일 깃틸가 스랑하야 모로매 果斷히 마롤디니라 (思貽父母令名必果 思貽父母羞辱 必不果)⁷⁾ <내훈(1481) 1:58a>
 ㄴ. 혼갓 아버의 시르믈 기티논디라 니른들 므스기 보태리오 (徒貽親憂 告亦何補)⁸⁾ <내훈(1481) 2:3b>
 ㄷ. 後 사르미게 恩德 기튜메 그릿 쁘들 보리로다 (遺後見君情) <두시언해(1481) 24:46a>

(7)에서는 ‘기티다’가 “남기다”의 본래 의미대로 쓰이면서도,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주다”의 의미와도 일부 관련될 수 있다. (7ㄱ)에서는 ‘부모에게 좋은 이름을 끼치다’와 ‘부모께 부끄러우며 욕된 일을 끼치다’의 두 문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각각은 부모에게 어진 이름과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다는 의미이다. (7ㄴ)에서는 “아버이에게 시름을 남기다”의 의미로, (7ㄷ)에서는 “후대의 사람에게 은덕을 남기다”의 의미로 각각 ‘기티다’가 쓰였다. (7)과 같은 문형은 ‘끼치다’가 단순한 “남기다”의 의미에서 “좋거나 나쁜 영향을 당하게 하다”의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되는 교량(橋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에게 ~을 기티다’의 문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겨주다”의 의미가 여전히 드러나 있다.

(7)과 같은 예는 15세기에 <내훈>과 <두시언해> 등 일부 특수한 문헌에서만 나타나며, 16세기까지의 문헌에서는 ‘기티다’가 “남기다”의 포괄적인 의미를 유지한 채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17세기부터는 ‘기티다’가 “은혜”나 ‘심려’, ‘근심’ 등의 특정한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경향 또한 점차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이 경우 ‘기티다’가 부정적인 단어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와 긍정적인 단어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를 나누어 각각 살펴볼 수 있다.

- (8) ㄱ. 처업의 미혹하여 아지 못하고 스스로 근심을 끼쳤더니 <산성일기(1636) 148>
 ㄴ. 내 너과 각각 맞당히 勉勵하야 母親의 憂慮를 기티디 마자 <오륜전비언해(1721) 4:34b>
 ㄷ. 누를 기티운 거순 즈데된 재 그 맞당히 당목하고 분변홀 거시니 <천의소감언해

7) <소학언해(1588)>에서도 동일한 원문이 유사하게 언해되어 있다.

- 父母의 언딘 일홈 기툼을 심각하야 반드시 결단히 하며 父母의 붓그러움과 욕을 기툼을 심각하야 반드시 결단히 아니홀디니라 (思貽父母令名 必果 思貽父母羞辱 必不果) <소학언해(1588) 2:24b>

8) 후대의 내훈 자료에서도 동일한 원문이 유사하게 언해되어 있다.

- 남진의 집 허믈을 父母의 니르디 마롤디니 혼갓 아버의 시르믈 기티논디라 <내훈(1611) 3a>

- 지아비집 허믈을 父母의 니르디 말올씨니 혼갓 아버의 시르믈을 기티논디라 <어제내훈(1737) 2:3a>

- (1756) 1:1b>
 ㄹ. 흉년의 주전이 도로혀 너의 등의 맛고 보내는 수고를 끼치니 <어제유제주민인윤음 (1784) 3b>
 ㅍ. 쇼제 비록 죽으나 타인의게 화를 끼치미니 혼박인들 엇지 안연호며 <금향정기 (1851) 35b>
 ㅂ. 여러 날 폐단만 끼친 체 려비가 되었기에 즉시로 떠남니다 <장미병들다(1930) 049>
 ㅅ. 미안해요. 공연히 걱정을 끼쳐 드려서. <경마장가는길(1990) 444>

먼저 (8)은 17-20세기 문헌에서 ‘끼치다’가 ‘근심/우려/누/수고/화/폐단’ 등의 부정적 단어와 어울려 쓰인 예이다. 이때 ‘끼치다’의 의미는 본래의 “남기다”에서 더 구체화되어,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번거로움이나 괴로움을 주다”를 의미하고 있다. 특수화된 용법이 점차 전형화되어 관용적인 쓰임을 넓혀나간 결과로 이해된다. 17세기부터 나타나는 ‘근심/우려/누/수고/화/폐단을 끼치다’의 쓰임은 현대국어에서와 거의 같다.

- (9) ㄱ. 은혜 심으기를 두터이 호야 사름 감동호를 김게 호게 은혜 끼치미니 <산성일기 (1636) 54>
 ㄴ. 내 여동에게 각별한 은혜를 씻침이 업거늘 이럿듯 총의를 발하야 고인을 효칙하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거니와 <임화정연(간년미상) 1:142>
 ㄷ. 부인니 옥중의 오락 고상호시미 정신니 업서 몰나 보시도쇼니다 쇼침은 부인딕 은혜 씻친 조용이로쇼니다 <조용전(연대미상) 2:16b>
 ㄹ. 목숨을 도아 주신 뒤에, 또 팔십 량이느 되는 큰 돈을 은혜 끼쳐 준다 <동각한매 (1911) 50>
 ㅍ. 大體 아씨는 누구시완대 外國病人에게 이처름 은혜를 끼치십닛가 <어린벚에게 (1917) 102>
 ㅂ. 나도 오래 은혜를 끼친 나리안테 이런 말을 호고 십지는 안치만은 <눈물(1917) 下 151>

한편 (9)는 ‘끼치다’가 긍정적 단어와 어울려 쓰인 예이다. (9)에서도 ‘끼치다’의 의미는 “남기다”에서 구체화되어,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다”로 이해된다. ‘폐를 끼치다’의 용법과 달리 ‘은혜를 끼치다’의 용법은 현대국어 사용자의 직관에서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현대국어에는 ‘끼치다’¹⁾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공기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끼치다’¹⁾가 ‘은혜’와 같이 긍정적 단어와 함께 쓰인 용례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더러 나타나며, 20세기 초반까지의 문헌에서도 일부 보인다.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어사전(1917)>과 문세영이 간행한 <조선어사전(1942)>에서는 ‘끼치다’¹⁾의 의항으로 ‘혜택을 주다/은혜를 입히다’와 ‘수고를 주다/해를 입히다’를 모두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 (10) ㄱ. 끼치다(끼쳐/끼친) 『活』(一) 惠澤이나 勞苦를 人에게 貽及 <조선어사전(1917)>⁹⁾
 ㄴ. 【끼치다】 他 ① 물려주다 후세에 전하다 ② 은혜를 입히다 해를 입히다 ③ 물건 값을 다음에 주기로 하고 덜 주다 <조선어사전(1942)>

9) (10ㄱ)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원고본(필사본)을 검색한 결과이다. 원고본은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1920)년이 출간되기 3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貽及’ 이후의 원고는 누락되었다.

‘은혜를 끼치다’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일부 쓰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의 코퍼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즉 17-19세기에는 ‘끼치다¹’가 긍정적 어휘나 부정적 어휘와 모두 어울려 ‘은혜를 끼치다’와 ‘폐를 끼치다’ 등의 전형화된 표현으로 쓰였지만, 점차 ‘폐, 근심’ 등 부정적인 단어와 공기하는 경향이 커진다.

‘끼치다¹’는 기존의 “남기다”에서 “남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다”로 의미가 특수화, 전형화되면서 본래 의미와의 연관성이 점차 멀어졌다고 생각된다. 또한 긍정과 부정의 맥락에서 모두 쓰이다가 부정적인 단어와 어울려 쓰이는 경향이 커지면서, 점차 부정적인 의미 운율(semantic prosody; Louw 1993)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¹⁰⁾ 그 결과 현대국어에서 ‘끼치다’는 ‘불편/심려/걱정/피해/폐를 끼치다’와 같이 부정적 맥락에서의 용법이 전형화되었다. 중립적인 맥락에서 ‘영향을 끼치다’의 문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긍정의 맥락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¹¹⁾

4. ‘끼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

4.1. ‘끼티다’의 기원과 분석

다음으로 4장에서는 ‘끼치다²’가 겪은 통시적 의미 변화를 살펴본다. 현대국어에서 ‘끼치다²’는 “(기운이 몸에) 덮치듯이 혹 밀려들다”의 중심 의미를 가지며, 주로 어떠한 냄새나 기운, 생각에 대하여 ‘냄새가 끼치다’, ‘찬 기운이 끼치다’, ‘문득 옛 생각이 끼치다’와 같이 쓰인다. 혹은 ‘소름이 끼치다’의 특수화된 용법으로도 더러 쓰인다.

‘끼치다²’는 “(물을) 뿌리다”의 의미를 가진 ‘끼티다[撒]’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끼티다’의 어원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끼치다²’의 어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정범(2000: 123)에서는 ‘끼티다’와 ‘끼었다(>끼었다)’의 관련성을 언급하면서, ‘끼다’가 ‘물을 던지는’의 뜻을 지녔고, ‘끼’는 ‘물(水)’을 의미하여 ‘자리끼’의 ‘끼’와 비교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¹²⁾ “물을 던지다” 의미의 ‘끼

10) ‘끼치다’가 점차 부정적인 단어와만 공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더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끼치다’의 쓰임이 부정적인 맥락으로 전형화되는 과정에서 (9ㄷ, ㄴ)와 같은 용례를 주목할 수 있다. (9ㄷ, ㄴ)에서 ‘은혜를 끼치다’는 맥락상 ‘폐를 끼치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수혜자(受惠者)의 입장에서, ‘남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상황’에 대해, ‘은혜를 입어 (청자에게) 폐를 끼쳤다’는 겸사(謙辭)에 가까운 표현으로 이해된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상황에서보다는 손해를 입히어 미안함을 표현하는 담화 상황에서 ‘끼치다’의 효용성이 더 크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1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현대 한국어 용례검색기(SJ-RIKS)>에서 ‘끼치다¹’은 총 873회 검색된다. 대부분 ‘불편/어려움/폐/악영향/피해/손실/누/손상/손해/심려/걱정’ 등 부정적 단어와 함께 쓰이며, 중립적인 문맥에서 쓰이는 ‘영향을 끼치다’의 예가 일부 있다.(예: 당장 우리나라의 수출입 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긍정적 문맥에서 사용된 ‘끼치다’의 용례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다.

12) 서정범(2000: 123)에서는 ‘끼었다’, ‘끼티다’가 ‘안개가 끼다’의 ‘끼다(<끼다)’(ㄱ)와 동원어(同源語)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밖에 중세국어 용언 중 “물이 범람하다” 의미의 ‘쓰시다(>쓰이다>끼이다)’(ㄴ)가 ‘끼티다’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ㄱ. 드님의 구름 끼듯 흐엿더니 (如雲籠月) <월인석보(1459) 4:46a>

안개 끼고 구름 끼 (霧罩雲籠) <금강경삼가해(1482) 1:4b>

ㄴ. 올히 비 므슬히 ㄹ장 하니 (...) 던회 다 쓰셔 흐 불회도 업다 (今年雨水十分大 ... 澆了田禾 無一根兒) <번역박통사(1517) 상:9b>

올히 ㄹ물락 물 끼이라 끼야 거두디 못흐 전츠로 (今年爲旱澆不收) <번역노걸대(1517) 상:54a>

澆 물 쓰일 로 俗稱 水澆 <훈몽자회(1527) 초 상:2> || 水澆 물 끼이다 <역어유해(1775) 6a>

다’가 문증되지는 않으나, ‘끼었다’, ‘끼었다’, ‘끼혀 었다’의 용례가 있어 참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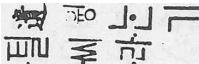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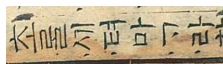
- (11) ㄱ. 도니헝기는 서늘흔 고딕 밍고 정화슈로 덩박기 우헝 끼이즈라 (調理는 拴清涼之헝고 井花水로 頂上의 澆之헝라) <마경초집언해(16xx) 상:83b>
 ㄴ. 仍헝야 死人의 衣服으로써 다 덥고 달힌 초와 술노빠 끼언저 적시고 (仍以死人衣服으로 盡蓋헝고 用煮醋酒澆淋헝고) <증수무원록언해(1796) 40a>
 ㄷ. 즈조 새물을 길리어 屍시首슈 四스面면에 끼혀 언즈라 (頻令汲新水헝야 澆澆屍首四面헝라) <증수무원록언해(1796) 49b>

(11)에서 ‘끼었다/끼었다/끼혀 었다’는 모두 한문 원문의 ‘澆’에 대응하여 “물을 뿌리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1ㄱ)의 ‘끼었다’에서 강세 접사 ‘-잇-’¹³⁾, (11ㄴ)의 ‘끼었다’와 (11ㄷ)의 ‘끼혀 었다’에서 어근 ‘-엿-’이 추출된다는 점에서, “물을 뿌리다”의 의미를 가진 어근 ‘*끼-’의 존재를 짐작해볼 수 있다. 혹은 (11ㄷ) ‘끼혀 었다’의 ‘끼티다’를 ‘끼다’의 직접적인 용례로 파악할 수도 있다. (11)을 통해 볼 때, ‘끼티다’는 ‘*끼-’와 강세 접사 ‘-티-’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끼티다’에서 둘째 음절의 성조는 거성으로, 접사 ‘-티-’의 성조와 일치한다는 점도 참고가 된다. “물을 뿌리다”의 의미로 ‘*끼다’가 있었다면, ‘끼티다’는 뿌리는 행위성이 보다 강조된 동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끼티다’는 3장에서 분석한 ‘기티다’와 기원적으로 다른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기티-’의 성조는 ‘평거’이고, ‘끼티-’의 성조는 ‘거거’로 나타난다.¹⁴⁾ 또한 ‘끼티다[撒]’는 16세기까지 첫 음절의 초성이 언제나 ‘시’ 표기로 나타나 ‘기티다[遺]’와 형태적으로 구별되었다. ‘기티다[遺]’는 구개음화와 어두 된소리화를 겪어, 17세기 이후 문헌에서 ‘기치다/끼치다’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끼티다[撒]’ 역시 구개음화를 겪어, 18세기 이후 문헌에서는 ‘끼티다/씻티다/끼치다’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18세기까지는 “남기다”의 의미는 ‘끼치다’로, “뿌리다”의 의미는 ‘끼티다’로 표기가 구별되는 경향성이 있지만, 19세기 이후에는 두 단어의 표기가 모두 ‘끼치다’, ‘끼치다’로 나타나 더욱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현대국어에서는 동음이의어 ‘끼치다’의 의미를 변별하여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¹⁵⁾

요컨대 ‘끼치다¹⁾’과 ‘끼치다²⁾’는 본래 “남기다” 의미의 ‘기티다[遺]’와 “뿌리다” 의미의 ‘끼티다[撒]’로서 형태적·의미적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나 두 단어는 근대국어 시기에 음운 변화를 겪어,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동음이의어가 되었다. 그러나 형태가 같아진 이후에도 ‘기티다’와 ‘끼티다’는 각각의 독립적인 의미 변화를 다채롭게 겪으며 현대국어까지 쓰임을 이어오고 있다.

13) 허웅(1975: 191)에서는 ‘-잇-’을 ‘-완-’, ‘-티-’ 등과 함께 강세 접사로 분류하고, ‘-잇-’이 불구 어근에 흔히 붙는 접미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잇-’이 결합한 파생어로는 두르잇다(揮), 다잇다(擊), 헤잇다(排) 등이 있다. 이때 ‘다잇다’와 ‘헤잇다’의 경우 ‘다-’와 ‘헤-’가 단독 어간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끼었다’의 경우와 같다. 참고로 (7ㄱ)의 ‘끼었다’는 유일례이다.

14)  <석보상절(1447) 24:2a>  <창진방촬요(1517) 64a>

15)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끼치다’의 동음이의 구별이 남한의 사전과 다르다. 끼치다¹⁾의 의향으로는 ①(소름이) 돌아나다 ②(어떤 냄새나 기운이) 덮치는듯 밀려들다’를, 끼치다²⁾의 의향으로는 ①끼엿어 뿌리다 ②(괴로움이나 은혜 같은 것을) 당하거나 입게 하다’를 제시하고 있다. 어원적 공통성이나 의미가 아니라 자동사와 타동사의 문법적 특성으로 동음이의어를 구별한 것인데, 공시적으로 두 단어의 의미가 잘 구별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4.2. ‘끼티다’의 기본 의미 : “물을 뿌리다”

이제 본격적으로 ‘끼티다’의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면, ‘물을 끼치다’로부터 ‘냄새/기운이 끼치다’, ‘소름이 끼치다’가 파생된 과정을 추적해본다. 우선 16~19세기에 ‘끼치다²(<끼티다)’는 주로 타동사로, 액체나 유동성이 있는 물체에 대하여 “뿌리다[撒]”의 의미로 쓰였다.

- (12) 가. 독훈 기운이 막스매 들어든 여러 가짓 향을 휘우며 가지며 숫브레 초를 끼터 마그라 (毒氣入心仍燒帶諸香及打醋炭以防之) <창진방촬요(1517) 64a>
 나. 다시 새 물로써 차로 덜그릇데 염소를 쫓터 시서 글거 혼 그릇데 모호라 <신전자취염소방언해(1635) 015b:1>
 다. 빅비탕을 막살홀 저기 사발 가운데 흙덩이 우희 쫓터 부으되 (以百沸湯方其沸時瀉之於碗中土塊上) <두창경험방(1663) 50b>
 라. 潑水 물 끼티다 <역어유해(1690) 상:48b>
 마. 두 손의 땀을 가져 벽면하야 끼티거늘 <손방언의(1760) 2:62>
 바. 몹은 기름을 사름 시켜 티원의 뒤호로 가 두 드리의 끼티니 <후수호지(17xx) 3:16>
 사. 다시 피 혼 통을 굿다가 화상의 몸의 끼치고 쇠스슬노 동허 <필사본평요전(17xx) 7:62>
 오. 어두은 밤이면 창외의 모릭도 끼치고 흙도 더지니 (或黑夜撒泥擲瓦) <선진일사(17xx) 2:68>
 자. 람벽에 락종은 술씨께를 끼친 것 <1907.09.13. 대한매일신보>
 차. 맑고 맑은 페이지우에다 한 씻어낼수 없는 검정방울을 끼치었다. <1932.11.01. 동광39호>

cf. 끼치다 s: 끼쳐; 친 To sprinkle; to scatter (Prov.) See 끼언짜 <한영즈던(1897)>

(12)는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용례를 아울러, 액체에 대하여 쓰이는 ‘끼티다(>끼치다>끼치다)’의 용례를 모은 것이다. ‘끼티다[撒]’는 ‘초(醪)/염소/탕(湯)/물/기름/피’ 등 액체나 ‘땀/모리/술씨께(술지게미)’ 등 유동성이 있는 물체를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 쓰인다. 19세기 말 간행된 <한영즈던(1897)>에서는 ‘끼치다’가 “(물을) 뿌리다(sprinkle)”, “흩뿌리다(scat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의어로 ‘끼언짜’를 제시하였다. “물을 뿌리다” 의미의 ‘끼치다²’는 17-18세기 문헌에서 활발하게 발견되지만, 20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는 (스-ㄷ)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물을 뿌리다” 의미의 ‘끼치다²’는 대부분 (12)에서와 같이 타동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18세기 문헌의 일부 용례에서 ‘끼치다²’가 자동사로 쓰인 경우가 보인다.

- (13) 가. 물읷 끓는 물 끼터 傷상흙을 님은 者자는 그 屍시 갖과 슬히 다 티디고 갖치 버서 흰 빗치오 (凡被熱湯潑傷者 其屍皮肉 皆折 皮脫白色) <증수무원록언해(1796) 49a>
 나. 밤의 사오나온 물결이 봄노소사 비 우희 꺾드러 사름의 늦칙 끼치니 <표해록(18c)¹⁶ 1:18>

16) 이 용례는 박재연(2016)에서 취한 것인데, 출전인 ‘표해록’의 간행 연대와 본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지영(2017)에서는 언해본 <표해록>의 두 이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표해록》과 서강대 소장 《최금남 표해록》이 18세기의 언어 양상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

(13ㄱ)에서는 격조사가 실현되어 있지 않으나, 한어 원문의 ‘被熱湯潑’를 참고할 때 ‘쏟는 물이 (사람에게) 끼치다’의 문장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13ㄴ)에서는 ‘물결이’가 주어로 실현되어 있어 ‘끼치다’가 자동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3)을 제외하고는, 16-19세기 문헌에서 액체에 대하여 쓰인 ‘끼치다’의 자동사 용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의 일부 국어사전에서는 “(물을) 뿌리다” 의미의 ‘끼치다’를 ‘끼치다²’의 의향으로 다루고 있다.

(14) ㄱ. 끼치다¹ (움제) <2> 무슨 기운이 덮치는 듯이 밀려 오다. ㉠덮치는 듯이 뿌려지다.

예) 목포에 다가서니 물보라가 온몸에 끼쳤다. 《우리말큰사전》

ㄴ. 끼치다² (...) 3. (물 따위가 몸에) 덮치는 듯이 뿌려지다.

예) 포구에 다가서니 물보라가 온몸에 끼쳤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4ㄱ)과 (14ㄴ)에서는 모두 “물이 뿌려지다” 의미를 ‘끼치다²’의 의향으로 신고 있는데, 모두 이때의 ‘끼치다²’를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까지도 타동사 용법이 더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20세기 이후의 한국어 코퍼스에서는 “물 끼치다”의 타동사 용법과 자동사 용법 모두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¹⁷⁾ 즉 액체와 어울려 쓰이는 ‘끼치다’는 현대 국어에서 거의 소멸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물을 뿌리다” 의미의 ‘끼치다’가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15)는 <조선말대사전>에서 ‘끼치다’의 예문으로 제시된 것으로, 북한에서 ‘끼치다’가 “끼얹어 뿌리다”의 의미의 타동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⁸⁾

(15) 끼치다² ㉠ 끼얹어 뿌리다

ㄱ. 잔등에 물을 끼쳐주다

ㄴ. 예, 시원하군! 한 드레박 더 끼쳐 주게. 《조선말대사전》

요컨대 ‘끼치다²’는 16세기부터 “물을 뿌리다” 의미의 타동사로 쓰였으며, 20세기 초 문헌에서도 일부 예가 나타난다. 또한 자동사 용법이 드물게 보이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현대국어사전 일부에서 “물을 뿌리다” 의미를 자동사 ‘끼치다²’의 의향으로 등재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쓰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북한에서는 용법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끼치다’의 의미 확장 : “냄새/기운이 밀려들다”

‘끼치다²(<끼티다)’는 20세기 이후 결합하는 단어의 범주가 ‘액체’에서 ‘기체’와 ‘기운’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겪는다. 동시에 ‘끼치다²’가 이루는 구문의 구조까지 변화하면서, 타동사 용법보다 자동사 용법이 월등하게 많아진다. 20세기의 문헌부터는 액체뿐 아니라 기체(냄새)나 기운에 대해, “(기운이나 냄새가) 밀려들다”의 의미로 ‘끼치다²’의 용례가 발견된다.

17) 홍윤표(2012)의 부록CD에서 제공하는 ‘20세기전체(후반).2b’ 코퍼스에서 다음의 예를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 운전석 문을 밖으로 밀자 세찬 빗발이 왈칵 차안으로 끼쳐든다. <육이오(1970) 404>

18) (11ㄴ)은 《조선말대사전》의 초판(1990)에 있었던 예인데 개정판(2007, 2017)에서는 사라졌다.

- (16) 가. 춘 기운이 낮춰 씨치니 연찬이 대경하여 물너나니 <임화정연(간년미상) 26:19>
 나. 방문을 쓱 여니 냉기가 혹 끼치고, 좁은 방은 쓸쓸히 비었다. <유서(1926) 241>
 다. 방금 박혀나와서 석유 냄새가 확 끼치는 호의 한 장을 집어 <영원의미소(1933) 010>
 르. 담배 연기 가득 찬 방안에는 분내가 핵 끼치고- <따라지(1937) 286>
 로. 서늘한 냉기가 섬짓하게 끼쳐오고 <육이오(1970) 422>
 비. 나는 그때마다 '혹!' 끼치는 땀냄새가 싫었고 <1999 좋은생각>
- (13') 나. 밤의 사오나온 물결이 봄노소사 비 우히 꺼드러 사름의 낮춰 씨치니 <표해록(간년미상) 1:18>

상술하였듯, 20세기 이후 문헌에서는 액체와 관련된 ‘끼치다’의 용례가 매우 드물어진다. 대신 (16)과 같이 ‘냄새/바람’ 등 기체, ‘춘 기운/냉기’ 등 기운에 대하여 “(냄새나 기운이) 갑자기 밀려들다”의 의미를 가진 ‘끼치다’의 용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때 ‘끼치다’는 거의 자동사이며, ‘혹/확/핵’ 등 순간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공기하여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16)은 19세기까지 주로 ‘액체’와 결합하여 쓰이던 ‘끼치다’가 20세기 전후 들어 ‘기체’와 ‘기운’으로도 결합 대상을 넓혔음을 보여준다. 특히 (16가)은 앞서 보인 (13'나)과 맥락과 문형이 거의 같아 (13)과 (16)의 관련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끼치다’의 원래 의미인 “(물을) 뿌리다”에서는 대상인 액체의 순간적인 이동이 연상되는데, 이는 ‘냄새/기운이 끼치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끼치다’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액체에서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기체 혹은 기운으로 변화할 경우, ‘물을 끼치다’로부터 ‘냄새를 끼치다’의 용법이 파생될 수 있다.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데로의 진행이 의미 변화의 일반적인 경향임을 고려할 때, ‘끼치다’의 결합 대상이 구체물인 ‘액체’에서 ‘기체’를 거쳐 추상물인 ‘기운’으로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¹⁹⁾

흥미로운 것은 결합 대상의 범주가 확장되는 변화에 수반하여 ‘끼치다’의 논항 구조 변화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²⁰⁾ 4.2에서 보인바 15~19세기에 액체에 대해 쓰인 ‘끼치다’는 거의 타동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16)에서 알 수 있듯 20세기 전후에 기체와 기운에 대해 쓰인 ‘끼치다’는 거의 자동사로만 나타난다.

‘끼치다’는 결합 대상이 ‘액체’에서 ‘기체’와 ‘기운’으로 확장되면서 의미의 변화와 논항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액체를 뿌리는’ 상황에서는 행위를 일으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행위주(agent)가 부각되며, 행위주 논항인 ‘NP이’가 타동사 술어의 주어로 기능한다.²¹⁾ 이에 따라 “(물을) 뿌리다” 의미의 타동사 ‘끼치다’는 ‘NP1이_[agent] NP2를_[patient] NP3에/로_[goal] 끼치다’의 구문을 형성하였다.

19) 송지혜(2011)에서도 형용사 ‘시원하다’의 결합 대상이 통시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핀 바 있어 참고가 된다. 중세국어 시기에 ‘시원하다’는 ‘심사(心事)’에 대해 사용되던 단어였으나, ‘시원하다’의 결합 대상이 [심사→언행→신체→음식→공간→온도감각어]로 확장되면서 현대국어에서는 온도감각어로의 용법이 일반화되었다(송지혜 2011). 현대국어에서 ‘끼치다’는 결합 대상이 [액체→기체→기운]으로 확장되며 이전의 용법이 사라졌지만, ‘시원하다’는 새로운 용법과 기존의 용법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20) 황국경(2014)에서는 동사의 의미 변화(확대/축소/전변)에 따른 구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 동사의 논항 구조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의미가 확장한 것으로, 감소한 경우 의미가 축소한 것으로 보고, 15세기 동사를 중심으로 논항 구조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다만 논항 구조 변화의 원인이 되는 동사의 의미 변화 과정이 사례별로 자세히 고찰되지는 않았다.

21) 술어 핵의 동사는 술어가 취하는 논항의 수와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지시체가 행위를 일으키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술어가 타동 구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Dixon 2009: 98).

반면 ‘냄새나 기운이 뿌러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행위주가 부각되지 않는다. ‘기체’나 ‘기운’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생긴 대상이 경험주에게 ‘느껴지는’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우며, 대상역(theme)인 ‘NP이’ 논항이 자동사 술어의 주어가 된다. 따라서 ‘냄새’와 ‘기운’으로 결합 대상의 범위를 넓힌 ‘끼치다’는 ‘NP1이_[theme] NP2에_[location] 끼치다’의 구문을 새롭게 형성하고, “(냄새/기운이) 뿌러지다/갑자기 밀려들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NP에’는 초기 용례(12ㄱ)에서만 나타나고 20세기 이후에는 거의 생략된다.

다만 ‘액체’와 ‘기운’의 중간 단계인 ‘기체’의 경우 타동사 용법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매우 드물지만 다음 (17)의 용례가 발견된다.

- (17) ㄱ. 청년은 술이 취하여 술내를 께께 끼치면서 안을 향하여 해숙을 부른다. <환희 (1922) 19>
 ㄴ. 내 시가 최소한 세상에 악취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03 동아일보>

(17)은 (16)과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냄새’에 대해 쓰인 타동사 ‘끼치다’의 용례이다. (17)과 같은 ‘냄새를 끼치다’의 타동사 용법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의미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술냄새’, ‘악취’와 같은 ‘냄새’에 대해서는 행위주가 능동적으로 퍼트리거나 행위와 경험주가 수동적으로 느끼는 경험이 모두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끼치다’²⁾(<끼티다>)는 16~19세기까지 ‘액체’에 대하여 “뿌리다” 의미로 쓰인 타동사였다. 그러나 20세기 전후로 ‘끼치다’의 결합 대상이 ‘기체’와 ‘기운’으로도 확장되었고, ‘액체’에 대해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끼치다’가 결합하는 대상의 범주가 확장되면서 ‘끼치다’가 구성하는 논항 구조 또한 변화하였다. 20세기에 주로 ‘기체’와 ‘기운’에 대해 쓰이게 된 ‘끼치다’는 자동사로 전용되었다. ‘기체’에 대해서는 드물게 타동사 용례가 발견되지만, ‘기운’에 대해서는 자동사 용례만이 나타난다. 이는 ‘액체’와 달리 ‘기체’와 ‘기운’에 대해서는 주체의 능동적 행위가 전제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끼치다’의 결합 대상 확장에 따른 문형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22) ‘끼치다’의 결합 대상 확장 및 논항 구조 변화와 유사한 사례로 ‘퐁기다’를 살펴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퐁기다’는 ‘냄새가 밖으로 퍼지다’의 자동사 용법과 ‘냄새를 밖으로 퍼트리다’의 타동사 용법을 모두 가지는 자타양용동사(ambitransitive verb)이다. ㄱ) ‘퐁기다’는 ‘뿜다(>뿜다)’의 피동사인 ‘뿜기다’에서 기원한다. 중세국어 시기에 ‘뿜기다’는 자동사로, “물이 뿜어지다”의 의미와 “냄새 따위가 퐁기다”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었으나 ㄴ) 근대국어 이후 점차 냄새와 관련된 의미로만 쓰이게 되었다. ㄷ) 본래 자동사이던 ‘퐁기다’는 현대국어에서 타동사로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어 ‘끼치다’와 유사한 논항 구조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ㄱ. 아내가 된장국을 끓이는지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그 거리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들로 가득차 있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ㄴ. 외극원 亭子에 프리 쏘겨 오르느니 (孤亭凌噴薄) <두시언해(1481) 13:25b>
 ㄷ. 못에 꺄득흔 년곳치 향내 쏘기더라 <박통사언해(1677) 中:33a>
 燻了 닉쏘이다 又 내퐁기다 <동문유해(1748) 上:63a>

23) [표 3]은 ‘끼치다’의 대상이 ‘액체’에서 ‘기체’와 ‘기운’으로 확장됨에 따라 보이는 문형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 용례를 다듬어 대표적인 문형을 제시하되, 더 일반적인 구성을 진하게 음영 처리하였다.

대상의 확장	문형	타동사	자동사
역체 ▼ 기체 ▼ 기운		사람이 물을 몸에 끼치다	물결이 얼굴에 끼치다
		청년이 술 냄새를 (얼굴에) 끼치다	술 냄새가 (얼굴에) 끼치다
		(없음)	냉기가 끼치다

[표 2] ‘끼치다’의 결합 대상 확장에 따른 문형 변화

4.4. ‘끼치다’의 환유적 의미 확장 : “소름이 돋다”

이 절에서는 4.3까지 서술한 ‘끼치다²⁾’의 기존 용법으로부터 ‘소름이 끼치다’의 구문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본다. 현대 한국어에서 ‘끼치다’는 ‘소름이 끼치다’의 용법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다. 사전에서는 ‘소름이 끼치다’에서 ‘끼치다’의 의미를 “소름이 몸에 생겨 나타나다”로 풀고 있는데, “물을 뿌리다”나 “냄새나 기운이 갑자기 밀려들다”의 의미와 “소름이 돋다”의 의미 간 관련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소름 끼치다’의 구성은 19세기 이전의 코퍼스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20세기부터 활발하게 사용되다가 현대국어까지 이른다.

‘소름 끼치다’의 형성 과정을 밝히기에 앞서, 국어 문헌에서 명사 ‘소름’이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소름’의 어원을 15세기 어형인 ‘소흙’으로 제시하고 있다. 15~16세기 ‘소흙’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8) ㄱ. 須達이 부테와 중팻 마를 듣고 소흙 도터 自然히 므스매 깃븐 쓰디 이실씩 (於時 須達 聞佛僧名。嗇然毛豎 如有所得心情悅豫。) <석보상절(1447) 6:16>
 ㄴ. 王이 드르시고 소흙 도터 讚嘆히시고 무르샤디 (王聞此語 心驚毛豎 慨歎所以 問使者言) <석보상절(1447) 11:32>
 ㄷ. 魔王이 듣고 깃거 소흙 도터 부터의 ㄱ장 깃븐 므스물 내야 (魔王歡喜舉身毛豎。魔王於佛法生歡喜心) <월인석보(1459) 4:30b>
- (19) ㄱ. 거믄 紗帽를 드틀 떠니 프른 螺엿 소흙 근도소니 (烏帽拂塵靑螺粟) 【靑螺粟은 帽紋也라】 <두시언해(1481) 25:30b>
 ㄴ. 이 혼 등엿 소흙 고르고 굴그니에 엷디 폴다 (這一等花兒勻大的 怎麼賣) <번역박통사(1517) 상:32a>

(18-19)는 15~16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명사 ‘소흙’의 모든 용례를 맥락에 따라 묶은 것이다. (18)에서는 깨달음을 얻어 기쁘고 놀라운 상황에 대하여 ‘소흙 도터다’가 쓰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소름’이 주로 놀랍거나 무서운 상황과 관련하여 쓰이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소흙 도터다’는 모두 한문 원문의 ‘毛豎’, 즉 ‘털이 서다’ 정도의 의미에 대응하여 있는데, 소름이 돋을 때에 털이 서는 신체 현상이 수반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19)에서는 동물과 관련하여 ‘소흙’이 쓰였다.²⁴⁾ (19ㄱ)의 원문에서 ‘소흙’은 푸른 소라(靑螺)의 ‘粟²⁵⁾’에 대응하며, 사모(紗帽)의 모양을 묘사하는 데에 쓰였다. 주석에서는 ‘靑螺粟’

의 의미를 ‘帽紋(모자의 무늬)’로 풀고 있는데, 이는 소라 껍질의 오돌토돌한 돌기를 묘사한 표현으로 보인다. (19ㄴ)에서는 ‘獮皮(염소 가죽)’를 사고 파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전피의 ‘소흙’은 한문 원문의 ‘花兒’에 대응하며, ‘고르고 큰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맥락상 (19ㄴ)에서는 ‘소흙’이 염소 가죽의 오돌토돌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15~16세기에 ‘소흙’은 사람의 털이 곤두서는 부분, 소라 껍데기나 동물 가죽의 오돌토돌한 무늬(돌기)를 의미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소흙’과 관련된 어형은 한동안 문헌에 나타나지 않다가, 18세기 들어 현대국어의 ‘소름’과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소오름’²⁶⁾이 다시 나타난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

- (20) ㄱ. 寒粟子 소오름 <동문유해(1748) 下:56a>
- ㄴ. 寒粟子 소을음 <역어유해(1775) 34a>
- ㄷ. 머리털이 서고 몸이 소오름하니 <명의록해(1777) 31b>
- ㄹ. 몸의 소오름이 일물 썩듯지 못하니 <명의록해(1777) 53a>
- ㅁ. 遍身이 소오름 듯고 (遍身이 寒栗호고) <중수무원록언해(1796) 72a>
- ㅂ. 안고 썰고 쥘려리 치고 몸서리치고 소름 듯칠 제 <남원고사(1864) 2:23b>

(20)에서 ‘소름’은 ‘소오름/소오름/소을음/소름’ 등의 어형으로 나타나며, 한문 원문의 ‘寒粟(子)’에 대응한다. <한어대사전>에서는 ‘寒粟子’를 ‘차가움이나 놀라움을 당하여, 피부의 위에 생기는 부스럼(因受寒或受驚, 皮膚上出現的的疙瘩)’으로 풀고 있다. 찬 기운(寒)이 닿을 때 오돌토돌하게 돋아나는 소름이 좁쌀(粟)의 모양과 비슷한 데에서 유래된 표현이라 생각된다. ‘소름’과 결합하는 서술어로는 ‘ㅎ다/일다/듯다/듯치다’가 있다. ‘소름 돋다/돋치다’는 현대국어에도 활발히 쓰이지만, 19세기까지의 문헌에서는 ‘소름 끼치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름 끼치다’가 처음 나타나는 문헌은 20세기의 신소설이다.

- (21) ㄱ. 별안근에 선뜻한 마암에 소름이 끼치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안고 <혈의누(1906) 상:04>
- ㄴ. 겁이 식삼스러히 나서 마조 보기만 ㅎ야도 소름이 덜석 끼치던 <고목화(1907) 下:138>
- ㄷ. 그러케 참혹한 송장은 누가 보던지 소름이 끼치지 아니할 사름이 업슬 터이라 <귀의성(1908) 下:55>
- ㄹ. 소름 l. Goose-flesh (끼치다) <한영대즈던(1931)>

- (22) ㄱ. 하품과 함께 기지개를 펴자, 나른한 피곤이 소름을 끼치듯 온몸에 흘렀다. <영원 의미소(1933) 088>
- ㄴ. 쟁그렁 하고 종을 떼어 팽개치는 소리가 났다. 창근이는 이 소리에 뼈가 녹는 듯

24) <두시언해>류 문헌과 <박통사>류 문헌에서 (19)와 유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 거문 紗帽를 드를 떠니 프른 螺엿 소흙 곤도소니 <중간두시언해(1632) 25:30b>
 - 이 ㅎ 가지 소흙 고로고 크니를 엇디 풀다 <박통사언해(1677) 상:29b>
 - 이 ㅎ 등 ㄱ치 소흙 큰 거슨 엇지 풀싸 // 이 여섯 소흙 큰 거슨 每張에 그저 닷 돈 은을 바드려 ㅎ니 <박통사신석언해(1765) 1:32b>
 25) <한어대사전>에 따르면 粟은 본래 ‘좁쌀’을 뜻하는데, ‘피부가 찬 것에 닿아 수축하여 일어나는 입자(皮膚觸寒而收縮起粒)’, 즉 ‘소름’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26) 15~16세기 ‘소흙’의 어형이 18세기 이후 ‘소오름’과 의미와 형태상 관련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그 변화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서정범(2000: 365)에서는 ‘소오름’이 ‘소’와 ‘오름’의 합성어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소’가 ‘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그렇게 봐야 하는 적극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소름을 쭉 끼쳤다. <과중(1935) 173>

ㄷ. 그 몹쓸 악귀가 시방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제 김에 몸을 흠뻑하며 자즈라지게
소름을 끼치고 나서 <답(1942) 396>

ㄹ. 방의 외풍이 살갓에 소름을 끼친다. <낮선시간속으로(1980) 260>

(21-22)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소름 끼치다’라는 표현은 20세기 초의 소설 자료에서부터 활발하게 나타난다. 오늘날과 거의 유사하게, 무섭고 겁이 나는 마음, 끔찍하고 보기 싫은 대상과 관련하여 ‘소름 끼치다’가 쓰이고 있다. 대체로는 (21)과 같이 자동사로 나타나지만, 타동사로 쓰인 ‘소름을 끼치다’의 용례도 (22)와 같이 일부 발견된다. 앞서 4.3에서 “뿌리다” 의미의 ‘끼치다’가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전용되는 과정을 살펴본 바 있는데, ‘소름 끼치다’ 역시 자동사 용법과 타동사 용법이 혼용되는 단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름 끼치다’의 구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끼치다’가 본래 “물을 뿌리다” 혹은 “(냄새나 기운이) 갑자기 밀려들다”를 의미했음을 고려할 때, 본뜻 그대로의 ‘끼치다’는 ‘소름이 돋는 행위’를 의미하기 어렵다. ‘소름 끼치다’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표현이 참고된다.

(23) ㄱ. 그 투미한 下人이 그것을 불속 晶愛의 母親에게나 父親에게 傳하지나 안했나?
(...) 이런 생각을 하매 昌燮의 등에 찬소름이 끼치는 듯 하였다. <지새는안개
(1923) 065>

ㄴ. 혼담이 있었던 것만 생각해도 찬소름이 끼치었다. <무영담(1938) 119>

ㄷ. 으스스한 형제산 기슭을 돌 제 털이는 머리끝이 쭈뻑쭈뻑하고 찬 소름이 끼치었지
만, <무영담(1938) 108>

(16') ㄱ. 찬 기운이 낮침 끼치니 연찬이 대경하여 물너나니 <임화정연(간년미상) 26:19>

ㄴ. 방문을 쭉 여니 냉기가 혹 끼치고, 좁은 방은 쓸쓸히 비었다. <유서(1926) 241>

(23)은 모두 20세기 초중반에 발표된 현진건 소설의 일부이다. (23)의 용례에서는 불현 듯 오싹하고 두려운 기분이 드는 상황과 관련하여 ‘찬 소름이 끼치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앞서 (16)에서 확인한바 ‘(기운이 몸에) 덮치듯이 혹 밀려들다’ 의미의 ‘끼치다’는 ‘찬 기운이 끼치다’, ‘냉기가 끼치다’와 같은 용법으로도 흔히 사용된다. 소름이 돋는 상황은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찬 소름이 끼치다’와 ‘찬 기운이 끼치다’, ‘냉기가 끼치다’의 관련성이 발견된다.

‘소름이 끼치다’는 ‘무섭고 찬 기운이 끼쳐 소름이 돋다’의 문형으로부터 새롭게 형성된 표현이라 생각된다. 이때 새로운 표현의 형성 기제는 인접한 사태의 인과성과 관련된 환유로 설명될 수 있다. ‘소름 끼치다’의 환유적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 박진호(2016)에 제시된 ‘만들기 동사(creation verb)’의 사례를 먼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환유적 표현[A]	정확한 표현[B]
커피를 끓이다	물을 끓여서(원인) 커피를 만들다(결과)
빵을 굽다	밀가루를 구워서(원인) 빵을 만들다(결과)
스웨터를 뜨다	실을 떠서(원인) 스웨터를 만들다(결과)

[표 3] ‘만들기 동사’의 환유적 구문 생성 (박진호, 2016: 388)

[표 3]에서 동사 ‘끓이다, 굽다, 뜨다’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구문은 [B]이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A]가 훨씬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박진호(2016)에서는 [A]의 생성을 환유의 인지 기제로써 설명한 바 있다. 행위의 [결과]인 ‘만들다’와 행위의 [원인]인 ‘끓이다, 굽다, 뜨다’는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다. ‘만들다’는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결과이므로 생략되고, 사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끓이다, 굽다, 뜨다’가 만듦의 대상인 ‘커피, 빵, 스웨터’와 함께 새로운 구문을 형성한다.

[원인]으로써 [결과]를 대신 표현하는 환유는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인 구문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지적 기제로 작용한다.²⁷⁾ 동일한 환유의 원리를 적용하여 ‘[불/전등/TV]를 켜다’나 ‘[라디오/음악]을 틀다’, ‘[표/이용권/헬스]를 끊다’와 같은 표현의 생성 과정 또한 설명될 수 있다(김현주 2018, 정은진 2020). 허인영·전은경(2019)에서도 동사 ‘다치다’가 “부딪치다”의 [원인] 의미로부터 “상처를 입다”의 [결과] 의미를 흡수하게 된 것을 [인접성]에 기반한 의미의 환유적 확장으로 설명한 바 있다.

‘소름이 끼치다’의 생성 역시 [원인]으로써 [결과]를 대체하는 의미의 환유적 확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음습하거나 차갑거나 기분 나쁜 기운이 끼치는 것’은 원인이자 1차적 현상이고, ‘소름이 돋는 것’은 원인에 따른 결과이자 2차적 현상이다. 그러나 ‘끼치다’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 ‘음습한 기운이 끼쳐서 소름이 돋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하다. 또한 ‘소름’이라는 단어만으로 소름이 돋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예측되기 때문에 ‘돋다’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소름이 끼치다’는 상황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면서도 훨씬 간결한 표현이 된다. 이를 [표 3]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유적 표현[A]	정확한 표현 [B]
소름이 끼치다	차가운/음습한 기운이 끼쳐서(원인) 소름이 돋다(결과)

[표 4] ‘소름이 끼치다’의 환유적 구문 형성

‘소름이 끼치다’에서 ‘끼치다’는 본래의 의미대로 쓰이지 않지만,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새로운 구문 구성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의 ‘찬 소름이 끼치다’는 ‘찬 기운이 끼쳐서 소름이 돋다’와 ‘소름이 끼치다’의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환유의 기제에 의해 ‘소름 끼치다’의 문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차가운 기운’이 직접 느껴지는 물리적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놀랍거나 싫어 소름이 돋는 모든 상황에 ‘소름 끼치다’가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소름 끼치다’는 환유의 인지 기제가 구문의 생성 및 동사의 의미 확장에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사례로서 흥미롭다.

27) 최경봉(2019)에서도 ‘빵을 굽다’와 같은 문장을 “환유적 개념화”의 일종으로 설명한다. ‘철수가 빵을 구웠다’의 사건 프레임은 ‘철수가 감자를 구웠다’의 사건 프레임을 함의한다. 결과물의 산출 과정(빵을 굽는 과정)에는 대상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 과정(밀가루의 상태 변화)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위 사건의 서술어(굽다)로 결과물을 만드는 상위 사건을 표현하는 것은 환유적 개념화에 따른 것이다(최경봉 2019: 271).

5. 나가며

지금까지 현대국어 ‘끼치다’의 용법이 형성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국어에서 ‘끼치다’는 ‘끼치다¹’과 ‘끼치다²’로 구별되는 동음이의어이다. 두 단어는 각각 “남기다”의 의미를 가진 ‘기티다[遺]’와 “(물을) 뿌리다”의 의미를 가진 ‘끼티다[撒]’로부터 기원하였다. 중세국어 시기에 형태적·의미적으로 구별되었던 두 단어는 음운 변화로 인해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적으로 구별되지 않게 되었다. 두 단어는 각각 독자적인 의미 변화의 과정을 겪어 현대국어에 이른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티다[遺]’는 줄곧 “남기다”의 본래 의미를 유지하여 쓰였으나, 17세기 이후 “남에게 은혜나 피해를 주다”의 의미가 파생되어 점차 쓰임을 넓힌다. 본래의 의미를 ‘공적을 끼치다’에 일부 남기고 있으면서도, ‘은혜/불편을 끼치다’의 특수화된 의미가 보다 전형화되었다. 본래 ‘끼치다’는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에 모두 쓰였으나, 점차 부정적인 의미 운율을 갖게 되어 긍정적인 상황에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한편 ‘끼티다[撒]’는 결합하는 단어 범주와 의미, 문형의 모든 면에서 다채로운 변화를 겪었다. 16-19세기에 ‘끼티다[撒]’는 “(물을) 뿌리다”의 의미로만 쓰였으나, 20세기 들어 결합 대상이 ‘액체’에서 ‘기체’나 ‘기운’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의미가 “기체나 기운이 갑자기 밀려들다”로 변화하였고, 동시에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문법적 특성의 변화까지 수반되었다. 또한 20세기 이후 ‘찬 기운이 끼치다’로부터 환유의 인지 기제가 작용하여, ‘소름이 끼치다’의 구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끼치다¹’과 ‘끼치다²’가 겪은 통시적 의미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두 단어는 쓰임과 기원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단어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의미 관계가 직관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동사 ‘끼치다’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끼치다’가 겪은 변화는 동사의 의미와 용법이 확장되는 연쇄적 과정을 다채롭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끼치다’와 유사한 변화를 겪은 다른 어휘와 아울러 다룬다면 본 연구의 내용이 보다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ttps://ko.dict.naver.com/>.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https://stdict.korean.go.kr/>
- 곽충구(2019),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전』, 과주: 태학사.
- 김민수·최호철·김무림(1997), 『우리말 어원사전』, 과주: 태학사.
- 김무림(2012), 『한국어 어원사전』, 지식과 교양.
- 김현주(2018). 「X-를 켜다 구문의 등장과 그 환유적 확장 - 신문물의 수용과 언어변화」. 『영주어문』 38, 5-30.
- 박재연·이현희 주편(2016), 『고어대사전』,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 박지용 외 편(2012), 「향가 해독 자료집(PDF)」,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박진호(2016), 「환유 개념의 통사적 적용」,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81-396.
- 송지혜(2011). 「‘시원하다’의 통시적 의미 변화 양상 연구」, 『어문학』 111, 37-56.
-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1990),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서정범(2000), 『국어어원사전』, 보고서.
- 이지영(2017). 「최부 표해록 언해본의 이본 고찰」, 『국어국문학』 178, 5-33.
- 임지룡(2016), 『한국어의미론』, 한국문화사.
- 정은진(2020), 「어휘적 연어의 형성 원리에 대한 국어교육적 연구 - 가전제품 관련 어휘적 연어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봉(2019), 「구문과 어휘의미의 상관성 고찰」, 『국어학』 89, 255-283.
-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서울: 어문각.
- 허웅(1975), 『우리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허인영·전은경(2019), 「‘다치다’의 다의성과 의미 변화」, 『국어사연구』 28, 201-231.
- 홍윤표(2012), 『국어 정보학』, 과주: 태학사.
- 황국정(2014), 「15세기 국어 동사의 의미변화와 논항구조의 변화」, 『인문학연구』 26, 5-34.
- Dixon, Robert M. W.(2009), *Basic Linguistic Theory Volume 1 - Methodology*,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Louw, Bill(1993), "Irony in the text or insincerity in the writer? The diagnostic potential of semantic prosodies", In M. Baker, G. Francis and E. Tognini 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48-94.

토론: ‘끼치다’의 어휘사: ‘기티다[遺]’와 ‘끼티다[撒]’의 통시적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정은진 선생님)

김현주(공주교육대학교)

발표 요지

이 발표문은 현대국어에서 동음이의 관계에 놓인 ‘끼치다¹’과 ‘끼치다²’의 형태 및 의미 변화를 추적한 것으로 1) ‘기티다’ 기원의 ‘끼치다’가 {피해를 주다}를 의미하게 되는 과정, 2) ‘끼티다’가 {기체가 끼었어지다} 및 {기운이 끼었어지다}를 의미하게 되는 과정, 3) ‘끼티다’가 {소름이 돋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제, 자료, 방법론

(주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발표문을 읽기 전까지 ‘끼치다’가 두 가지 표제의 동음이의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에 끼친 그의 선한 영향” 같은 일상적 표현에서의 ‘끼치다’가 {영향 따위를 남기다}인지 {기운이 밀려들다}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 역시 이 발표의 주제가 잘 선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자료를 살핌에 있어 역사 문헌과 사전류, 방언 조사 자료, 현대국어 코퍼스 등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어 이로써 소재가 되는 두 어휘의 변화를 살핌에 추세는 물론 형태사와 변화의 맥락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방법론) 자료를 통해 두 동사의 논항에 대해 해석함에 있어 ‘행위주의 통제성’, ‘사태의 순간성’, ‘추상화’ 등의 사태의 언어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도구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문 변화의 해석과 관련하여 출현 빈도와 ‘의미 운율’, 환유적 단순화 등의 원리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제언

1. 앞서 든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처럼 관계화를 통해 자타동의 구분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에 타동사 ‘끼티다’가 자동사 ‘끼치다’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태의 타동성 이외에 관형사 절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 4.3 (16)과 관련하여 “순간성 부사와 공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잡았습니다. 이 점도 교량맥락의 한 특징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기체가 덮쳐오는 상황을 타동 구문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냄새는 사람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되어 결국 그 냄새의 제공자의 행동으로 퍼집니다. 이로부터 행위성이 없이 기체가 퍼지는 상황과 기체가 아닌 기운이 퍼지는 상황으로, 환유적으로 논항의 의미 경계가 확장되었을 듯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 타동문이 자동문으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하여 ‘뵈다’나 ‘사무치다’ 같은 어휘도 참조할 수 있을 듯합니다. ‘뵈다’는 “X_i-가 Y-에게 재귀사_i-를 보이다”에서 시작해 재귀사의 생략과 Y 논항의 상승으로 지금처럼 논항 구조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치다’는 {(관)통하다}로 ‘스뭏다’에 기원하여 ‘마음에 슬픔이 사무치다’ 같은 표현이 오래된 용법이고 ‘그는 슬픔에 사무치다’ 같은 용법이 새로운 용법입니다.

(2, 3과 관련하여 교량맥락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단절적 변화보다 양쪽으로 모두 해석되는 과정을 거치며 논항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빈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지만, 시기에 따라 ‘기티다’의 의미 운율별 빈도나, ‘끼티다’의 논항의 내용별 빈도를 제시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5. 행위주의 통제성과 타동성의 관계가 논항 구조에 영향을 주었음도 결론에서 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내용

1. 각주4에서 ‘나에끼티살’이나 ‘나에 기티살든’ 등은 ‘遺知’가 아니라 ‘吾良遺知’에 대한 해석입니다.
2. 4절은 ‘끼티다’를 다루는 부분인데 4.1의 마지막 단락에 ‘기티다’와 ‘끼티다’의 형태사를 논하고 있는데 논지의 흐름상 튀는 것 같습니다. 각주로 넣든가 다른 부분에 녹여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마무리

재미있는 소재와 주제의 발표문을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논문으로 완성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윤정현가 언간에 나타난 친족간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

선한빛(전남대학교)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부부·친척·인척간 경어법 사용 양상 |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4. 맺음말 |

1. 머리말

해남윤씨(海南尹氏) 어초은공파(漁梅隱公派)는 윤효정(尹孝貞, 1476~1543)이 세거하던 지역을 전라남도 강진에서 해남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윤효정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4대조(代祖)이자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7대조이다. 해남윤씨 종택(宗宅)에서는 유물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윤효정의 후손과 그 일가가 작성한 언간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하는 대부분의 언간이 충청도나 경상도에 소재한 가문의 자료이라는 점¹⁾을 고려한다면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언간²⁾(이하 「해남윤씨」)의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해남윤씨」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ㄱ, ㄴ)에 영인·역주되면서 학계에 소개되었다.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한글 자료는 51편이 남아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ㄱ, ㄴ)에는 문자나 글의 내용을 판독할 수 있는 37편만 수록되어 있다.³⁾ 이 중에서 「해남윤씨」는 총 32편이 있는데 17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작성되었다. 지금까지 경어법을 논의한 언간이 주로 17~19세기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남윤씨」는 한 가문의 언어 사용 양상을 20세기 전반기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남윤씨」에

1) 언간과 같은 자료는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가문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18대 종손인 윤형식(재)녹우당 문화예술재단 대표의 신문 인터뷰를 보더라도 광주전남 지역의 종가가 처한 현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윤형식 대표가 2017년에 『무등일보』와 한 인터뷰 중 일부이다.

“안동에만 100여 곳을 비롯해 상주, 청송 등 경북 지역에만 종가가 200여 곳이 넘는다. 특히 경북 지역은 안동 국학진흥원에 2천여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정부 지원도 적극적이다. 내로라하는 학자들과 종가 종손, 유교학자 등 자문위원만도 17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학술연구와 관련 서적 발행 등 현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전남 지역은 제사를 모시는 곳이 12곳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전남도 등에서 종가 보존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발굴해 광주·전남 지역 종가도 40여 곳으로까지 늘었지만 경북 지역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인터뷰-윤형식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18대 종손」, 『무등일보』, 2017. 3. 2., <http://honam.co.kr/detail/GQFJv6/505651>(검색일: 2021. 1. 2.))

2)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언간이라는 명칭은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고문서에서 한글 간찰로 기록된 자료들을 총칭한 것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ㄱ, ㄴ)에서는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간찰류와 고목류 37편을 영인·역주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중 간찰류에 속하는 자료만을 한정하여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언간’이라 지칭한다.

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ㄴ: 25)에 따르면 어초은공파의 한글 자료 51편 중 문서의 일부가 파손·오염되어 문자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 글씨가 너무 난삽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것들은 역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서 17~19세기에 작성된 것은 편수가 많지 않고 발신자가 해남윤씨 가문의 사람보다는 해남윤씨와 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많다. 「해남윤씨」 중 해남윤씨 일가의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는 20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해남윤씨 어초은공과 28세손인 윤정현(尹定鉉, 1882~1950) 일가의 것이 적합하다.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해남윤씨」 중 윤정현 일가의 인간을 대상으로 20세기에 친족 간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언간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어법 연구에서 많이 활용이 되

4) 「해남윤씨」에 수록된 다른 언간들과 비교했을 때 윤정현 일가의 자료의 양이 많아 한 가문의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해남윤씨」의 목록과 발·수신자 정보 및 관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http://kostma.aks.ac.kr/FamilyTree/>),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index.do>)을 참고하여 시기별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작성 시기	언간 번호	발신자	수신자	발·수신자의 관계	참고	
1664	「해남윤씨」 22	유정린	전주유씨	남동생→누나	수신자: 윤인미의 부인	
	「해남윤씨」 23	유정린	전주유씨	남동생→누나		
1677	「해남윤씨」 17	윤이석	전주유씨	아들→어머니		
1753	「해남윤씨」 27	미상	미상	사촌 아주머니→사촌 아주머니		
1756	「해남윤씨」 24	연안이씨	연안이씨	고모→조카딸	수신자: 윤종의 부인	
1856	「해남윤씨」 26	윤주홍	해남윤씨	사촌 오빠→사촌 동생	수신자: 윤성호의 큰딸	
1886	「해남윤씨」 21	해남윤씨	해남윤씨	언니→여동생	발·수신자: 윤주홍의 누이	
1890	「해남윤씨」 31	윤관하	미상	이웃 아우→이웃 형		
1899	「해남윤씨」 28	미상	미상	외사촌 오빠→외사촌 누이		
19세기 후반	「해남윤씨」 6	해주최씨	해남윤씨	어머니→딸	발신자: 윤관하의 부인 수신자: 임회규의 부인	
	「해남윤씨」 7	해주최씨	해남윤씨	어머니→딸		
1903	「해남윤씨」 25	윤정현 추정	미상	시백부→조카며느리		
1917	「해남윤씨」 30	한씨	이상래	사돈→사돈	발신자: 이형균의 어머니 (이병성의 부인)	
1918	「해남윤씨」 20	이형균	이상래	사위→장모	발신자: 큰 사위	
1925	「해남윤씨」 1	윤정현	이상래	남편→아내	발신자: 윤영선의 부인	
	「해남윤씨」 5	이상래	윤정현	아내→남편		
	「해남윤씨」 19	제주양씨	이상래	며느리→시아머니		
1926	「해남윤씨」 2	윤정현	이상래	남편→아내	발신자: 윤관하 초상의 조문객	
	「해남윤씨」 3	윤정현	이상래	남편→아내		
	「해남윤씨」 32	십씨	이상래	조객→상제		
20세기 전반	「해남윤씨」 4	윤정현	이상래	남편→아내	수신자: 윤정현의 둘째 아들	
	「해남윤씨」 8	이상래	윤영희	어머니→아들		
	「해남윤씨」 9					
	「해남윤씨」 10					
	「해남윤씨」 11					
	「해남윤씨」 12	정맹석	경하	어머니→아들		발신자: 윤영희의 부인
	「해남윤씨」 13	이상래	관길	어머니→아들		
	「해남윤씨」 14	이상래	윤영희	어머니→아들		
	「해남윤씨」 15					
	「해남윤씨」 16					
「해남윤씨」 29	이용의의 형	윤영희	외사촌 아우→사촌 형	발신자: 윤영선의 외사촌		
미상	「해남윤씨」 18	미상	미상	아들→어머니		

5) 20세기 전반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상대경어법 논의로는 김양진·이희영(2015)가 있다. 20세기 전반기의 상대경어법은 주로 신소설 자료나 구어 자료를 활용한 논의들이 있다(민현식 1984; 김정호 2005; 김정호 2012; 정경재·정연주·홍종선 2015; 정경재 2016).

고 있다. 발·수신자의 이름, 관계, 인간 작성 시기 등의 정보가 발·수신자의 위계를 설정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⁶⁾ 그런데 발·수신자의 대화에서 경어법이 고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서는 발신자가 수신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흐다’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흐느이다’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높임법에 사용되는 종결어미의 형태에만 집중한다면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다만 발·수신자의 사회적 지위, 심리적 거리 혹은 친밀도 등을 고려한다면 설명할 수 있다.⁷⁾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윤정현 일가가 인간에서 수신자에게 사용하는 경어법의 양상을 발화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윤정현가 인간의 발·수신자 검토 및 연구 대상

2.1. 윤정현가의 가계와 인간의 발·수신자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남윤씨」 중에서도 20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윤정현 일가의 인간이다. 인간의 발·수신자와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알아야만 한다. 『海南尹氏大同譜』를 바탕으로 윤정현 일가의 가계도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⁸⁾

부	모	자녀		배우자	손자손녀		배우자
윤정현 (尹定鉉, 1882~1950)	이상래 (李祥來, 1882~1971) (廣州李氏)	1男	윤영선 (尹泳善, 1905~1997)	양재영 (梁在英, 1903~1950) (濟州梁氏)	1男	윤환식 (尹環植, 1928~?)	-
					1女	윤순정 (尹順精, 1931~?)	정경석 (丁景錫, 羅州丁氏)
					2男	윤희식 (尹亨植, 1934~1991)	김은수 (金恩秀, 1939~?) (金海金氏)
					2女	윤희옥 (尹惠玉, 1937~?)	고명승 (高明昇, 長壽高氏)
				이형애 (李炯愛, 1933~?) (原州李氏)	1女	윤용숙 (尹龍淑, 1947~?)	이병천 (李炳天, 光山李氏)
					1男	윤택량 (尹德樑, 1953~2002)	이명은 (李明恩, 1958~) (全州李氏)
					2女	윤인숙 (尹仁淑, 1955~?)	김정남 (金正男, 金海金氏)
					2男	윤희량 (尹亨樑)	곽행숙 (郭行淑)

6) 황문환(2010: 97)에서는 인간 자료에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대 경어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인간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7) 이승희(2005: 263~264)에서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흐느’체나 ‘흐느이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높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혈연 관계에서의 거리,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한 거리감으로 설명하였다.
 8)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인물 관계 및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족보 외에도 분재기가 있다. 그런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1986)에 수록된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분재기에는 김정현 일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어 『海南尹氏大同譜』에 의존해야만 했다.

					(梁恒樑, 1957~2011)	(郭李淑, 1961~) (濟州梁氏)
				3男	윤의식 (尹義植, 1959~)	양남영 (梁南泳, 1961~) (濟州梁氏)
				4男	윤춘식 (尹椿植, 1960~)	조미란 (趙美蘭, 1963~) (溇陽趙氏)
	2男	윤영희 (尹泳禧, 1907~1951)	정맹석 (鄭孟碩, 1909~1981) (草溪鄭氏)	1男	윤준식 (尹駿植, 1927~1972)	이혜란 (李海麗, 1931~?) (完山李氏)
				1女	윤옥정 (尹玉精, 1931~?)	김수정 (金洙正, 金海金氏)
				2男	윤찬식 (尹贊植, 1937~1997)	김낭희 (金娘姬, 1945~) (金海金氏)
				3男	윤도경 (尹度景, 1943~)	박영자 (朴英子, 1948~) (密陽朴氏)
				2女	윤혜경 (尹惠京, 1945~)	김승관 (金承權, 蔚山金氏)
	3男	윤영수 (尹泳秀, 1914~1953)	황옥이 (黃玉伊, 1914~1993) (長水黃氏)	1女	윤숙정 (尹淑精, 1934~2011)	김동섭 (金東燮, 光山金氏)
				2女	윤관례 (尹官禮, 1935~2003)	조현성 (趙顯成, 咸安趙氏)
				1男	윤창식 (尹昌植, 1936~?)	이례자 (李禮子, 1943~) (廣州李氏)
	4男	윤영인 (尹泳麟, 1916~1973)	정운자 (鄭雲子, 1919~2002) (迎日鄭氏)	1男	윤흥식 (尹興植, 1938~1985)	이복임 (李福任, 1945~) (全州李氏)
			홍성옥 (洪性玉, 1923~2013) (南陽洪氏)	1男	윤훈식 (尹薰植, 1945~)	남남순 (南南順, 1951~) (宣寧南氏)
				1女	윤선명 (尹先明, 1948~)	오석홍 (吳錫弘, 1936~?)
				2男	윤권식 (尹權植, 1952~)	박순이 (朴順伊, 1956~) (密陽朴氏)
				3男	윤관식 (尹寬植, 1956~)	황금남 (黃琴南, 1957~) (平海黃氏)
	5男	윤영표 (尹泳杓, 1919~2007)	이갑원 (李甲遠, 1925~?) (韓山李氏)	1女	윤증자 (尹澄子, 1944~)	박영주 (朴營柱)
				1男	윤규식 (尹奎植, 1945~)	이령심 (李令心, 1945~) (廣州李氏)
				2男	윤두식 (尹斗植, 1949~)	차희미 (車熙美, 1953~)

						(延安事氏)
					3男	윤홍식 (尹鴻植, 1951~)
					4男	윤우식 (尹宇植, 1954~)
	1女	윤영숙 (尹泳淑, ?~?)	이형균 (李衡均, 1901~?) (延安李氏)			성악선 (成樂仙, 1956~) (昌寧成氏)
	2女	해남윤씨 (尹??, ?~?)	김수규 (金修奎, ?~?) (金海金氏)			이혜련 (李惠蓮, 1956~) (全州李氏)

<표 1>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28세손 윤정현 일가 3대의 가계도

윤정현은 이상래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다섯과 딸 둘을 두었다.⁹⁾ 자녀들을 출생 순서로 나열하면 아들 윤영선, 윤영희, 윤영수, 윤영인, 윤영표과 딸 윤영숙, 해남윤씨이다.¹⁰⁾ 이 중에서 이상래가 인간을 자주 주고받은 자녀가 둘째 아들 윤영희이다. 인간에서는 윤영희의 형제들로 보이는 인물의 이름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 (1) ㄱ. [隔1]수영형으게 날포 소식 모르니 답답 그림기 흥낭 업고 나리 이상 치우니 각지의 무양흐며 즈시 올고져 혼다 너의 아버님 그날 저의 드러 계시더냐 답자리는 넘고 넘 너롭다 여도 어린 것들 다 무양하고 **피영** 과히 나오니 괴특하다 이만 근치며 내내 무스이 잇기 브란다 자반 쪼끔 보낸다 돈 한 돈 보내니 조회나 사 써라 [隔2]죽일모 <「해남윤씨」 8>
- ㄴ. [隔1]수영형으게[移1] 어제 텅강 드러니 다 무양들 흥가 시부니 깃부더라 슈영이가 집을 못 이저 흐더라니 죽히 괴로오라 내야 과겨찬니 너기되 너의 아버지계서 츄마 못 이저 흐시고 **필영**도 수영 부으며 우니 정이 괴특고 우습다 무으장이나 흥여 보내려 흥여더니 가는 줄 몰나 못흥여 보내고 기이엿다 이만 근친다 [隔1]죽일모<「해남윤씨」 10>
- ㄷ. 수영형답 수일 소식 모르니 답답하다 그스이 각지의 무양흐냐 동접이나 맛당흥여 공부나 착실흥 덧시부냐 네도 더 무양흐냐 **필영** 국금 성치 못흥니 괴롭다 곡성 성주니 오늘 보내나 네 편지 업서 섭섭흥여 흥갸다 무궁흐나 이만 근치며 내내 무양하고 공부 착실흥기 맞는다 흥 섭섭흥여 무의장 보낸다 [隔2]죽일모<「해남윤씨」 11>

(1)은 발신자가 ‘모’로, 수신자가 ‘수(슈)영형’으로 표기되어 있어 발신자와 수신자를 각각 이상래와 윤영희로 보고 있다. (1)에서는 ‘피영/필영’이 3번 등장하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ㄴ: 73)에서는 윤정현과 이상래 사이에 딸이 한 명이 있다고 했지만 『海南尹氏大同譜』을 검토하여 이형균과 혼인한 윤영숙 외에도 김수규와 혼인한 딸이 더 있음을 확인하였다.

10) 『海南尹氏大同譜』에는 어초은공파 29세손 중 딸들의 이름이나 생몰연도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배우자도 이름, 본관, 생몰연도 등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표 2>에 윤정현의 자녀들의 정확한 출생순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윤영숙의 남편인 이형균의 출생연도가 첫째 아들인 윤영선 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윤영숙이 윤정현의 첫째딸 가능성이 있다. 연안이씨의 족보를 검토한다면 윤영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ㄴ: 43)에서는 윤정현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어린 연’을 윤정현의 막내딸 ‘영순(泳順)’으로 수정하였다. 그런데 『海南尹氏大同譜』에는 둘째 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김수규와 혼인한 해남윤씨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김해김씨의 족보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반면 어초은공파 30세손부터는 아들·딸 구분 없이 이름, 본관, 생몰연도 등이 『海南尹氏大同譜』에 반영되어 있다.

편(2005년: 73)에서는 이를 ‘윤영필(尹泳畢)’로 보았다.¹¹⁾ 그런데 『海南尹氏大同譜』에는 윤정현의 자녀 중 ‘윤영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필사본 족보에 기재된 이름과 『海南尹氏大同譜』에 기재된 이름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윤정현의 다른 자녀들의 이름은 『海南尹氏大同譜』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1)의 내용 속 ‘필영’의 존재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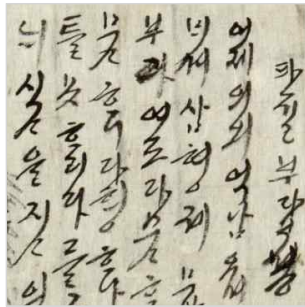
이상래가 아들에게 보낸 언간 가운데 수신자의 명칭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2) **판길 부** 답봉 어제 의외 억남 오며 즈시 드르니 깃죽 밋셔 삼형제 무양훈가 시부니 깃 부다 여도 다 무스하고 삼슈 숙질 무스하니 다형하나 아직도 밋음은 못틀 못히리다 드르니 너의 어루신너 식스를 지스의셔 홀다니 오죽 어려워하시랴 엇지 그리하나나 싹 마리 여더 장이나 하여 보낼 거슬 밋쳐 못히고 삼준과 의논하여 안악의셔 반찬 하여 보내던가 시부다 돈 닷 돈과 결안 여나문 보내니 너의 아버님과 드려라 나도 신 업서 민망하다 이만 근친다[移1] [隔4]즉일 모<「해남윤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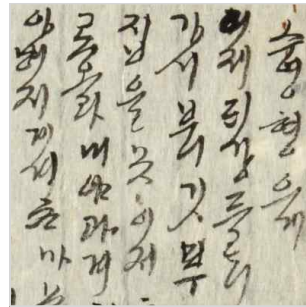
(2)는 수신자가 ‘판길 부’로 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년: 83~85)에서는 ‘부’를 ‘부(付)’로 해독하였지만 이상래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수신자의 호칭이 ‘수(수)영 형<「해남윤씨」 8~11>, 아기 아뵤<「해남윤씨」 14>’와 같이 ‘이름+ 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¹²⁾ 수신자의 호칭에 적용된 규칙을 고려한다면 ‘판길 부’의 ‘부’는 ‘부(父)’를 가리므로 수신자를 ‘판길 아버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상래가 쓴 다른 언간과 비교하면 (2)의 발신자가 이상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해남윤씨」 13의 글씨체¹³⁾



[그림 2] 이상래의 글씨체¹⁴⁾



1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년: 73)에서는 이상래가 자녀들을 부를 때 그들의 이름 순서를 ‘영수→수영’과 같이 바꾸어 부른 점, 해남윤씨 어초은공과 종가에 전해지는 필사본 족보에 ‘泳畢’이라는 이름이 보인다는 점을 들어 (1)의 ‘피영/필영’을 ‘윤영필’로 추정하였다.

12) ‘경하<「해남윤씨」 12>, 아드<「해남윤씨」 15>, 아기<「해남윤씨」 16>’는 수신자를 드러내는 방법이 (2)와 다르기 때문에 수신자를 부르는 호칭이 ‘이름+ 관계’의 구조인 예에서 제외하였다.

13)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viewer/viewer.do?itemId=book#imgnode.do?itemId=book&gubun=booktree&depth=3&upPath=03%5EL0328&dataId=G002%2BAKS%2BKSM-XF.0000.0000-20101008.B003a_003_01884_XXX(검색일: 2020. 1. 3.)

14)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viewer/viewer.do?itemId=book#imgnode.do?itemId=book&gubun=booktree&depth=3&upPath=03%5EL0328&dataId=G002%2BAKS%2BKSM-XF.0000.0000-20101008.B003a_003_01961_XXX(검색일: 2020. 1. 3.)

[그림 1]은 (2)의 발신자가 쓴 것이고 [그림 2]는 이상래가 윤영희에게 보낸 「해남윤씨」 10이다. 두 언간은 도입부가 ‘어제’로 시작하는데 동일하게 글씨체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의 발신자는 이상래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상래의 손자·손녀들 가운데 ‘판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어 ‘판길’을 손자·손녀들 중 누군가의 아명(兒名)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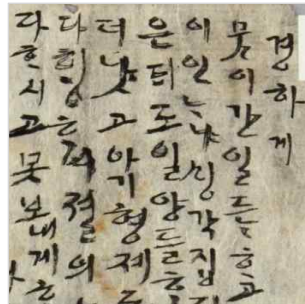
다음은 이상래의 둘째 며느리인 정맹석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언간에 등장하는 이름이다.

(3) 경하계[移1] 무스이 간 일 든든하고 밤스이 무스이 인느나 싱각 집다 여도 아직은 디도 일양들 헉시고 한미도 더 낮고 아기 형체도 무양하니 다형하며 전의는 예우 못현다 헉시고 못 보내게 헉시되 네 종즈 보내며 식우젓과 콩장과 죠끔 보니 즈시 바드라 무궁하 나 이만 근치며 내내 직중의 잘 잇다가 오기 브란다[移1] 즉일모<「해남윤씨」 12>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는 (3)의 발신자를 정맹석으로 수신자를 윤경하로 설명하였다.¹⁵⁾ 언간의 마지막에 ‘즉일모’라 하여 발신자가 수신자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경하’라는 이름도 ‘피영/필영’과 동일하게 『海南尹氏大同譜』에 등장하지 않는다. 정맹석에게는 아들이 세 명, 딸이 두 명 있는데 이 중 아들들의 이름은 윤준식, 윤찬식, 윤도경이다.¹⁶⁾ (3)의 ‘경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 없어 언간의 수신인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경하’가 윤영희의 아들이 아니라면 (3)의 발신자가 정맹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3)의 발신자를 이상래로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언간 속 글씨체를 비교하면 (3)의 발신자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정맹석 추정 인물의 글씨체¹⁷⁾



15) “20세기 전반 윤영희(尹泳禧)의 부인 정맹석(鄭孟碩)이 그의 아들 윤경하(尹縈夏)에게 보낸 것으로 집안 안 부를 전하고 새우젓과 콩장을 보낸다는 내용의 간찰”(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insp/item.do#view.do?itemId=insp&gubun=form&upPath=02%5E0206%5E020606&dataId=G002%2BAKS%2BKSM-XF.0000.0000-20101008.B003a_003_01952_XXX&dataUCI=G002%2BAKS%2BKSM-XF.0000.0000-20101008.B003a_003_01952_XXX(검색일: 2021. 1. 1.))

16) 대동보와 필사본 족보의 이름이 다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萬家譜』는 19세기 말에 편찬되어 여기에서는 윤정현 이후의 해남윤씨 가문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 ‘윤경하’라는 명칭 또한 추후 해남윤씨 필사본 족보를 검토할 예정이다.

17)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viewer/viewer.do?itemId=book#imgnode.do?itemId=book&gubun=booktree&upPath=03%5E0328%5EG002%2BAKS%2BKSM-XF.0000.0000-20101008.B003a_003_01952_XXX&dataId=G002%2BAKS%2BKSM-XF.0000.0000-20101008.B003a_003_01952_XXX-IMG.001.jpg%5EG002%2BAKS%2BKSM-XF.0000.0000-20101008.B003a_003_01952_XXX(검색일: 2020. 1. 3.)

위의 [그림 3]은 정맹석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남윤씨」 12이다. 이상래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언간들은 [그림 1], [그림 2]와 같이 글씨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그런데 [그림 3]은 [그림 1], [그림 2]와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 「해남윤씨」 12의 발신자는 이상래가 아닌 다른 인물이다.

(3)의 발신자를 정맹석으로 추정한다면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동보에는 윤영희의 자녀로 ‘윤경하’라는 이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3)에 나오는 ‘아기 형제’를 통해 (3)의 수신자를 추정할 수 있다. 윤영희와 정맹석 사이에는 아들이 세 명 있는데 수신자에게 ‘아기 형제’를 이야기한다면 최소 둘째 아들부터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의 수신자는 정맹석의 첫째 아들인 윤준식이 된다.

2.2. 연구 대상

이 글에서는 윤정현 일가와 친족간의 상대경어법을 알아보기 때문에 윤정현 일가와 관련된 언간은 20편 중 18편만이 연구 대상이 된다. 친족의 범위에 따라 언간을 부부간, 친척간, 인척간에 주고받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2.1.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이 글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언간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구분	발신자	수신자	관계	작성 시기	언간 번호	참고
부부간	윤정현	이상래	남편→아내	1925	「해남윤씨」 1	
				1926	「해남윤씨」 2	
					「해남윤씨」 3	
			20세기 전반	「해남윤씨」 4		
	이상래	윤정현	아내→남편	1925	「해남윤씨」 5	「해남윤씨」 1과 이어짐.
친척간	이상래	윤영희	어머니→아들	20세기 전반	「해남윤씨」 8	
					「해남윤씨」 9	
					「해남윤씨」 10	
					「해남윤씨」 11	
					「해남윤씨」 14	
					「해남윤씨」 15	
	「해남윤씨」 16					
	판길 이비			「해남윤씨」 13		
	정맹석 추정	윤준식 추정		「해남윤씨」 12		
	이용의의 형	윤영희	외사촌 아우→사촌 형		「해남윤씨」 29	
인척간	윤정현 추정	미상	시백부→조카며느리	1903	「해남윤씨」 25	
	이형균	이상래	사위→장모	1918	「해남윤씨」 20	
	양재영 ¹⁸⁾	이상래	며느리→시아머니	1925	「해남윤씨」 19	양재영은 윤영선의 첫째 부인

<표 2> 윤정현 일가의 친족간 언간 18편

각주 4에 제시한 표의 내용과 <표 2>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18) 윤정현의 며느리 가운데 제주양씨인 인물은 첫째 아들 윤영선의 첫째 부인인 양재영이 유일하다. 『海南尹氏大同譜』에서 수신자의 이름을 확인하였으니 <표 1>에서 제주양씨로 제시했던 것을 <표 2>에서는 양재영으로 수정하였다.

- (3) 가. 「해남윤씨」 12의 수신자: 경하 → 윤준식 추정
- 나. 「해남윤씨」 13의 수신자: 관길 → 관길 아버지
- 다. 「해남윤씨」 19의 발신자: 제주양씨 → 양재영
- 르. 「해남윤씨」 29의 수신자의 위치: 외사촌 형 → 사촌 형

윤정현가의 언간에서는 발·수신자가 맺는 관계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발·수신자의 관계를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¹⁹⁾

- (4) 가. 공적/사적 관계
- 나. 긴밀/느슨한 유대관계
- 다. 지위 관계
- 르. 성별

(4)의 기준으로 윤정현가 언간 속 발·수신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적 관계보다는 사적 관계에서 작성된 언간이라는 점, 언간의 내용을 보면 성별을 막론하고 발·수신자 간의 유대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 사회적 지위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관계²⁰⁾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발·수신자의 성별은 [여성→남성](11편) > [남성→여성](6편) > [남성→남성](1편) 순이었다. 위의 기준으로 언간을 분류하면 김정현가 언간은 가족 구성원간에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성별을 가진 발·수신자가 사용하는 경어법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윤정현가 언간이 20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3장에서는 19세기까지의 언간을 대상으로 한 상대경어법 체계를 참고하여²¹⁾ 그 등급을 분석하기로 한다.

등급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높임등급	하느이다	하느이다 하옵느이다	하느이다 하옵느이다	하느이다
		하옵	하옵	
중간등급	하느	하옵느	하옵느	하느
		하느	하느	
안높임등급	하느다	하다	하다	하다

<표 3> 16~19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체계(한주희 2018: 102)

3. 부부·친척·인척간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

3.1. 부부간의 경우

19)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발·수신자의 관계 분류 기준은 김정호(2005: 6~13)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20) 여기에서 사회적 지위가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것은 왕족과 사대부, 군주와 신하, 스승과 제자 등과 같은 관계를 의미한다. 김정호(2005: 9)에서는 사회적 지위 관계에 중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경어법의 등급들이 가진 특성에 주목하여 전반적인 사용 양상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윤정현가 언간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발·수신자의 지위 관계에 따른 경어법 사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21) 한주희(2018)에서는 황문환(1997/2002)와 이승희(2004)에서 제시한 상대경어법 체계를 정리하여 간본과 언간의 상대경어법 체계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참고하는 것은 언간에서의 체계이다.

윤정현가 언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언간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남편인 윤정현이 아내 이상래에게 보낸 언간에서의 청자경어법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 (5) ㄱ. 슈일 전에 강동서 영히 속키 보니어 달노고 전보가 왔섯습<「해남윤씨」 1>
 ㄴ. 집 떠는 지 어연 다일 되니 멀니 잇서 답올이습<「해남윤씨」 2>
 ㄷ. 양측 서봉을 일시의 바다 적조 궁금흐든 가신을 듯사오니 희힝 만만이습<「해남윤씨」 3>
- (6) ㄱ. 게서 티스 보고 닉월 초육일에 기여히 닉려오시습<「해남윤씨」 1>
 ㄴ. 으마 엄마노 바다 왔습 듯흐오니 무리 보서서 바다 왔스면 그 돈이 언마가 되년지 삼십니 환 가량을 곳 전보로 진주 으히의게 급피 부치시고 그 돈 못 바다 왔다 흐면 여현이 식기여 베퍼돈이라도 거기 부칠 만곰 잡버 오라 흐여 급피 부치여 주시습<「해남윤씨」 2>
 ㄷ. 준식 어미의 니증후 종기에 우무가 조홀 듯흐니 우무가시리를 좀 되려 보니어 고아 먹게 흐시습<「해남윤씨」 4>
- (7) ㄱ. 친당상 근력 손섭지절 업스오시고 성번제절이 튀평들하신 게습<「해남윤씨」 1>
 ㄴ. 며느리 둘 다 무틀흐난 게습 큰 으은 염소 고니어 요식 먹는 게습<「해남윤씨」 2>
 ㄷ. 양측 서봉을 일시의 바다 적조 궁금흐든 가신을 듯사오니 희힝 만만이습 서후 다일 되여 도로히 궁금흐 마음 일반이온디 츠시 춘기 완연흐온 중 빅사 어득 골물흐신 신상 느리 안증흐오시고 중당 근력 되단 침손지환은 업스시고 으히를 다남디 무틀흐고 부으들 형제 평길흐고 혼가이 여진 무탈흐습고 각들 안온흐나잇가<「해남윤씨」 3>

윤정현은 이상래에게 대부분 ‘흐습’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5)는 평서문, (6)은 명령문, (7)은 의문문의 예이다. 흐습체는 평서문에서는 ‘흐습’형으로 명령문에서는 ‘흐시습’의 형태로, 의문문에서는 의존명사 결합형인 ‘-(으)니 게습’으로 실현되었다. ‘흐습’체는 17세기 「진주하씨 묘 출토언간」에서 처음 등장한²²⁾ 이후 근대국어 시기의 언간에서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데²³⁾ (5~7)과 같이 20세기 전반기까지도 ‘흐습’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까지 ‘흐습’체는 ‘흐느이다’체와 혼용되었는데 윤정현가 언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 ㄷ)은 윤정현이 아내에게 보낸 언간 4편 중 ‘흐습’체와 ‘흐느이다’체를 함께 사용한 유일한 예이다. 여기에서는 ‘흐느이다’체의 의문형 어미 ‘-니잇가’를 사용하였다.²⁴⁾ ‘흐습’체와 ‘흐느이다’체의 혼용은 17세기부터 이어져 왔다. 「진주하씨 묘 출토언간」에서는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언간에서만 사용되었는데²⁵⁾ 18세기 이후에는 [손자→할머니], [아들→어머니], [장

22) 황문환(1999),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흐습’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114쪽.

23) ‘흐습’체는 18세기 초중반 이후에는 한 세대 전후의 언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일관되게 쓰이는데 황문환(1999: 119)에서는 이를 ‘흐습’체가 가지는 고유한 대우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24) 이래호(2017: 120)에서는 17세기 전기의 언간에서부터 ‘흐느이다’체에서 ‘-니잇고’가 나타나지 않고 ‘-니잇가’로 실현되는 것을 들며 ‘흐느이다’체에서 설명 의문과 판정 의문의 대립이 이미 17세기 전기에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25) 황문환(1999: 115)에서는 “완전히 흐여 못흐을 거시니 금월이를 말고 향월이를 보내습 약 머길 줄이나 즈세 니르라 흐습쇼셔 개췌물과 모시부리 물 점 머기라 흐습쇼셔<「진주하씨」 162>”를 예로 들며 ‘흐습’류가 ‘-습-’을 포함한 ‘흐느이다’체의 종결형에서 ‘-습-’ 뒤의 형식이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모→사위], [형수→시동생]의 언간에서도 확인된다(황문환 1999: 117).

다음은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언간에서의 예이다.

- (8) ㄱ. 인흐 너왕간 스오일 되오니 원문이 조스이다<「해남윤씨」 5>
 ㄴ. 무스의 간 소식 드라신 듯 신통신통흐옵<「해남윤씨」 5>
 ㄷ. 글씨 추필이라 보시기 어려울 듯흐옵느이다<「해남윤씨」 5>
- (9) ㄱ. 야심 반야의 두어 즈 적스오려 호오니 정신 상막흐와 두어 즈 적스오니 감흐시옵<「해남윤씨」 5>
 ㄴ. 식로 두 시에 시죽흐여 글이오니 김죽흐시옵<「해남윤씨」 5>
- (10) ㄱ. 훌훌이 출발 후 다일 되오니 궁급하든 즈 목보 놉 넘너흐여 글월 밧좁고 안부 슬피 오니 관중흐신 기후 다요중 안녕흐심 스형이웁고 식품 범절이 여전흐신잇가<「해남윤씨」 5>
 ㄴ. 강동서는 전보 온 듯 오죽 답답흐여 전보흐여실 게옵<「해남윤씨」 5>

(8)은 평서문, (9)는 명령문, (10)은 의문문의 예이다. 윤정현이 이상래에게 대부분 ‘흐옵’체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이상래는 윤정현에게 ‘흐옵’체를 비롯하여 ‘흐느이다’체, ‘흐옵느이다’체를 혼용하였다. 이상래는 ‘흐옵’체(11회) > ‘흐느이다’체(6회) > ‘흐옵느이다’체(1회)와 같은 순서로 상대경어법의 사용하여 남편을 대우하였다. 그런데 이상래가 남편에게 보낸 것은 「해남윤씨」 5 한 편만 남아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상대경어법을 사용한 양상을 더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위의 예를 통해 윤정현과 이상래는 19세기 상대경어법 체계와 동일하게 ‘흐옵’체와 ‘흐느이다’체를 혼용하여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우했음을 알 수 있다.²⁶⁾ 특히 윤정현은 이상래에게 언간을 보낼 때 상단 혹은 하단에 ‘상장/상장/송중’이라고 적어 이상래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동등한 관계이면서도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한 예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해남윤씨 가문에서 여성 특히 아내의 지위와도 연결되었을 수 있다. 해남윤씨 어초은공파의 8대 종부인 광주이씨(廣州李氏, 1804~1863)는 고산의 4세손인 윤광호(尹光浩, 1805~1822)와 혼인한 인물이다. 혼인한 그 해에 남편이 요절하고 광주이씨가 해남윤씨 종가를 이끌어나가야 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를 이을 종손이 없었고 종가를 둘러싼 시숙들의 견제, 하인들의 이탈 등의 문제도 이겨내야 했다. 자칫 해남윤씨 종가의 대가 끊기고 가세가 기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광주이씨는 윤명호(尹命浩, 1800~1862)의 아들인 윤주흥(尹柱興, 1823~1873)을 양자로 삼았다. 윤주흥이 종손이 된 후 해남윤씨 종가는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광주이씨는 집안의 경제권·제사권을 담당하며 종가의 주인 역할을 하였다.²⁷⁾ 광주이씨가 집안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이후 적어도 해남윤씨 종가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상래 또한 해남윤씨가 종부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남편인 윤정현이 아내를 극진하게 대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²⁸⁾

26) 언간에서 부부가 서로를 동등하게 보거나 대우해 주는 것은 윤정현가 언간만의 특징이 아니다. 이승희(2005: 269~270)에서는 「추사가 언간」과 「현풍곽씨언간」을 예로 들어 부부 사이에 ‘흐느이다’체를 사용하여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

27)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8대 종부인 광주이씨의 종가 운영에 대해서는 이현주(2018)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28) 이상래는 4대 종부인 광주이씨와 함께 지금까지 해남윤씨 가문 내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이상래는 조선왕조

3.2. 친척간의 경우

「해남윤씨」에서 친척간에 작성한 것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것과 외사촌 아우가 사촌 형에게 보낸 것이 있다. 어머니와 아들, 외사촌 아우와 사촌 형은 집안 내에서 위계가 각각 상위자와 하위자, 하위자와 상위자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흐다’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남윤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례는 아래와 같다.

- (11) ㄱ. 날포 소식 모르니 답답 그림기 층낭 업고 나리 이상 치우니 깃지의 무양흐며 즈시
 올고져 흐다<「해남윤씨」 8>
 ㄴ. 요스이 나리 심이 츠니 깃중의 무양흐고 쇠 놈도 무스하며 너 적은 것 누순 바다
 반겨 즈시 보고 굿씩 무양흐니 깃부나 답장이나 흐고 시부나 가는 줄 몰나 못흐고
 섭섭흐더라<「해남윤씨」 9>
 ㄷ. 무궁흐나 이만 근치며 내내 깃중의 잘 잇다가 오기 브란다<「해남윤씨」 12>
- (12) ㄱ. 돈 한 돈 보내니 조희나 사 씨라<「해남윤씨」 8>
 ㄴ. 흐 섭섭흐여 편 죠곰 슈박 셋 싱복 굴근 놈으로 다숫 가니 즈시 바다라<「해남윤씨」 15>
 ㄷ. 싱각 집다 여도 아직은 디도 일양들 흐시고 한미도 더 닛고 아기 형제도 무양흐니
 다형흐며 전의는 예우 못현다 흐시고 못 보내게 흐시되 네 좋즈 보내며 식우젓과
 콩장과 죠곰 보니 즈시 바드라<「해남윤씨」 12>
- (13) ㄱ. 너의 아버님 그날 저의 드러 계시더냐<「해남윤씨」 8>
 ㄴ. 동점드리 다 편치 못흐신가 시브니 너 오죽 민망흐라<「해남윤씨」 16>
 ㄷ. 무스이 간 일 든든흐고 밤스이 무스이 인느냐<「해남윤씨」 12>

(11~13)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흐다’체를 사용한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이다. 각 예문에 서 (ㄱ, ㄴ)은 이상래가, (ㄷ)은 정맹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각자의 아들에게 보낸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아들에게 ‘흐다’체를 사용하여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문형의 경우 (13)과 같이 종결형 어미 ‘-냐’, ‘-랴’가 쓰였는데 다른 의문형 어미와의 대립은 보이지 않는다. (13ㄱ, ㄷ)은 ‘-냐’를 사용하여 판정의문을²⁹⁾, (13ㄴ)은 의문사 없이 ‘-랴’를 사용하여 수사의를문을 나타내고 있다.³⁰⁾

다음은 외사촌 아우가 사촌 형에게 보낸 언간의 예이다.

- (14) ㄱ. 우리 형제 여러 달 잇다 와 달포나 잇다 온 것 갖고 훌훌이 와 싱각흐니 춘몽도 갖
 고 썬도 갖고 심회 살느살느 밤에 놀즈리를 디흐면 형님 싱각 간절하고 옛페 계신
 것갓치 어루만 만지고 슬푸옵<「해남윤씨」 29>

의 몰락과 6·25 전쟁을 모두 겪었는데 이때 소실되거나 뺏길 수 있었던 가문의 보물들을 지켜내었다. 현재 해남윤씨 증가에 많은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상래의 역할이 컸다. 『海南尹氏大同譜』에서도 6·25 전쟁 때 이상래가 집안에 전해오는 서화(書畵) 및 보물들을 보관하여 지켰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29) 이래호(2017ㄴ: 128)에 따르면 18세기 중엽에 언간에서 ‘-냐’와 ‘-뇨’의 판정·설명 의문의 대립이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냐’로 통합되었다.

30) 언간에서는 의문형 어미 ‘-랴’가 대부분 수사 의문문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17세기 중엽부터 ‘-랴’가 설명 의문이나 수사 의문의 기능을 모두 담당한다(이래호 2017ㄴ: 122).

나. 이후 너덕 안영안영ㅎ시기 디땅 바라옵 이만 알외옵<「해남윤씨」 29>

- (15) 광쥬로 가며며 영인 약ㅎ고 모슈뵈 슈무 즈 잇는 것 열 즈식 우리 형제 쥬길너 광쥬 가서 김실뵈이다 주고 가게 약약이랑 달나 할 거시니 광쥬 인편 잇스면 차자 오라 ㅎ시옵<「해남윤씨」 29>
- (16) 용의가 형직 식겨서 강골 형님 피시로 갓삽 형님 오서시면 언마나 조홀 게옵<「해남윤씨」 29>

위의 언간의 발신자는 수신자 윤영희의 외사촌 동생인 이용의의 형이다. 사촌간은 형제자매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ㅎ다’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남윤씨」에서는 위와 같이 ‘ㅎ옵’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³¹⁾ (14)는 평서문, (15)는 명령문, (16)은 의문문으로 3.1.에서 본 부부간의 경어법 사용 양상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와 사촌간이지만 (14~)의 내용을 보면 밤에 잠자리에 마주했을 때 윤영희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 정도로 그 사이가 굉장히 가깝게 보인다. 그렇지만 ‘ㅎ옵’체를 사용하여 수신자를 대우하고 있다. ‘세지 네지 질부 오고 손부도 오고 나와 반겨삽’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인간의 작성 시기는 윤영희가 혼인을 한 이후이다. 수신자가 발신자와 동성인 데다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ㅎ옵’체를 사용하여 수신자를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

「해남윤씨」에는 위와 동일하게 남성 발신자가 남성 수신자에게 보낸 것이 있다. 바로 1890년에 윤주홍의 첫째 아들인 윤관하(尹觀夏)가 자신의 이웃 형(미상)에게 보낸 언간(「해남윤씨 31)이다.

- (17) 간간 안후는 듯즈오나 달포 뵈옵지 못ㅎ오니 그립스온 정희 일반이오며 니싱원 오신는 편의 서찰 받즈와 탐탐 즈시 뵈옵스오니 미미 정희 일석상디ㅎ온 닷 위형이오며 그 후 날포 되오니 경염이 여화ㅎ온디 덩테후 일향ㅎ시오며 공무 심히 번벼치나 아니ㅎ신잇간 아쥬 툃평ㅎ시옵 서울을 슈이 가시기로 ㅎ신단이 원노 염정의 엇지 회정ㅎ실 거옵 복여만만이옵 데은 근근 지덕오나 다술 식구의 우고 썩날 적 업스니 민민이옵 영감 본 덕의도 디되 일안ㅎ시오며 춘성 형데 공부 축실이 ㅎ오니 다행이옵 농스는 일촌 당원이라 ㅎ오니 조아들이옵 영감뵈 노비는 일순의게 분부ㅎ여 날마다 신축ㅎ여 일 식이고 조속ㅎ라 ㅎ오나 연들 근본 일의는 초디라 여일홀 슈 잇거슴마는 츄츄 구름이 썩이는 닷ㅎ옵 염여 과이 말라시옵 두 가지 젓 보너시와 싱광생광 밧다 먹스오니 도로혀 불안 불안ㅎ옵느이다 총총 이만 쥬리오니 짐즉 슬피시옵소서<「해남윤씨」 31>

(17)에서는 ‘ㅎ옵’체와 ‘ㅎ느이다’체와 ‘ㅎ옵느이다’체를 혼용하였다. <「해남윤씨」 29>과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는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보이는데 ‘ㅎ옵느이다’체와 ‘ㅎ느이다’체를

31) 19세기에 윤주홍이 윤성호(尹性浩, 1804~1911)의 첫째 딸이자 양천허씨(陽川許氏) 허준(許濬)과 혼인한 사촌 동생 해남윤씨에게 보낸 언간(「해남윤씨」 26, 1856년)에서는 ‘ㅎ느’체를, 윤주홍의 생부(生父)인 윤명호의 첫째 딸이자 광주이씨(廣州李氏) 이병준(李秉尊)와 혼인한 해남윤씨가 나주정씨(羅州丁氏) 정각수(丁玉壽)와 혼인한 자신의 셋째 동생 해남윤씨에게 보낸 언간(「해남윤씨」 21, 1886년)에서는 ‘ㅎ다’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남윤씨」 21>만 여성 발신자가 여성 수신자에게 보낸 것이고 <「해남윤씨」 26>은 남성 발신자가 여성 수신자에게 발송한 것이다. 자매간에는 혼인을 하여도 서로의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워 ‘ㅎ다’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 발신자의 경우는 혼인을 한 여성 수신자에게 ‘ㅎ느’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대우하면서도 거리를 조금 둔 것으로 보인다.

혼용하고 있다. 이는 수신자를 ‘영감’으로 지칭한 것과 수신자가 공무를 수행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발신자가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인물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흐읍’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해남윤씨」 29>와 <「해남윤씨」 31>을 비교해 보면 남성 발신자와 남성 수신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으면 발신자가 ‘흐읍늬이다’체를 사용하여 수신자를 더욱 대우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용례를 통해 친척간에는 부모자식 관계처럼 집안 내에서 상하 관계가 뚜렷한 경우에는 ‘흐다’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사촌간에는 발신자가 수신자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흐읍’체를 사용하여 수신자를 대우하였다. 다만 동일한 조건이어도 수신자가 발신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에는 이것이 경어법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해남윤씨」 31>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3.3. 인척간의 경우

「해남윤씨」에서 인척간에 인간을 주고받은 것은 시백부가 조카며느리에게 보낸 것, 사위가 장모에게 보낸 것,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것이다. 이 중에서 시백부가 조카며느리에게 보낸 인간의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8) ㄱ. 거번 길헝 순성회환흔 후 어연 다일이 되었스며 기시 일헝 무사이 환릭혀여 네의 규범 용의 극선케 들이여 흔히 심스 층양 업섯스며 직오 흐인 릿혀여 쏘흔 화봉슈서 바다 탐탐 견지흐니 네의 화순 의용을 황연 상딕힘에 다람 업서 더욱 흔히지심 만만이다<「해남윤씨」 25>

ㄴ. 흐여 온 버션 줄 마즈니 깃분 심스 더욱 층양업다<「해남윤씨」 25>

(19) ㄱ. 변변치 못흔 의츄 부송흐니 잘 바더라<「해남윤씨」 25>

ㄴ. 총요혀 이만 근치이니 김죽혀 보아라<「해남윤씨」 25>

(20) 츄시 록음가절 너의 층당 제절이 강건호시고 너도 층시흐 곳봉 신상 다복 층길혀며

너의 여러 남릭 속질 토펽들혀며 디소 제딕들 토펽호시느냐<「해남윤씨」 25>

위의 글에서 시백부는 윤정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시백부와 조카며느리는 친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처럼 상하 관계가 확실하다. 따라서 상위자에 해당하는 발신자 시백부는 하위자인 수신자 조카며느리에게 ‘흐다’체를 사용한다. 앞선 시기에 윤종의 부인 연안이씨의 고모가 조카딸인 연안이씨에게 보낸 <「해남윤씨」 24>에서도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흐다’체를 사용하여 위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 [隔2]윤실 중간 슬피라 [利1]총총 아모 말 못 적으니 이답다 츄시 가을 다스 물골 신상 성성 다식혀며 우리 윤낭기셔도 익통익통 둥 지안흐시며 네의 둥당 양전 분 비회 둥 부지혀시며 디산딕 너의 귀아들 다리고 평안하고 님딕 유중 엇더혀야 고상 암연혀여 듯치며 네 식동싱 여러 형테 무양 다식들 혀며 네의 외딕의 층층 여상혀시며 상사 시일 별노 신속 네의 존고 삼상이 어느듯 당혀여 역을 비회 어느만 홀지 일칸 이겨 너 신 골물 보는 듯 잊지 못혀며 무스 안헝하고 성성 다식 버룬다...<「해남윤씨」 24>

이승희(2005: 265)에서는 숙모가 조카며느리에게 보낸 언간이나 고모부가 처조카와 처조카며느리에게 보낸 언간에서 ‘훈다’체와 ‘흐느다’체가 혼용되는 경우를 혼인으로 인한 인척 관계와 성별이 다르다는 것으로 인한 거리감 때문으로 보았다. 그런데 <「해남윤씨」 25>에서는 경어법의 혼용 없이 ‘훈다’체만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윤정현이 수신자가 자신과 인척 관계라 하더라도 그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심리적 거리를 좁힌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사위가 장모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언간이다.

- (22) ㄱ. 무용 외싱 리형균는 두어 자 황필노 외고주 전에 사리나이다<「해남윤씨」 20>
 ㄴ. 천시인사가 일테순환하와 흥노승염이 고별을 작히고 황국가절리 오인을 활낙케 하
 더니 어언 국노상위하고 믹흠춘의 흐오니 슬푸다 세월리여<「해남윤씨」 20>
 ㄷ. 문후 으옉고져 흐읍든 츠 어마님 하셔 밧즈와 황송흐읍기 쥬소 동동 부리읍지 흐을
 소이다<「해남윤씨」 19>
 ㄹ. 슬전 도련님 제남미분 평안선식흐오시며 으옉고져 알외옵나이다<「해남윤씨」 19>

- (23) ㄱ. 거춘에 처삼촌게서 경성 왕반에 즉형하신 것은 좀 섭섭흔 마음이 잇스나 누구을 보
 라 들이시겟습님가<「해남윤씨」 20>
 ㄴ. 궐후하 흐읍기는 어언 녹칠 삭이 지나오니 소절지죄을 여하 가도리요<「해남윤씨」
 20>
 ㄷ. 연하와 중하의 하라바님게읍서 기테후 안영흐읍시니잇가<「해남윤씨」 19>
 ㄹ. 어마님게읍서 양위분 기테 연위만안흐읍서 침진등절니 엇더흐읍신잇가<「해남윤씨」
 19>

(22ㄱ, ㄴ)과 (23ㄱ, ㄴ)의 발신자는 이형균으로 이상래의 첫 번째 사위이다. 이형균은 그의 부인인 윤영숙과 일찍이 사별하였음에도 처가와 꾸준히 왕래하였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꾸짖는 꿈을 꾸고 장모인 이상래에게 안부를 물었는데 ‘흐나이다’체를 사용하면서도 ‘훈다’체를 혼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훈다’체는 장모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을 할 때에 쓴 것이다. 장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혼잣말을 쓸 정도라면 처가와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형균은 자신이 두서없이 장모에게 혼잣말을 한 것이 민망했는지 말미에 생각난 대로 글을 적은 터라 편지를 읽은 후에 바로 없애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³²⁾

(22ㄷ, ㄹ)과 (23ㄷ, ㄹ)은 이상래의 첫째 며느리인 제주양씨 양재영이 쓴 것이다. 양재영은 시어머니에게 ‘흐읍느이다’체와 ‘흐느이다’체를 혼용하고 있다. 사위와는 달리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우하면서도 종부라는 위치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 사위가 사용하는 상대경어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인척간의 언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을 [시백부→조카며느리], [사위→장모], [며느리→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상위자가 하위자에 ‘훈다’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 시기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 특별한 쓰임은 확인할 수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대상을 대하는 사위와 며느리의 태도이다. 사위와 며느리는 각각 장모, 시어머니와의 관계

32) 알외옵 남사오나 등후에 즉접 싱각난 난뒤로 눈에 보인 대로 정신 읍시 두어 자 상셔흐오니 그뒤로 보시고
 곳 읍식시기 바라난이다 사정 모르난 이가 보며 흐번 우습가마리오이다<「해남윤씨」 20>

에서 하위자에 속한다. 수신자가 자신보다 상위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흐늬이다’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은 여성인데다 ‘종부’라는 집안에서의 위치가 영향을 준 것인지 수신자에게 ‘흐읍늬이다’체를 혼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사위는 장모에게 ‘흐늬이다’체를 사용하여 장모를 높이면서도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통해 사위와 며느리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가지는 거리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정현가 인간의 발·수신자 관계에 따른 상대경어법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표 4>와 같다.

등급	20세기 전반기	발수신자 관계
높임등급	흐읍늬이다	아내→남편, 며느리→시어머니
	흐늬이다	남편→아내, 아내→남편, 며느리→시어머니, 사위→장모
	흐읍	남편→아내, 아내→남편, 외사촌 아우→사촌 형
중간등급	알 수 없음	
안높임등급	흐다	어머니→아들, 시백부→조카며느리

<표 4>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윤정현가의 인간 속 상대경어법 체계

4.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 김양진·이희영(2015), 「1910~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으로 보내진 한글 편지: 김장연씨 일가의 편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65, 국제어문학호, 141~172쪽.
- 김정호(2005), 「1920년대 청자 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우리말글』 34, 우리말글학회, 69~98쪽.
- 김정호(2012), 「발화 상황에 따른 국어 청자 높임법의 사용 양상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55, 우리말글학회, 23~44쪽.
- 남미정(2008/2011), 『근대국어 청자경어법 연구』, 태학사.
- 민현식(1984), 「開化期 國語의 敬語法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박부자(2018), 「사회방언자료로서의 인간 연구 -세대 간 언어 차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3, 한국어문학회국제학술포럼, 37~67쪽.
- 신성철(2020),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장모와 사위의 높임법 연구」, 『탐라문화』 64,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81~108쪽.
- 이래호(2017ㄱ), 「조선시대 인간 자료의 문법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37~64쪽.
- 이래호(2017ㄴ), 「근대국어 흐라체 의문형 어미에 대한 연구」, 『韓國言語文學』 102, 한국언어학회, 117~142쪽.

- 이승희(2004/2007), 『국어 청자높임법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 이승희(2005),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53~276쪽.
- 이현주(2018),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東洋古典研究』 73, 동양고전학회, 385~414쪽.
- 장요한(2004), 「문장 종결형 ‘-습’에 대하여 -19세기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36, 국어국문학회, 135~161쪽.
- 정경재(2016),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명령형 어미의 실현 양상 변화」, 『한국어학』 72, 한국어학회, 227~255쪽.
- 정경재·정연주·홍종선(2015),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난 하오체 어미 {-오}의 실현 양상 변화」,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277~311쪽.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編(1986), 『古文書集成』 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ㄱ),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 영인본 1』, 태학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5ㄴ),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 태학사.
- 한주희(2017), 「18세기 이후 한글 편지에 나타난 ‘-습-’ 변화 양상 -송준길 가 한글 편지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92, 어문연구학회, 97~127쪽.
- 海南尹氏大同譜所(2016), 『海南尹氏大同譜』, 엔코리안(주).
- 황문환(1997/2002), 『16, 17世紀 諺簡의 相對敬語法』, 태학사.
- 황문환(1999), 「근대국어 문헌 자료의 ‘ㅎ읍’류 종결형에 대하여」, 『배달말』 25, 배달말학회, 113~129쪽.
- 황문환(2007),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부부간 호칭과 화계」, 『장서각(藏書閣)』 17, 한국학중앙연구원, 121~139쪽.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연구』 10, 국어사학회, 73~131쪽.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 한국학자료센터 인물관계정보(<http://kostma.aks.ac.kr/FamilyTree/>)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http://archive.aks.ac.kr/index.do>)
- 『무등일보』(<http://www.honam.co.kr/>)

“해남윤씨 어초은공파 윤정현가 언간에 나타난 친족간
상대경어법 사용 양상” 토론문

박부자(성신여대)

(별지 참조)

제2부

기획 발표

2021년 1월 14일(목)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사자(四字) 구성으로 살펴본 <훈몽자회>의 유의어 분류 체계 연구

김양진(경희대)

1. 머리글

《훈몽자회(訓蒙字會)》는 1527년(중종 22)에 최세진(崔世珍)이 당시 조선에서의 한자(漢字) 학습을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원간본(原刊本)은 1527년(중종 22)에 간행된 을해자본의 활자본으로 일본 교토(京都)의 예산문고(叡山文庫)에 소장되어 있다가 1960년대 말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선생에 의해 소개되어 영인 출판되었고((영인본) 『훈몽자회』, 1971,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이어서 이기문(1971)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 초간본이 나온 뒤 곧 개정판이 목판본으로 만들어졌는데, 행 구별을 하지 않은 초간본에 비해 개정판부터는 한자를 크게 1행에 네 자씩 배열하였다.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한자 학습에서 이 책의 선호도는 매우 높아서 이 책은 초간 이래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 간행된 중간본으로 간행 연대 미상인 서재극 교수본, 동경대(東京大) 도서관본, 일본 동경의 존경각문고(尊經閣文庫) 소장본과 1559년(명종14)판인 일본의 내각문고(內閣文庫) 소장본 등이 있고, 임진왜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본이 간행되었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내사본(內賜本)은 임진왜란 후 고전중간사업의 일환으로 1613년(광해군 5)에 간행된 것이다. 이의 복각본과 기타 사찰판이 다수 전하고, 1913년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석판(石版)으로 간행한 《훈몽자회》는 주시경의 재간례(再刊例)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최후의 간본으로 추정된다. 중간본 중에는 권하 장35의 ‘瀾漫’ 두 자가 ‘洛汭’로 바뀐 것이 있어서 학계에서는 각각 ‘瀾漫本’과 ‘洛汭本’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1913년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간행된 중간본도 ‘洛汭本’에 포함된다.

《훈몽자회》에 대한 근대적 연구는 앞의 조선광문회 판 《훈몽자회》(중간본)의 재간례인 주시경(1913)가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전몽수(1941a~c)의 일련의 논의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몽수(1941a~c)는 각각 菓名, 菜名, 色彩名에 해당하는 《훈몽자회》 어휘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어휘적, 어휘사적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훈몽자회》에 대한 연구는 김근수(1971), 이기문(1971)에 이르기까지 대개는 단순한 해제(방종현 1948, 1954, 김민수 1956, 정확모 1957, 유탁일 1965, 김지용 1966, 박창해 1969 등)나 색인(남광우 1958, 김근수 1959), 저자인 최세진에 대한 연구(최완호 1961, 정영호 1962, 이승녕 1965)에 그치고 언어학적 연구는 이 책의 범례에 딸린 <언문자모>에 주목한 연구(남광우 1965)나 한자음 연구(김정육 1964, 남광우 1966) 정도에 불과하다.

《훈몽자회》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은 역시 이 책의 초간본인 예산본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기문(1971)에 와서부터이다. 이기문(1971)에서는 《훈몽자회》예산본과 동경대학교 중앙도서관본의 교감을 중심으로 표기 및 한자음, 성조, 새김 어휘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기문(1971) 이후 《훈몽자회》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한자음 문제와 성조, 우리말 새김 어휘 및 백화문 한어 어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말 새김 어휘 연구는 김영진(1977), 박병철(1984), 최범훈(1984a, 1984b, 1985),

이돈주(1985), 김희진(1987, 1989), 남기탁(1988), 김진규(1989), 임지룡(1989), 金宗澤·宋昌善(1991), 손희하(1991), 김진규(1993), 권면주(1994), 박금자(1995), 이정희(1995), 이기문(1999), 김일(2000), 오완규(2001), 안경상(2002), 김상윤(2003), 서수백(2005), 홍자영(2005), 이대엽(2006), 최홍열(2007, 2008, 2012), 김문기(2009), 안찬구(2010), 안옥순(2011), 류청모(2014), 연구동(2014), ...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최근 중국인 한국어학자의 증가와 함께 《훈몽자회》 내 백화문 한어 어휘에 대한 연구가 이순미(2014), 王平(2015), ... 등에 의하여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71년 이래, 《훈몽자회》 연구는 새로운 판본의 연구를 제외하면 주로 한자음이나 우리말 새김에 대한 연구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특히 우리말 새김어휘의 연구는 이을환(1982), 이희진(1988a, 1988b, 1989)¹⁾ 등에 이르러 의미론적 체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훈몽자회》는 이와 같은 한자음 및 고유어 어휘사의 기초 자료로서의 성격 못지 않게 분류서와 해석서로서의 성격이 강한 문헌이다. 분류서로서의 《훈몽자회》의 어휘의미론적 성격은 이기문(1971)에서 언급된 이해, 정광(1978), 홍윤표(1985, 1990) 등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있고 임지룡(1989), 박금자(1995)를 거쳐 김광해(2005)에서 종합된 바 있다.

주석서로서의 훈몽자회의 성격은 전체 표제 한자의 약 70% 한자에 딸려 있는 주석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71), 이돈주(1985)에서 단편적으로 언급한 이래 뚜렷한 연구가 없다가 박금자(1995)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박금자(1995)는 《훈몽자회》의 분류서와 주석서로서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주목한 본격적 논의라 할 수 있다. 박금자(1995)에서는 이 책이 갖는 분류학적 의의에 대해서 “이 책의 각 하위 분류가 각 류에 따라 상이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고 동일한 류에서도 여러 방식을 복합적으로 응용하고 있어 그 질서의 파악이 쉽지 않지만 비교적 명백해 보이는 질서가 존재하기도 한다”고 보고 그러한 질서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보인 바 있다.

첫째, 그 류에 속한 표제어가 그 류의 부류어들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어 상호 사이는 주로 공부류어(co-taxonomy)를 이루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花品의 ‘芍藥薔薇, 葵梅躑躅, 蓮荷芙蓉, 槿薔梔菊’ 등은 花品이라는 의미 영역 안에 속하는 어휘 가족어(lexical-siblings)들로 하의어들이며 그 중에서도 부류어들이다. 이들은 상호간에 수직적 위계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둘째, 각 류의 하위 분류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의어, 전체어, 전형어(prototype)가 먼저 오고 하의어, 부분어(partonym 또는 meronym), 주변어는 그 다음에 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地理의 ‘山嶽峯岫, 壑谷崖岸, 巖嶂嶺峴, 崗巔峒麓’ 등은 각 구 안의 단어 순서도 그러한지만 구들 사이의 순서는 보다 상의어적인 것에서 하의어적인 것, 전형어적인 것에서 비전

1) 이희진(1988a, 1988b)에서는, 《훈몽자회》의 어휘들 가운데, “각시-겨집, 각시[各氏]-성(姓), 갈석[碣]-비(碑), 거러치[隸]-종[僕], 거풀[稭]-겨[糠], 고리[高]-광주리[筐]-둥주리[篋]-상주[箱], 공노[勳]-공부-[功], 구시[櫃]-고노[槽], 구의[官]-마술[村](마술[村]과 혼동한 듯), 굳-구모, 굴형-굴, 굽[楸]-감조[柑], 씌-숫, 골-괘-함, 곱-기름, 곱-고로-비단-곱-사, 누트-차락, 남진-샤용, 얼굴-죽-양죽, 다대-되, 담-울, 땃길-땃고의-땃닙, 독-준-단디-대항-항, 두던-두들, 드르-믹, 썩-마탕, 만두-상화, 만-빨, 말하-혀다기, 무술-벽, 버텨-서호레-섬-무술, 벌-동모, 보선-휘청, 사름-눔, 술밑-누룩, 신-휘-격지-가지, 아술-권속, 염교-부치, 영싱-박하, 우물-십, 전국-며주, 젓-타락, 중-승, 창-채, 한물-큰물-시위” 등의 유의관계 어휘들과 합성/파생 관계 유의어 “습-수풀, 털-터럭, 항-항아리, 런-런곳, 장-근장” 등에 대해 그 의미를 비교 검토하고 이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희진(1989)은 이 논의를 동음이의관계, 반의관계로 확대해서 다룬 것이다.

형어적인 것의 순차로 되어 있다.

셋째, 오늘날의 어휘의미론적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의미론적 기준에 따라 단어들을 배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地理의 ‘溪澗江河, 汀洲渚沚, 濤浪瀾波...’ 부분은 보다 근원적인²⁾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서 비근원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순서로 배열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준 논의에서 다루어온 공부류어(co-taxonymy) 개념이나 상의어, 전체어, 전형어(prototype)가 먼저 오고 하의어, 부분어(partonym 또는 meronym), 주변어 등의 관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자(四字) 구성으로 이루어진 <훈몽자회>의 어휘들이 근원적인 의미로부터 비근원적인 의미, 상의어로부터 하의어, 전체어로부터 부분어, 전형어로부터 주변어로 반영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동양의 전통적 학문 기반으로 재해석하여 현대적 어법에 맞게 풀이함으로써 과거의 전통을 현재에 이어 새로운 학문으로 연계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식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2. <훈몽자회(訓蒙字會)> 사자(四字) 구성의 정리

최세진은 <훈몽자회(訓蒙字會)><引>에서, <천자문(千字文)>이 고사(故事)를 중시하여 글 쓰는 데는 도움이 되나 실질적인 의미를 알려주지 못하고 <유합(類合)> 역시 여러 글자를 종류별로 모으기는 했으나 실질적이지 못한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조수(鳥獸)와 초목(草木)의 이름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실자(實字)를 위주로 교육하여야 글과 사물이 2가지로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훈몽자회(訓蒙字會)>를 편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을환(1985)에서는 이 책의 특징을 “抽象的인 것보다는 具體的인 것, 象徵的인 것보다는 現實的인 것, 觀念的인 것보다는 實際的인 것, 心象的인 것보다는 物理的인 것, 空理的인 것보다는 實踐的인 것, 空論的인 것보다는 經驗的인 것으로 漢字敎本 編纂의 基本姿勢를 굳혔다. 이는 당시에 있어서 言語敎育上·文字敎育上의 新革命이라 할 수 있겠다”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실자 위주의 주요 어휘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집대성한 결과는 국어사적 연구와 일반 어휘론의 양쪽 분야에 포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어사적 연구에서는 이 책의 어휘 자료들은 국어표기법사와 성조 연구, 고유어 및 한자어의 형성과 전개 등에 활용되어 왔던 것인데, 일반 어휘론적 관점에서는 각 해당 한자에 달려 있는 풍부한 어휘 주석과 4자 구성의 연쇄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어휘 관계를 통해 어휘론 연구의 새로운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상·중·하 3권 1책으로 되어 있는 (예산본)<훈몽자회>는 권상(천문(天文) 이하 16문)과 권중(인류(人類) 이하 16문)에는 구체적인 실물을 나타내는 한자를, 권하에는 잡어(雜語)라 하여 반실반허자(半實半虛字)인 추상적인 개념 표시의 한자를 수록하였는데 각 권에 1,120자씩 총 3,360자를 4자씩 운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수록하였다.

<표1> <훈몽자회>의 체제와 부류별 사자(四字) 어휘 묶음

2) 여기서 ‘근원적인 의미’란 출발점, 발생점, 최소형, 최초형 등의 의미를 말한다.

	상권(괄호 안은 4자 묶음)	중권	하권
	天文 72자(18)	人類 112(28)	雜語 1120
	地理 136자(34)	宮宅 96(24)	
	花品 16자(4)	官衙 88(22)	
	草卉 64자(16)	器皿 312(78)	
	木樹 40자(10)	饌食 80(20)	
	菓實 40자(10)	服飾 88(22)	
	禾穀 24자(6)	舟船 32(8)	
	蔬菜 64자(16)	車輿 24(6)	
	禽鳥 88자(22)	鞍具 24(6)	
	獸畜 64자(16)	軍裝 64(16)	
	鱗介 40자(10)	彩色 24(6)	
	昆蟲 104자(26)	布帛 24(6)	
	體身 208자(52)	金寶 32(8)	
	天倫 96자(24)	音樂 16(4)	
	儒學 32자(8)	疾病 80(20)	
	書式 32자(8)	喪葬 24(6)	
소계	1120자(280)	1120(280)	1120(280)

<표1>에서 花品과 音樂의 어휘 그룹이 16자(4묶음)으로 가장 적게 제시되었고 器皿(312/78)>體身(208/52)>地理(136/34)>人類(112/28)>昆蟲(104/26)...의 순서로 많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上中下 3권 1책으로 되어 있는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상중권에는 ‘실자(實字)’를 하권에는 ‘반실자(半實字)’와 ‘반허자(半虛字)’를 나누어 배치하되 서로 유관한 단어별로 4단어씩의 묶음을 만들어서 일정한 유의어, 상하의어, 반의어 연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표2> 《훈몽자회(訓蒙字會)》<天文>의 첫 10개의 사자어(四字語)

<p>天地霄壤: 세상은 ‘天[하늘]’과 ‘地[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고 푸른 하늘을 ‘霄[하늘, 진눈깨비]’라 하며 농사지를 기름진 땅을 ‘壤[땅, 흙]’이라고 한다.</p> <p>乾坤宇宙: 팔괘(八卦)에서 말하는 우주의 운행으로서의 ‘하늘, 땅’을 ‘乾[하늘]’과 ‘坤[땅]’이라 하며 ‘만물의 존재를 담는 공간’을 ‘宇[집, 지붕]’, ‘만물이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을 ‘宙[집, 하늘, 동량]’라 한다.</p> <p>日月星辰: 하늘(즉 우주)에 있는 천체(天體)에는 ‘日[해]’, ‘月[달]’, ‘星[스스로 빛을 내는 별, 恒星]’, ‘辰[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 行星]’이 있다.</p> <p>陰陽節候: 천체의 운행에 따라 ‘陰[그림자/어둠]’, ‘陽[빛/밝음]’과 ‘節[마디, 즉 4철/90일]’, ‘候[24가지 기운, 즉 24절기/15일]’이 나뉜다.</p> <p>春夏秋冬: 사철에는 ‘春[봄]’, ‘夏[여름]’, ‘秋[가을]’, ‘冬[겨울]’이 있다.</p> <p>晝夜寒暑: 천체의 운행에 따라 ‘晝[낮]’, ‘夜[밤]’가 바뀌고 ‘寒[추위]’과 ‘暑[더위]’가 온다.</p> <p>晌(/)晚昏暮: 낮 이후의 시간을 ‘晌[정오]’, ‘晚[해가 저문 후 어두울 때]’, ‘昏[해가 저문 후 아직 어두워지기 전]’, ‘暮[해가 저물 때]’로 나누고,</p> <p>早晨曉曙: 새벽의 시간을 ‘早[해가 막 뜨기 시작한 이른 아침]’, ‘晨[새벽, 해가 뜨기 전 별이 아직 어슴푸레 남아 있을 이른 아침]’, ‘曉[먼동이 뜨기 시작하여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하</p>
--

3) 다만 花品(16/4), 草卉(64/16), 木樹(40/10), 菓實(40/10), 禾穀(24/6), 蔬菜(64/16) 등을 <植物>(62구 248자)로 묶고 禽鳥(88자/22), 獸畜(64자/16), 鱗介(40자/10), 昆蟲(104자/26)를 <動物>(74구 296자)로 묶으면 이 순서는 器皿(312/78)>動物(296/74)>植物(248/62)>體身(208/52)>地理(136/34)>人類(112/28)>...의 순서로 조정될 수도 있다.<植物>, <動物> 등의 설정에 대해서는 <표3>의 내용을 참조할 것.)

는 순간], ‘曙[동틀 무렵. 아직 어두운 가운데 먼동이 트는 때]’로 나눈다.
 朔旬望晦: 한 달에는 ‘朔[매월 1일]’, ‘旬[매월 10일]’, ‘望[매월 15일]’, ‘晦[매월 마지막 날/30일]’가 있고,
 宵旦朝夕: 하루에는 ‘宵[밤]’, ‘旦[새벽. 해가 막 떠올랐을 무렵의 아침]’, ‘朝[아침. 해가 뜨고 달은 아직 저물기 전의 시간]’, ‘夕[저녁, 달이 떠 있는 시간]’이 있다.

<표2>는 <<훈몽자회(訓蒙字會)>><天文>의 첫 10개의 4자어(四字語)들이 일정한 스토리텔링에 근거해서 제시되었음을 보인 것이다. 이 4자어들은 서로 유관한 단어들의 묶음으로써, 이 가운데에 ‘天地’와 ‘霄壤’, ‘乾坤’과 ‘宇宙’는 모두 ‘온 세상’을 가리키는 유의 관계의 단어들이고 ‘天地’, ‘霄壤’, ‘乾坤’는 반의대립어(즉 반의어), ‘宇宙’는 유의병렬어(즉 유의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日月星辰, 陰陽節候, 春夏秋冬, 晝夜寒暑, 晌晚昏暮, 早晨曉曙, 朔旬望晦, 宵旦朝夕 등은 모두 일정한 기준에서 서로 유관한 단어들을 병렬 배치한 것들인데 개념적으로는 특정한 상의어(天體(하늘), 運行(운행), 季節(사철), 晝(낮), 晨(새벽), 月(한달), 日(하루) 등)의 하의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4자 구성을 일정한 인지적 논리 흐름에 따른 스토리텔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천지(天地)와 소양(霄壤), 건곤(乾坤)과 우주(宇宙)의 온 세상은 하늘[天體]에 떠 있는 해, 달, 별들(日月星辰)의 운행에 따라 음양과 절기가 정해져서(陰陽節候) 사계절이 되고(春夏秋冬) 밤낮과 추위/더위가 정해진다.(晝夜寒暑) 하루의 시간 중 ‘낮[晝]’ 시간(해가 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晌[정오]’, ‘晚[해 저물어 가는 때]’, ‘昏[해 저문 후 아직 어두워지기 전]’, ‘暮[해가 저문 후 어두워질 때]’가 있고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早[이른 새벽(아직 해 뜰 조짐이 없는 때)]’, ‘晨[새벽(닭이 울어 새벽을 알리는 조짐이 있으나 하늘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때)]’, ‘曉[새벽(먼동이 트기 시작할 때)]’, ‘曙[동이 터서 해가 뜨기 전까지의 밝아진 무렵]’가 있다. 달의 공전 주기에 따라서 한달(1個月)은 ‘朔[초하루/1일]’, ‘旬[열흘/10일]’, ‘望[보름/15일]’, ‘晦[그믐/30일]’으로 나뉘고 지구의 자전 주기에 따라 하루는 ‘宵[밤]’, ‘旦[새벽. 해가 막 떠올랐을 무렵의 아침]’, ‘朝[아침. 해가 뜨고 달은 아직 저물기 전의 시간]’, ‘夕[저녁, 달이 새로 떠오른 시간]’으로 나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天文> 분야에 그치지 않고 地理, 花品, 草卉, 木樹,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昆蟲, 體身, 天倫, 儒學, 書式, 人類, 宮宅, 官衙, 器皿, 饌食,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 및 雜語 등 33부 전체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훈몽자회(訓蒙字會)>>를 단순한 한자 교육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16세기 당시의 어휘 지식을 체계적인 하나의 온톨로지 기반의 인트라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ㄱ. 宮闕宸殿 屋宅家房 廳廡廬舍(<<훈몽자회>><中卷>, ‘宮宅’부)

ㄴ. ‘집’을 가리키는 말에는 ‘임금의 집’을 가리키는 ‘宮闕[임금이 계시는 집을 높여 이르는 말]’과 ‘宸[임금의 침실]’, ‘殿[임금이 거처하는 방]’과 ‘일반인의 집’을 가리키는 ‘屋[작은 집]’, ‘宅[큰 집]’, ‘家[보통의 집]’, ‘房[단칸짜리 집]’, ‘공무를 위한 집’인 ‘廳[공적 업무를 보는 집]’, ‘廡[외교/과견 업무를 보는 집]’, ‘廬[임시로 지어 공적 업무를 보는 집]’, ‘舍[공무와 숙식을 겸한 집]’이 있다.

(3) ㄱ. 嘲咳ㄷ鳴 嘶吠噪雉 蠢蠕狃蠢 咆嗥叫吼(《훈몽자회》<하권> ‘雜語’부)

ㄴ. ‘새가 울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에는 ‘嘲[아침에 울다]’, ‘咳[밤에 울다]’, ‘ㄷ[저녁에 울다]’, ‘鳴[울다]’이 있고, ‘짐승이 울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에는 ‘嘶[말이 울다]’, ‘吠[개가 짖다]’, ‘噪[새가 우지짖다]’, ‘雉[장끼가 울다]’가 있다. (울지 못하는) 누에는 곱틀거리고(‘蠢[누에가 곱틀거리다]’ 벌레는 기어가며(‘蠕[벌레가 곱틀거리며 기어가다]’) 곤충은 날아오른다.(‘狃[위로 곤장 날아오르다]’과 ‘蠢[날아올라 가다]’) ‘맹수가 큰소리로 울다’를 나타내는 말에는 ‘咆[오르렁거리다]’, ‘嗥[소리 지르다]’, ‘叫[부르다/짖다]’, ‘吼[울부짖다]’가 있다.

(1)의 예와 마찬가지로 (2), (3)에 제시된 4자 묶음의 예들도 유의 관계 혹은 상하의 관계에 놓여 있는 단어 묶음으로서 서로의 대비를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어들이다. (2)에서는 ‘집 ㄷ 임금의 집(ㄷ 宮闕/宸/殿)/일반인의 집(ㄷ 屋/宅/家/房)/공무를 위한 집(ㄷ 廳/廡/廬/舍)’과 같이 단계적인 상하의 관계가 성립하는 한편 이러한 상하의 관계를 매개로 하여 각 단어들 간의 유의 관계가 성립한다. (3)은 동사를 중심으로 ‘鳴[새가 울다] ㄷ 嘲[[새가] 아침에 울다] / 咳[[새가] 밤에 울다] / ㄷ[[새가] 저녁에 울다]’, ‘짐승이 울다 ㄷ 嘶[말이 울다] / 吠[개가 짖다] / 噪[새가 우짖다] / 雉[장끼가 울다]’, ‘(소리 내지 못하는) 곤충이 움직이다 ㄷ 蠢[누에가 곱틀거리다] / 蠕[벌레가 곱틀거리며 기어가다] / 狃[[곤충이] 위로 곤장 날아오르다] / 蠢[[곤충이] 날아올라 가다]’, ‘맹수가 큰소리로 울다 ㄷ 咆[오르렁거리다] / 嗥[소리 지르다] / 叫[부르다/짖다] / 吼[울부짖다]’와 같이 상하의 어를 이루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의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하의어들간의 유의어적 특성은 분명하다.⁴⁾

이러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훈몽자회(訓蒙字會)》 연구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실천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중·하 3권 1책으로 구성된 이《훈몽자회(訓蒙字會)》는 각 권 1,200자씩 전체 총 3,360자를 4자씩 운을 맞추어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 <권상>에는 천문(天文), 지리(地理), 화품(花品), 초훼(草卉), 목수(木樹), 과실(菓實), 화곡(禾穀), 소채(蔬菜), 금조(禽鳥), 수축(獸畜), 인개(鱗介), 곤충(昆蟲), 신체(身體), 천륜(天倫), 유학(儒學), 서식(書式)의 16문 1,200자에 자연물과 자연의 구성물로서의 인간을 포함하고 있고, <권중>에서 인류(人類), 궁택(宮宅), 관아(官衙), 기명(器皿), 찬식(饌食), 복식(服飾), 주선(舟船), 거여(車輿), 안구(鞍具), 군장(軍裝), 채색(彩色), 포금(布帛), 금보(金寶), 음악(音樂), 질병(疾病), 상장(喪葬)의 16문 1,200자로 의식주를 포함한 인본적 문화/문명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물을 나타내는 한자를 담고 있다. <권하>에서는 잡어(雜語)라 하여 반실반허자(半實半虛字)인 추상적인 개념 표시의 한자 1,120자를 다루고 있다.

박금자(1995)에서는 이러한 33문의 체제를 유희의 『물명고』(2단 구성)나 『재물보』(4단 구성)와 달리 ‘單段階’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최세진은 이 책을 上-中-下卷을 나눌 때 이미 ‘實質(자연)-實質(인간)-半實半虛(잡어)’로 내용 단위를 나누었고 또 그 아래에 4단어별 묶음보다 큰 상위 범주들이 앞의 33문의 분류 체계에 따라 묶었는데 이들 묶

4) ‘嘶吠噪雉, 蠢蠕狃蠢, 咆嗥叫吼’ 등은 박금자(1995)에서의 첫 번째 어휘 가족어(lexical-siblings)들로 하의어들이며 그 중에서도 부류어들의 사례에 해당하고 ‘嘲咳ㄷ鳴’는 두 번째 상의어, 전체어, 전형어(prototype)가 먼저 오고 하의어, 부분어(partonym 또는 meronym), 주변어는 그 다음에 오는 방식에 해당한다. 다만 상의어 혹은 전형어에 해당하는 ‘鳴’이 나머지 ‘嘲咳ㄷ’ 등의 앞에 오지 않고 뒤에 오는 것만 다를 뿐이다.

음은 다시 다음과 같이 조정될 수 있다.

<표3>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수정된) 사자어(四字語)의 체제

	대분류	중분류1	중분류2	소분류
上	自然 (280)	天文(18)	-	
		地理(34)	-	
		生物(228)	植物(62)	花品(4)-草卉(16)-木樹(10)-菓實(10)-禾穀(6)-蔬菜(16)
			動物(74)	禽鳥(22)-獸畜(16)-鱗介(10)-昆蟲(26)
人間(92)	身體(52)-天倫(24)-儒學(8)-書式(8)			
中	人工 (280)	人文(194)	人(28)	人類(28)
			住(46)	宮宅(24)-官衙(22)
			食(98)	器皿(78)-餐食(20)
			衣(22)	服飾(22)
		文化(86)	交通(14)	舟船(8)-車輿(6)
			治粧(22)	鞍具(6)-軍裝(16)
			藝術(24)	彩色(6)-布衾(6)-金寶(8)-音樂(4)
			醫療(26)	疾病(20)-喪葬(6)
下	補充	雜語(280)	-	

이와 같이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어휘 부류는 2, 3단계의 하위 구성으로 계층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 굵은 글씨로 적은 분류 명칭은 임의적 분류 명칭임.) 이는 우연한 묶음이라기보다는 최세진이 《훈몽자회(訓蒙字會)》를 계획하면서 처음부터 이러한 분류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상의 고려는 <雜語>로 묶여 있는 하권의 어휘 묶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권에서는 앞의 상권-중권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관련되지만 실질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단어들이나 동사, 형용사 혹은 대명사류 등은 반실자 혹은 반허자로 묶여서 일정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박금자(1995)에서는 그 첫째 증거로 잡어류에 실린 전체 단어들의 배열순이 상권과 중권에 펼쳐진 류의 순서와 어느 정도 평행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들었고 둘째 증거는 하권에 실린 어휘들이 화품, 초혜, 수목, 과실, 화곡, 소채, 금조, 수축, 인개, 곤충 등 자연류의 어휘 가족어이지만 상권에 실린 것 같은 수평관계의 부류어가 아닌, 하의어와 부분어의 사례들이 이들 잡어류에 들어 있다는 점, 셋째 증거로는 진정한 물명들만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진 류의 경우에는 동작상적 특성이 강하다거나 동사류로 기능하는 단어들을 잡어류에 몰아 실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본고에서는 박금자(1995)의 이러한 견해를 대부분 수용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雜語류에 포함된 단어들을 상권 및 중권의 각 부류어들에 대응시키고 이러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 단어류의 특성을 간단히 알아본 뒤,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전체 4자 구성이 보이는 어휘적 관계를 유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雜語류의 대응 양상

<표3>의 수정안은 《훈몽자회(訓蒙字會)》<하권> 雜語류의 단어들의 구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하권 <雜語>류의 1120자, 4자 구성 480개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4) 《훈몽자회(訓蒙字會)》<하권> 雜語류의 단어 구성

- ㄱ. 混沌開闢~夙晏曩昔(56/14) - 天文 보충
- ㄴ. 人物受賦 品彙滋殖(8/2) - 미상
- ㄷ. 羽毛鱗介~魚獸禾穀(16/4) - 生物(동식물) 보충
- ㄹ. 菓蓏菜蔬~柑柚核櫛(96/24) - 植物 보충
- ㅁ. 肫臄距尾~𪗇駘騰驤(120/30) - 動物 보충
- ㅂ. 弢弛警口 殼彊彎張(8/2) - 미상
- ㅅ. 祭祀歆饗~罵詈戰鬪(168/42) - 餐食 보충
- ㅇ. 鍤鉞旃旒~釘鉸篋箍(40/10) - 軍裝 보충
- ㅈ. 橫斜欹歪~擠拶排挨(240/58) - 동작동사류 추가
- ㅊ. 吾我予俺~你恁汝爾(16/4) - 대명사류 추가
- ㅋ. 儕輩廝每~孑隻孤獨(368/92) - 인지동사류 추가
- ㅌ. 一壹二貳~中間衷裏(40/10) - 숫자 및 단위사 추가
- ㅍ. 烟火焚燒~泯滅終極(32/8) - 재난 및 종말 관련어 추가

(4)에서 보듯이 《훈몽자회(訓蒙字會)》<하권> 雜語류의 단어 구성은 크게 3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4 ㄴ, ㅂ)을 제외한 (4 ㄱ~ㅇ)까지는 대략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상권, 중권의 흐름에 따라 단어가 <보충>되어 제시되어 있다. (4 ㄴ, ㅂ)은 각각 8자, 2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앞뒤의 내용과 단절된 내용인면서 상권, 중권의 내용과도 쉽게 연결하기 어려운 예들이다. 체제상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4 ㅈ~ㅍ)까지의 예들은 상권, 중권의 내용상의 흐름을 무시하고 각각 ‘동작동사류, 대명사류, 인지동사류, 숫자 및 단위사, 재난 및 종말 관련어 등’의 어휘들을 <추가>한 것이다.⁵⁾ 앞선 논의에 따르면 (4 ㅊ, ㅌ)을 뺀 (4 ㄱ~ㅇ)의 단어들은 상권, 중권에서 누락된 실자와 반실자(예를 들어, 동사류 등)를 주로 (보충하거나 추가하여) 실고 있고 (4 ㅊ, ㅌ)은 반허자(대명사, 수사, 단위사 등)를 (추가하여) 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훈몽자회(訓蒙字會)》<하권><雜語>류의 대응 양상은 《훈몽자회(訓蒙字會)》<상권><중권>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 (4 ㄱ)의 <천문> 보충 단어들의 첫 4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ㄱ. 混沌開闢 清濁位奠 造化斡旋 光景流轉

ㄴ. 천지는 ‘混[뒤섞이다]’하고 ‘沌[뒤엉키다]’해 있다가 열리게 되었다.(開[열다], 闢[열다]). 하늘은 ‘淸[맑다/가볍고 맑은 것이 하늘이 된다]’하고 땅은 ‘濁[무겁고 탁한 것이 땅이 된다]’하여 자리가 정해진다.(位[자리 잡다], 奠[정해지다]) 하늘과 땅의 운행은 ‘造[천지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化[음양이 돌고 돌아 변화하고 낳고 자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하여, 돌도 도느니(斡[도는 것이다], 旋[도는 것이다]) 빛과 태양이(光[세월], 景[해, 태양]) 흘러 굴러간다.(流[흐르다], 轉[회전하다])

5) <보충>은 상권, 중권에서 빠진 단어나 상권, 중권의 체제 안에 포함하기 어려운 반실자(즉 동사나 형용사들)를 보충한 것을 말하고 <추가>는 상권, 중권의 단어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상권, 중권의 체제와 무관하게 따로 추가된 동사와 형용사 들이나 대명사류, 숫자 및 단위사를 말한다.

6)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천자문이나 유합류의 단어집들과 달리 어조사 등의 허자(虛字)를 실지 않았다.

(5 ㄱ)은 (5 ㄴ)처럼 스토리텔링될 수 있는데, 《훈몽자회(訓蒙字會)》<천문>에서의 스토리텔링과 《훈몽자회(訓蒙字會)》<雜語>류 <천문 보충> 부분에서의 스토리텔링의 차이는 전자가 명사 혹은 실자(實字) 중심이었던 데 비해서 후자는 동사 혹은 반실자(半實字) 중심이라는 점이다.

(4 ㄷ)을 動物과 植物을 아우르는 ‘生物’의 범주로 따로 놓은 이유는 이 부분의 단어들이 동물과 식물을 한데 어울려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 ㄱ. 羽毛鱗介 飛潛動植 蠃蟲禽鳥 魚獸禾穀

ㄴ. 동물을 겉모습에 따라 나누면 ‘羽[깃이 있는 동물], 毛[털이 있는 동물], 鱗[비늘이 있는 동물], 介[단단한 껍데기가 있는 동물]’로 나누어진다. 생명체는 움직임은 ‘飛[(공중을) 날다], 潛[(물에) 잠기다], 動[(땅에서) 움직이다], 植[(땅에) 심다]’로 나타나는데, 날아가는 동물과 관련된 말에는 곤충과 날짐승이 있으며(蠃[벌레], 蟲[날벌레], 禽[날짐승], 鳥[날짐승-새]) 물에 잠기고 땅에서 움직이고 땅에 심겨지는 것은 각각 ‘魚[물고기]’, ‘獸[짐승]’과 ‘곡식(禾[곡물의 총칭], 穀[각종 곡식의 총칭])’이다.

(6)에서 보이는 세계관은 16세기의 가치 체계로 볼 때 매우 독특한 것이다. 최세진은 《훈몽자회(訓蒙字會)》를 통해 動物과 植物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있으며 이는 후대의 유희 《물명고(物名攷)》 등에서 植物을 부정류로 보고 유행류인 動物과 구별하여 사물을 가리키는 부동류/부정류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본 것과 대비된다.

(6 ㄱ)의 첫 구절 ‘羽毛鱗介’는 《재물보》에서의 ‘羽蟲, 毛蟲, 鱗蟲, 介蟲, 昆蟲’이나 유희 《물명고(物名攷)》에서의 ‘羽蟲, 毛蟲, 羸蟲, 鱗蟲, 介蟲, 昆蟲’을 연상시킨다. 중요한 것은 (6 ㄱ)의 두 번째 구절에 보이는 동사 ‘飛潛動植’과 아래 두 구절에서 ‘飛’의 속성을 지니는 ‘蠃蟲禽鳥’와 ‘潛’의 속성을 지니는 ‘魚’, ‘動’의 속성을 지니는 ‘獸’, ‘植’의 속성을 지니는 ‘禾穀’의 대응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훈몽자회(訓蒙字會)》가 動物과 植物을 상위에서 묶어주는 ‘生物’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음과 ‘동물의 움직임’ 및 ‘식물의 성장’을 같은 차원에서의 일로 보고자 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ㄷ) <植物 보충>의 두 번째 구절은 ‘草卉樹木’인데 이를 통해 《훈몽자회(訓蒙字會)》가 비록 하위에서는 ‘草卉’과 ‘樹木’을 구분하고 있지만 상위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ㄷ)의 동작동사류와 (4 ㄷ)의 인지동사류를 <보충>이 아니라 <추가>로 본 이유는 이들 동사들이 《훈몽자회(訓蒙字會)》<상권>, <중권>의 흐름과 무관하게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훈몽자회(訓蒙字會)》<상권>, <중권>의 실자(實字) 들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 ㄷ)의 대명사류와 (4 ㄷ)의 수사 및 단위사는 이 책에서 제시된 유의한 반허자(半虛字) 단어 그룹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이들을 일종의 유관 어휘들로 보고 그 의미적 상관성을 중요시 여겨 같은 곳에서 묶음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방면에 대한 최세진의 어휘 체계가 갖는 설득력을 높여 준다.

(7) ㄱ. 吾我予俺 咱自他彼 誰孰伊某 你恁汝爾

ㄴ. 자신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즉 1인칭)을 나타내는 말에는 ‘吾[나], 我[나], 予[나], 俺[나, 자신]’이 있다. 또 자신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1인칭)과 남을 대신하여 가리

키는 말(3인칭)에 각각 ‘咱[나, 우리], 自[자기 자신]’와 ‘他[저, 그], 彼[저, 그]’가 있다. 의문대명사와 부정대명사 등에 ‘誰[누구], 孰[누구], 伊[저, 그], 某[어느, 아무]’가 있고 상대방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2인칭)에는 ‘你[너], 恁[너], 汝[너], 爾[너]’ 등이 있다.

(7 ㄴ)의 설명에서 보듯이 최세진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매우 수준 높은 어휘 분류를 채택하고 있는데 문법적 용법을 주로 지닌 반허자 대명사류를 한데 묶어 보이되 유의적 양상을 보이는 ‘1인칭류’와 ‘2인칭류’를 나누어 앞뒤에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나머지 대명사들을 포함하여 다름으로써 《훈몽자회(訓蒙字會)》 어휘 교육이 자칫 단순한 글자 대응에 머물지 않고 어휘 체계 전반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수사와 단위사의 처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8 ㄱ. 一壹二貳 三四五六 七八九十 百千萬億 分兩寸斤 担托咫坻 左右前後 遐遠近邇 上下內外 中間衷裏

ㄴ. 수사(數詞)에는 ‘一[한]/壹[하나], 二[두]/貳[둘], 三[삼], 四[사], 五[오], 六[육], 七[칠], 八[팔], 九[구], 十[십], 百[백], 千[천], 萬[만], 億[억]’이 있다. 단위사에는 ‘分[단위], 兩[무게의 단위], 寸[길이의 단위], 斤[중량 단위]’과 ‘担[무게의 단위], 托[길이의 단위], 咫[길이의 단위], 坻[갈라지다]’ 등이 있다. 방향을 나타내는 말에는 ‘左[왼쪽], 右[오른쪽], 前[앞], 後[뒤]’가 있고 거리를 나타내는 말에는 ‘遐[멀리하다], 遠[멀다], 近[가깝다], 邇[가까이하다]’가 있으며 방위를 나타내는 말에는 ‘上[위], 下[아래], 內[안], 外[밖]’이 있다. 안쪽을 나타내는 유의어에는 ‘中[가운데], 間[사이], 衷[마음속], 裏[속]’이 있다.

(8 ㄴ)의 풀이에서 보듯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수(數)를 전달하거나 단위사를 전달할 때 철저하게 단어 관계를 먼저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한자를 모은 뒤 4자씩의 묶음으로 효율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고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훈몽자회(訓蒙字會)》가 한자를 제시할 때 4자씩의 묶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한자가 4자가 되지 않을 때 부득이 단어 관계가 없는 별개의 한자가 선택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担托咫坻’에서의 ‘坻[갈라지다]’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이 한자는 단위사가 아니지만 ‘단위사 묶음’의 빈칸이 생긴 것을 메우기 위해 선택된 단어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관련 한자가 4자가 되지 않을 때 부득이 단어 관계가 없는 별개의 한자가 선택되는 것을 《훈몽자회(訓蒙字會)》의 ‘4자 충족 원리’에 따르는 일고 본다. 이와 같이 4글자를 채우기 위해 앞의 3 혹은 2자와 무관한 한자가 오게 되는 경우는 그 한자가 전체적 맥락에서 고립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의 상위자(上位字)가 되는 경우가 있다. ‘担托咫坻’에서의 ‘坻[갈라지다]’이 전자에 해당하고 《훈몽자회(訓蒙字會)》<질병>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서의 ‘輻(상여)’가 그러한 단어이다.

(9 ㄱ. 魂魄靈輻 櫬棺柩槨 殮屍殯葬 ...

ㄴ. 혼령을 나타내는 말에는 ‘魂[신령을 따라 왕래하는 것을 혼이라고 한다/넋], 魄[정령과 함께 출입하는 것을 백이라고 한다/넋], 靈[신령]’이 있다. 그리고 ‘輻[상여]’가 있다. 시신을 넣는 상자를 가리키는 말에는 ‘櫬[널, 내관], 棺[널], 柩[널, 시신이 담긴 관], 槨[덧널, 외관]’ 등이 있다. 장사(葬事)와 관련된 말에는 ‘殮[송장에 옷을 거둬 입히고 이불로 싸서 베로 묶는 일], 屍[시신], 殯[시신을 입관한 후 장사지낼 때까지 안치하는 일], 葬

[장사지내는 일]'이 있다.

(9 ㄱ)의 ‘輻’은 ‘魂魄靈’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이며 그보다는 뒤에 나오는 ‘櫬棺柩槨’나 ‘殮屍殯葬’ 등과 더 가까운 단어이다.

(4 ㄷ)의 단어들은 최세진이 《훈몽자회(訓蒙字會)》를 끝맺기에 앞서 남겨진 마지막으로 남겨 둔 단어들이었을 것이다.

(10) ㄱ. 烟火焚燒 燄炸燴煨 燬蕪燎燹 燼炷灰烔 洚水瀾漫 漲濫淹溺 渾淪汪濊 泯滅終極

ㄱ. 화재(火災)와 관련된 말에는 ‘烟[연기], 火[불], 焚[태우다], 燒[불태우다]’, ‘燄[불꽃], 炸[폭발하다], 燴[굽다], 煨[불씨], ‘燬[불꽃], 蕪[불타다], 燎[헛불], 燹[야화]’, ‘燼[불탄 끝], 炷[심지], 灰[재], 烔[연기가 천정에 모여 검게 되다]’가 있고 수재(水災)와 관련된 말에는 ‘洚[큰물], 水[물], 瀾[물이 짝 찬 모양], 漫[넘치다]’, ‘漲[물이 넘치다], 濫[넘치다], 淹[담그다], 溺[물에 빠지다]’, ‘渾[혼탁하다], 淪[물놀이], 汪[깊고 넓다], 濊[물이 깊고 넓은 모양]’가 있다. 화재와 수재가 나면 우리 모두는 멸망하여 끝이 난다.(泯[망하다], 滅[멸하다], 終[끝내다], 極[끝])

(10)에서 보인 것처럼 이들 단어들에 ‘火[불]’과 ‘水[물]’처럼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과 함께 단어 묶음을 이룬 것을 볼 때, ‘화재(火災)’와 ‘수재(水災)’를 특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책을 끝맺으려는 최세진의 일정한 계획 아래 의도적으로 묶여진 단어 그룹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사자(四字) 구성과 유의 관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훈몽자회(訓蒙字會)》는 <상권>, <중권>의 실자(實字)는 물론 <하권>‘잡어류’에서 보인 반실자(半實字), 반허자(半虛字)에 이르기까지 ‘4자 충족 원리’ 등을 포함하여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어휘 관계를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어휘 관계란 어휘들 간의 양립 관계, 비양립 관계, 유의 관계, 상하의 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이 중 비양립 관계, 유의 관계, 상하의 관계에 따라 반의어, 유의어, 상하의어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최경봉(2015)에 따르면 비양립 관계는 동일한 상위어에 속하면서 구분되는 어휘들 사이의 관계로 여기에는 ‘백합, 장미’와 같이 비대립적 관계의 어휘들과 ‘남자, 여자’와 같이 대립적 관계의 어휘가 있으며 후자를 특히 반의어라 한다. 유의 관계에도 절대적 동의 관계이나 상대적 동의 관계이냐에 따라 동의어와 유의어의 구별이 있을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의어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 관계, 동의어의 개념보다는 유의 관계, 유의어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다룬다.⁷⁾ 상위어와 하위어(본고에서는 상의어와 하의어로 쓴다)는 반의어와 유의어가 의미적 대립 혹은 의미적 공통점을 지니기에 앞서 먼저 있어야 하는 개념이다. 즉 반의어이든 유의어이든 먼저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상위어로 묶인 이후에 그 의미 관계가 대립적인가 공통적인가에 따라 의미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어휘 관계에는 이와 같이 반의 관계, 유의 관계, 상하의 관계

7) 최경봉(2015)에서는 유의 관계의 정의를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들은 동일한 범주의 상위어를 공유함으로써 의미의 공통성을 지니지만, 상호 간에 의미적 차이점도 있다. 단, 의미적 차이의 정도는 대조적이지 않은 선에서 관습을 따른다.”고 정의함으로써 ‘여자’와 ‘꽃’이 유의 관계로 설명되지 않도록 하였다.

등이 모두 나타나 있으며 비양립 관계 가운데 반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비대립적 관계의 단어들도 상의어에 의해 묶일 수 있다는 전체 아래 관련 어휘로 제시되었다. <花品>에서의 炸藥과 薔薇 등이 그러한 예이다.

본고는 이 가운데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유의 관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훈몽자회(訓蒙字會)>> 4자 구성은 ○×○×, ○×○○, ○○×○, ○○○×, ×○○○, ○○○○, ○×△□...(같은 기호는 같은 층위의 단어. ○×는 대립 관계, ○○는 유의 관계, △□는 양립적 관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을 4자 구성 유의어, ○○○×, ×○○○을 3자 구성 유의어, ○×○○, ○○×○ 등을 2자 구성 유의어, ○×○×(=×○×○)을 1자 구성 유의어로 나누어 정리하고 특히 가장 전형적인 유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4자 구성 유의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 3360자, 840개의 사자 구성으로 되어 있는 <<훈몽자회(訓蒙字會)>>상중하 전체에서 4자 구성 유의어는 약 341개(1364자)로 전체 4자 구성 840개의 약 40%에 해당한다. 4자 구성 유의어는 구성에 참여하는 4글자가 모두 유의 관계에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 각 부문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11) <天文>

ㄱ. 早晨曉曙: 새벽 아침의 시간을 나타낼 때는 ‘早[해가 막 뜨기 시작한 이른 아침]’, ‘晨[새벽. 해가 뜨기 전 별이 아직 어슴푸레 남아 있을 이른 아침]’, ‘曉[먼동이 트기 시작하여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曙[동틀 무렵. 아직 어두운 가운데 먼동이 트는 때]’를 쓴다.

ㄴ. 時晷漏刻: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時[시간]’, ‘晷[해시계의 그림자, 시각(時刻)]’, ‘漏[물시계의 눈금, 시각(時刻)]’, ‘刻[시간을 나타내는 새김 눈금]’이 있다.

ㄷ. 雲霞嵐霧: 대기 중에 수증기가 모여서 이루는 것들에는 땅에서 먼 순서대로 ‘雲[구름]’, ‘霞[노을]’, ‘嵐[연애(煙靄), 산속(또는 숲속)에서 일어나는 아지랑이]’, ‘霧[안개]’가 있다.

ㄹ. 虹霓蜺蜺: 무지개를 나타내는 말에는 ‘虹[수무지개]’, ‘霓[암무지개]’, ‘蜺蜺[동쪽지방 무지개]’이 있다.

(11)에서 보인 <天文> 분야의 4자 구성 유의어들은 참여하는 4단어가 모두 유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같지만 각 단어 간의 관계는 서로 다르다. (11 ㄱ)은 모두 ‘새벽’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지만 빛의 정도나 해돋이 여부 등에 따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중첩적 유의 관계를 보이는 예들이다. (11 ㄴ)은 ‘時’를 일반어 혹은 전형어로 해서 ‘晷(해시계), 漏(물시계), 刻(해시계)’ 등의 기능상의 차이를 보이는 유의 관계 어휘 예들이다. (11 ㄷ)은 ‘대기 중의 수증기’를 암묵적 상의어로 해서 지상에서 멀리 있는 순서대로 ‘雲[구름] - 霞[노을] - 嵐[아지랑이] - 霧[안개]’로 배열되는 단계적 유의 관계의 예들이다. (11 ㄹ)은 ‘무지개’를 상의어로 한 ‘虹[수무지개]’, ‘霓[암무지개]’, ‘蜺蜺[동쪽지방 무지개]’ 등 상호 대립적 유의 관계를 보이는 예이다. 후자의 경우 상호 대립적 유의 관계라는 명칭이 반의어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虹[수무지개] - 霓[암무지개]’가 유의어가 아니라 반의어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은 반의적 관점에서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단순한 구별적 차원에서의 대립만을 보이기 때문에

반의어보다는 유의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적어도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虹[수무지개]’, ‘霓[암무지개]’는 ‘蜺[동쪽지방 무지개]’와 함께 무지개의 일종을 나타내는 유의어로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의어에는 중첩적 유의어, 기능적 유의어, 단계적 유의어, 상호 대립적 유의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도 이러한 유의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12) ㄱ. 稂莠稊稗: 밭이나 논에서 자라는 풀을 나타내는 말에는 ‘稂[큰가라지. 큰 강아지풀]’, ‘莠[작은가라지. 작은 강아지풀]’, ‘稊[들피. 도랑 근처 등 야생에서 자라는 피]’, ‘稗[피. 논에서 자라는 피]’가 있다.

ㄴ. 蓍萱藍葒: 경충하게 자라는 풀에, ‘蓍[꼭두서니]’, ‘萱[원추리]’, ‘藍[쪽풀]’, ‘葒[개여뀌]’가 있다.

ㄷ. 榭柞櫟: 참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을 나타내는 말에는 ‘榭[떡갈나무, 잎이 누에에 먹일 수 있다]’, ‘柞[상수리나무]’, ‘櫟[떡갈나무, 잎이 누에에 먹일 수 있다]’, ‘櫟[상수리나무, 잎이 누에에 키울 수 있다]’이 있다.

ㄹ. 鷄雉鵝鴨: ‘鷄[닭, 집에서 키움]’과 ‘雉[꿩, 야생의 닭]’, ‘鵝[거위]’, ‘鴨[오리]’는 유사하다.

ㅍ. 鎌鈇鏹鏹: 낫을 나타내는 말에는 ‘鎌[낫]’, ‘鈇[낫, 손잡이 긴 낫]’, ‘鏹[작은 낫]’, ‘鏹[짧은 낫]’이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2 ㄱ~ㅍ)의 예들은 모두 외형적인 동형성에 의해 유의어로 묶인 경우들이다. 이들을 굳이 구별하자면 ‘유형태어’로 보아 유의어와는 다른 어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기능에 의한 유의 관계로 묶인 경우도 있다.

(13) ㄱ. 蓼葵菜菘: 식물성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식물에 ‘蓼[산쭈]’, ‘葵[해바라기]’, ‘菜[향유]’, ‘菘[피마]’가 있다.

ㄴ. 庠序校塾: 학교와 관련된 말에는 ‘庠[학교(상나라)]’, ‘序[학교(주나라)]’, ‘校[학교(하나라)]’, ‘塾[학교]’이 있다.

ㄷ. 桎梏枷杻: 수감과 관련된 말에는 ‘桎[차꼬]’, ‘梏[수감]’, ‘枷[칼]’, ‘杻[수감]’가 있다.

ㄹ. 鑿錫銼鏹: 나무를 편평하게 만든 도구를 나타내는 말에는 ‘鑿[뼈나 뿔을 가는 도구]’, ‘錫[나무를 가는 돌로 만든 도구]’, ‘銼[강철로 만든 줄칼]’, ‘鏹[물건을 깎는 도구]’이 있다.

ㅍ. 笏佩縑纒: 허리에 다는 물건과 관련된 말에는 ‘笏[홀]’, ‘佩[허리띠에 다는 장식품]’, ‘縑[끈]’, ‘纒[장식품을 묶은 끈]’가 있다.

(13 ㄱ~ㅍ)의 예들은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이한 단어들이다. 개별 단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들이라 할 수 있지만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진 단어들이나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체제에서는 이들도 모두 유의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단어들을 ‘유기능어’로 보아 ‘유의어’와 구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기능어를 ‘집승의 우리’를 나타내는 ‘閑圈莛棧[閑[마구간], ‘圈[닭장], ‘莛[돼지우리],

‘棧[양우리]’) 같은 단어 그룹에 적용했을 때는 기능과 형태, 대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유의어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유기능어’와 ‘유의어’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한편 (11 ㄴ)의 ‘時’나 (12 ㄱ)의 ‘鎌’, (13 ㄱ)의 ‘笏’처럼 4자 구성 안에 전체 유의 관계 단어들의 전형적인 단어 혹은 일반어/공통어가 있을 경우를 내심적 유의 관계, 그렇지 않고 유의 관계의 어휘가 단순 나열되어 있는 경우는 외심적 유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도 있다.

<人類> 부분의 다음 단어들의 유의 관계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하나이다.

(14) ㄱ. 皇帝君主: 군주와 관련된 말에는 ‘皇[황제], 帝[제왕], 君[임금], 主[임금]’가 있다.

ㄴ. 后妃嬪嬙: 군주의 배우자과 관련된 말에는 ‘后[왕후], 妃[왕비], 嬪[빈, 비 다음의 위계], 嬙[비 다음 위계]’이 있다.

ㄷ. 儲副世代: 군주의 후사(後嗣)와 관련된 말에는 ‘儲[왕세자], 副[태자], 世[세자], 代[세자]’가 있다.

(14 ㄱ)에 비해 (14 ㄴ)이, (14 ㄴ)에 비해 (14 ㄷ)이 좀더 어휘 의미간의 차이가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차원에서의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단어의 뜻이 ‘종차 + 시차특성’의 형식으로 정의될 때, 동일한 시차특성을 지니면서 다음과 같이 의미적으로 사소한 종차를 지니는 단어들의 묶음을 포괄적으로 유의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5) ㄱ. 軒檻欄楯: 軒[... 난간], 檻[... 난간], 欄[... 난간], 楯[... 난간]

ㄴ. 戶牖窓櫺: 戶[지게 창문], 牖[... 창문], 窓[... 창문], 櫺[... 창문]

ㄷ. 壁墉垣墻: 壁[아주 높은 담], 墉[높은 담], 垣[낮은 담], 墻[꽤 낮은 담]

ㄹ. 溝渠瀆瀆: 溝[아주 작고 좁은 도랑], 渠[인공적으로 만든 도랑], 瀆[더러운 도랑], 瀆[...도랑]

ㅁ. 厠廁囫圇: 厠[... 변을 보는 장소], 廁[변을 보는 장소], 囫[뒷간], 圇[변소]

ㅂ. 陛墀階庭: 陛[대궐섬돌 계단], 墀[계단 위 계단], 階[... 계단], 庭[대청 앞 계단]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유의어들은 모두 이러한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여 4자 구성으로 묶여진 것이다. 향후 ‘...’에 해당하는 ‘종차’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의 어휘 연구가 ‘유의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좋은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맺음말

《훈몽자회(訓蒙字會)》의 4자 구성은 다양한 어휘 관계에 의해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최세진이 한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주요한 틀이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는 16세기 최세진의 가치 체계에 의해 구현된 다양한 어휘 의미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적 자산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의 관계에 한정하였지만 반의 관계 및 상하의 관계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어휘 의미 관계를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주시경(1913), 훈몽자회재간예, <훈몽자회 중간본>, 광문회.
- 전몽수(1941), 과명(菓名)고: <훈몽자회>의 연구의 1절(1-2), <한글> 91~92.
- 전몽수(1941), 채명(菜名)고: <훈몽자회>의 연구 1절(1-2), <한글> 85~86.
- 전몽수(1941), 채색어휘고: <훈몽자회>의 연구 1절(1-3), <한글> 88~90.
- 방종현(1954), '훈몽자회'고, <동방학지> 1.
- 김민수(1956), '훈몽자회' 해제, <한글> 119.
- 이기문(1971), 『훈몽자회 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72), 한자의 석에 대하여, 『동아문화』 11.
- 정광(1978), 유해류 역학서에 대하여, <국어학> 7, 국어학회.
- 이을환(1982), 『훈몽자회』의 의미론적 연구, <숙명여대논문집> 23.
- 박병철(1984), “訓蒙字會 字釋 研究: 희귀 난해 자석을 중심으로”, 仁荷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최범훈(1984), 훈몽자회의 난해 자석 연구(I), <경기대대학원논문집> 1.
- 최범훈(1984), 훈몽자회의 난해 자석 연구(II), <목천유창균박사 환갑기념논문집>.
- 최범훈(1985), 훈몽자회의 난해 자석 연구(III), 충남대 語文論志 4-5.
- 이돈주(1985), '훈몽자회'의 편성에 대한 재검토, <선오당김형기선생 팔질기념 국어학논총>.
- 이돈주(1985), 한자 의미의 변별성과 국어 자석의 문제: '훈몽자회'의 석과 하주를 중심으로, <갈운 문선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최범훈(1985), 훈몽자회의 난해 자석 연구(III), <구수영박사 환갑기념논문집>.
- 홍운표(1990), 실학시대의 어휘 자료집 간행 역사, <국어생활> 22, 국립국어연구원.
- 김희진(1987), 훈몽자회의 어휘적 연구: 자훈의 공시적 기술과 국어사적 변천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진규(1989), 훈몽자회의 동훈어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1989), “훈몽자회의 어휘교육에 관한 고찰(III): 同音異意關係와 反意關係構造를 中心으로”, <어문연구> 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임지룡(1989),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계와 상관성”, <국어학> 19, 국어학회.
- 金宗澤·宋昌善(1991),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의 어휘분류 체계 대비”, 語文學 52. 한국어문학회.
- 손희하(1991),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진규(1993), <훈몽자회 어휘연구>, 형설출판사.
- 권면주(1994), 훈몽자회 동훈 자석 연구: 하주를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논문.
- 박금자(1995), 분류해석 학습서로서의 훈몽자회, <국어학> 26, 국어학회.
- 서수백(2005), <훈몽자회>의 이자동석 연구: 동일 새김의 한자 5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말글학> 22, 한국말글학회.
- 이대엽(2006), “『<훈몽자회>의 字學書로서의 特徵 研究”, 釜山大學校 석사학위논문.
- 최홍렬(2006), 훈몽자회 '질병'부 자훈의 고찰: 內科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 최홍렬(2007), 훈몽자회 '질병'부 자훈의 의미 고찰: 外科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5-1.
- 김기영(2008),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중심으로 한 최세진의 이중언어 교육에 관한 연

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문기(2009), 어휘 학습서로서의 훈몽자회: 훈몽자회 중의 ‘인류’ 항목을 중심으로, <한글> 284, 한글학회.

안찬구(2010), “신체어 소멸어휘 연구 : 한자 초학습서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옥순(2011), “신체 관용어의 정서적 분류 : 『훈몽자회』 신체부 어휘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홍열(2012), “訓蒙字會 '軍裝'部の 同訓字 研究 : '武器'類를 中心으로”, 어문론집 52, 중앙어문학회.

튀칭모(2014), 훈몽자회 「궁택」 · 「관아」 부 자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미(2014), “논문(論文) : 《훈몽자회(訓蒙字會)》 "신체(身體)"부(部)의 중국어 어휘 연구”, <중국어문논총> 63, 중국어문연구회.

나도원(2015), “16세기와 21세기 공용한자의 인지언어학적 의미범주 고찰 - 『훈몽자회』와 3500한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53, 대한중국학회.

최경봉(2015), 어휘의미론. 한국문화사.

곽현숙(2017), “『훈몽자회』와 『자류주석』의 분류항목 비교 분석”, 중국학 61, 대한중국학회.

서수백(2018), “『訓蒙字會』와 『新增類合』의 字釋 비교 연구”,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3,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서수백(2019), “『훈몽자회』 하권의 분류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99, 한국사상문화학회.

서수백(2019), “<자류주석> 새김 어휘의 개신성 연구 - <훈몽자회> 새김 어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4, 한국문화융합학회.

『訓蒙字會』의 구조 분석과 수록자에 관한 이해

이준환(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 례

1. 들어가며
2. 『훈몽자회』의 구성 및 각 부분에 관한 이해
3. 거시 구조 분석과 수록자의 이해
4. 미시 구조 분석과 수록자의 이해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모두 3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崔世珍이 편찬한 『訓蒙字會』(1527)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이 학습서를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와 관계 속에서 각 부문에 수록된 한자 및 관련 정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이 문헌의 성격을 한자 학습서에 한정하기보다는,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의미, 음, 자형, 한자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이런 고찰을 하는 것은 『訓蒙字會』가 동시기의 『新增類合』(1576), 『千字文』(1578/1583)과는 달리, 수록자에 관한 이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관한 凡例가 실려 있고, 수록 글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訓音만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한문 주석으로 세부 의미, 한자어 정보 등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차별화되는 면이 있어서이다. 이런 『훈몽자회』의 구조상의 양상은 이 문헌이 겉으로는 한자 학습서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한자에 관련된 종합적인 지식의 구비와 다른 분야의 학습 및 활용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제시하였음을 느끼게 한다.

또한 諺文으로 제시하고 있는 음훈에 관한 정보와는 달리, 그 외의 정보는 한문으로써 기술되어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초학서의 편찬 목적에 맞게 정보를 제시하려고 하였다면 이와 같은 부가 정보에 대해서도 諺文으로 제시함이 자연스러우리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은 것은 한문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이런 정보 제시 방식에서 볼 때 이 문헌을 초학서에만 한정해서 이해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문헌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훈몽자회』의 구성과 구조에 관한 총체적인 기술은 李基文(1971)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훈몽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고찰하고 凡例, 한자음, 釋, 註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구조적인 관점에서 『훈몽자회』를 어떻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가 본격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훈몽자회』란 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각과 미시적인 시각을 겸비해야 함이 충분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겠고, 『훈몽자회』가 지니고 있는 漢語 관련 요소 및 특징도 상당히 규명되었다고 하겠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李敦柱(1979)에서 이루어진 주석 속의 正音, 本音, 國音, 又音, 又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복수 한자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 李相度(1992)에서는 『훈몽자회』의 편

찬 동기와 특징과 연관 지어 註釋에 반영된 破音字와 異體字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고, 최미현(2006)에서 重出音, 又音, 正音, 本音, 國音 등의 복수 한자음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淵源을 추적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 이후에 이준환(2015)에서 주석에 반영되어 있는 한자음 자료를 찾아내어 한자음을 살핌으로써 주석이 지닌 자료로서의 가치에 주목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훈몽자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훈몽자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한 연구는 잘 나오지 않았던 듯하다. 그래야 『훈몽자회』의 성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문헌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거나 확인하여 국어사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叢山本>을 대상으로 『훈몽자회』의 구성,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구조와 관련을 지어 제시된 정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훈몽자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훈몽자회』의 여러 판본 가운데에 <예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예산본>이 가장 먼저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東中本>을 비롯한 다른 판본들은 <예산본>에 비하여 한문 주석에 실린 정보가 줄어든 곳이 적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예산본>이 본 연구에 있어 최상의 텍스트가 된다.

2. 『훈몽자회』의 구성 및 각 부분에 관한 이해

2.1. 『훈몽자회』의 구성

『훈몽자회』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먼저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훈몽자회』의 구성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조와 어떤 관련성을 맺는 것인지를 살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훈몽자회』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개괄하여 보겠다.

(1) 『훈몽자회』의 전체 구성

- ① 「訓蒙字會引」
- ② 「凡例」
 - 가. 物名, 收錄字, 字音, 義釋, 註, 편찬 목적 등에 관한 기술
 - 나.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
 - ㄱ. 初聲終聲通用八字
 - ㄴ. 初聲獨用八字
 - ㄷ. 中聲獨用十一字
 - ㄹ. 初中聲合用作字例
 - ㅁ.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
 - ㅂ. 初聲, 中聲, 終聲의 결합 및 소리의 구별
 - ㅅ. 字音 및 諺解의 聲調
 - ㅇ. ㅅ에 대한 언해문+複數音字에 관한 언문 기술
- ③ 「平上去入定位之圖」¹⁾
- ④ 「訓蒙字會目錄」
- ⑤ 「訓蒙字會上」
- ⑥ 「訓蒙字會中」
- ⑦ 「訓蒙字會下」

1) <예산본>의 이 부분의 아랫부분에는 “平평上R상H거入H입如L여人L신……”과 같이 한문에 ‘去’자가 빠져 있는데, <동중본>에서는 “平L평上R상去H거入H입如L여人L신……”과 같이 수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訓蒙字會引」은 『훈몽자회』에 관한 인도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훈몽자회』를 짓게 된 배경과 목적, 『훈몽자회』의 수록자에 관한 개관, 『훈몽자회』의 용도에 관한 내용이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千字文』과 『類合』에 관한 기본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훈몽자회』의 편찬 과정에서 지향한 바가 소개되어 있다. 즉 이 두 문헌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凡例」는 크게 한문으로 物名, 收錄字, 字音, 義釋, 註, 편찬 목적 등에 관해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과 諺文字母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는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살피는 데에 참고가 되는 기술이 되어 있어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훈몽자회』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다. 여기에 기술된 자세한 내용은 절을 바꾸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諺文字母에는 『훈몽자회』에서 소리를 적기 위해서 사용한 문자 및 문자를 통한 음절의 표시, 성조에 관한 것이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훈몽자회』에서 諺文으로 표시된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이것으로 표시된 정보가 나타내려고 한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 字音의 高低 즉 성조를 나타내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문을 먼저 제시한 후 이를 언해한 부분이 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언문으로 된 부분에서 “H조字H중H들H히L본H딛소H리두H고L다L른H뿐L다L른소H리H로H썩H면……” 이하의 부분은 한문 부분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²⁾ 복수 성조를 지닌 複數音字에 관한 기술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언해문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첫째의 특이성이 있으며, 한문에 대응되지 않는 언문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면에서 둘째의 특이성이 있다고 하겠다.

(2) 字音 및 諺解의 聲調와 複數音字 관련 기술

凡字音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爲準平聲無點上聲二點去聲入聲一點平聲哀而安上聲厲而舉去聲清而遠入聲直而促諺解亦同

L물L윗H근字H중音L음H의L노H픈H며L닛L가H오H미R다字H중스L겨R퇴點H덤L이L이H시H며R엽H스H며L하H며R저H금H오H로H보H라H물L사H물L거H시H니L닛L가H온L소H리H옛字H중H는 平L평聲L성H이H니點H덤H이R엽H고L기H리H혀R나H종H들H티H는L소H리H옛字H중H는 上R상聲성H이H니點H덤L이H들H히H오H곧H고L바L르L노H픈소R리H옛字L중H는 去H거聲R성H이H니點H덤H이L헉L나H히H오H곧H고L썩L른소H리H옛字H중H는 入H입聲성H이H니點H덤H이L헉L나H히H라諺R언文L문H오H로L사H김L흔H되L흔L가H지H리H조字H중H들H히L본H딛소H리L두H고L다L른H뿐L다L른소H리H로H썩H면L그L달H이H썩H는L소H리H로L그H젯L귀H예L돌H임H헉H는L니行[L널L형平L평聲L성本H본音L음]行[L저H제L항平L평聲L성]行[R형H덕R형去H거聲L성]³⁾

이곳의 기술은 뒤에 올 「平上去入定位之圖」에서 圈聲點(圈標)에서 四聲을 표시하는 것과는 달리 언문으로 한자음의 성조를 표시할 때의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순서상 언문으로 표시할 때의 성조 표시법이 전통적인 권성점을 이용한 성조 표시법보다 앞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책이 언문을 활용하여 訓蒙을 위한 목적에서 편찬한 책의 특성에 걸맞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구조상 이 방점을 이용한 성조 표시법이 諺文字母의 하위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생각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복수 성조를 지닌 복수음자에 관한 것을 추가하여 성조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고, 성조

2) 이런 사실은 이기문(1971: 56)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3) <예산본>에서는 한문의 ‘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간이 ‘R엽’으로 잘못 식자되어 있다. 이 중 두 번째 부분은 획 사이에 가획을 하여 ‘R엽’과 같이 표시하려고 한 시도도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동중본>에서는 이것이 모두 ‘R엽’으로 판각되어 있어서 수정이 이루어져 있다.

가 같더라도 분절음이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복수음자의 복합적인 유형을 표시함으로써 한자음과 의미 사이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음이 달라지는 경우를 소개함으로써 『훈몽자회』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平上去入定位之圖」는 권성점을 이용하여 平上去入의 사성의 위치를 정하고 각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傍點을 이용하여 성조를 표시하는 것과는 다른 한자음의 성조를 표시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언문의 제시 없이 한자로 표기된 경우의 성조를 알아 해당되는 음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알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훈몽자회』 안에서는 표제자 및 한문 주석에 기술된 한자의 음을 살피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참고되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塞[○]: R ㄹ H ㅅ 邊界又入聲防-〈상3ㄴ〉”의 경우는 표제자인 ‘塞’의 성조가 거성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寡: L 호L 을H 어H 미 H 과老而無夫曰-又人君自謙曰-又[○]鮮少也”와 같이 표제자에 관한 설명에 사용된 ‘鮮’의 성조가 상성임을 표시한 것이다.⁴⁾

「訓蒙字會目錄」은 「上卷」, 「中卷」, 「下卷」을 이루고 있는 부문명이 제시되어 있다. 「상권」은 ‘天文-地理-花品-草卉-樹木-菓實-禾穀-蔬菜-禽鳥-獸畜-鱗介-蠃蟲-身體-天倫-儒學-書式’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권」은 ‘人類-宮宅-官衙-器皿-食饌-服飾-舟船-車輿-鞍具-軍裝-彩色-布帛-金寶-音樂-疾病-喪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권」은 ‘雜語’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다음 장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2.2. 「訓蒙字會」의 내용

그간 이곳의 「引」에 제시된 내용에 관해서는 이곳에 수록된 글자의 개수, 수록된 글자들이 全實之字와 半實半虛字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 『類合』의 장점을 이어받되 『千字文』의 결함을 극복하여 학습 대상이 되는 글자들을 모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이들 이외에 「引」에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⁵⁾

4) 이와 같은 권성점(권표)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이기문(1971: 62-66)에 기술되어 있다. 이곳에서 권성점의 사용은 <동중본>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으로는 <尊經本>이 충실하며 <예산본>은 매우 불완전함이 확인된 바 있다.

5) 「引」의 전체 내용을 현대어로 옮겨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신이 가만히 세상에서 어린이와 아이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는 집안을 보건대, 반드시 먼저 千字로 나아가고 다음으로 類合에 이른 연후에 비로소 여러 책을 읽습니다. 千字는 梁나라 散騎常侍 周興嗣가 편찬한 것이인데, 故事를 따 배열하고 비유하여 글을 이룬 것은 좋으나, 겨우 글자를 배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어찌 고사를 살펴 알고 글의 뜻을 거느려 알 수 있겠습니까? 類合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것이나,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 글자를 무리를 지어 합했다고 말하지만 虛字가 많고 實字가 적어 사물의 모양, 이름의 실체를 좇아 알고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에 어린이가 글을 배우고 글자를 알게 하려면 모름지기 먼저 사물에 딱 맞는 글자를 적어 알게 하며, 보고 들은 바와 형체와 이름의 실체가 부합하도록 한 연후에 비로소 다른 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즉 그 고사를 알도록 하고 무엇 때문에 또 천자의 익힘에 이르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로써 그것을 풀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비록 천자와 율함을 배워서 경서와 사서의 여러 책을 두루 읽는 데에 이르더라도, 다만 그 글자만 알고 그 사물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 글자가 사물과 더불어 둘이 되게 하고,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꿰뚫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대개 문자만 외워 익힐 뿐이며 실체가 드러나기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은 탓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이 이에 간절히 미치어 全實之字(실체를 나타내는 글자)를 필요한 부분을 취하여 상·중·양 편을 엮고, 또 半實半虛字를 취하여 하편으로 이어 보충하였습니다. 네 글자씩 무리로 모으고 운을 맞추어 책을 지으니, 모두 3,360자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훈몽자회라고 한 것은, 세상의 父兄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이 책을 익히고 가정의 모든 어린이들의 익힘, 즉 蒙幼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함이며, 또한 조수초목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어 마침내 글자와 사물이 둘의 어긋남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이 薄識함으로 감히 이런 책을 지은 것은 분수에 넘치는 죄를 피하기 어려움을

첫째는, 이 글은 신하인 최세진이 임금께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글을 “臣竊見世之教童幼學書之家”와 같이 ‘臣’으로 시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折衝將軍行忠武衛副護軍臣崔世珍謹題”와 같이 ‘臣’으로 끝을 맺으며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훈몽자회』가 최세진 개인의 저작이기보다는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저작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개인적인 저작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쓰이기를 바라는 최세진의 저작 의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는, 이 책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할 대상으로 설정된 대상은 일견 어린아이(童稚)로 보이지만, 책의 이름을 『훈몽자회』라고 한 연유를 밝힌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父兄되는 사람이 먼저 이 책을 익히고 가정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학습으로 연결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책의 학습 대상으로 설정된 계층을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사리에 어두운 사람으로 확대해서 이해해야 합당함을 보여 주는 기술이다. 즉 「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蒙幼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데에 이 책의 편찬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실용적인 학습서의 편찬을 통하여 연쇄적인 상승효과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훈몽자회』를 가르치고 익혀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한 바는 『천자』와 『유합』의 학습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글자와 사물 모두를 이해하는 것을 달성하여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꿰뚫어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경서와 사서의 여러 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위·상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經史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의 건국 이념에 걸맞게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에 필요한 한자와 한문 이해 및 구사 능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자 학습서의 제공과 『훈몽자회』의 편찬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생각해 한다.

이와 같은 「引」의 내용은 目錄에 제시된 범주명, 각 범주에 실린 표제자에 관한 이해를 하는 데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범주명에서 보이는 天倫, 儒學, 官衙, 音樂, 喪葬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강조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표제자와 관련해서는 표제자의 제시 순서 등에서 주목되는 면이 있다. ‘佛’, ‘僧’, ‘尼’는 人類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神佛鬼魔’, ‘仙道尼僧’의 구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의 제시 순서는 같은 人類에서 ‘皇帝君主’, ‘后妃嬪嬙’ 등이 먼저 제시되고 난 후 점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내려와 ‘卒伍軍丁’이 제시된 다음에도 한참이나 지나서 제시되는 순서로 되어 있다. ‘寺’와 ‘刹’도 官衙에서는 거의 끝부분에서 ‘庵觀寺刹’에서 제시됨으로써 우선순위에서 한참이나 뒤로 밀려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2.3. 『훈몽자회』의 구조 및 편찬 목적·활용에 관한 「凡例」 10조의 기술

「凡例」는 『훈몽자회』에 실린 표제자와 이와 관련된 의미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다. 「범례」에 관해서는 이기문(1971: 49-66)에 상세히 기술되어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훈몽자회』의 구조에 관련지어 이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찾아내고 각 기술 항목 사이의 관계와 「引」과의 관련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범례」의 내용을 번역을 하고 해당 사항을 살펴보겠다.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 이르러서는 대개 또한 약간의 도움이라도 없지는 않을 것이고 때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嘉靖 6년 4월(중종 22년 4월, 1527) 절충장군 행충무위부호군 신 최세진 삼가 씀.”

먼저 『훈몽자회』의 표제자와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범례」 1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거시 구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

- ① 4. 凡物名諸字 上中卷有所妨碍 未及收入者 又於下卷收之 其他虛字可學者雖多 今畏帙繁 不敢盡收: 무릇 사물의 이름 여러 글자가 「상권」, 「중권」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 수록하지 못한 것은 또 「하권」에 수록하였고, 그 밖의 허자는 배울 수 있는 자가 비록 많으나 이제 책질이 번거로울까 하여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 ② 6. 醫家病名藥名諸字 或有義釋多端 難於一呼之便 或有俗所不呼者 今並不收: 의가의 병명이나 약명의 여러 글자가 혹시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한 가지로 부르기가 어려운 것과, 혹시 일상적으로 불리지 않는 것은 이제 같이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거시 구조와 관련된 기술은 標題字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①을 통해서 「하권」에 실린 물명 가운데에는 「상권」, 「중권」과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배워야 하는 글자 가운데에는 책의 부피를 고려하여 수록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기문(1971: 15, 5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순수한 虛字는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②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거나 그 뜻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 지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표제자로 고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널리 쓰이는 한자인데도 『훈몽자회』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이 한자가 지닌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병명이나 약명을 예로 든 것은 이 부분의 한자가 實字로서의 특성을 가장 뚜렷이 지니고 있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②와 관련하여 이기문(1971: 54)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한자들이 표제자로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반면에 僻字가 상당히 많은 것은 주목될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훈몽자회』에 실린 僻字는 대체로 획수도 복잡하고 그 의미도 구체적이고 특수하여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다수 실리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간명하게 해석되며 구체적인 것이라는 특색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즉 全實之字를 우선적으로 수록하려고 하는 거시 구조와 관련해서 僻字의 수록을 이해해 볼 수 있다.⁶⁾

(4) 미시 구조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

- ① 3. 一字有兩三名者 今亦兩三收之 如蔡字蔡菜蔡花 朝字朝夕。朝廷 行德行市。行行步之類 是也: 한 글자에 두세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또한 두세 개의 이름을 수록하였는데 蔡字(아욱, 해바라기) 朝字(조식, 조정) 行字(덕행, 시향, 행보)와 같은 것들이다.
- ② 5. 凡字音在本國傳呼差誤者 今多正之 以期今日衆習之正: 무릇 글자의 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많이 바로잡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익히도록 기약하였다.
- ③ 7. 註內稱俗者 指漢人之謂也 人或學漢語者 可使兼通 故多收漢俗稱呼之名也 又恐註繁亦不盡收: 주 안에 속이라고 칭한 것은 한인의 일컬음(사용)을 가리킨 것이다. 사람 중에는 혹시 한어를 배운/배우는 자도 겸하여 통할 수 있는 까닭으로 중국에서 속칭으로 일컫는 이름을 많이 수록하였으나 또한 주가 번거로울까 두려워 역시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 ④ 8. 凡一字有數釋者 或不取常用之釋 而先舉別義爲用者 以今所取在此不在彼也: 무릇 한 글자가 여러 가지로 풀이되는 것은 때로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풀이를 취하지 않고 먼저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쓰이는 바가 특별한 뜻에 있고 일상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6) 「범례」에서 꼭 짚어 말한 의학 분야의 병명, 약명은 그 가짓수도 많고 각각의 특색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 그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지식의 습취 및 학습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병명과 약명을 「범례」에서 여러 부분의 대표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처럼 미시 구조와 관련한 정보를 담은 부분은 수적으로 많다. 이는 그만큼 미시 구조에서 담고 있는 정보를 『훈몽자회』 편찬의 취지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①과 ④는 다의어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①을 통하여 다의어의 양상을 충실히 반영하되, ④를 통하여 의미의 제시 순서에서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우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實字를 중시하는 『훈몽자회』의 기본적인 편찬 방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다. ④의 기술을 통하여 다의어의 경우 『훈몽자회』에서 제시한 뜻이 표제자가 지닌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훈몽자회』에 제시되어 있는 의미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최세진은 적정 규모의 주를 달기 위해서 원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는 제시하는 한자음의 처리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통하여 한자음에 대해서 규범적인 처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주에 실린 한자어에 관한 기술이 이루어져 있다. 기술과 같이 俗이라 표시된 것들이 漢語에서도 쓰이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또한 주가 번거롭지 않은 범위에서 제시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③의 기술에서 『훈몽자회』에 실린 한자어 가운데에는 漢語에서 유통되는 것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한자어가 조선에서 쓰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人或學漢語者”을 ‘한어를 배운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조선에서도 쓰이는 말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어를 배우는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한어를 배울 때에 쓸 수 있다는 언급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기문(1971: 54)에서는 ‘한어를 배우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한어 교본을 곁하는 것이 무리한 일임에도 이렇게 한 것은 중국어학자인 최세진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보고 표제자에 상당히 많은 벽자가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한어에서 쓰이는 말이 조선에서 들어와 일부 전문적인 계층에서는 쓰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처럼 ‘俗’으로 표시된 한자어들 중에 중세 국어 자료에서 그 쓰임이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음을 보면 이 한자어들을 중국어로만 간주하는 것은 재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훈몽자회』의 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한어를 배우는 사람’ 말고도 ‘한어를 배운 사람’으로도 해석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5)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기술

- ① 1. 凡物名諸字 或一字或兩字指的爲名者一皆收之 其連綴虛字爲呼者 如水札子(되요)馬布郎(개가마리 或作馬不刺)之類 不取也 然亦或有隱在註下者: 무릇 사물의 이름 여러 글자에서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로 가리키는 것이 이름이 되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수록하였으나, 허자에/가 연결되어(이어져 엮여) 이루어진 수찰자[水札子(도요새)], 마포랑[馬布郎(개고마리) 혹은 馬不刺] 같은 것은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혹 주에 숨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 ② 2. 一物之名有數三字 而其俗稱及別名 亦有數三之異者 若收在一字之下 則恐其地狹註繁 故分收於數三字之下 雖似乎各物之名 而其實一物也 以其註簡爲便而然也: 한 사물의 이름이 여러 글자로 된 것이 있고[같은 뜻을 가지는 한자가 여러 개가 있고] 그 속칭이나 별명이 역시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있는데, 만약 한 자 아래에 수록하면 그 자리가 좁고 주가 번거로울까 하여 나누어 여러 글자 아래 수록하였다. 비록 각 사물의 이름이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같은 사물이다. 그 주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이곳의 ①과 ②는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와 관련한 내용이 복합된 것으로 이 두 구조를 종합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에서 제시된 ‘水札子’와 ‘馬布郎’은 모두 중국의 俗語(口語)를 나타낸 것으로 기술된 바 있는데(이기문 1971: 51), 실제로 이들은 모두 『譯語類解』(1690)에 수록된 것으로서 漢語에서 쓰이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其連綴虛字爲呼者”를 어떻

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이곳의 ‘虛字의 연결’이란 말에서 허자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내용 이해가 달라진다.

‘水札子’의 경우에 ‘水’는 <하 15ㄱ>에, ‘子’는 <상 16ㄴ>에 수록된 것이며 ‘札’은 미수록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허자가 연결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훈몽자회』의 체계상 「상권」과 「중권」에 실린 것을 허자로 부를 수 없으므로 허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권」에 실린 ‘水’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허자는 하나의 한자 또는 구성 요소로 쓰이는 한자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에 따라서 이해한다면 이 말은 ‘허자에 연결되어’로 해석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馬布郎’을 보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이곳의 ‘馬’는 <상 10ㄴ>에, ‘布’는 <중 15ㄱ>에 수록된 반면에 ‘郎’은 미수록된 것이다. 그리고 ‘馬不刺’에서 ‘不’과 ‘刺’는 미수록자이다. 곧 實字인 ‘馬’와 ‘布’에 미수록자인 ‘郎’이 연결되는 것이므로 ‘郎’을 虛字로 보아야만 위 기술과 모순이 되지 않게 된다.⁷⁾ 이와 관련하여 앞의 「引」에서 「상권」과 「중권」에는 實字를 수록하고 「하권」에는 半實半虛字를 실었다고 하였으므로 미수록자는 虛字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其連綴虛字爲呼者”는 ‘허자가 연결되어’로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허자가 하나라도 연결되어 이루어진 ‘水札子’가 가리키는 ‘도요’는 형상이 있는 것이며, 이 ‘도요’의 의미를 지니는 ‘鷓’은 “鷓 L도H요 H홀 俗呼水札子又翠鳥亦曰鷓<상 8ㄴ>”과 같이 禽鳥 부문에 실려 있다. 그리고 구성 요소인 ‘水’, ‘札’, ‘子’는 ‘도요’와는 아무런 의미적 연관이 없다. ‘馬布郎’이 가리키는 ‘개고마리’ 역시 각각 ‘馬’, ‘布’, ‘郎’이 지니고 있는 의미로는 어휘의 의미를 추출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복합어가 지니고 있는 것과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상의 투명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미시 구조가 번다해짐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의미의 한자를 고려하여 그곳에 적절히 분산하였음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의 양 또는 정도를 판단할 때 거시 구조를 고려하여 특정 표제어 부분의 미시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였음을 보여 준다.

(6) 諺文字母 및 편찬 목적 관련 내용 기술

- ① 9. 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不解諺文 故今乃并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 次學字會 則庶可有曉諭之益矣 其不通文字者 亦皆學諺而知字 則雖無師授 亦將得爲通文之人矣: 무릇 변방 성 밖의 마을에 있는 사람은 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곧 언문자모를 같이 적어 그들로 하여금 언문을 먼저 배우게 하고 난 다음에 자회를 배우게 한 즉 거의가 깨우칠 수 있는 이로움이 있고, 문자를 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모두 언문을 다 배우고서 글자를 알게 한즉, 비록 선생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장차 한자와 한문을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② 10. 凡在外州郡 刊布此書每於一村一卷 各設學長 聚誨幼穉 勤施懲勸 俟其成童升 補鄉校國學之列 則人皆樂學 小子有造矣: 무릇 밖에 있는 주(州)·군(郡)에 이 책을 널리 간행하여 한 마을에 한 권씩 각기 학장을 세워 어린이를 모아 가르치고 부지런히 징계하고 권장하여 아이들이 왕성해지기를 기다려 향교와 국학의 반열에 진출하도록 돕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배우기를 즐겨할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성취됨이 있을 것이다.

이곳의 ①의 기술은 「범례」에 諺文字母와 제시하고 설명을 한 까닭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언문자모를 단 것은 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많기에 이들이 언문을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자회를 통하여 문자, 즉 한자를 학습하게 되어 스승이 없이도 혼자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해서이다. 이런 기술은 「引」에서 말한 취지와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7) ‘郎’이 實字였다면 이것은 의미상 人類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이기문(1971: 55)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언문의 보급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언문을 익힘으로써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한자와 한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으로, 한글의 창제와 보급 이전의 전통적인 한자와 한문 학습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한자 및 한문에 대한 접근의 제약을 언문이 해소해 주는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와 관련하여 이기문(1971: 55)에서는 언문의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조적 문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보았으나, 『훈몽자회』가 한자와 한문을 익히기 위한 것이 편찬 목적임을 「引」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맥락에서의 가치만이 언급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의 명칭이 언문자모이고 이것을 반절 27자라고 한 것은 하나의 음절을 표시하는 데에 역점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범례」에서는 初聲終聲通用八字, 初聲獨用八字, 中聲獨用十一字와 같이 음절의 구성 요소를 표시하는 글자를 먼저 제시한 후 初中聲合用作字例,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를 이어서 제시하여 실제 음절의 결합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聲韻學에서의 반절이 이 분법에 따라서 운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諺文字母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과 같이 삼분법에 따라서 운용되었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성조를 방점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언문의 기능과 용도는 한자음의 표시에 이용되는 것으로 언문이 가진 여러 기능과 용도 중에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훈몽자회』의 편찬 목적과 이곳에 쓰인 언문의 기능 및 용도를 생각하여 볼 때 이곳 「범례」에서 언문을 보조적 문자로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다만 언문의 다른 기능과 용도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②의 기술은 『훈몽자회』를 마을 단위로 학습하게 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 지역과 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편찬 목적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조선을 문명국가로 만들어 가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引」에서 언급된 바와 상통하는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의 기술을 이후에 제시된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가 제시되는 형식과 관련지어 보면 성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자와 한문을 모르는 이가 이 언문자모와 관련한 기술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언문자모와 관련한 기술은 현실적으로 한자와 한문을 아는, 즉 學長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字會를 지은 목적을 訓蒙으로 한 것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②의 기술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훈몽자회』의 운용법 및 교육법에 관련한 것을 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거시 구조 분석과 수록자의 이해

3.1. 책의 구성과 표제자의 분포

『훈몽자회』는 冊을 「上卷」, 「中卷」, 「下卷」 셋으로 나누고, 33개의 部門을 설정하여 이를 「상권」에 16개 부문, 「중권」에 16개 부문, 「하권」에 1개 부문으로 배정하고 각 부문에 해당하는 표

제자를 배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제자는 4자가 1구가 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표제자 구성상의 특징이 <예산본>에서는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예산본>이 10행으로 되어 있고 부문이 바뀔 때에만 행을 바꿔 제시하는 탓에 한 행에 들어가는 표제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 면이 4행으로 되어 있고 한 행에 4자의 표제자를 지면상의 일정 공간에 배열하고 있는 <동중본>에서는 시각적으로 잘 구분된다. 이처럼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활용하는 정도는 <예산본>보다 <동중본>이 좋다.

이에 따라 표제자 사이의 관계와 묶음을 고려하여 한자 학습을 하기에는 <예산본>보다는 <동중본>이 좋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예산본>을 편찬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하지 않은 데에는 <예산본>이 활자본이라는 점과 표제자에 대한 기술 내용의 편차로 인하여 어떤 표제자의 기술 내용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고 하는 편차가 생긴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런 판식의 차이로 인해 <동중본>에서는 미시 구조의 정보량에 따라서 행수가 달라져서 직계는 1행에서 많게는 5행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예산본>에서는 시종일관 표제자는 1행에 맞게 제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되는 음훈 등의 미시 구조의 여러 정보는 2행의 협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목판본인 <동중본>이 정보량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목판본에 비해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활자본의 특성이 현재와 같은 <예산본>의 거시 구조를 갖게 된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이런 점을 참고할 때 <동중본>의 편찬에는 <예산본>이 지니고 있었던 판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한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를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이곳에 실린 각 권 및 부문의 순서 및 수록된 표제자의 개수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7)과 같다.

(7) 『훈몽자회』의 각 권의 구성과 수록된 표제자의 개수(*는 「하권」 수록자, &는 미수록자)⑧

- ① 上卷(1,120자): 天文(72자), 地*理(136자), *花*品(16자), *草*卉(64자), *樹*木(40자), *菓*實(40자), *禾*穀(24자), *蔬*菜(64자), *禽*鳥(88자), *獸*畜(64자), *鱗*介(40자), *蠃*蟲(104자), 身體(208자), 天&倫(96자), 儒*學(32자), 書*式(32자)
- ② 中卷(1,120자): *人&類(112자), 宮&宅(96자), 官衙(88자), *器*皿(312자), 食饌(80자), *服*飾(88자), 舟船(32자), 車輿(24자), 鞍&具(24자), 軍*裝(64자), &彩&色(24자), 布帛(24자), 金寶(32자), &音*樂(16자), 疾病(80자), &喪葬(24자)
- ③ 下卷(1,120자): &雜*語(1,120자)

이와 같은 표제자의 개수를 보면 實字 가운데에서는 器皿 > 身體 > 地理 > 人類 > 蠃蟲 > 天倫·宮宅 > 禽鳥·官衙·服飾 > 食饌·疾病 > 天文 > 草卉·蔬菜·獸畜·軍裝 > 樹木·菓實·鱗介 > 儒學·書式·舟船·金寶 > 禾穀·車輿·鞍具·彩色·布帛·喪葬 > 花品·音樂의 순으로 표제자의 개수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들의 상위에는 器皿, 身體, 地理, 人類 등이 있고, 하위에는 花品, 音樂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각 부문의 표제자의 개수가 뜻하는 바를 「引」에 따라 이해하여 본다면 器皿, 身體, 地理, 人類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實字가 많은 반면에 花品, 音樂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實字가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雜語로 이루어진 「하권」의 경우는 ‘雜語’라는 부문 하나만 제시되어 있으나 수록된 글자의 성격을 파악하여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여 하위분류하여 보면 (8)과 같이 「상권」과 「중권」의 32개 부문에 연결하여 이해하여 볼 수 있다.

8) 이렇게 ‘*’과 ‘&’로 표시된 것에 관해서는 거시 구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술하도록 하겠다.

(8) 「하권」의 ‘雜語’에 실린 표제자의 하위분류

- ① 天文: 混, 沌……曩, 昔<1ㄴ>
- ② 人類: 人, 物……滋, 殖<1ㄴ>
- ③ 禽鳥·鱗介·獸畜: 羽, 毛……鱗, 介, 飛, 動, 植, 昆, 蟲, 禽, 鳥, 魚, 獸<1ㄴ-2ㄱ>
- ④ 花品·草卉·樹木·菓實·禾穀·蔬菜[농사 등 행위]: 禾, 穀……核, 櫛<2ㄱ-3ㄴ>
- ⑤ 禽鳥·獸畜·鱗介[축산·수렵·어로 등 행위]: 肫, 臑……髻, 鰓, 蹄, 躡……騰, 驤……驤, 張<3ㄴ-5ㄴ>
- ⑥ 天倫[관혼상제]: 祭, 祀……醢, 醜<5ㄴ>
- ⑦ 身體[위생 및 관련 행위]: 汲, 注, 澡, 洗, 沐, 浴, 漱, 盥<5ㄴ>
- ⑧ 食饌[관련 일, 행위(조리법, 냄새, 맛, 섭취 등)]: 淘, 浙……交, 錯<5ㄴ-7ㄱ>
- ⑨ 音樂[음주가무]: 樂, 曲……醉, 醜<7ㄱ>
- ⑩ 人類[다툼]: 耍, 戲, 鬪, 鬧, 罵, 詈, 戰, 鬪<7ㄱ-7ㄴ>
- ⑪ 器皿[제작 및 가공, 관련 도구]: 鋸, 鉞……蔑, 籬<7ㄴ-8ㄱ>
- ⑫ 宮宅[제작]: 橫, 斜……塊, 埗, 居, 處, 器, 皿<8ㄱ-8ㄴ>
- ⑬ 服飾[식생활]: 衣, 服, 財, 貨, 豐, 稔, 飽, 飫……檻, 褸<8ㄴ-9ㄱ>
- ⑭ 書式[圖書]: 圖, 寫, 描, 罨, 紋, 綵, 繪, 飾<9ㄱ-9ㄴ>
- ⑮ 人類[교환·거래·祈福·이동 등 행위]: 誑, 賺……沽, 買, 購, 質……籤, 籌, 占, 筮……擠, 拶, 排, 挨<9ㄴ-10ㄴ>
- ⑯ 人類[사람, 사람의 성품·상대·태도, 일상적 신체 행위]: 吾, 我……誠, 敬, 貞, 烈……跳, 趨<10ㄴ-12ㄱ>
- ⑰ 人類[사람, 인식 및 인지, 소통, 말 관련 행위]: 窺, 覘……談, 話, 言, 語……狡, 猾<12ㄱ-13ㄱ>
- ⑱ 人類[사람, 성품·성향·능력]: 慳, 悋……技, 藝<13ㄱ-13ㄴ>
- ⑲ 人類[사람, 사회적 행위]: 職, 任……孤, 獨<13ㄴ-14ㄴ>
- ⑳ 天文[숫자, 방향, 자연현상]: 一, 壹……終, 極<14ㄴ-15ㄴ>

(8)과 같은 분류의 결과가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대체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처럼 雜語로 묶인 것에 관한 이해는 「상권」과 「중권」의 32개 부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권」의 雜語의 표제자 제시 순서는 「상권」과 「중권」의 제시 순서와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는 半實半虛字의 제시 순서가 어느 정도 實字에 연동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은 半實半虛字의 경우 그것이 어느 부문에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애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 연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이처럼 半實半虛字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범례」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바다. 「범례」에는 “4. 凡物名諸字 上中卷有所妨碍 未及收入者 又於下卷收之: 무릇 사물의 이름 여러 글자가 「상권」, 「중권」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 수록하지 못한 것은 또 「하권」에 수록하였고”의 기술이 있다. 이처럼 「하권」에 실린 표제자인 半實半虛字는 「상권」과 「중권」에 실린 표제자인 實字의 명확한 인식을 흐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부문을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그렇기에 雜語에 넣어서 다룰 수밖에 없었고 제시 순서도 일정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권」에서는 人類에 속하는 표제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으로 花品·草卉·樹木·菓實·禾穀·蔬菜 > 食饌 > 器皿 > 服飾 > 宮宅 등이 상당한 수준에서 비슷한 정도로 표제자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들도 인간의 생활과 관련되는 여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人類에 해당하는 의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과 연관성이 적은 것들은 관련을 맺는 半實半虛字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하권」에 실린 표제자의 하위분류 결과를 「상권」과 「중권」에 실린 표제자의 검토 결과와 통합하여 전권을 생각하여 보면 人類에 속하는 표제자들이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제 분류되어 있는 『훈몽자회』에 실린 표제자를 품사별로 살펴보면 「상권」과 「중권」

은 체언 또는 부사와 같이 불변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하권」은 반대로 동사와 형용사의 가변어의 비중이 높고 불변어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한 각 권에 실린 표제자의 개수와 비율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9) 『훈몽자회』 표제자의 품사별 분포

	「상권」		「중권」		「하권」		전권	
불변어	1,070	95.53%	1,045	93.3%	357	31.88%	2,472	73.57%
가변어	50	4.47%	75	6.7%	763	68.12%	888	26.43%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훈몽자회』는 전체적으로는 불변어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半實半虛字를 실은 「하권」에서만 양상이 반대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체언의 특성과는 달리 어떤 사물의 행동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용언의 범주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비중으로써 「상권」·「중권」과는 다른 「하권」의 특색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품사의 분포를 한자 공부를 통해 한문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겨냥한 『훈몽자회』의 편찬 목적과 염두에 둔 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살펴본다면, 학습자들은 「상권」과 「중권」에서는 불변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일부 가변어를 익히는 학습을 하다가 「하권」에서는 본격적으로 가변어에 관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이것을 한문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어와 목적어 같은 성분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배우고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을 이보다는 좀 늦게 배우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권」에 人類 부분의 한자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과 관련한 서술 동사 또는 형용사가 많음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3.2. 표제자의 선정과 거시 구조 및 미시 구조와의 관계

『훈몽자회』의 범주명으로 쓰인 한자 가운데에는 상당수는 「하권」에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7)에서 *으로 표시하여 두었다. 즉 理, 花, 品, 草, 卉, 樹, 木, 菓, 禾, 穀, 蔬, 菜, 禽, 鳥, 獸, 鱗, 介, 蠅, 蟲, 學, 式, 人, 器, 皿, 服, 飾, 裝, 樂, 語가 이에 해당한다. 또 &으로 표시한 倫, 類, 宅, 彩, 色, 音, 喪, 雜은 『훈몽자회』에는 아예 표제자로 실려 있지도 않다. 이는 체계적인 한자 학습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학습서로서는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을 『훈몽자회』의 표제어 선정과 관련한 원칙과 연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면 도리어 『훈몽자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흠결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범례」에는 “凡物名諸字 上中卷有所妨碍 未及收入者 又於下卷收之 其他虛字可學者雖多 今畏帙繁 不敢盡收”와 같은 기술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권」, 「중권」에 방해가 된다고 함은 全實之字를 신기로 한 「상권」, 「중권」에 위 예들이 들어갈 때에 위화감이 생겨 편찬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그러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권」에서 범주명에 쓰인 한자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

(10) 범주명에 쓰인 한자에 관한 「하권」의 기술

- ① 理 L다H스L릴 R리 又道理又木理 L품<하 13>
- ② 花 L곳 L화<하 2>
- ③ 品 L츠H례 R품 等列也衆庶也又物件曰品果品食品<하 1>

- ④ 草 H플 H초 百卉總名又文稟曰草<하 2>
 ⑤ 卉 H플 R훼 百草總名<하 2>
 ⑥ 樹 L나L모 H슈 豎而生植之總名<하 2>
 ⑦ 木 L나L모 R목 樹之生死者總名<하 2>
 ⑧ 菓 L여H름 R과 木實曰菓<하 2>
 ⑨ 禾 H쉬 L화 穀之總名<하 1>
 ⑩ 穀 R남 H곡 百穀總名五穀九穀又俗呼穀子L조亦作穀<하 1>
 ⑪ 蔬 L나L물 L소 百菜總名<하 2>
 ⑫ 菜 L나L물 R치 草可食者皆曰菜<하 2>
 ⑬ 禽 R새 L금 二足有羽曰禽凡畋獲飛走皆曰禽<하 2>
 ⑭ 鳥 R새 H도 飛禽總名常時曰鳥胎卵曰禽<하 2>
 ⑮ 獸 L즘L싱 H슈 四足有毛曰獸<하 2>
 ⑯ 鱗 L비H늘 L린 魚甲<하 2>
 ⑰ 介 R당L아H리 R개 甲虫又耿介也又大也助也<하 1>
 ⑱ 蠃 L벌H에 L곤 百虫總名凡虫溫生寒死<하 1>
 ⑲ 蟲 L벌H에 L통 有足曰蟲無足曰蟲<하 1>
 ⑳ 學 H빅L홀 H혹<하 13>
 ㉑ 式 L얼L굴 H식 又法式<하 9>

(10)에서 볼 수 있듯이 「하권」의 기술을 보면 별도의 주석이 달려 있지 않는 ② 花, ㉑ 學과 같은 경우, ‘總名’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④ 草, ⑤ 卉, ⑥ 樹, ⑦ 木 등과 같은 경우, ‘皆’와 같은 말을 써서 ‘어떤 속성을 갖는 것을 모두’처럼 이해하도록 한 ⑫ 菜, ⑬ 禽 등과 같은 경우, 어떤 특징만 만족하면 해당 범주가 됨을 기술한 ⑮ 獸, ⑲ 蟲과 같은 경우,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울러 이르는 범주임을 기술한 ⑰ 介와 같은 경우, 어떤 한 가지의 특징만을 지닌 것으로 기술한 ⑧ 菓, ⑯ 鱗 등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권」에 실린 것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식으로 미시 구조의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것은 해당 한자가 상위의 범주적 개념을 지님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런 용어의 사용에는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요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觴<동중본> H잔 L상 酒卮總名<중 7>”, “帳<동중본> R당 R당 總名<중 7>”에도 ‘總名’이란 말이 쓰여 있다. 그러나 ‘觴’은 또 다른 그릇류의 器皿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고, ‘帳’ 또한 무엇인가를 막는 데에 이용되는 器皿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상이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2개의 예를 제외하고 9개의 예는 모두 「하권」에서만 보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皆’는 「상권」에서는 8번, 「중권」에서는 7번, 「하권」에서는 10번이 쓰여 있어서 「하권」에서의 쓰임이 많기는 하나 「상권」과 「중권」에서의 쓰임이 널리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9) 이 외에도 「하권」의 표제자에는 “嗽 H헛H귀 L돈 日始出貌<하 1>”, “旭 H헛H귀 H옥 日始出著明貌<하 1>”, “昕 L아L츄 L흔 朝明日出<하 1>”, “晡 L나L죄 L포 日加申時<하 1>”, “古 R네 R고 遠代<하 1>”, “昔 R네 H석 古也<하 1>”, “株 L웃L듬 L듀 木之出土曰株<하 2>”, “幹 L웃L듬 R간 木身又事也通作幹<하 2>”, “言 R말H습 L언 直言曰言<하 12>”, “語 R말H습 R어 論難曰語去聲告也<하 12>”, “詞 R말H습 L스 言也人文詞又訟也<하 14>”, “罰 R죄L줄 H벌 罪罰<하 13>”, “謫 R죄L줄 L덕 舉罪降黜<하 13>”, “恩 L은H헛 L은 恩澤及人<하 13>”, “惠 L은H헛 R혜 仁慈恩賜順愛及人之謂<하 13>” 등과 같이 의미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들, “才 L지L쫓 L직<하 13>”, “術 L지H쫓 H술<하 13>”, “技 L지H조 R기<하 13>”, “藝 L지H조 H예 才能又種也<하 13>” 등과 같이 추상적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1) 「상권」과 「중권」에 실린 표제자의 주석 속에 ‘皆’를 포함한 예¹⁰⁾

- ① 江 LマH롭 L강 今俗謂川之大者皆曰江又水名<상 2ㄴ>
- ② 洋 L바H다 L양 俗呼海洋凡物盛多皆曰洋又洋洋盛貌<상 3ㄴ>
- ③ 窪 L즌H퍼H리 L와 沮洳皆漸之濕之地非淀澱之比<상 3ㄴ>
- ④ 澱 L즌H퍼H리 H박 淀澱皆湖泊別名<상 3ㄴ>
- ⑤ 藥 R사H약 H약 芍藥有亦二種又救病草皆曰藥<상 4ㄴ>
- ⑥ 匏 H막 L포 味苦其形圓子形兩頭皆方瓠子一頭圓<상 7ㄴ>
- ⑦ 佳 R새 L초 短尾者皆曰佳<상 9ㄴ>
- ⑧ 牌 H글H월 L패 又牌榜R방又旁牌團牌挨牌皆謂L방L패<상 18ㄴ>
- ⑨ 嬪 L빔 L빙 女官次於妃又L며H느H리 L빙太子及王妃皆曰嬪<중 1ㄴ>
- ⑩ 衍 H녀H계 R원 俗稱衍衍本作行院北京南北西三院有妓其夫皆樂工<중 2ㄴ>
- ⑪ 廟 L중H못 R묘 俗呼太廟凡祀神之所皆曰廟堂<중 6ㄴ>
- ⑫ 糝 L죽L심 R참~L죽L심 R습 凡米粒和羹皆曰糝<중 11ㄴ>
- ⑬ 帶 H역 R띠 又L골H홈及H간H홀皆曰帶子<중 11ㄴ>
- ⑭ 纓 H긴 L영 又L우H리曰纓兒又L숯L동曰纓凡以絳毛爲兵飾者皆曰纓<중 12ㄴ>
- ⑮ 鼓 H북 H고 又稱H빅L거H슬皆曰鼓兒<중 14ㄴ>

(11)에서 범주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皆’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① 江, ② 洋, ④ 澱, ⑤ 藥, ⑦ 佳, ⑨ 嬪, ⑩ 嬪, ⑬ 帶, ⑭ 纓, ⑮ 鼓 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은 『훈몽자회』에서 설정한 33개의 범주 이외에 하위 범주를 설정한다면 해당 범주의 범주명으로 쓰일 자격을 갖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皆’ 또한 앞의 ‘總名’과 같이 다른 표제자의 관계에서 범주적 개념을 갖는 한자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술어의 사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술어가 쓰인 표제자를 살펴보면 『훈몽자회』 표제자들 사이의 어휘적 층위를 살펴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 미시 구조 분석과 수록자의 이해

『훈몽자회』는 표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곳에 음훈, 한자어, 자형 등에 관한 여러 정보가 제시 되는 형태로 미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각 정보를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지를 중심으로 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그곳에 담겨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미시 구조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적으로 파악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예산본>과 <동중본>을 비교하여 보면 <동중본>에는 <예산본>의 주석 가운데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거 발견된다. 이와 같은 실태에 관해서는 이기문(1971: 137-142)에서 실례의 제시와 함께 상세히 기술된 바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예산본>의 ‘贅 H혹 R贅 又呼疙疸音<중 16ㄴ>’이 <동중본>에서 ‘贅 H혹 R贅 又呼疙疸音HGR다 <중 33ㄴ>’으로 제시된 예만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내용상의 적절성과 관련한 판단이 영향을 끼쳤을 것임(이기문 1971: 141)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예산본>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 작업을 하겠다. 그런 다음

10) 이 외에 「하권」의 실린 표제자 가운데에는 (10)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藤 L너 H출 L등 俗凡稱蔓皆曰藤<하 2ㄴ>, ② 位 L벼L슬 H위 列也凡所當爲處皆曰位<하 1ㄴ>, ③ 距 H툽 R거 鷄距 凡刀劍間到刺皆曰距<하 3ㄴ>, ④ 牝 H암 H즈 牛馬之牝皆曰牝又凡獸育子者曰牝<하 4ㄴ>, ⑤ 爇 L구L을 L번 炙燂皆曰爇<하 6ㄴ>, ⑥ 葷 L누R릴 L훈 蔥蒜魚肉之臭皆曰葷<하 6ㄴ>, ⑦ 籬 L데L메H을 L고 或竹或鐵 束物皆曰籬<하 7ㄴ>, ⑧ 御 L거R느L닐 H어 又天子所止所幸皆曰御<하 13ㄴ>.

해당되는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4.1. 표제자 및 한자 사이의 관련성 정보

미시 구조에서는 표제자나 한자와 관련된 정보가 여러 표지를 통해서 표시되어 있다.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유형으로 (12)와 같이 ‘X作’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있다.

(12) ‘X作’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亦作(126)¹¹⁾: 年 H히 L년 亦作季<상 1ㄴ>/ 嶽 L뫼R부H리 H악 亦作岳<상 2ㄴ>/ 阪 L두H들 H관 阪者曰阪又澤障又山脊亦作坂<상 2ㄴ>/ 堤 H연 L데 岸也緣邊也亦作隄<상 3ㄴ>/ 巷 L굴H형 R항 街上交道又宮中別道亦作衢<상 3ㄴ> 등 ※ 靨 L연L지 L연 靨 L연L짓 L지 亦作胭脂<중 12ㄴ>
- ② 通作(51): 峒 L뫼R골 R동 俗稱山峒通作洞又平聲崆峒山名<상 2ㄴ>/ 坪 L드H르 L평 大野曰坪通作平<상 4ㄴ> 등 ※ 俗通作(1): 齋 L집 L지 燕居茅舍俗通作齋學宮有東西齋<중 3ㄴ>
- ③ 俗作(17): 桑 L췘L나L모 L상 俗呼桑樹俗作桑<상 5ㄴ>/ 漆 L웃L나L모 H칠 俗作漆<상 5ㄴ> 등
- ④ 書式作(11): 伍 L군H스 R오 五人爲伍又數名書式作伍<중 1ㄴ>/ 三 R석 L삼 書式作參<하 14ㄴ>/ 四 R넉 R스 書式作肆<하 14ㄴ> 등
- ⑤ 或作(7): 糲 H츄H쌀 R나 或作糲糲<하 7ㄴ>/ 菜 L삼L듀 L뜰 俗呼蒼菜或作朮<상 7ㄴ> 등 ※ 俗或作(1): 鬢 R갈H기 L중 俗或作鬢<하 5ㄴ>
- ⑥ 本作(3): 灋 L쉬H궁 H두 本作灋<중 3ㄴ>/ 箒 H뵈 R췘 俗呼掃箒又稱R뫼R뵈曰苕箒本作帚<중 9ㄴ>/ 翌 L너H일 H익 明日本作翌<하 1ㄴ>
- ⑦ 正作(3): 柿 R감 R시 俗呼乾者曰柿餅正作柿<상 6ㄴ>/ 餵 L머H길 H위 正作餵俗作喂<하 4ㄴ>/ 賺 L소H길 R담 錯也正作謙市物失實<하 9ㄴ>
- ⑧ 詩作(2): 鍼 R도H칙 H척 詩作戚千戈戚揚<중 14ㄴ>/ 梯 L아H스L로L일 R데 體梯詩作豈弟樂易也<하 11ㄴ>
- ⑨ 古作(1): 叢 H뫼H기 L충 亦作藂古作藂<하 2ㄴ>
- ⑩ 字作(1): 泡 L거H품 L포 俗稱水泡又漬也字作𩶛+翕<상 3ㄴ>
- ⑪ 同作(1): 踏 L업H드R를 H복 又音赴同作仆<하 12ㄴ>
- ⑫ 又作(1): 谷 R골 H곡 又作峪音H곡<상 2ㄴ>
- ⑬ 今作(1): 荀 H독L순 R순 今作筍<상 7ㄴ>
- ⑭ 俗省作(1): 喫 L머H글 H긱 俗省作吃<하 7ㄴ>
 ※ 土作(1): 甘 L돌 L감 土作甘<하 6ㄴ>
 ※ 金作(1): 辛 L뫼L울 L신 金作辛又十干名<하 6ㄴ>

(12)에서 보듯이 ‘① 亦作’, ‘② 通作’, ‘③ 俗作’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표제자의 字形 또는 표제자 또는 한자어 사이의 通用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X作’ 형태로 표시된 것들은 한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X作’으로 표시된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X의 자리에 놓인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X作’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자어들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여 이어진 글자들이 어떤 자격, 기능, 맥락 등에서 연결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에 ‘① 亦作’, ‘② 通作’, ‘③ 俗作’, ‘⑤ 或作’, ‘⑩ 字作’, ‘⑪ 同作’, ‘⑫ 又作’, ‘⑬ 今作’, ‘⑭ 俗省作’의 경우는 ‘作’ 다음에 오는 것보다는 표제자가 규범적인 면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⑥ 本作’, ‘⑦ 正作’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作’ 뒤에 오는 것이 옳거나 본래의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들로 규범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⑨ 古作’의 경우는 뒤에 오는 것이 오래된 것이라는 것으

11) 이처럼 괄호 안에는 각 키워드를 지니고 있는 용례의 개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료는 용례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로 ‘㉓ 今作’과 반대의 경우로 인식하여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㉑ 亦作’, ‘㉒ 通作’ 등과 ‘㉔ 本作’, ‘㉕ 正作’는 방향성 면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갖는 통용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어서 ‘㉖ 書式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할 때에 사용하는 한자 자형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이런 ‘㉖ 書式作’의 기능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三’을 ‘參’으로 쓰고 ‘四’를 ‘肆’로 쓰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詩作’이라 하는 것은 『詩經』에서의 한자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담은 것이다. “戚千戈戚揚”는 <大雅公劉篇>에 실린 구절이고, “豈弟樂易也”는 <大雅·旱麓>에 관한 朱熹의 『詩集傳』의 풀이이다.

이런 형태로 제시된 기술은 대개는 하나의 표제자에 해당하는 미시 구조 정보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아서는 곤란한 것도 적기는 하지만 있다. 대표적인 것이 ㉑의 “𦉳 L연L지 L연 𦉳 L연L지 L지 亦作胭脂<중 12ㄴ>”의 경우인데, 여기에서 ‘亦作’ 뒤에 제시된 ‘胭脂’는 하나의 한자 어로서 이해되기보다는 앞의 ‘𦉳=胭’, ‘𦉳=脂’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처럼 두 개의 표제자에 걸쳐 있는 주석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X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때 X를 뜻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참고로 제시한 “甘 L들 L감 土作甘”의 경우는 ‘土’를 지방 정도로 해석하여 장소적 의미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X作Y’에서 X와 Y가 같다는 점에서 그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때에는 ‘흙은 단 성질을 지닌다’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集韻』에 보면 “土之味也”와 같은 의미 정보가 실려 있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辛 L미 L울 L신 金作辛又十干名<하 6ㄴ>”의 예도 ‘X作Y’에서 X와 Y가 같은 경우라는 점에서 표제자와 통용되는 한자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또한 ‘금은 매우 성질을 지닌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둘은 모두 五行에 속하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성격을 참고하여 ‘土’와 ‘金’이 들어간 ‘X作’은 (12)의 다른 경우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둬야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X作’ 형태로 되어 있지만 “鹹 H꺄 L함 潤下作鹹俗作𦉳<하 6ㄴ>”과 같이 기술된 예가 있다. 이것은 ‘作’ 다음에 오는 한자가 표제자와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표제자 자체에 관한 정보라기보다는 표제자로 나타내는 의미와 관련되는 것이다. 즉 “潤下作鹹”은 ‘축축한 상태에서 鹹에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13) ‘與X同’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與X同(12): 簡 H글H월 R간 牒也大曰策小曰簡又與揀同<상 18ㄴ>/ 楯 L청R널 R순 又與盾同<중 3ㄴ>/ 樑 L보 L량 俗呼過樑L들L보與梁同<중 4ㄴ>/ 函 R함 L함 又與函同<중 10ㄴ>/ 華 H빛H 날 L화 又與花同又中夏曰華<하 2ㄴ>/ 沙 R일 L사 又與砂同見上卷<하 5ㄴ>/ 貫 R원R빈 R세 與賒同意又赦也<하 9ㄴ>/ 漉 L건H딜 H록 又滲漉又與滌\$皿同漉酒<하 10ㄴ>/ 顧 L도H라L볼 R고 又與雇同<하 12ㄴ>/ 見 L볼 R견 又與現同<하 12ㄴ>/ 說 L니L를 L설 談說又與悅同喜也 <하 12ㄴ>/ 覈 L마H출 H획 又慘刻也又糠覈則穀糠不破者又與劬同<하 12ㄴ>

다음으로 ‘與X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유형은 동음 및 동의를 지닌 표제자 또는 한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에서 보듯이 표제자는 ‘與X同’의 X와 같은 의미와 음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다. 즉 ‘楯=盾’, ‘樑=梁’, ‘函=函’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가운데에서 ‘樑=梁’는 표제자인 ‘樑’이 ‘들보’의 의미로 쓰일 때에만 성립하는 관계이다. 즉 ‘樑’의 첫째 의미로 ‘보’를 제시해 놓았지만 이것은 ‘俗呼過樑’이라는 정보를 보면 ‘다리=교량’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다리’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

와 같은 동음 및 동의 관계는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미시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제자와 한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與X同’로써 표제자와 동음 및 동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된 한자 가운데에는 『훈몽자회』에 표제자로 수록된 ‘盾’, ‘梁’, ‘翎’, ‘花’, ‘賒’와 표제자로 수록되지 않은 ‘揀’, ‘砂’, ‘現’, ‘悅’, ‘劾’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관련어로 제시된 것들을 표제어 검색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4) ‘X……亦曰X’, ‘X……亦曰Y’를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亦曰(19): 梓 H7H래L나L모 R지 臚理者梓茸白者楸亦曰木+奇<상 6>/ 鷓 L도H요 H홀 俗呼水札子又翠鳥亦曰鷓<상 8>/ 項 L목 R항 總稱亦曰領<상 13>/ 姨 L아H즈H미 L이 母之姊妹 俗呼兩姨夫呼妻之姊妹亦曰姨<상 16>/ 壻 L사H회 H서 又妻謂夫亦曰壻<상 16>/ 妃 L둥L궁 L비 嬪御次於皇后者亦曰妃<중 1>/ 局 L마H술 H국 碁枰亦曰局又局量<중 4>/ 站 H역 R참 俗呼水站馬驛亦曰站又俗謂立曰站亦作正\$立<중 5>/ 寺 H덜 R스 浮屠所居又官司亦曰寺<중 5>/ 箒 H초H롱 L구 燈籠亦曰箒又焙籠<중 8>/ 鞵 H운H혜 L옹 又L횃H운亦曰鞵俗呼靴鞵<중 11>/ 輻 L교H죽 R교 有屋者又監輿肩行者亦曰輻<중 13>/ 櫓 L방L패 R로 又城上屋亦曰櫓<중 13>/ 蠱 H중 H고 血蟲又 R노L울 R고俗稱蠱疾蠱毒又鼓脹病亦曰蠱又事也易幹蠱<중 16>/ 鬣 R갈H기 H렵 魚龍領旁小髻亦曰鬣<하 5>/ 鬃 L지L네 L기 馬鬣亦曰鬃<하 5>/ 蝕 L벌H에L머H글 H식 虫食葉曰蝕日月虧亦曰蝕<하 5>/ 澱 L즈L의 R던 又靑黛亦曰澱<하 5>/ 煨 L노L을H압 L외 又埋物灰中使熟亦曰煨<하 15>

이 유형은 미시 구조에 일부 정보가 제시된 다음에 ‘X……亦曰X’ 또는 ‘X……亦曰Y’가 제시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鷓 L도H요 H홀 俗呼水札子又翠鳥亦曰鷓<상 8>”이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는 “項 L목 R항 總稱亦曰領<상 13>”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전자는 주석에 포함된 ‘翠鳥’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鷓’로도 쓸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후자는 ‘領’이 ‘項’과 의미가 같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유형은 의미에 따라 어떤 한자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때 ‘亦曰’ 다음의 X 또는 Y는 모두 한자 하나가 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4.3.에서 제시하는 여러 유형에서 볼 수 있는 “馱 L신H대H초 R시 俗呼實曰酸棗亦曰鼻涕團又曰山裏棗<상 6>”에서처럼 ‘亦曰’ 다음에 ‘鼻涕團’과 같이 한자어가 제시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4.2. 한자음 및 성조 관련 정보

미시 구조에서 한자음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한자음에는 성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비분절적인 것이므로 편의상 분절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한자음과는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한자음 정보 제시 유형

- ① 又音(40): 瀧 R늑H누H리 L상 又音L랑奔湍<상 3>/ 陂 L웅H덩H이 L피 蓄水爲陂又音坡不平也<상 3>/ 畛 L밭L두L들 L던 田間道又音진<상 4>/ 萑 R달 L환 似葦而小又音佳見<상 4>/ 咱 L나 L자 又音R잠又音匝<하 10> 등
- ② 音(15): 谷 R골 H국 又作峪音H옥<상 2>/ 萑 H췌H유H기 L데 又萑刈也又葑萑藥名音夷<상 5>/ 葑 L녀R밤 H덕 葑中薏味苦薏音憶<상 6>/ 薺 L나H시 R제 俗呼薺菜又薺萑L계H로H

12) 이것은 <동중본>에는 음훈이 “H췌H유H기 L이”로 실려 있다. 그런데 이곳의 ‘이’란 음은 붓 등으로 고쳐 놓은 음으로 보인다. 본래는 ‘L데’를 실어 놓은 듯하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동중본>에도 주석 속의 “音

기芻音你<상 7ㄴ>/ 蕒 L사H라L부L루 L미 一名苦芻俗呼苦蕒菜曲曲菜田菁菜音精<상 7ㄴ>/ 婢 R겨H집R종 R비 尊人之婢曰女使又曰梅香汎稱曰妮子妮音尼<상 17ㄱ>/ 儂 L즈L름 R회 卽駟儂俗稱牙子牙人駟音R장<중 2ㄱ> 등

③ 正音(11): 畦 L이H랑 L규 俗指菜田曰菜畦正音奚<상 4ㄱ>/ 菩 L도H랏 H길 正音L결<상 7ㄴ>/ 貓 R괴 L묘 正音毛<상 10ㄱ>/ 轅 H살 R료 正音老<중 13ㄱ>/ 餉 L이L바H돌 R향 野饋正音H상<하 5ㄴ> 등

④ 本音(2): 枳 L팅H즈 R기 俗呼醜橙樹本音止<상 5ㄴ>/ 爍 R데L틸 H잡 本音 H텃<하 6ㄴ>13)

⑤ 漢俗音(1): 簪 L빈L혀 L증 禮服用漢俗音L잔簪子<중 12ㄱ>

한자음에 관한 것 중에는 ‘① 又音’으로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것은 음훈을 제시하는 곳에 제시된 음과는 달리 또 다른 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표제자가 복수의 음을 지닌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又音’은 언문으로 제시되는 경우와 한자로 제시되는 경우로 나뉘는데, 첫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여덟 예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로 제되었다. 따라서 ‘又音X’의 형태로 제시된 ‘X’에 해당하는 ‘坡’, ‘佳’, ‘匪’ 등의 한자음을 알아야 하는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훈몽자회』에 ‘匪’은 실려 있지 않은 글자인 터라 ‘咱’의 又音은 『훈몽자회』 안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③ 正音’과 ‘④ 本音’과 ‘⑤ 漢俗音’ 역시 표제자가 지니고 있는 음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正音과 本音은 각각 올바른 음과 본래의 음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표제자의 음으로 제시된 것이 현실음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漢俗音은 세속에서 널리 쓰이는 음을 제시한 것인데 이때의 음은 조선에서 쓰이는 음이 아니고 漢語에서 쓰이는 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곳에 제시된 ‘簪L잔’은 漢語에서의 운미 /-m/ > /-n/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¹⁴⁾ 따라서 4.3.에서 다루게 될 ‘俗呼X’와 같이 한어에서 쓰이는 한자어 X와는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X音Y’ 형태로 제시된 것은 直音法과 같은 방식으로 한자음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주석 안에 제시된 한자의 음을 “蕒音憶<상 6ㄴ>”, “芻音你<상 7ㄴ>” 등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표제자에 해당하는 음을 제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곳에도 음다음에 한자로 음을 제시한 것과 언문으로 제시된 경우가 보이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소수로 두 예가 나타난다.

(16) 성조 정보 제시 유형

① 복수의 음훈 구분: 相 R직H상 H상 本平聲L서L르 L상<중 1ㄱ>/ 觀 L집 H관 又平聲L불L관見下卷<중 5ㄴ>/ 緞 H주H살 H작 又上聲音絞紵衣也吏語緞報L마H돌L오H다<중 9ㄱ>/ 種 L시L물 H종 俗稱種田 又上聲H씨R종俗稱撒種H씨L세H타<하 3ㄱ>/ 每 H물 L미 輩也又上聲常也 L니H슬 R미<하 11ㄱ> 등

② 又X聲Y

ㄱ. 平聲: 浪 H뭇H결 R랑 大波曰浪平聲滄浪水名<하 2ㄴ>/ 徼 R뎡 H교 邊也又邈卒曰遊徼又平聲徼幸<상 3ㄴ>/ 號 L일H홍 R호 又號今又召也又平聲號泣又大呼也<상 17ㄴ>/ 將 R장H슈 R장 又平聲<중 1ㄱ>/ 峒 L뵈R골 R동 俗稱山峒通作洞又平聲崆峒山名<하 2ㄱ> 등

ㄴ. 上聲: 洩 L오H좁 L수 又上聲水調粉麵<상 15ㄴ>/ 屏 L편L풍 L병 又上聲藩蔽也又去聲除去

夷”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적절히 설명되기가 어렵다.

13) <동중본>에는 “R데H틸 H잡”으로만 주기되어 있어 本音이 실려 있지 않다.

14) 이런 기술은 한어 음운사에 明代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어음의 변화로 운미 /-m/ > /-n/의 변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지어 볼 때, 한어에서 이런 변화가 확산되어 점차 한자음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 也<중 7ㄴ>/ 種 L시L물 H중 俗稱種田 又上聲H씨R중俗稱撒種H씨L씨H타<하 3ㄱ>/
上 R마R되 R샹 又上聲升也<하 15ㄱ> 등
- ㄷ. 去聲: 夏 L녀H름 L하 又去聲大也又中國曰夏<상 1ㄱ>/ 雨 H비 R우 又去聲雨雪自下曰雨<상 1ㄴ>/ 蔓 L씻L무L수 L만 又去聲藤蔓L녀H출<상 7ㄴ>/ 枕 H벼H개 R침 又去聲以首據物<중 6ㄴ>/ 屏 L편L풍 L병 又上聲藩蔽也又去聲除去也<중 7ㄴ>
- ㄹ. 入聲: 霓 H므L지H게 L예 雄曰虹雌曰霓又入聲R열<상 1ㄴ>/ 塞 R꺾 H시 邊界又入聲防塞<상 3ㄴ>/ 覺 H셜 R교 又入聲知也<상 15ㄴ>/ 疔 L황R닭 R단 又俗稱疔疔LㅁL입入聲<중 16ㄱ> 등

성조에 관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①과 같이 성조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것을 나타낸 복수의 음훈을 언문으로 모두 표시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②와 같이 ‘又X聲Y’의 형식으로 Y에 X의 성조를 지닐 때의 훈을 제시하거나 한자를 제시하여 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절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 음에 관한 정보는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 한자어 사용, 의미, 사용 범위, 사용 분야 관련 정보

주석에는 표제어가 포함된 한자어로 어떤 것이 쓰이며 이와 관련을 맺는 한자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자어에 관한 정보는 ‘X名’, ‘X曰’, ‘X呼’, ‘X謂’, ‘X稱’, ‘X云’, ‘X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7) ‘X名’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¹⁵⁾

- ① 一名(31): 薊 H턱H톡 H톡 薊薊一名羊薊薊又L진L들L위曰山薊薊<상 4ㄱ>/ 莞 R요H향 L관 莞蒲一名葱蒲俗呼水葱又呼織席草曰莞<상 4ㄱ>/ 蓀 L부H들 L손 一名菖草以石菖蒲而?無脊<상 4ㄴ>/ 蔚 L눈L비H얏 H울 一名益母方書名芫蔚佑命鬱臭草<상 5ㄱ>/ 鳩 H버H국R새 L시 鳩鳩一名戴勝一名搏黍<상 9ㄱ> 등
- ② 又名(4): 荊 L가H시 L형 又名紫荊又荊條L댓L뽕L리<상 5ㄴ>/ 榎 HㄷH래 R연 卽獼猴桃漢呼榎棗通作軟又名籐梨<상 6ㄴ>/ 蝮 L도L로H래 L고 俗呼蝮蝮又江蝮又呼土狗又名臘蝮<상 12ㄱ>
※ 俗又名(1): 鵠 H버H국R새 H국 俗又名郭公鳥詩注鵠鵠<상 9ㄴ>
- ③ 亦名(2): 萱 L님LㄴL물 L훤 亦名鹿葱俗呼黃花菜又忘憂草<상 5ㄱ>/ 蠨 H바HㄷH리 L웅 亦名蠨蠨俗呼蠨蠨兒<상 12ㄴ>
- ④ 別名(1): 溲 L즌H퍼R리 H박 溲溲皆湖泊別名<상 3ㄴ>
- ⑤ 方書名(1): 蔚 L눈L비H얏 H울 一名益母方書名芫蔚佑命鬱臭草<상 5ㄱ>

‘X名’을 이용하여 한자어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이때 한자어는 표제자가 지니는 의미와 지시 대상이 같은 것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① 一名’이 가장 많고 ‘② 又名’, ‘③ 亦名’ 등이 일부 관찰된다. 이렇게 하여 제시된 한자어에는 표제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羊薊薊’, ‘紫荊’ 등도 있고 그렇지 않은 ‘葱蒲’, ‘菖草’, ‘益母’ 등도 있다. 따라서 각 유형이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는 표제어와 한자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형 가운데에는 ①에서 보듯이 “鳩鳩一名戴勝一名搏黍<상 9ㄱ>”과 같이 한 표제자에

15) ‘X名’으로 제시된 것 중에 ‘初名’을 지닌 “葦 H글 R위 大葦也初名葦稍大爲蘆長成爲俗呼葦子草<상 4ㄴ>”이 있다. 이것은 주석의 내용을 보면 ‘初名葦’은 ‘갈대’가 어릴 때의 이름을 ‘葦’라고 하며 이것이 점점 자라면서 커지면 ‘蘆’가 되고 장성하면 흔히 ‘葦子草’라 부르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말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X名’의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해 복수의 한자어가 중복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래에서 살필 ‘X曰’, ‘X呼’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잇따라 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미시 구조를 통해서, 최세진은 학습자가 표제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한자어를 풍부히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⑤의 경우와 같이 “一名益母方書名芫蔚佑命鬱臭草<상 5>”과 같이 ‘益母’와는 달리 ‘芫蔚’과 같이 의학 또는 약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시하여 전문 분야에서의 용어의 쓰임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범례」에서 의가의 병명 또는 약명의 제시와 관련한 기술을 한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예이다. 이처럼 최세진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전문 분야의 어휘를 수록하여 이를 표제자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중인 계층의 한자와 한문 이해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8) ‘X曰’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又曰(44): 風 LㅂLㅅ L풍 又俗呼狂者曰風子又曰風漢<상 1>/ 凍 LㅅL나H기 R동 俗稱驟雨又曰過路雨<상 2>/ 巖 LㅁH회 L암 俗稱巖頭又曰石硤<상 2>/ 蓮 L런 L런 芙蕖實也又曰蓮子L송이曰蓮蓬蓮房<상 4> 등
- ② 亦曰(21): 菖 L청L포 L창 又L부H들 亦曰菖蒲<상 4>/ 槭 L신H대H초 R시 俗呼實曰酸棗亦曰鼻涕團又曰山裏棗<상 6> 등
- ③ 漢人亦曰(1): 碇 L단 H덩 漢人亦曰鐵猫亦作碇<중 12>
- ④ 方書曰(1): 藍 L족 L남 俗呼小藍方書云蓼藍又L청L되曰大藍方書曰板藍<상 5>

이와 같은 ‘X曰’을 이용해서는 표제자와 관련한 한자어의 사용 양상 및 이들 한자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다. ‘X曰’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한자어가 표제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인지는 표제자와의 거리와 미시 구조에서의 위치와 관련된다.

이 가운데에서 ‘③ 漢人亦曰’은 “漢人亦曰鐵猫亦作碇<중 12>”에서 보듯이 표제자 ‘碇’과 관련하여 중국 사람들은 ‘鐵猫[쇠로 만든 닻]’이라는 한자어를 또한 쓰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뒤에 제시된 ‘碇’은 표제자인 ‘碇’과 음훈이 같은 것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1음절 한자어로 ‘碇’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碇’이 표제자 ‘碇’과 통용 관계에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중의적이다.¹⁶⁾

그리고 이곳에도 (17)과 같이 ‘④ 方書曰’을 통하여 “板藍<상5>”이라는 한자어가 의학 분야에서는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또한 「범례」에 제시한 기술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예가 된다.

(19) ‘X呼’를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俗呼(582): 渦 R뉘H누H리 L와 水回俗呼旋渦水<상 3>/ 洋 LㅁH다 L양 俗呼海洋凡物盛多皆曰洋洋盛貌<상 3>/ 路 H길 R로 俗呼路子官路<상 3>/ 餛 L상L화 L투 俗呼饅頭通作頭俗呼小者曰饅頭<중 10> 등
- ② 又呼(64): 藎 L런L곳 L거 芙蓉荷花又呼芙蓉<상 4>/ 芫 R요H향 L관 芫蒲一名葱蒲俗呼水葱又呼織席草曰芫<상 4>/ 蕪 L눈L비H얏 L되 又呼地麻<상 5>/ 菠 L시L근R척 L롱 俗呼菠蔞菜又呼赤根菜又呼蔞菜<상 8> 등
- ③ 俗又呼(8): 蠶 H어H저H귀 R경 俗又呼白麻<상 4>/ 躄 L변H두 L변 白躄豆黑躄豆俗又呼泔籬豆<상 7> 등

16) 실제 ‘碇’은 ‘碇’과 異體字 관계에 있는 것으로 『集韻』에는 ‘碇’에 대해 “同碇”과 같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 ④ 亦呼(7): 潢 L웅H덩H이 L황 洿池又天河亦呼銀河<상 3ㄱ>/ 翠 H쇠R새 R취 俗呼翠雀亦呼翡翠 <상 9ㄴ> 등
- ⑤ 或呼(6): 萑 L눈L비H얇 L츄 或呼野天麻又音桓見上<상 5ㄱ>/ 荏 L늪H깨 R심 或呼蘇子其油曰重油又H츄H깨曰白荏又曰脂麻<상 7ㄱ> 등
- ⑥ 又俗呼(3): 風 L벼L롬 L풍 又俗呼狂者曰風子又曰風漢<상 1ㄴ>/ 韃 L보L션 H말 又俗呼L휘L청攣 韃<중 11ㄴ>/ 穀 R날 H곡 百穀總名五穀九穀又俗呼穀子L조亦作穀(※좌변 아래가 采)<하 2ㄱ>
- ⑦ 俗拜呼(1): 兄 L뎡 L형 俗拜呼兄弟曰弟兄<상 16ㄴ>
- ⑧ 河北呼(1): 殮 H물L믄H밥 L손 水和飯又夕食又河北呼食曰殮<중 10ㄱ>

‘X呼’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한자어와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는 여러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한자어와 관련을 맺는 경우이다. 특히 ‘① 俗呼’ 형태로 제시된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표제어가 포함된 한자어 사용 양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처럼 표제자가 포함된 한자어 사용 양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② 又呼’, ‘④ 亦呼’, ‘⑤ 或呼’와는 차이를 보인다.

‘俗呼’를 통해 제시된 한자어는 국어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국어 화자들의 이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그렇지만 「범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漢語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어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② 俗呼’를 지닌 것들에는 ‘③ 俗又呼’와 ‘⑥ 又俗呼’가 또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연구해 보아야 할 대상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又俗呼L휘L청攣韃<중 11ㄴ>”과 같이 한어계 외래어를 한글을 이용하여 표시한 경우도 보인다는 점이다.

‘⑧ 俗拜呼’의 경우는 주로 중국에서의 언어 예절 또는 언어 사용상의 특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兄弟’를 ‘弟兄’으로 어순을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겸손함을 표시하는 한자어 용법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타당한 해석이라면 이것은 역관 등과 같이 중국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X謂’를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俗謂(11): 江 LㄴH롬 L강 今俗謂川之大家皆曰江又水名<상 2ㄴ>/ 站 H역 R참 俗呼水站馬驛亦曰站又俗謂立曰站亦作正\$立<중 5ㄱ>/ 筵 L뎡 L연 俗謂宴席官話稱筵<중 6ㄴ>/ 植 L시L물 H식 又俗謂材木曰木植<하 1ㄴ> 등
- ② 今謂(2): 稅 H대L공 H절 梁上短柱卽侏儒柱今謂屋山<중 4ㄱ>/ 糧 L량H식 L량 穀食今謂納稅曰上糧納戶曰糧長<중 10ㄴ> 등
- ③ 或謂(1): 蕪 R달 R란 葦屬或謂之蕪<상 4ㄴ>
- ④ 楚謂(1): 虎 L갈R웁 R호 俗呼老虎又呼大虫楚謂於菟<상 9ㄴ>
- ⑤ 齊魯謂(1): 蠮 L머L구H리 H곡 齊魯謂蛙爲蠮<상 11ㄴ>
- ⑥ 所謂(1): 黥 L피L조H술 L경 刺字在面以墨漬染所謂墨刑<하 13ㄱ>

‘X謂’를 이용하여 X 자리에 오는 ‘俗’, ‘今’, ‘或’ 등에서 따라서 각각 시중에 널리, 현재, 이따금처럼 사용 빈도나 사용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 중 ‘俗’, ‘今’은 표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거나 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或’은 말뜻에서와 같이 표제자와는 다른 한자가 제시되어 있다. ‘⑥ 所謂’도 역시 세속에서의 일반적인 한자어 사용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표지이다.

‘④ 楚謂’와 ‘⑤ 齊魯謂’는 역사적 근거에 관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26)에서 기술하겠다.

(21) ‘X稱’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俗稱(219): 霄 L하H늘 L쇼 俗稱靑霄又靄也<상 1ㄱ>/ 晦 H그H믄 R회 俗稱月盡又頭又大盡小盡<상 1

- ㄴ>/ 刻 R외H폴 H극 俗稱時刻晝夜百刻時分八刻子午各加二刻又雕刻<상 1ㄴ>/ 峒 L뫼R골 R둥 俗稱山峒通作洞又平聲峒峒山名<상 2ㄴ> 등
- ② 汎稱(22): 澤 H뫼 H딕 汎稱<상 3ㄴ>/ 疇 L이H랑 L듀 汎稱<상 4ㄴ>/ 娘 L겨H집 L냥 汎稱又伯父之妻曰伯娘又伯母<상 16ㄴ> 등
- ③ 總稱(14): 項 L목 R항 總稱亦曰領<상 13ㄴ>/ 肩 L엇H게 L견 總稱俗呼肩膀肩胛<상 13ㄴ>/ 奴 L남L진R종 L노 俗呼奴材又駒男駒女又總稱駒口<상 17ㄴ> 등
- ④ 又稱(13): 芻 L비H를 R현 俗呼芻菜又稱芻荷又L쇠L비H름曰馬齒芻<상 7ㄴ>/ 頰 L목 H뵈 俗呼頰項又稱頰子<상 13ㄴ>/ 心 L념L통 L심 又稱 LㅁL슴 L심 心腸爲南主夏火主藏神<상 14ㄴ>/ 鼓 H뿔 H고 又稱H비L거H슬皆曰鼓兒<중 14ㄴ> 등
- ⑤ 古稱(2): 伴 R별 R반 俗呼火伴L동H모古稱伴當금稱舍人<중 2ㄴ>/ 曠 R거R긋 R안 僞物R조L것 古稱廢帝爲曠天子<하 9ㄴ>
- ⑥ 自稱(2): 媽 H할H미 R마 庶人老自稱尊老曰媽<상 16ㄴ>/ 家 L집 L가 俗呼家當自稱寒家寒居<중 3ㄴ>
- ⑦ 或稱(1): 霖 L오H란H비 L림 俗稱淫霖壓之也或稱甘霖喜之也<상 2ㄴ>
- ⑧ 俗又稱(1): 産 L나L홀 R산 俗又稱半山L아H기H디H다<상 17ㄴ>
- ⑨ 又泛稱(1): 婢 R겨H집R종 R비 尊人之婢曰女使又曰梅香汎稱曰妮子妮音尼<상 17ㄴ>
- ⑩ 今稱(1): 校 H학L당 R교 夏學名今稱國子監鄉學曰泮宮汎稱學堂又校尉<상 17ㄴ>
- ⑪ 俗人稱(1): 黧 R사H마H피 R염 俗人稱黑子<중 16ㄴ>
- ⑫ 俗戲稱(1): 窠 H깃 L과 鳥巢在穴曰窠又俗戲稱娼妓曰俊窠子<하 4ㄴ>
- ⑬ 互稱(1): 牡 H수 R모 禽曰雌雄獸曰牝牡或禽獸互稱<하 3ㄴ>

‘X稱’으로 된 것은 ‘X呼’로 제시된 것 다음으로 많은 예를 보이는 유형이다. 이 중 사용례가 많은 것으로 ‘① 俗稱’, ‘② 汎稱’, ‘③ 總稱’, ‘④ 又稱’ 등이 있는데, 이들은 표제어 자체에 관한 풀이를 한 것과 표제어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먼저 표제어 자체에 관한 풀이를 한 것은 ‘② 汎稱’, ‘③ 總稱’이 해당한다. 이것은 표제자가 지닌 의미적 범위 등을 표시한 것이다. ‘⑨ 又泛稱’도 이에 바탕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① 俗稱’은 세속에서의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 또는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④ 又稱’은 표제어와 관련한 또 다른 한자어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⑧ 俗又稱’, ‘⑩ 俗人稱’, ‘⑤ 古稱’, ‘⑩ 今稱’, ‘⑫ 俗戲稱’은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⑥ 自稱’과 ‘⑬ 互稱’은 제시된 정보를 통하여 파악하건대 표제자가 포함되는 한자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인지에 관한 맥락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에 대한 정밀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2) ‘X云’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一云(9): 斲 H출L콩 L완 一云 L강L남L콩 L완<상 7ㄴ>/ 犀 H뫼H쇼 L셔 似水牛一云似豕蹄有三甲頭如馬水犀三角山犀二角<상 10ㄴ>/ 隅 L엇H게 R우 一云肩頭或云肩骨<상 13ㄴ> 등
- ② 或云(3): 稷 H피 H직 俗呼稷子苗穗似蘆或云黍也或云卽擦也<상 7ㄴ>/ 隅 L엇H게 R우 一云肩頭或云肩骨<상 13ㄴ>
- ③ 方文云(2): 枿 LㅁL프H레 H즙 方文云秦皮俗呼苦裏木<상 6ㄴ>17/ 瘡 L등L고H덜 H덜 方文云強瘡<중 16ㄴ>
- ④ 又云(1): 伯 L뫼L아L자H비 H뵈 俗呼伯父又云伯伯又弟之妻呼夫之兄曰小伯<상 16ㄴ>
- ⑤ 方書云(1): 藍 L족 L남 俗呼小藍方書云蓼藍又L청L되曰大藍方書曰板藍<상 5ㄴ>
- ⑥ 醫方云(1): 髑 L머H릿L되L골 L루 醫方云天靈蓋俗稱髑髏骨<상 14ㄴ>

이렇게 ‘X云’으로 제시된 것은 ‘① 一云’으로 제시된 것이 가장 많고, ‘② 或云’, ‘③ 方文云’ 등의

17) <동중본>에는 음훈이 “LㅁL프H레 H진”으로 실려 있어서 음이 다른데 ‘진’은 한어 근대음에서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순서로 나타난다. 이들은 복수 훈의 제시, 표제어와 관련한 한자어의 사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처럼 ‘云’으로 제시된 것 가운데에서는 ‘③ 方文云’, ‘⑤ 方書云’, ‘⑥ 醫方云’과 같이 의서 내지 약학과와 관련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범례」에서 제시한 기술과의 상관성을 생각해 볼만 예들인데, 醫員들은 병명, 신체명, 약명을 두루 알아야 하는 전문인들로서 관련되는 한문으로 된 서적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藍 L족 L남 俗呼小藍方書云蓼藍<상 5>”에서 ‘俗呼小藍’이 보이는 것은 俗呼로 제시된 것이 한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쪽에서 유통되는 약재를 의원들이 알아야 함을 고려하여 반영해 놓은 정보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3) ‘X作’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書作(3): 虬 L조L롱 L로 俗呼瓠瓠又書作胡盧葫蘆<상 4>/ 蝥 R갈H의 L모 俗呼蟹蝥書作斑猫 <상 12> ※ 俗書作(1): 蝥 L귀L며H느H리 H부 俗書作鼠婦<상 11>
- ② 本作(2): 鮓 L복 L돈 俗呼鮓魚又呼鮓字本作河豚又L물R아H치曰江豚<상 11>/ 衍 H녀H계 R원 俗稱衍衍本作行院北京南北西三院有妓其夫皆樂工<중 2>
- ③ 正作(1): 臄 H슬H질 L표 馬肥也正作臄脂臄肥也<하 4>

‘X作’의 형태로 제시된 정보는 한자어의 사용이나 한자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① 書作’은 내용을 보면 “俗呼”로 제시된 정보와 대를 이루고 있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로 보건대 구어에서 유통되는 것과는 달리 문어상으로는 ‘書作’ 이후의 것을 사용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① 書作’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② 本作’은 앞에 제시된 ‘俗呼’ 또는 ‘俗稱’에서 제시된 한자어와 달리 원래 쓰였던 한자어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 또한 뒤에 제시된 정보가 이전보다 쓰이는 경우는 줄었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는 어휘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③ 正作’의 경우는 ‘臄’는 ‘臄’로 쓰는 것이 올바름을 표시한 것으로 한자 사용에 관한 규범적인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臄’는 『廣韻』에 수록된 한자이나 ‘臄’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운서에서도 이 한자가 실린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¹⁸⁾ 따라서 ‘臄’가 正字로 간주되었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4) 사람들의 사용 양상 관련 정보 제시 유형

- ① 俗訛(1): 柚 L불L훗L들L겉 H돌 楸柚木頭俗訛爲骨董<하 3>
- ② 泛言(1): 射 H찰 H샤 泛言則去聲射物則入聲<하 5>
- ③ 吏語(3): 緘 H주H살 H작 又上聲音皎緘衣也吏語緘報L마H뎡L오H다<중 9>/ 驅 R물 L구 策馬求 行又吏語奴婢曰驅口<하 4>/ 奪 L아L슬 H탈 又吏語定奪謂裁決之意<하 11>
- ④ 今用(1)[현재의 쓰임]: 毛 L터H럭 L모 毫毛又老也又河朔謂無曰毛今用沒字
- ⑤ 時用(1)[늘 사용]: 鍋 L가H마 L과 漢俗時用
- ⑥ 俗釋(1)[세속의 의미 사용]: 義 L마H줄 R의 又本國俗釋 H클R의 行事得宜曰義又節行也義士

18) 『康熙字典』(1716)에 따르면 ‘臄’에 대해서는 “【廣韻】甫驕切【集韻】【韻會】悲嬌切【正韻】遙切，音鑣。【廣韻】脂臄，肥貌。【六書放】肥盛也。”의 정보가 실려 있다. 그러나 ‘臄’에 관해서는 “【篇海】同臄。又地名。今雲南有祿臄巡檢司。”과 같은 정보가 실려 있는 정도이다. 또한 이곳의 정보에서 볼 수 있듯이 ‘臄’는 지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 ‘肥’의 의미로만 온전히 쓰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臄’가 실리게 된 것은 언중들이 획수가 간단한 이 글자를 일상적으로 쓰는 빈도가 높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사람들이 표제자를 사용하는 양상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한 것들이 일부 보인다. 여기에서 ‘① 俗語’은 흔히 보이는 잘못된 사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② 泛言’은 일반적인 사용 양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③ 吏語’는 吏胥들의 한자어 사용에 관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④ 今用’은 현재의 쓰임을 제시한 것이고, ‘⑤ 時用’은 종종 쓰임을 제시한 것이며, ‘⑥ 俗釋’은 세속에서의 의미 사용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서 ‘③ 吏語’는 최세진이 하위 관리에 해당하는 吏胥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서 醫員들의 한자 및 한자어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정보 제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25) 사용 지역·계층 관련 정보 제시 유형 유형

- ① 本國(6): 槩 R뒋L췌 R염 本國俗呼L꾸H지L나L모<상 5>/ 瀾 H뭇L둑 L계 本國又呼H듬L부H기 L계<상 9>/ 棚 R가H개 L봉 如本國遮檻又山臺曰籠棚<중 3>/ 義 L마H줄 R의 又本國俗釋 H글R의 行事得宜曰義又節行也義士<하 11>
- ② 國語(5): 婆 H박L하 R과 國語又呼L영L칭<상 8>/ 姑 L아H즈H미 L고 父之姉妹曰姑姑又姑娘又 夫之母姑國語H할H미 L고<하 16>/ 寢 H몸H채 R침 正寢又臥也國語L잘H침<중 3>/ 門 L문 L문 俗呼門子在外爲門國語L오L래L문<중 4>/ 舵 L밧 H타 國語又呼H치亦作柁<중 12>
- ③ 國音(2)/本國音(1): 厠 R뒋H간 H치~R뒋H간 H즈 國音H측俗呼厠屋又茅廁又間雜也<중 3>/ 鎌 H날 L럼 國音L겸俗呼鎌刀<중 8>/ 貉 L우L습 H학 本國音H락俗呼山獺又呼睡貉子<상 10>
- ④ 漢人(2): 碇 L단 H덩 漢人亦曰鐵猫亦作疇<중 12>/ 革+(共\$패) L불L뭇H골 R패 俗稱風箱漢人行 爐以皮爲之<하 7>
- ⑤ 中呼(2): 櫟 H뎡H갈L나L모 H륙 關中呼柞爲櫟<상 6>/ 鶯 L가H마H오H디 L즈 俗呼水老鴉亦呼鸚鵡 峽中呼造塊<상 9>
- ⑥ 北方(1): 箒 H뻬 L패 大桴北方呼箒<중 12>
- ⑦ 南方(1): 筏 H뻬 H벌 南方呼筏<중 12>
- ⑧ 河北(1): 飧 H믈L몬H밥 L손 水和飯又夕食又河北呼食曰飧<중 10>
- ⑨ 官話稱(1): 筵 L돛 L연 俗謂宴席官話稱筵<중 6>

(25)는 사용 지역 또는 사용 계층과 관련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① 本國’과 관련해서는 ‘本國俗呼’ 또는 ‘本國又呼’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표적으로 ‘俗呼’ 또는 ‘又呼’가 제시된 것과는 성격이 같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⑥ 北方’, ‘⑦ 南方’, ‘⑧ 河北’은 중국의 지역에 따른 표제어와 관련된 사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⑤ 中呼’은 예를 보면 “關中呼”, “峽中呼”와 같은 정보 제시가 보이는데 이것은 각각 ‘關 지역에서’, ‘峽 지역에서’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④ 漢人’는 중국인들이 일반적인 쓰임을, ‘⑨ 官話稱’은 관화에서의 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최세진이 중국에서의 지역적, 계층적 한자 및 한자어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정도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 애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훈몽자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26) 유래 및 기원 시대 표시를 통한 정보 제시 유형

- ① 楚人(2)/楚(1): 豨 H돋 H희 楚人呼豬曰豨<상 10>/ 黽(좌변의 ‘几→子’) H젓L며L길 R뉴 楚人謂 乳曰黽<상 17>/ 虎 L갈R웁 R호 俗呼老虎又呼大虫楚謂於菟<상 9>
- ② 齊魯(1): 蠨 L며L구H리 H국 齊魯謂蛙爲蠨<상 11>
- ③ 秦(2): 王 R님H굽 L왕 三代天子稱王自秦以後列國稱王又去聲王天下<중 1>/ 圜 H옥 R어 拘罪人 舍秦曰囹圄<중 5>
- ④ 周(2): 序 H혹L당 R서 周學名又次序<상 17>/ 宰 R직H상 R직 周官冢宰又制也<중 1>

- ⑤ 商(1): 庠 HᄃᆞL당 L상 商學名<상 17ㄴ>
 ⑥ 夏(1): 校 HᄃᆞL당 R교 夏學名今稱國子監鄉學曰泮宮汎稱學堂又校尉<상 17ㄴ>
 ⑦ 漢書(1): 埃 Rᄃᆞ R돌 漢書曲埃卽烟囪也<중 5ㄴ>
 ⑧ 禮記(1): 禮 HᄃᆞH수 H례 又H절Hᄃᆞ書名禮記周禮儀禮<상 18ㄱ>
 ⑨ 周禮(1): 禮 HᄃᆞH수 H례 又H절Hᄃᆞ書名禮記周禮儀禮<상 18ㄱ>
 ⑩ 儀禮(1): 禮 HᄃᆞH수 H례 又H절Hᄃᆞ書名禮記周禮儀禮<상 18ㄱ>
 ⑪ 毛詩(1): 詩 HᄃᆞH월 L시 毛詩俗稱詩經又詩句<상 17ㄴ>
 ⑫ 尙書(1): 書 HᄃᆞH월 L셔 尙書俗稱書經又寫字亦曰書字<상 17ㄴ>
 ⑬ 詩經(1): 詩 HᄃᆞH월 L시 毛詩俗稱詩經又詩句<상 17ㄴ>
 ⑭ 書經(1): 書 HᄃᆞH월 L셔 尙書俗稱書經又寫字亦曰書字<상 17ㄴ>
 ⑮ 文宗御釋(2): 藻 Hᄃᆞ R조 海藻又水草文宗御釋L말R왓R조初學字會同<상 5ㄱ>/ 蘋 L머L구HᄃᆞH밥
 L빙 大萍也沉曰蘋浮曰藻文宗御釋及字會L말R왓 L빈<상 5ㄱ>
 ⑯ 初學字會(4): 藻 Hᄃᆞ R조 海藻又水草文宗御釋L말R왓R조初學字會同<상 5ㄱ>/ 傭 L삭L바Hᄃᆞ L
 용 役賃謂顧作者初學字會云L다HᄃᆞL사R리 L용<중 1ㄴ>/ 雇 L삭L바Hᄃᆞ R고 客作者初學字會云
 L다RᄃᆞL사H리 R고<중 1ㄴ>/ 蒲 L숯 L포 初學字會樛蒲矣<하 10ㄱ>
 ⑰ 譯語指南(1): 杼 L복 R더 譯語指南云LᄃᆞHᄃᆞL집<중 9ㄱ>

(26)의 예들은 표제자에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를 표시한 것들이다. 이에선 중국의 왕조, 典籍에 해당하는 것이 그 수효는 적어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에 관한 것도 ‘⑮ 文宗御釋’과 ‘⑯ 初學字會’, ‘⑰ 譯語指南’에 관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해당 정보의 출처에 관한 것은 “虎 L갈R웁 R호 俗呼老虎又呼大虫楚謂於菟<상 9ㄴ>”와 같이 ‘楚謂’로 표시된 것이 ‘菟’를 『集韻』에서 “同都切, 音徒。楚人謂虎爲於菟。”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 관한 정보의 출처도 이와 같이 전적을 검토하여 찾아본다면 『훈몽자회』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나오며

이 글은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이 학습서를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각 부문에 수록된 한자 및 관련 정보를 살펴보아, 『훈몽자회』를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의미, 음, 자형, 한자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여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引」, 「凡例」 등을 비롯한 전체 구성을 살펴보고 각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에서 『훈몽자회』의 구조 이해와 관련되는 기술을 이해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수록자를 이해하여 보았다.

「引」을 보면 『훈몽자회』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학습 대상으로 설정된 대상은 아동뿐만 아니라 사리에 어두운 사람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 『훈몽자회』가 『천자』와 『유합』의 학습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글자와 사물 모두를 이해함으로써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경서와 사서의 여러 책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에 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범례」에서는 『훈몽자회』의 구조, 편찬 목적, 활용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4항과 제6항에는 표제자의 선정과 관련한 거시 구조 차원의 기술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

하여 實字 중심의 자서 편찬이 이루어진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시 구조와 관련한 기술은 제3항, 제5항, 제7항, 제8항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이곳의 기술로부터 『훈몽자회』에서는 다의어의 양상을 충실히 반영하되, 특별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우선하는 형태로 의미를 제시하고 다의어의 경우 『훈몽자회』에서 제시한 뜻이 표제자가 지닌 일상적 의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자음의 처리는 규범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漢語에서 쓰이는 한자어라도 조선에서 유통되었을 법하거나 한어를 배우는 사람을 위한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모두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어 가운데 허자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복합어와 관련한 표제자 선정과 한자어 제시에 관한 기술이 되어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 구조를 보면 「상권」과 「중권」은 實字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권」은 半實半虛字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권」과 「중권」의 實字는 器皿 > 身體 > 地理 > 人類 > 昆蟲 > 天倫·宮宅 > 禽鳥·官衙·服飾 > 食饌·疾病 > 天文 > 草卉·蔬菜·獸畜·軍裝 > 樹木·菓實·鱗介 > 儒學·書式·舟船·金寶 > 禾穀·車輿·鞍具·彩色·布帛·喪葬 > 花品·音樂의 순으로 표제자의 개수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하권」의 半實半虛字도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人類에 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花品·草卉·樹木·菓實·禾穀·蔬菜 > 食饌 > 器皿 > 服飾 > 宮宅 등이 상당한 수준에서 비슷한 정도로 표제자가 실려 있다. 따라서 표제자가 어떤 부문에 속하는 것일지를 통하여 표제자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표제자를 훈의 양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상권」과 「중권」은 불변어의 비중이 각각 95%와 93% 이상으로 압도적이거나 「하권」은 31% 정도에 그쳐서 「하권」은 가변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상권」과 「중권」은 명사나 부사 중심의 구성을 이룬 반면에 「하권」은 동사나 형용사 중심의 구성을 이룬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로써 판단하건대 한문 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먼저 학습한 후에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학습하는 형태로 『훈몽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권」에서 人類 부문의 표제자가 많이 수록된 것과 관련지어 보면 그만큼 인간과 관련한 서술 동사 또는 형용사가 많음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훈몽자회』의 표제자를 보면 부문명으로 제시된 한자 가운데에 理, 花, 品, 草, 卉, 樹, 木, 菓, 禾, 穀, 蔬, 菜, 禽, 鳥, 獸, 鱗, 介, 昆, 蟲, 學, 式, 人, 器, 皿, 服, 飾, 裝, 樂, 語는 「하권」의 표제자로 올라 있으며, 倫, 類, 宅, 彩, 色, 音, 喪, 雜은 아예 표제자로 올라 있지도 않다. 이는 체계적인 학습을 염두에 둔 학습서로서는 흠결이 되나 도리어 『훈몽자회』의 표제어 선정과 관련한 원칙과 연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특징이다. 이처럼 부문명과 관련되는 것은 아예 주석을 제시하지 않거나 ‘總名’, ‘皆’ 등과 같은 말을 써서 범주적 개념을 제시하는 넓은 지시 대상을 가짐을 표시하여 그 의미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띈다.

미시 구조에 관한 분석은 ① 표제자 및 한자 사이의 관련성 정보, ② 한자음 및 성조 관련 정보, ③ 한자어 사용, 의미, 사용 범위, 사용 분야 관련 정보를 다룬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정보가 제시되는 데에는 특정 표지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①과 관련해서는 ‘X作’, ‘與X同’, ‘X……亦曰X’, ‘X……亦曰Y’가 쓰이고 있으며, ②와 관련해서는 ‘又音’, ‘音’, ‘正音’, ‘本音’, ‘漢俗音’, ‘又X聲Y’ 등이 쓰이고 있으며, ③과 관련해서는 ‘X名’, ‘X曰’, ‘X呼’, ‘X謂’, ‘X稱’, ‘X云’, ‘X作’ 등과 관련한 표지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표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주석을 통해 제시하는 정보가 어떤 것과 관련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표제자와 관련되는 것인지 주석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자에 관련되는 정보인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주석의 내용에 맞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미시 구조를 통해서 『훈몽자회』에서는 한자의 자형, 음, 의미, 한자로 이루어지는 한자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쓰이는 한자어와 한자음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중국어 학습과 중국에서의 어휘 수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本國’, ‘國語’, ‘國音’, ‘文宗御釋’, ‘初學字會’ 등을 통하여 국어 내에서의 특징적인 사용 양상이나 이전 문헌에서의 기술 양상과 관련한 것도 제시하고 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北方’, ‘河北’과 같은 말로써 중국의 지방에서 보이는 사용 양상도 제시하고 있어서 중국 전문가로서 최세진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더불어 중국에서의 유래 및 또는 경전을 읽는 것과의 관련한 정보를 ‘周’, ‘尙書’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미시 구조를 보면 의학서, 약학서, 서식, 吏語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시된 상당히 눈에 띈다. 이것은 전문 분야의 쓰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인데, 그만큼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분야의 실용적인 정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俗呼’ 등의 표지로 제시되는 중국 관련 기술과 관련하여 이해를 하여 볼 수 있다. 중국 관련 기술은 漢語를 배우고 구사해야 하는 역관들이나 중국의 문물을 알아야 하는 전문인들에게 요긴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종합하여 본다면 최세진은 주로 중인 계층이 담당하는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지식을 『훈몽자회』를 통하여 제시해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하여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아직은 초보적인 것이고 기존의 연구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거친 것이다. 그러나 한바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밀함을 기하고 인접 분야와의 접합을 시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훈몽자회』의 면모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강식진(1999), 「최세진의 번역 활동」,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30-54.
- 姜信沆(1975), 「15世紀文獻의 現實漢字音에 對하여: 訓蒙字會音과의 比較를 通하여」, 『東洋學國際學術會議 論文集』 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01-132.
- 姜信沆(1978), 『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者』, 탐출판사.
- 강신항(1999), 「최세진의 음운 연구」,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55-68.
- 金希珍(1999), 「최세진의 저서 해설」,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69-83.
- 權仁瀚(2006), 「중세국어 한자음」, 『국어사와 한자음』, 박이정, 57-94.
- 權仁瀚(2009),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개정판), 제이앤씨.
- 金根洙(1979), 『訓蒙字會研究』, 청록출판사.
- 金武林(1999), 「崔世珍의 漢語研究」,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31회 학술대회 발표회, 27-43.
- 南廣祐(1969/1973), 『朝鮮(李朝)漢字音研究-壬亂前 現實漢字音을 중심으로-』, 一潮閣.
- 朴炳采(1971), 「朝鮮朝 初期 國語漢字音의 聲調攷-訓蒙字會의 傳承字音을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14-1, 고려대 아시아문제 연구소, 41-58.
- 朴炳采(1972), 「《訓蒙字會》의 異本間 異聲調 攷」, 『국어국문학』 55-56-57, 국어국문학회, 239-254.
- 朴秉喆(1997), 『韓國語 訓釋 語彙 研究』, 이회.
- 方鍾鉉(1954), 「訓蒙字會攷」, 『東方學誌』 1, 연세대 국학연구원, 33-117.
- 辛漢承(1985), 「十五世紀 國語의 現實聲調에 對하여-訓蒙字會 叡山本 東中本 旁點比較와 관련하여-」, 『漢城語文學』 4, 한성대, 49-60.
- 安秉禧(1999),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31회 학술대회 발표회, 5-13.
- 安秉禧(2007), 『崔世珍研究』(국어학 총서 6), 태학사.
- 위 진(1997), 「新增類合의 새김 고찰」, 전남대 석사 논문.
- 위 진(2002), 「조선시대 한자학습서의 국어 음운 표기 연구」, 전남대 박사 논문.
- 李基文(1971), 『訓蒙字會研究』, 서울대 출판부.
- 李基文(1999), 「訓蒙字會 小考」,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31회 학술대회 발표회, 15-25.
- 李敦柱(1979), 「訓蒙字會 漢字音 研究」, 전남대 박사 논문.
- 李相度(1992), 「訓蒙字會 編纂動機와 特徵」, 『중국학연구』 7, 중국학연구회, 193- 226.
- 이준환(2015), 「《訓蒙字會》 註釋에서 볼 수 있는 중세국어 한자음의 모습」, 『국어학』 75, 국어학회, 1-45.
- 정 광(1999), 「최세진의 생애와 업적」,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5-18.
- 채 완(1999), 「『훈몽자회』와 한글 맞춤법」, 『새국어생활』 9-3(특집: 최세진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19-30.
- 최미현(2006), 「《訓蒙字會》의 복수 한자음 유형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19, 우리말학회, 237-260.
- 韓在永(1999), 「國語表記史 속의 崔世珍」, 『崔世珍의 生涯와 學問』,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31회 학술대회 발표회, 45-67.

<訓蒙字會>의 중·한 한자어 容器성 분류사 통시적 연구
- ‘배(杯)’와 ‘잔(盞)’ 중심으로 -

단명결

목차

1. 서론
2. 중국어에서의 양사 ‘杯(배)’와 ‘盞(잔)’의 발달
3. 한국어에서의 분류사 ‘배(杯)’와 ‘잔(盞)’의 발달
4. 결론

1. 서론

분류사는 다양한 언어에서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분류사라고 하고, 중국어에서는 양사라고 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분류사란 특정 언어에서 명사에 덧붙여지는 단어 또는 접사로써 명사가 나타내는 물체의 군(분류)을 지칭하며, 조수사 즉 수분류사와 동의어로써 지칭되기도 한다고 하였다.¹⁾ 한국어와 중국어는 유형론적으로 볼 때 모두 수 분류사 언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를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로 구분하듯 역시 분류사도 한자어 분류사, 고유어 분류사, 외래어 분류사로 구분할 수 있다. 어원적인 이유로 한국어 분류사의 상당 부분은 한자어 분류사가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공통으로 쓰인 한자어 분류사중 ‘배(杯)’와 ‘잔(盞)’ 중심으로 중국어에서 갖는 의미 영역의 변화와 한국어에서 갖는 의미 영역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대비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분류사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공시적인 것이었으며, 공시적인 연구들도 한국어 분류사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채완(1996:195)에서는 이런 연구 경향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제는 방향을 달리하여 분류사 하나하나에 대한 정밀한 검토로부터 출발하여 전체를 묶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개별 어휘에 대한 통시적 맥락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유형론적 검토가 비슷한 시기에 발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경재(2011)에서는 한자어 의존명사 ‘점(點)’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 논의에서는 한자어 ‘점(點)’이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갖는 의미 영역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검토하였고, 김양진·단명결(2013)에서는 중국어 분류사 ‘건(件)’의 발달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특기 분류사의 의미의 확장과 축소를 중심으로 이 둘의 상호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단명결(2014)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문헌에 나타난 동물성 한자어 분류사의 전개과정을 비교하였다. 김양진·단명결(2015)에서는 한중 한자어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분류사 중에서 특히 인간성 분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成耆恩(2015)에서는 중한 동작분류사

1) A classifier as 'a word or formative element attached to a noun in certain language, used esp. to indicate the class of objects which the noun represents' and refer to numerative(which it simply defines an numeral classifier)as its synonym.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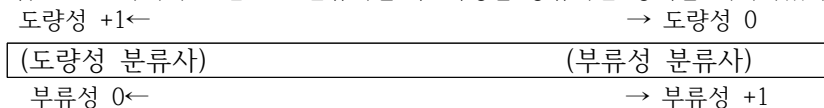
의 주관성 표현 기능이 밝혔다. 석수영·리우광(2018)에서는 한중 신체어가 분류사로 쓰이는 과정에 어떤 인지과정이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오형식(2001:123)에서 한국어에서 분류사의 체계 설정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크게 양적 범주화 중심²⁾이거나 유적 범주화 중심³⁾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즉, 전자에 따른 논의는 주로 척도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후자는 의미 범주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분류사가 양적 범주화와 유적 범주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하는 체계는 타당성이 결여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범주 영역을 계층적으로 하위 구분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⁴⁾ 따라서 분류사 하나하나에서 보면, 도량성과 부류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분류사가 공유하는 속성이다. 그러므로 분류사는 이 두 가지 속성에 따라 분명하게 양분될 수 없고, 부류성과 도량성을 양측으로 하여 두 속성을 공유하되 정도의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⁵⁾

劉世儒(1965:241)에서는 중국어 분류사는 명사에서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잔(盞), 상(箱), 배(杯)는 다 명사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런 명사는 측량의 방식으로 용기를 사용하여 양을 측량하는데 이를 용기측량법이라고 하며 이런 어휘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명사가 의미상 문제가 없으면 모두 분류사로 차용할 수 있다.⁶⁾

<訓蒙字會>는 중종 22년(1527) 崔世珍에 의해 편찬된 책이다. 이 책은 모두 상·중·하 3권에 주제별로 3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3360개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권의 器皿부의 총 한자 수는 312개고, 그 중에서 同訓字가 196개고, 同訓字가 아난 것은 1177개이다. 食器⁸⁾류에 속하는 한자는 음식과 음료를 담은 용기 한자는 51자가 있다.⁹⁾

- 2) 양적 범주화 중심의 체계를 주장하는 학자는 주로 최현배, 성광수, 서정수 등이 있다. 최현배(1971)에서는 단위 표시 기능에 따라 어떤 도량의 단위인가에 따라 '길이, 술, 무게, 돈'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척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성광수(1975)에서 한국어 분류사의 수량화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계층적인 체계를 설정한다. 그는 분류사를 '척도, 돈, 동작, 인간·동물'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 3) 유적 범주화 중심의 체계를 주장하는 학자는 유동준, 채완, 오상룡 등이 있다. 유동준(1983)에서는 인간의 지각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어 분류사의 의미 범주의 체계를 척도, 모양, 배열, 인성, 수량 다섯 가지의 기본 범주를 설정한다. 채완(1990)에서는 범주화 기능을 바탕으로 하되, 분류사의 의미 범주를 크게 '기능, 사건·행위, 모양, 인체'로 구분한다. 오상룡(1995)에서는 한국어의 분류사를 한 지시물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중적인 존재를 명세화하는 집합체, 한 지시물의 부분적인 존재를 명세화하는 부분, 한 지시물을 하나의 단위 또는 전반적인 항목으로 명세화하는 개체로 나눈다. 그리고 개체를 다시 열한 가지로 하위구분하고 있다.
- 4) 오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박이정, 123쪽 인용
- 5) 오형식(2001:134)에서 그림으로 분류사를 두 속성을 공유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도량성과 부류성을 0에서 +1까지로 등급화하고 이들을 서로 교차 시켰을 때, [도량성+1, 분류사0] 가까운 것을 도량성 분류사라 하고, 반대로 부류성 분류사라 하여 구분할 수 있다.

- 6) 劉世儒 (1965 : 241) 盞, 箱, 杯等量詞都是由名詞借用來的；從稱量的方式上說，這就是借用器物來稱量的，就叫做“器物稱量法”。這種字眼兒特多，因為原則上任何一個具體名詞，只要詞義允許，就都可以借用為量詞的。
- 7) 器皿부 한자가 총 312개인데, 313개로 되어 있는 것은 '鑊'의 훈이 '술 확又가마 확'으로 되어 있어, '술'과 '가마'에 각각 속하게 되었다.
- 8) 容器는 물건을 담는 그릇이고 食器는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차이가 있지만, 食器는 容器의 하위 범주

食器류 한자	
음식	鼎, 鑊, 鼎, 鼎, 釜, 鍋, 鬻, 錡, 橫, 橫, 皮, 盆, 盤, 榼, 鑿, 算, 篋, 甌, 籩, 盃, 櫛, 篋, 箕, 匙, 匕, 筐, 籃, 篋, 筥, 匣
음료	斗, 斛, 樽, 壘, 壺, 瓶, 勺, 罌, 壘, 罐, 盎, 卮, 甌, 盞, 甕, 缸, 瓮, 杯, 鍾, 觥, 觴

<표1> 器皿부의 食器류 한자

<표1>는 <訓蒙字會>에 있는 器皿부의 食器류 한자를 다시 음식과 음료로 담은 용기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음료를 담은 용기인 ‘잔’의 뜻으로 쓰고 있는 한자가 ‘罌(가), 盞(잔), 杯(배), 觴(샹)’ 4개가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에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盞(잔)’과 ‘杯(배)’이다.

용기로서 쓰는 ‘배(杯)’와 ‘잔(盞)’은 명사의 품사가 갖고 있으며, 고대 중국어와 한국어에는 모두 술을 따라 마시는 데 쓰는 작은 그릇이라는 뜻으로 사용해 왔다. 도량성 분류사로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같은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범주는 각기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과연 분류사로 사용하고 있는 ‘잔(盞)’¹⁰⁾과 ‘배(杯)’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떤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발달 양상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논의의 목적이다.

2. 중국어에서의 양사¹¹⁾ ‘杯(배)’와 ‘盞(잔)’의 발달

중국어 ‘杯(배)’와 ‘盞(잔)’는 모두 용기명사이며, 고대 중국어에서 비슷한 뜻으로 물이나 술, 차를 마실 때 쓰는 기구이다. 하지만 양사로서 쓰는 ‘杯(배)’와 ‘盞(잔)’의 사용범주와 발달 과정은 역사 자료를 통해 다르게 나타난다.

2.1 ‘杯(배)’의 발달

‘배(杯)’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작은 잔(鬮)이다. 木의 뜻을 따르고 否의 소리를 따른다. 匱는 주문의 栝자이다. 布回切이다.(鬮也。从木否聲。匱，籀文栝。布回切)”이라고 기록하였고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서는 “鬮은 작은 배이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면 ‘栝’, ‘鬮’이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방언에서...라고 하는데 ‘栝’가 그것의 통어이다. 예부터 栝로 탕을 담았다. 栝, 圈이다. 木의 뜻을 따르고 否의 소리를 따른다. 一部에 있다. 속체로 杯라고 한다.(鬮、小栝也。析言之。此云。栝、鬮也。渾言之。方言...杯也。栝其通語也。古以栝盛羹¹²⁾。栝圈是也。從木。否聲。布回切。一部。俗作杯。)”라고 풀이 하였다. 즉 고대

에 속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큰 범주 개념인 용기를 사용하기로 한다.

9) 崔洪烈(2009:99)에서 食器류에 속하는 한자는 손(4), 가마(4), 상(3), 술(2), 저(2), 락동항(2), 대야(3), 잔(4), 조르(2), 박(4), 죽(2) 등 11개 어휘 32자가 된다고 하였지만 본 논문에서 食器라는 개념이 음식이나 음료를 담은 용기로 보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자의 개수도 다르게 계산된다.

10) 한국어 용법에서의 ‘잔(盞)’과 중국어 용법에서의 ‘盞(잔)’을 구별하기 위하여 한국어의 용법은 ‘잔(盞)’으로, 중국어에서의 용법은 ‘盞(잔)’으로 구별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11) 일반 언어학에서 분류사로 논의하는 형태들은 언어마다 개별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해당 언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학술용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는 분류사(양사)로, 중국어는 양사(분류사)로 서술한다.

12) ‘羹’은 중국 사고시대에 국물이 있는 고기를 뜻했으며, 중고시대부터 탕(湯)이라는 뜻이 나타났다.

중국어의 ‘배(杯)’는 작은 잔이고 고대에서 ‘배(杯)’는 탕(湯)을 담은 용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현대 중국어에서는 물이나 술 등 음료수를 담은 용기로 쓰는 명사이외에 양사의 용법도 있다. 그러면 ‘배(杯)’라는 용기명사의 양사 용법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용기명사가 양사로 쓰는 용법은 많지 않았지만¹⁴⁾ 최초의 사용은 선진(先秦)시기부터였으며, 이는 역사 자료를 통해서 예문을 확인할 수 있다.

- 1) 秬鬯¹⁵⁾一卣¹⁶⁾, 虎賁三百人。 《左傳·僖公二十八年》
- 2) 一簞¹⁷⁾食, 一豆¹⁸⁾羹, 得之則生, 弗得則死。 《孟子·告子上》
- 3) 衛人使屠伯饋叔向羹, 與一簋¹⁹⁾錦。 《左傳·昭公十三年》
- 4) 今之爲仁者, 猶以一杯水, 救一車薪之火也。 《孟子·告子上》

예문(1~4)은 모두 선진시기에 용기명사가 양사로 쓰인 용법이며, 주로 물건이나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였다. 특히 4번 예문에서 ‘杯(배)’의 양사 용법이 눈에 띄는데, ‘盞(잔)’보다 양사의 용법이 먼저 생겼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²⁰⁾

- 5) 吳以一杯羊羹亡國, 以一壺飧得士二人 《戰國策·中山策》
- 6) 必欲亨乃翁, 幸分我一杯羹。 《漢書·陳勝項籍傳》
- 7) 去其滓, 飲汁一小杯。 《黃帝內經·邪客》
- 8) 一杯酒白, 蠅漬其中, 匹夫弗嘗者, 小也。 《淮南子》
- 9) 請百人運酒及脯, 以賜兵士, 人各酒三杯, 脯一片, 《魏晉南北朝·神仙卷卷八》
- 10) 長星! 勸爾一杯酒。 《世說新語·雅量》
- 11) 人餉魏武一杯酪。 《世說新語·捷悟》

한(漢)나라 시기에 들어서면서 용기명사가 양사로 쓰는 용법이 전 시대보다 많아졌으며, 특히 ‘杯(배)’의 양사 용법은 이 시기부터 발전하였다. 한(漢)나라 문헌에 해당하는 예문(5~8)에서 ‘杯(배)’는 탕이나 약 등 액체를 수량화하여 셀 때 사용하였다. 劉世儒(1962)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기에 중국어 양사가 급속히 발전하여, 많은 양사가 생겨났으며 그로 인해 그 기능이 세밀하게 나뉘었다고 하였다. 예문(9~11)은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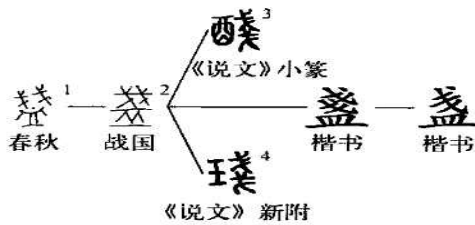
- 13) 战國漆耳杯, 高4.2厘米、口长14.6厘米、宽11厘米。
- 14) 魏兆惠 (2011) 에서는 《左傳》에서 용기양사가 '卣、车、盛、爵、簞、篋、秉、乘' 8개가 있으며, 주로 음식을 측량하는 양사로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 15) 鬯(창)은 <설문해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술이라는 뜻이다.
- 16) 卣(유)은 고대 중국어에서 술을 담은 그릇이나 식기다. 【玉篇】中尊器也。【爾雅·釋器】卣, 器也。【註】盛酒尊。【疏】卣, 中尊也。
- 17) 簞(단)은 <강희사전>에서 작은 광주리, 밥을 담은 식기라는 기록이 있다. 【漢律令】簞, 小篋也。【篇海】竹葦器。鄭康成曰: 盛飯者, 圓曰簞, 方曰筥。
- 18) 豆(두)는 <설문해자>에서 고기를 담은 식기다. 古食肉器也。從口, 象形。凡豆之屬皆從豆。
- 19) 篋(협)은 고대 중국어에서 대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으로 쓰였다. <한어대사전>에서 작은 상자이며, 물건을 담은 기구이다. 큰 것은 상(箱)이라고 하고 작은 것은 협(篋)이라고 한다.
- 20) 잔(盞)의 양사 용법은 한나라부터 생겼다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21) 杯(배)의 이체자(異體字)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盃, 栴’는 역사 자료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杯(배)’의 용법이다. 이를 통해 당시 ‘杯(배)’가 주로 술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百人接酒及脯，賜兵人人酒三杯，酒如故，脯亦不減。 《藝文類聚·卷七十二》
- 13) 七人乃共勸酒一盃，謂秘曰：「天地間人與萬物，皆不可測，慎勿輕之。」 《太平廣記·賈秘》
- 14) 飛邀德公同坐，三杯酒罷，三人同宿，昔交便氣合。 《三國志評話》
- 15) 知縣在廳上賜了三杯酒..... 《金瓶梅》
- 16) 又喫了一杯茶，大家起身，閒步一步。 《儒林外史》

이상 (12~16)은 당(唐)나라부터 청(淸)나라까지 문헌에서 나타난 ‘杯(배)’의 술이나 차를 수량화하여 세는 용법이다. 역사 자료를 통해 당나라부터 ‘杯(배)’의 이런 용법이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盞(잔)’의 발달



<그림1, 盞(잔)의 변화과정>

‘盞(잔)’은 최초 중국 춘추(春秋)시기부터 나타났고 <설문해자> 옥(玉) 부수에서 '璣(잔)'²²⁾과 유(酉) 부수의 '醞(잔)'으로 이체자(異體字)로 쓰였으며, 작은 그릇, 식기라는 명사로 쓰였다.

- 17) 季夏六月，以禘禮祀周公于大廟，牲用白牡.....爵用玉盞..... 《禮記·明堂位》
- 18) 盞：玉爵也。夏曰盞，殷曰斝，周曰爵。从玉戈聲。或从皿 《說文解字》

예문(17~18)은 ‘盞(잔)’이 식기로 쓰인 명사의 용법이다. 선진(先秦)시기부터 용기명사를 차용하여 양사로 쓰는 용례가 있기는 했지만 그 사례가 많지 않았다. 한(漢)나라에 들어서면서 양사로서 쓰는 용기명사는 전 시대보다 조금 많아졌다. 魏兆惠(2011)는 한(漢)나라 때 술을 담은 식기 종류가 많아지며, 용도에 따라 술을 마실 때 쓰는 기구, 술을 따를 때 쓰는 기구, 술을 담을 때 쓰는 기구 그리고 술을 저장할 때 쓰는 기구로 나눌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²³⁾ 그 중에서 ‘盞(잔)’은 술을 마실 때 쓰는 용기로서 처음으로 양사로 사용되었

22) <설문해자>에서 '璣(잔)'은 玉爵(옥작)이라는 뜻이고, '醞(잔)'은 爵(작)이라는 뜻이다. 爵(작)은 고대 술을 마실 때 쓰는 그릇, 용기다.
 23) 魏兆惠(2011:155)에서 한나라 때 중국의 주구(酒具)는 이미 기본적으로 정형화 되어 서로 다른 용도에 따라 술을 마실 때 쓰는 용기(飲酒器), 술을 따를 때 쓰는 용기, 술을 담을 때 쓰는 용기, 술을 저장할 때 쓰는 용기 등 4가지의 큰 종류로 나뉘어졌다고 하였다. 저장용기는 주로 “樽(樽), 瓮(瓮), 甕(甕), 缸(缸), 甕(甕)” 등이 있으며, 술을 담을 때 쓰는 용기는 주로 “樽(樽), 彝(彝), 鐘(鐘), 盆(盆), 壺(壺)”

다.

- 19) 右剉，每五錢，水一盞半，煎至八分，去滓，溫服 《金匱要略·痙湿喝病脉证治》
- 20) 以童子小便量多少煎湯成，內酒一大盞，次下大黃，去滓，分溫三服。 《雜療方》
- 21) 乞人醬時以新汲水一盞和而與之令醬不壞 《齊民要術 卷8》

예문(19~20)은 한나라의 의약과 관련된 역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약을 달일 때 물이나 술을 측량할 때 쓰는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북위(北魏)시대에도 ‘盞(잔)’이 여전히 용기 양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예문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2) 深映寒窻一盞燈 《元氏長慶集卷18》
- 23) 水三盞煎至一盞去渣 《銀海精微卷下》
- 24) 一僧云今人解書如一盞酒 《朱子語類卷103》
- 25) 譬如一盞燈用單子盖住 《朱子語類卷15》
- 26) 見一石燈臺上有漆燈一盞 《白孔六帖卷65》
- 27) 以沙糖一大塊水化開調一盞飲之 元 《世醫得效方卷10》
- 28) 昨日花朵朵如人淚一盞酒來竟醉 《十五家詞卷14》
- 29) 大燈三盞用油四兩小燈四盞用油三兩 《御製數理精蘊下編卷7》

예문(22~29)은 중국 당(唐)나라부터 청(淸)나라까지 ‘盞(잔)’의 용법이다. 예문을 통해 ‘盞(잔)’은 술이나 물, 차를 계량하고, 수량화하여 세는 용법으로 계속 쓰여왔지만 당(唐)나라 시기부터 ‘盞(잔)’의 다른 용법, 즉 등불을 세는 용도 등의 의미가 생겼다는 것이 확인된다.

- 30) 心貼得是那般的近，一杯酒、一盞茶、一聲問候，對親人、對香港、對祖國都是——真誠的祝褔 《人民日報》1997
- 31) 小茶見少爺醉了，只得陪了他喝下了一盞酒。 《茶人三部曲》
- 32) 你們決心上山去，我送你們一盞燈 《人民日報》1960年
- 33) 18個衣衫老舊、面色饑黃的農民，借助一盞昏暗的煤油燈.... 《激蕩三十年——中國企業史1978—2008》

이상 예문(30~33)은 모두 현대 중국 문학작품과 신문에서 뽑은 용례들이다. 중국 북경언어대학교 말뭉치 코퍼스²⁴⁾를 통해 문학작품과 신문에서 ‘수량사+盞’의 용례는 총 8687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盞(잔)’은 술이나 차를 세는 용법만 31개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등을 세는 용법이다. 이로부터 ‘盞(잔)’은 현대 중국어에서 술이나 차를 세는 단위보다 주로 등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壺)、甞(鑿)、卮(兕)、甌(甌)” 등이 있다. 술을 따를 때 쓰는 용기는 “호(壺)、瓢(瓢)、단(簞)” 등이 있고, 술을 마실 때 쓰는 용기로는 “종(鐘)、작(爵)、우(盂)、구(瓠)、잔(盞)、각(角)、곡(斛)、작(勺)、평(觥)、치(觶)” 등이 있다. (汉代，我国的酒具已经基本定型，按不同用途主要分为饮酒器、取酒器、盛酒器和贮酒器四大类。贮酒器主要有“樽、瓮、缸、卣”等；盛酒器主要有“樽、彝、钟、盆、壶、铛、兕、甬”等；取酒器主要有“壶、瓢、箆”等；饮酒器主要有“钟、爵、盂、瓠、盞、角、斛、勺、觥、觶”等.)

24)

2.3 중국어 양사 ‘盞(잔)’과 ‘杯(배)’의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 중국어에서 모두 용기명사로 쓰여진 ‘盞(잔)’과 ‘杯(배)’는 양사로 사용하는 용례가 역사자료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개의 용기양사는 생긴 시기와 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진 (先秦)	한나라 (漢)	위진남북조 (魏晉南北朝)	당송원명청 (唐宋元明清)	근현대 (近現代)
杯(배)	용기양사	o	o	o	o	o
盞(잔)	용기양사	x	o	o	o	x ²⁵⁾
	사물 등	x	x	x	o	o

<표1 중국어 양사 ‘盞(잔)’과 ‘杯(배)’의 시기 비교>

앞의 여러 역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盞(잔)’과 ‘杯(배)’는 일찍부터 용기명사로 사용되었지만 용기양사로 사용된 용법은 선진(先秦)시대 ‘杯(배)’부터 나타났으며 국물이나 술을 셀 때 사용하였다. 한(漢)나라에 들어서면서 ‘盞(잔)’의 용기양사의 용법도 생겼지만 ‘杯(배)’와 달리 술이나 물 이외에도 중국 전통 중약(中藥)을 수량화하여 세는 용법을 가지게 되었다. 양사의 역할구분은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기부터 시작되었지만 ‘盞(잔)’과 ‘杯(배)’의 역할구분은 아직 그 당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²⁶⁾. 당(唐)나라부터 ‘盞(잔)’의 다른 용법, 즉 등(燈)을 셀 때 쓰는 용법이 생겨나 청나라 시기까지 계속 쓰였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위 두 양사의 역할구분이 완전히 실현되어 ‘杯(배)’는 물이나 술, 차 등 음료수를 세는 단위로, ‘盞(잔)’는 등(燈)을 세는 단위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3. 한국어에서의 분류사 ‘잔(盞)’과 ‘배(杯)’의 발달

한국어 한자어 분류사 ‘잔(盞)’과 ‘배(杯)’는 모두 일찍이 중국어에서 차용해왔지만, 용법 차이가 한국어 분류사의 발전에 따라 점차 나타났다. 다음부터 두 한자어 분류사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다.

3.1 ‘잔(盞)’의 발달

고려시기 이전의 삼국 시대 즉 고구려, 백제의 금석문 자료나 신라 시대의 향가(鄉歌) 및 이두(吏讀) 등 여러 문헌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자어 분류사로는 ‘個, 斤, 兩’ 등이 있지만, 위의 자료들에서 ‘盞’이 분류사로 사용된 용법뿐만 아니고 명사로 사용되는 용법조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 전기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 『三國史記』(1145)와 『高麗史』 등 고려 후기의 문헌 자료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25) 중국어 코퍼스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수량사+‘盞(잔)’의 용례는 문학작품과 신문에 총 8687개가 있으며, 그 중에서 ‘盞(잔)’은 술이나 차를 세는 용법은 31개만 있고 비율을 계산한 결과는 0.003%이다. 그리고 현대 중국어 사전에서도 ‘盞(잔)’은 등을 세는 단위로 쓰였다는 해석만 있고, 술이나 차를 세는 단위로 쓰였다는 해석이 없다.

26) 劉世儒(1965)는 ‘盞(잔)’은 남북조(南北朝) 초기부터 양사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등(燈)’의 개체 양사로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용법은 남북조(南北朝)시기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34) 召前撫背 以金盞勸酒 <三國史記 卷 第六新羅本紀 第六文武王 上>
- 35) 其婦執盞膝行 致禮盡誠 <三國史記 卷 第三十二雜志 第一 祭祀 樂>
- 36) 省所上進金合二副盤盞二副... <高麗史9 卷-世家9-文宗>
- 37) 流星大如燈盞出軫星色赤長七尺... <高麗史47 卷-志1-天文>
- 38) 命宰樞坐於左依廳各賜酒十盞果十五饌... <高麗史68 卷-志22-禮10-嘉禮>
- 39) 以次設酒食至五盞後宣送花酒使至宮門外... <高麗史67 卷-志21-禮9-嘉禮>

예문(34~37)에서의 ‘잔(盞)’은 술잔이나 등불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명사이다. 하지만 (38~39)는 분류사로서 쓰인 예이다. 술과 같은 액체의 양을 수량화하는 단위로 쓰는 ‘잔(盞)’은 바로 후기 중세시대부터²⁷⁾ 나타났다.

- 40) 皂角(벌에 먹디 아니흔 조각)一片搥碎作四截銚內炒令焦黑酸米醋(벌 초)一盞澆之用椀覆一茶久取齶放溫漱嚥下 벌에 먹디 아니 흔 조각 흔 편을 두드려 네 헤 그쳐 새 용안해 붓가 거머커든 싯 초 흔 되를 붓고 사발로 두퍼 차 흔 번 달힐 만 커든 내야 드스닐 양지하야 습씨리<1489구급간,6,11b>
- 41) 濃煎艾湯(디투 달힌 뽕물)一二盞飲之 디투 달힌 뽕무를 흔두 되만 머그라<1489구급간,6,19b>
- 42) 大黃(一兩)牡蠣(굴조개一兩燒)細末每腹三錢酒二盞煎至六分和滓溫服以利爲度水調掃腫上卽消 대황불휘 흔 량과 굴조개 흔 량 소로니와를 7늘에 7라 서 돈곰 술 두 되에 달 혀 반 남죽하거든 즈식 조쳐 드시 하야 즈치드... <1489구급간,3,59a>
- 43) 初時用斑猫(청갈외)五箇去頭足翅研爲細末溫酒半盞送下小便下肉塊如拘兒樣者十數箇爲效如無更服加至七箇再不效加九箇直見小便下肉塊爲驗 가히 물인 처서미 청갈외 다섯 나 칠 머리와 발와 노래와 앓고 7느리 7라 드스 술 반 잔에 프러 머그면 오좁애 고깃 무적이 가히 샷기 7튼 거시 여라든 나치 나면 도허리라<1489구급간,6,37b>
- 44) 服藥前, 先進稷米粥一盞, 後服之。 <朝鮮王朝實錄·文宗實錄5卷>

석주연(2011)은 조선시대 의학서의 언해류에 나타난 분류사를 기원에 따라 동사 기원분류사와 명사 기원분류사로 구분하고, 다시 의미별로 도량분류사와 종류분류사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잔(盞)’은 도량분류사에 속해있고, ‘보스’라는 순 한국어와 대응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40~43) 예문은 모두 『救急簡易方』에서 나온 용례들이며, ‘잔(盞)’을 대응하는 언해문에 주로 ‘되’²⁸⁾로 되어있고 ‘잔’으로 대응하는 용례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44번 예문은 조선왕조실록 문종실록에 수록된 용례이며, 죽을 수량화하여 셀 때 사용된 용례이다.

- 45) 每服 세돈애물흔대 잔으로生薑 세片 녀허七分을글혀죽의 앓고저기덥게 하야食前에머기 라(每服三錢水一大盞入生薑三片煎至七分去滓稍熱服食前) <구급방언해, 상:013a>
- 46) 梔子 열네 낫과 전국 다섯 호블 물 두 잔으로 문져 전국 글혀 흔 잔 半을 取하야 滓

27) 여기서의 시대 구분은 중국어에서의 시대 구분을 따라 왕조에 따른 시대 구분을 따르되 고려 전기와 후기는 원나라 몽골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았던 13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하는 범박한 것이다.
28) 곡식, 가루, 액체 따위를 담아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그릇. 주로 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다.

- 얏고 ... <1466구급방언해上:29a>
- 47) 如성來령藏醬을 알오져 ㅎ는다 신술 촌 차 세 다솥 蠶蠶으로 긴 ㄱㄹ매...<1482남명집 언해上:24b>
- 48) 우리 두서 잔 수를 머거 목 ㅁ룬 디 해알고 즘승 쉬오디 잠싼 더디나 짐 브리왓다가 <1517번역노걸대上:62b-63a>
- 49) ㄱㄹ 누룩 석 냥 드려 비저 두 닐웨 디나거든 드리워셔 훈 잔 두 잔식 더여 머그라즈식 잇게 훈 방문 토스즈를 ㄱㄹ 밍ㄱ라 ... <1608언해태산집요,6b>
- 50) 그저 츠니 먹을이라 큰 형아 몬져 훈 잔 먹으라 큰 형아 몬져 네를 바드라 네 나히 한 ㅌ ㅎ니 엇디 내<1670노걸대언해上:57b>
- 51) 每日에 한 蠶 두 蠶 ㅎ면 그렁저렁 ㅎ리라 <18xx가곡원,164>
- 52) 가마 굶어 ㅅ고 불ㅅ더 가마 ㄷ거든 ㅅ蠶 ㅅ기름을 두라 기름 ㅅ커든 고기 담고 소곰 ㅅ이 두고 저로 두이저 복가<1790몽어노걸대2:3a>

(45~52) 예문은 한글과 한자가 섞여 같이 나타난 용례들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잔(蠶)’에 대한 용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5~46) 예문은 의학 언해류에 많이 나타난 ‘잔(蠶)’의 용법으로 물의 분량을 수량화한 용례이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救急簡易方』에서 ‘잔(蠶)’은 주로 ‘되’로 번역되었으며, 가끔 ‘잔’으로 번역된 용례가 눈에 띈다. (47~51) 예문은 고려시대부터 차나 술의 분량을 세는 단위로 이어져 계속 쓰인 용례이다. 예문(52)은 처음으로 참기름의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는 용례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잔(蠶)’의 수식 대상에 있어 이전 시대보다 범주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 한글 문헌들의 용례를 들어 볼 때 ‘잔(蠶)’은 조선시대에 초기에 안정되지 않은 모습이 잠깐 보였으나 그 이후에 한국어에서 분류사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53) 就付石燈蠶大小并十事以獻。 <朝鮮王朝實錄·太宗實錄31卷>
- 54) 滿花寢席六張、石燈蠶一事... <朝鮮王朝實錄·世宗實錄5卷>
- 55) 白石燈蠶四箇、黃石燈蠶四箇云。 <朝鮮王朝實錄·宣祖實錄5卷>
- 56) 이 죽은 사름은 일잔등(一蠶燈) 설낭(薛亮)이라 나의 반전을 아스라 정히 죽게 ㅅ호더니 가가의 훈 막대의 ㅅ을 어더 죽이과라. <17xx낙일오,079>
- 57) 훈 그릇 ㅅ물과 밥을 가져다가 알피 노커닐 은상적이 ㅎ일이 업서 그 밥을 먹고 설으저 간 후의 등잔을 디ㅎ야 귀를 기우려 사름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자디 아니ㅎ더니 (遂去送進兩碗菜飯來。殷尙赤見了，好不耐煩。因見果是沒人，只得吃了一碗叫她收去，遂對着一蠶孤燈側耳守等回來同睡) (13:132) <17xx낙일오,090>
- 58) 銅鐵紗籠四百九十蠶。 <萬機要覽，軍政篇2，禁衛營，軍器>

예문 (53~55)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등잔을 셀 때 ‘사(事)’와 ‘개(箇)’의 분류사가 사용된 용례이다. 예문 (56~57)도 18세기의 ‘잔(蠶)’과 관련된 다른 용례이다. 두 개 예문에는 ‘一蠶燈’에 대해 한 예문은 한국어 부분에 ‘일잔등’으로 분류사를 함께 사용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분류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7번 예문에서는 한문 부분의 ‘一蠶孤燈’에 대응 한국어에서 등불의 분류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어에 등불을 셀 때 ‘잔(蠶)’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예문 58은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반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사료에서 찾은 등을 세는 단위로 쓰여진 ‘잔(蠶)’의 한문 용례이다. 이러한

예를 살펴볼 때, 등불을 세는 분류사의 용법의 '잔(盞)'이 중국에서 차용되어왔으나 한국어에서 그 용법이 아주 불안정하게 사용되다가 소실되어 현대 한국어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9) 총총 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1949날개,045>
- 60) 위스키를 몇 잔 먹자고 안했소? <19xx흙2,187>

예문 (59~60)은 근대이후 '잔(盞)'의 용례이다. 이제부터 '잔(盞)'은 커피, 술, 물 등 액체를 수량화하는 단위로 아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배(杯)'의 발달

'배(杯)'는 현대 한국어에서 '술이나 음료를 담은 잔을 세는 단위'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술이나 음료를 세는 단위로 쓰는 '잔(盞)'은 '술 삼 배'라는 표현 정도에서만 그 사용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배(杯)'의 용법에 관한 역사자료를 확인해 보겠다.

- 61)攘臂群儒鬪酒盃²⁹⁾ 聽得歌聲人盡笑 <三國史記卷第三十二雜志 第一 祭祀 樂>
- 62) 況其杯漿數日之資 盡裹而行 <三國遺事卷第五 孝善第九>
- 63) 家在松山紫霞洞雲烟相接中和堂喜聞今日耆英會來獻一杯延壽漿一杯可獲千年筭... <高麗史71 卷-志25-樂2-俗樂>

'배(杯)'는 최초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나타난 용례를 살펴보면 모두 다 명사 '컵'이라는 뜻으로 차용되었는데, (63) 예문은 『高麗史』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배(杯)'의 분류사 용법이다.

- 64) 이제 仁 ㅎ는 者는 一杯水로 써 一車薪* 火를 <1590맹자언해11:36b>
- 65) 世事는 琴三尺이오 生涯는 酒一杯라 西亭 江上月이 두렸이 붉아논디 東閣에 雪中梅 다 리고 翫月長醉 ㅎ리라 <1713악학습령,651>
- 66) 당형이 지성으로 여등을 먹과져 ㅎ나 모로미 당조(長者)의 후의를 받드려 각각 일비주 (一杯酒)을 마시라. <17xx완월회맹연권36,17a>
- 67) 또 ㅎ 쇼삼빈를 먹은지라 쥬훈을 못 이기여 ...<1856장세비태록(경판32장본),24a>
- 68) 무릇 나를 치지 아니 ㅎ는 者(조)는 우리를 向(향)ㅎ미니 무릇 나의 名(명)을 依託(의탁) ㅎ여 一杯水(일비수)로써 너를 먹이문<1884마가전,1>
- 69) 온쥬 일비에 타 먹고 일야를 지닌 후 문득 장수 성세 ㅎ고 나가 ...<17XX낙천등운 1:10b>
- 70) 스름의 심회를 돕는도다 만시 임의로 못 ㅎ는니 일비쥬로 위로뿐이로다 <1880적성의전 (경판23장본),14b>
- 71) "현데는 날노 더브러 박쥬 일비를 나오라." <1884진주탑,4:067>

예문 (64~71)은 한문과 한글이 함께 사용된 예문들로 앞에서 언급한 '잔(盞)'의 용례와 비교

29) 배(杯)의 속자이다. 중국에서도 쥬는 杯의 이체자(異體字)라고 한다.

해보면 아주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한글로 번역된 一杯水나 一杯酒는 모두 다 일비수, 일비주로 나타났으며, 완전 중국어 수량구조와 일치하였고 현대 한국어 수량구조의 차이가 보였지만 그 당시의 수량구조와 같다³⁰⁾.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비록 사전적 의미에 '배(杯)'는 술이나 음료를 담은 잔을 세는 단위라는 해석이 있지만 실제로 '술 삼 배' 이외 다른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술이나 음료수의 잔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해석이 있으며, '술이 한 배 돌아. 모임의 분위기는 한결 좋아졌다.'라는 예문이 있지만 여기서 '술이 한 배'는 '술이 한 순배(巡杯)'라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때의 배(杯)는 용기분류사 보다는 차례를 세는 단위 정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3 한국어 분류사 '잔(盞)'과 '배(杯)'의 비교

이상으로 한국어 분류사 '잔(盞)'과 '배(杯)'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개의 분류사의 발달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	현대
배(杯)	용기분류사	○	○	○	×
	잔(盞)	○	○	○	○
	사물 등불	×	○	○	×

<표2 한국어 분류사사 '盞(잔)'과 '杯(배)'의 시기 비교>

앞의 많은 용례를 통해 <표2>를 정리하였다. '잔(盞)'과 '배(杯)'는 모두 같은 시기 즉 삼국시기부터 중국어에서 명사의 용법을 차용하였으며 용기분류사의 용법은 모두 고려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배(杯)'의 용기분류사의 용법은 이전시대보다 많아졌지만 분류사의 용법보다 중국어 수량사구를 전체 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용기성 분류사인 한자어 '잔(盞)'과 고유어 '되'는 조선시대에 같이 사용되면서 분류사의 역할구분이 점점 세밀해져서 술이나 음료를 담아 셀 때 '잔(盞)'을 많이 사용하고 곡식 가루 등 담아 셀 때 '되'를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후기부터 '잔(盞)'의 등을 세는 용법도 생겼는데 다만 이 용법은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근대까지 잠깐 사용하다가 금방 소실되었다. 현대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분류사 '잔(盞)'은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술이나, 차 등 음료수를 수량화하여 셀 수 있게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용기분류사 '배(杯)'는 근대까지 사용되다가 현대 한국어에서 '술 삼배' 이외 다른 용례가 거의 없어서 용기분류사의 기능은 사라졌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이상으로 <訓蒙字會>에 수록된 용기분류사 '배(杯)'와 '잔(盞)'을 중심으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한두진(2020)에서 1443년 한글 창제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문헌을 세 시기(15세기~17세기, 18세기~20세기 초, 20세기 후반~현재)로 구분한 후 한국어 수량구조의 변천사를 분석을 진행하였다. 15세기~17세기 출현 양상은 ①수+명, ②수+분류사+명, ③명+수, ④명+수+양 4가지가 있으며, ①번의 사용 빈도가 제일 높다. 18세기~20세기 출현 양상은 ①명+수+분류사, ②수+분류사+명, ③수+명, ④명+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명+수+분류사 구조 가장 많이 쓰인다. 20세기 후반~현재 출현 양상은 ①명+수+분류사, ②수+분류사+명, ③수+명, ④명+수 4가지가 있으며, 명사+수+분류사 구조는 완전히 전형적 특성으로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9c		10~16c		17~19c		20c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배(杯)	용기	○	○	○	○	○	○	○	x
잔(盞)	용기	○	○	○	○	○	○	x	○
	등불	○	x	○	○	○	○	○	x

<표3> 중·한 용기분류사 '배(杯)'와 '잔(盞)'의 같은 시기별 용법

<표3>에서 보듯이 중국어 '배(杯)'는 일찍이 선진(先秦) 시대부터 용기양사의 용법이 생겼고 중간에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기를 거쳐, 당나라 시기부터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현대 중국어까지 용기양사의 용법을 꼭 실현하였다. 중국 당나라 때 '배(杯)'의 용법이 안정적인 위치를 잡을 때부터 한국어에서 이를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배의 용기분류사 용법은 근대까지만 사용되다가 현대 한국어에는 '술 삼 배' 이외 다른 용례가 없는 정도로 되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서 더 이상 용기분류사라고 보기 힘들다.

중국어 '잔(盞)'은 '배(杯)'보다 용기양사의 용법이 늦게 생겼으며, 한나라부터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가면서 '잔(盞)'의 다른 용법 즉 등불을 쬐 때 쓰는 용법도 새롭게 생겼다. 이제부터 '잔(盞)'의 두 개 용법이 같이 사용되다가 현대 중국어에서 '잔(盞)'의 용기양사의 용법을 완전히 '배(杯)'에게 양보하고 주로 등불을 세는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 '잔(盞)'은 용기분류사로서 쓰는 용법은 '배(杯)'와 같은 시기에 들어왔고 '배(杯)'보다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현대 한국어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어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차용해온 등불을 세는 용법은 조선시기부터 근대 한국어까지만 사용되다가 현대 한국어에서 그만 소실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국어 용기양사로 사용하고 있는 '배(杯)'를 한국어에서 차용하였으나 소실되었지만, 용기양사로 쓰이다가 중국에서 소실되어버린 '잔(盞)'은 반대로 한국어로 넘어와서 아직까지 살아 남아 있다는 것이 언어의 전파 과정에서 보이는 특별한 현상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금자(1995), 分類 解釋 학습서로서의 『訓蒙字會』 -훈몽자회의 의미론적 어휘 분류와 의미 해석, 국어학 26

박성훈(1998), 單位語詞典, 민중서림

석수영, 리우팡(2018), 한중 신체어의 분류사적 쓰임 비교, 언어학 연구 (46), 145-167

석주연(2011), 조선 시대 의학서 언해류에 나타난 분류사의 종류와 기능, 우리말글, 51

오형식(2001), 한국어 분류사의 범주화 기능 연구, 박이정

유동준(1983), 국어분류사와 수량화, 국어국문학89, 53-72

채완(1990), 국어 분류사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70, 167-180

최홍열(2009), 訓蒙字會 '器皿'부의 同訓字 研究-‘食器’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1, 97-125

쪽

하두진(2020), 중국어와 한국어 수량구조 변천사 고찰- 공시와 통시의 소통, Language and Linguistics 90, 127-162 (2020)

黃璜(2016), 現代漢語容器量詞的認知研究, 瀋陽師範大學碩士論文

劉世儒(1965), 魏晉南北朝量詞研究, 中華書局

魏兆惠(2011), 論漢代的酒器量詞——兼談漢代酒器文化, 蘭州學刊

吳 铮(2009), 殷周漢語名量詞辨析, 殷都文學

仇偉(2019), 容器表量構式的建構機制: 體驗認知視角, 外國語文, 第35卷, 第3期

『東國正韻』 ‘ㅅ’과 『訓蒙字會』 ‘ㅅ’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조선 전기 청·탁음에 대한 연구 - 초분절 자질의 관점에서 -

문성호·배영환

1. 서론

『東國正韻』(1447) 23자모의 성격 중 하나로, 『東國正韻』에서 중고 한어 36자모의 설두·설상, 중순·경순, 치두·정치외의 구분을 두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중고 한어 36자모의 음운 자질을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東國正韻』 편찬 시기는 중국 근대음에 가깝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음은 근대음보다는 중고음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¹⁾ 근대음에서 입성이 소실되었으나, 『東國正韻』에서는 입성을 바로잡고 있고,²⁾ 근대음에서 청탁의 구분이 모호해졌으나,³⁾ 『東國正韻』에서는 청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東國正韻』에서 구분하고 있는 청탁(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칠음은 절운(切韻)계 운서인 『廣韻』 반절상자의 청탁·칠음과 일치하므로, 조선 전기에 이미 『廣韻』 반절상자 41성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訓蒙字會』(1527)는 『東國正韻』 편찬 80년 이후에 나온 서적으로,⁵⁾ 『東國正韻』에 비해 현실 한자음 표기에 가깝다. 『訓蒙字會』에서는 전탁 표기를 위해 각자병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말과 한자음에서는 변별 자질이 아닌 전청 ‘ㅎ’과 불청불탁 ‘ㅇ’ 중, 전청 ‘ㅎ’을 탈락시키고, 불청불탁 ‘ㅇ’ 만을 선택했다. 또한 초성에서 옛이음 ‘ㅇ’도 사용하지 않는다. 『訓蒙字會』에서는 『東國正韻』에서 절운계 운서를 근거로 구분하고 있는 청탁의 구분을 하고 있지

- 1) 『東國正韻』序文에서는 ‘비록 그 음은 변하더라도 청탁이나 사성은 예와 같을 수 있을 것이나 일찍이 책을 지어 그 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이 없었다.’라고 했다. 이는 책의 편찬 목적을 예로부터 전해온 청탁과 사성을 바르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 2) 『洪武正韻譯訓』 서문: 且有始有終 以成一字音 理之必然 而獨於入聲 世俗率不用終聲 甚無謂也. 蒙古韻 與黃公紹韻 入聲亦不用終聲 何耶 如是者不一 此又可疑者也. 또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서 한 글자의 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홀로 입성자에 있어서만 세속에서 대체로 종성을 쓰지 않으니 매우 까닭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운서나 황공소의 『韻會』가 입성을 역시 종성으로 쓰지 않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나? 이와 같은 것이 하나만이 아니니, 이것이 또 의심스러운 것이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227쪽.
- 3) 『洪武正韻譯訓』 서문: 사성위평상거입 이진탁지자평성 근어차청 상거입 근어전청 세치소용여차 연역불지기소이지차야. 평·상·거·입을 4성이라고 하나, 전탁자들의 평성자가 차청음으로 가깝게 되고, (전청자)의 상·거·입자들이 전청에 가깝게 되어 세상에서의 쓰임이 이와 같다. 그러나 역시 이렇게까지 변화한 까닭은 알지 못하고 있다. 강신항,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9, 227쪽.
- 4) 『東國正韻』 서문: 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91운과 23자모로 기준을 삼은 다음, 어제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표기했다.), 『訓民正音』 「解例本」 制字解: ㄱㄷㅂㅅㅈ爲全清, ㅋㅌㅍㅊㅎ爲次清, ㆁㄴㅇㄹㅁ爲全濁, ㅇㄴㅇㄹㅁ爲不清不濁.
- 5) 한자(漢字)에 그 실제음 표기가 정식으로 나타난 것은 연산조(燕山朝)에 들어서의 일이었다. 이기문, 『訓蒙字會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67쪽.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 표기와 『訓蒙字會』의 현실 한자음 표기를 비교할 경우 청탁의 음운 자질과 관련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청탁의 음운 자질에 관한 우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음운학자 혹은 일본 음운학자의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청탁의 자질에 관해 기본적으로 버나드 칼그렌(Bernhard Karlgren:1889~1978) 및 중국 음운학자가 정립하고 있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해 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東國正韻』 서문의 청탁에 대한 설명,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운 자질,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訓蒙字會』 한자음으로의 계승 양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말에서 기본적으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변별 자질로 활용되지 않는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가 생각한 청탁을 과연 무성음과 유성음의 조음 방식으로 결정되는 분절 자질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종이 생각한 청탁의 자질을 분절 자질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면, 청탁을 구분 짓는 자질을 초분절 자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청탁을 초분절 자질로 해석했을 때, 『東國正韻』 한자음은 광동어의 음조·양조와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보인다.⁶⁾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은 『廣韻』 반절상자의 청탁과 일률적으로 대응되고, 『廣韻』 반절상자의 청탁은 현재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잘 간직한 광동어의 음조·양조와 대응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 『東國正韻』 서문의 청탁에 대한 설명 및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에 관한 음운 자질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고, 『東國正韻』 한자음에서 『訓蒙字會』 한자음으로의 계승 양상까지 설명이 된다. 한어 중고음의 청탁이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중국 음운학자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우리는 우리 선조가 남긴 음운 자질을 낱낱이 파헤칠 때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칼그렌 이후 1930년대부터 중국 음운학자가 규정하고 있는 청탁에 대한 무성음과 유성음의 학설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칼그렌의 『中國音韻學研究』

스웨덴의 언어학자 칼그렌은 청대(清代)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어음운학연구(中國音韻學研究)』(1915-1926)⁷⁾에서 비교 언어학의 방법으로 한어 중고음의 음계를 분석했는데, 한

6) 한국어 광동어는 유사한 점이 많아 본격적인 비교 연구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된다. 선행연구로 조연정, 「현대 월방언 연구, 광주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임려, 「중국 월어방언과 한국어의 대조연구, 음운 체계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2집, 2011. 박종만, 「한국어와 중국 광동어의 중성 발음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양현, 「한국어와 광동어의 어휘·문법 대조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문성호, 「광주화 연구, 음성학적 관점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여홍령, 「한국어와 중국어 월방언의 음운 체계 대조 연구」, 한국학연구, 제48집, 2018. 하취화, 「한국어와 광동어의 음절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등이 있다. 하지만 『東國正韻』 한자음과 광동어를 비교할 경우 한어 중고음을 공통 분모를 하여 접점은 더 넓어진다.

7) 『中國音韻學研究』 고본한(高本漢, 칼그렌) 著, 조원임·이방계 합역(合譯) 본(1939)의 序에서 『中國音韻學研究』은 중화민국4년(1915) 처음 발간되기 시작하여 중화민국15년(1926)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瑞典高本漢先生所著之中國音韻學研究, 始刊於民國四年, 至十五年而完成)

자음을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여 어음의 특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절운계 운서와 운도의 청탁을 면밀히 고찰하고, 오방언의 장애음 성모에 남아있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 및 일본 한자음에 남은 청탁을 근거로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국제음성기호의 무성음과 유성음의 조음방식으로 대립되는 분절 자질로 보았다. 중국 음운학자인 조원임(趙元任), 이방계(李方桂), 나상배(羅常培)가 이에 동의하고 1939년 중국어로 책을 번역하면서 한어 중고음의 청탁은 곧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전청은 무성 무기음, 차청은 무성 유기음, 전탁은 유성 장애음(유성의 과열·과찰·마찰음), 차탁은 유성 공명음으로 설명하는데, 현재까지 이에 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칼그렌의 『中國音韻學研究』을 보면, 그의 연구가 독단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서양학자들과의 상호 교류와 비판을 통해 학문의 기반을 공고히 다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칼그렌에 가장 영향을 준 학자로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ero, 馬伯樂, 1883-1945)를 꼽을 수 있는데,⁸⁾ 칼그렌은 10여년에 걸치는 기간에 걸쳐 국제 중국학 저널인 通報(T'oung Pao)⁹⁾에서 마스페로와 격렬한 논쟁을 주고받으며 점차 책을 완성했다. 중국어 번역본은 4권 1책으로 구성된다.

제1권 고대한어(古代漢語) 편에서 한어 중고음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여 한자를 등(等), 합구(合口), 사성(四聲) 및 섭(攝)에 따라 표로 분류했다. 제2권 현대 방언적 묘사 어음학(現代方言的描寫語音學)에서 성모를 보음(補音, 자음)으로 분석하고, 운모를 원음(元音, 모음)으로 분석하여, 기존 중국 성운학의 성과 운을 분절 자질로 분석이 가능한 최소 단위로 분석했으며, 보통 어음학 개념(普通語音學概念)을 중국에 소개했다. 또한 한어 중고음의 재구를 위해 연구한 방언에 대해 소개했다. 제3권 역사상적 연구(歷史上的 研究)에서 1888년 공식판이 발간된 국제음성기호를 기반으로, 한어 중고음의 자모(字母)¹⁰⁾에 대한 현대적 재구를 한다. 제4권 방언 자취(方言字彙)에서 攝의 순으로¹¹⁾ 직접 연구한 방언의 음가를 열거하고 있다.

칼그렌은 유럽형의 비교 역사 음운학의 방법을 바탕으로 중국 방언 및 주변국의 한자음을 활용해 한어 중고음 연구에 새 기준을 제시했고, 분절 자질의 표기에 적합한 국제음성기호 및 유럽의 음성학 용어를 중국 음운학계에 소개했다. 비록 서로 다른 시대의 문헌의 비선택적 사용 및,¹²⁾ 남방 방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¹³⁾ 전체적인 기조는 인정되어, 칼그렌은 중국 음운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청탁이라는 과거 음운의 조음 방식을 중국 학계에서 분절 자질로 규정하고, 비판이 허용 되지 않을 만큼 중국 내 방언 및 주변국에서의 한자음에서도 청탁을 무성음과 유성음의 조음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4권 방언 자취(方言字彙)에서 제시한 중국 방언 및 한국 일본 한자음에 대한 국제음성기호의 표기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겠지만,

8) 마스페로는 프랑스의 저명한 중국학 학자로서, 그가 편찬한 『安南音韻研究』(1911)와 『唐代長安方言研究』(1920)는 칼그렌의 한어 중고음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다.

9) 중국학에 관한 국제 저널로서, 1890년 창간된 이래 현재까지 106집을 발간했다.

10) 見·溪·郡·疑·曉·匣·影·喻·知·徹·澄·照·穿·狀·審·禪·日·泥·娘·來·端·透·定·精·淸·從·心·邪·非·敷·並·明의 32개의 자모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11) 果·止·蟹·咸·深·山·臻·梗·宕·效·流·遇·通攝

12) 그가 자료로 삼은 『切韻指掌圖』는 『切韻』의 체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後期韻圖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선택이라고 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영애,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2000, 87-88쪽.

13) 그가 얻은 방언 자료는 북방은 상세하나 남방은 간략하다. 어음의 기본 관념에 관하여 현재는 그의 시대에 비하여 역시 상당히 커다란 진전이 있다. 董同龢(1975), 공재석 譯 『漢語音韻學』, 148쪽.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각 지역의 어음을 유럽어의 잣대인 분절 자질로 표기하고 있는 것 외에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¹⁴⁾ 이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어음의 분절 자질과 관련한 음소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그 외적으로 중국어의 음운 자질 중 중요한 요소인 운율자질에 대한 분석은 간과한 것이 된다.¹⁵⁾

2.2.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과 광동어의 음조·양조

칼그렌의 연구 이후, 한어 중고음의 음운 자질에 대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견이 있다. 첫째, 조원임(1892-1982)의 오도표기법(五度表記法)¹⁶⁾ 창안으로 초분절 자질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조원임은 중국 언어학의 아버지(中國言語學之父)로 평가받는 인물로 중국 방언의 각기 다른 성조를 음높이의 상대적인 값인 조치(調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訓民正音』 「解例本」 및 『東國正韻』의 발견이다. 두 서적은 1940년에 발견된 것으로,¹⁷⁾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알게 해줌과 동시에, 『東國正韻』 23자모와 훈민정음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東國正韻』 한자음은 한어 중고음 혹은 중국 근고음의 음계로 평가 받는 『古今韻會舉要』의 字母韻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데,¹⁸⁾ 『東國正韻』 서문에서 편찬 목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훈민정음의 제자(制字) 배경이나 음운 자질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칼그렌의 시기에, 초분절 자질인 중국 방언의 성조를 객관적으로 풀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분절 자질인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본 것은 최선의 분석일 수 있다. 더욱이 오(吳)방언 및 일부 상(湘)방언과 일본 한자음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확인한 것은 탁음의 청음화를 설명해주는 논거가 된다. 하지만 오도표기법 이후 한어 중고음의 청탁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또 다른 음운 변별 자질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바로 음조

14) 칼그렌의 경우 그 당시로서는 부득이하였겠지만 일본의 한음이나 오음에 대하여 특히 만엽가명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었으며, 또한 한국 한자음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또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재구음에는 오류가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재구음의 연구 방법을 중국학자들은 상당 부분 그대로 원용(援用)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으며, 또한 그들은 한국이나 일본 자료에 대하여 현대 중국 방언과는 달리 체계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데 그 연구 방법의 한계가 있었다. 김대성, 「止攝 諸韻의 中古音 再構, -한일중 및 베트남·티베트 자료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제52집, 6-7쪽.

15) 촘스키-할레(Chomsky and Halle, 1968)는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음성을 대표하는 36개의 각 자질을 다음과 같이 1. 주요부류자질, 2. 구강자질, 3. 조음방식자질, 4. 근본자질, 5. 운율자질 5개로 크게 나뉜다. 위의 5개 구분 가운데 운율자질은 분절음이 아닌 초분절음자질에 대한 것이다. 이해우, 『현대 중국어 음운론』, 신아사, 2017, 50쪽.

16) 오도표기법은 1930년 『語音教師』에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이후 중국어의 성조를 표기하는 대표 수단이 된다. 초기에는 ‘聲調字母’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예를 들면 보통화의 사성의 조치를 각각 [55], [35], [214], [51]로 표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7) 6권 6책의 전질이 발견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18) 『東國正韻』에 관한 초기 연구는 『古今韻會舉要』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차익중(2014)에서는 『운회』를 『동국정운』의 저본으로 지적할 경우, 이는 『운회』의 자모음이 『동국정운』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표면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옥지(2008)에서도 『동국정운』의 음운체계가 『몽고자운(蒙古字韻)』과 깊은 관계가 없으니, 『몽고자운』의 음운체계가 거의 일치하는 『운회』의 내적 음운체계와도 관계를 맺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 조운성(2010, 2011)에서는 『운회』의 반절하자와 자모운을 『동국정운』의 운류와 비교하여, 두 체계 모두 『동국정운』 운모체계의 직접적인 연원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운모 체계를 한어 중고음과 비교한 결과 현재로서는 『동국정운』의 한자음은 당(唐) 말의 장안음(長安音)이 그 기초가 된다고 추정했다.

와 양조이다. 보통화의 성조에서 음조와 양조의 대립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한어 중고음의 흔적을 비교적 잘 간직한 중국 남방 방언¹⁹⁾의 성조는 음조와 양조로 구분되며, 음조는 한어 중고음의 청음과, 양조는 한어 중고음의 탁음과 관련이 있다. 분절 자질의 표현 방식을 빌자면 음조는 무성음 성모와 관련이 있고, 양조는 유성음 성모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중 월(粵)방언(이하 광둥어)의 음조와 양조는 『廣韻』 반절상자의 청탁과 명확한 대응 관계를 보인다.

『東國正韻』에서 한자음의 청탁 표기는 『廣韻』 41성류(聲類)의 반절상자의 청탁과 일치하며, 이 경우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공통분모로 하여,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과 광둥어의 음조와 양조가 대응관계를 이루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1>에서 <표4>까지 ‘광(廣)’은 『廣韻』 41성류의 반절상자, ‘월(粵)’은 광둥어의 성조, ‘동(東)’은 『東國正韻』의 자모를 가리킨다. 광둥어의 음조는 숫자로 1, 2, 3에 해당하며, 양조는 숫자로 4, 5, 6에 해당한다. 태극 문양에서 청(淸)은 음(陰)을 상징하므로 파랑으로, 탁(濁)은 양(陽)을 상징하므로 빨강으로 나타냈다.

<표1> 『廣韻』 41성류 반절상자 전청자, 광둥어의 음조, 『東國正韻』 전청자 비교

1	見	廣	見	古	公	過	各	格	兼	姑	佳	詭	居	舉	九	俱	紀	幾
		粵	3	2	1	1	3	3	1	1	1	2	1	2	2	1	2	2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2	端	廣	端	都	丁	多	當	得	德	冬								
		粵	1	1	1	1	1	1	1	1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3	知	廣	知	陟	竹	知	張	中	猪	微	追	卓	珍					
		粵	1	1	1	1	1	1	1	2	1	3	1					
		東	ㄷ	ㄷ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ㄷ					
4	幫	廣	幫	博	北	布	補	邊	伯	百	巴	哺						
		粵	1	3	1	3	2	1	3	3	1	1						
		東	*	ㅂ	ㅂ	ㅂ	*	ㅂ	ㅂ	ㅂ	ㅂ	ㅂ	ㅂ					
5	非	廣	非	方	甫	府	必	彼	卑	兵	分	封	并	笔	界	鄙		
		粵	1	1	2	2	1	2	1	1	1	1	3	1	2	2		
		東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6	精	廣	精	子	即	作	則	將	祖	臧	資	姉	遵	茲	借	醉		
		粵	1	2	1	3	1	1	2	1	1	*	1	1	3	3		
		東	*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	ㅈ	ㅈ	ㅈ	ㅈ		
7	心	廣	心	蘇	息	先	相	私	思	桑	素	斯	辛	司	速	雖	悉	寫
		粵	1	1	1	1	1	1	1	1	3	1	1	1	1	1	1	2
		東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8	莊	廣	莊	側	莊	阻	鄒	簪	仄	爭								
		粵	1	1	1	2	1	1	1	1								
		東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9	疏	廣	疏	所	山	疎	色	數	砂	沙	疏	生	史					
		粵	1	2	1	1	1	2	1	1	1	1	2					
		東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10	照	廣	照	之	職	章	諸	旨	止	脂	征	正	占	支	賁			
		粵	3	1	1	1	1	2	2	1	1	1	1	1	2			
		東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19) 중국 음운학에서 남방방언은 월(粵)방언, 객가(客家)방언, 민(閩)방언을 가리킨다.

11	審	廣	審	式	書	失	舒	施	傷	識	賞	詩	始	試	矢	矢	商	
		粵	2	1	1	1	1	1	1	1	2	1	2	3	2	1	1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12	影	廣	影	烏	伊	一	安	烟	鷺	愛	挹	哀	握	於	乙	衣	央	紆
		粵	2	1	1	1	1	1	1	3	1	1	1	1	3	1	1	1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표2> 『廣韻』 41성류 반절상자 차청자, 광동어의 음조, 『東國正韻』 차청자 비교

1	溪	廣	溪	苦	口	康	枯	空	恪	牽	謙	楷	客	可	去	丘	區	墟
		粵	1	2	2	1	1	1	3	1	1	2	3	2	3	1	1	1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	ㄱ
2	透	廣	透	他	吐	土	託	湯	天	通	臺							
		粵	3	1	2	2	3	1	1	1	4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3	徹	廣	徹	丑	敕	恥	癡	楮	楮	抽								
		粵	3	2	*	2	1	2	2	1								
		東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4	滂	廣	滂	普	匹	譬												
		粵	1	2	1	3												
		東	ㅍ	ㅍ	ㅍ	ㅍ												
5	敷	廣	敷	芳	敷	撫	孚	披	妃	峯	拂	丕						
		粵	1	1	1	2	1	1	1	1	1	1						
		東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6	清	廣	清	七	倉	千	此	親	采	蒼	羸	青	醋	遷	取	且	雌	
		粵	1	1	1	1	2	1	2	1	1	1	3	1	2	2	1	
		東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7	初	廣	初	楚	測	又	芻	廁	創	瘡								
		粵	1	2	1	1	1	3	1	1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8	穿	廣	穿	昌	尺	充	赤	處	叱	春	姝							
		粵	1	1	2	1	3	2	1	1	1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9	曉	廣	曉	呼	火	荒	虎	海	呵	馨	花							
		粵	2	1	2	1	2	2	1	1	1							
		東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표3> 『廣韻』 41성류 반절상자 전탁자, 광동어의 양조, 『東國正韻』 전탁자 비교

1	羣	廣	羣	其	巨	求	奇	暨	白	衢	強	具	狂					
		粵	4	4	6	4	4	3	5	4	4	6	4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2	定	廣	定	徒	杜	特	度	唐	同	陀	堂	田	地					
		粵	6	4	6	6	6	4	4	4	4	4	6					
		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3	澄	廣	澄	直	除	丈	宅	持	柱	池	迟	治	场	佇	馳	隆		
		粵	6	6	4	6	6	4	5	4	4	6	4	5	4	6		
4	並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	ㄷ	*	ㄷ	ㄷ	ㄷ		
		廣	並	蒲	薄	傍	步	部	白	裴	捕							
5	奉	粵	6	4	6	6	6	6	4	6								
		東	ㄷ	ㄷ	ㄷ	ㄷ	*	ㄷ	ㄷ	ㄷ	ㄷ							
6	從	廣	奉	符	扶	房	皮	毗	防	平	縛	附	苻	馮	浮	父	便	婢
		粵	6	4	4	4	4	4	4	4	3	6	4	4	4	6	6	6
7	邪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廣	從	昨	徂	疾	才	在	慈	秦	藏	自	匠	漸	情	前	酢	
8	牀	粵	4	6	4	6	4	4	6	4	4	6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9	神	廣	牀	士	仕	鋤	鉏	牀	查	雛	助	豺	崇	崩	侯	檠		
		粵	4	6	6	4	4	4	4	4	6	4	4	6	6	4		
10	禪	東	ㄷ	ㄷ	ㄷ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廣	神	食	神	实	乘											
11	匣	粵	4	6	4	6	4											
		東	ㄷ	ㄷ	ㄷ	*	ㄷ											
12	禪	廣	禪	时	常	市	是	承	視	署	氏	殊	寔	臣	殖	尝	蜀	成
		粵	6	4	4	5	6	4	6	5	6	4	6	4	6	4	6	4
13	匣	東	*	*	ㄷ	ㄷ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ㄷ	*	ㄷ	ㄷ
		廣	匣	胡	戶	下	侯	何	黃	乎	護	懷						
14	爲	粵	6	4	6	6	6	6	4	4	6	4						
		東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표4> 『廣韻』 41성류 반절상자 차탁자, 광동어의 양조, 『東國正韻』 불청불탁자 비교

1	疑	廣	疑	五	吾	研	俄	魚	語	牛	宜	虞	疑	擬	愚	遇	危	玉
		粵	4	5	5	4	4	4	5	4	4	4	4	4	4	6	4	6
2	泥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廣	泥	奴	乃	那	諾	內	妳									
3	娘	東	ㄷ	ㄷ	ㄷ	ㄷ	*	ㄷ										
		廣	娘	女	尼	拏	禮											
4	明	粵	4	5	4	4	4											
		東	ㄷ	*	ㄷ	ㄷ	ㄷ											
5	微	廣	明	莫	模	謨	摸	慕	母	彌	眉	靡	明	美	綿			
		粵	4	6	4	4	6	6	5	4	4	5	4	5	4			
6	喻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廣	微	武	亡	無	文	巫	望									
7	爲	粵	4	5	4	4	4	4	6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8	爲	廣	喻	以	羊	余	餘	與	弋	夷	予	翼	營	移	悅			
		粵	6	5	4	4	4	4	6	4	4	6	4	4	6			
9	爲	東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廣	爲	于	王	兩	爲	羽	云	永	有	雲	筠	遠	韋	洧	榮	蕓
10	爲	粵	4	4	4	6	6	5	4	5	5	4	4	5	4	5	4	5
		東	ㄷ	ㄷ	*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東	○	○	○	○	○	○	○	○	○	○	○	○	○	○	○	
8	來	廣	來	盧	郎	落	魯	來	洛	勒	賴	練	力	良	呂	里	林	離
		粵	4	4	4	6	5	4	6	6	6	6	6	4	5	5	4	4
		東	ㄹ	ㄹ	*	ㄹ	ㄹ	ㄹ	ㄹ	ㄹ	ㄹ	*	ㄹ	ㄹ	ㄹ	ㄹ	ㄹ	*
9	日	廣	日	而	如	人	汝	仍	兒	耳	儒							
		粵	6	4	4	4	5	4	4	5	4							
		東	△	△	△	△	△	△	△	△	△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을 초분절 자질로 인식하고 한자음을 읽을 경우 현재 광동어 성모의 음조와 양조의 자질을 발음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음운 예로 들면 청음은 ‘ㄱ’으로 구강 발성 위주로 가볍게 읽고, 탁음은 ‘ㄱ’으로 후두강 발성 위주로 무겁게 읽는다. 한어 중고음의 청탁, 경중이 설명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는 우리말에서 음성으로 구분 가능한 것이지만 음운 변별 자질은 아니다. 반면 광동어에서는 이 운율 차이가 변별 자질이 된다. 광동어가 모국어인 화자에게 이 운율 차이는 분절 자질 만큼 명확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광동어가 모국어인 화자에게 이 운율 차이는 모호한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광동어가 모국어인 화자에게 모든 분절 자질은 초분절 자질과 동시에 인식되는 것으로, 초분절 자질은 분절 자질과 구분되어 음높이를 바탕으로 성조의 조치로 표기할 수도 있고,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 표기와도 같이 음소문자로 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訓民正音』 「解例本」에서 획을 달리하여 음운 자질을 달리하여 표기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동어의 운미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와 같고, 『東國正韻』에서는 한어 중고음의 운미 8개를 모두 표기하고 있으므로 광동어와 『東國正韻』 한자음은 운모의 중성(주요원음)을 제외한 중성(운미)까지 같게 된다. 『訓民正音』 「解例本」에서의 설명을 바탕으로 동국정운 한자음을 읽으면 광동인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점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에서 중국어 연구가 보통화 위주로 전개되고, 중국 방언의 어음은 거의 주목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중국 방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칼그렌과 같은 국제음성기호의 분절 자질을 통한 2차원적 접근 방식이 대부분이며, 실제 청취 측면의 3차원적 접근 방식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청취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운 자질에 대한 연구는 결코 쉽지 않으며,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세종 및 『東國正韻』 편찬자는 현재도 접근하기 어려운 음운 자질에 대한 묘사를 조음 기관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당시 그들이 목표한 소리를 현재의 광동어의 음조와 양조의 대비를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廣韻』의 반절상자를 기준으로,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과 광동어의 음조양조가 모두 대응 관계를 이룬다는 점은 거의 모든 한자에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래 <표-5>에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상용한자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東國正韻』 한자음				광동어			
한자	청음	한자	탁음	한자	음조	한자	양조
貴	꺄	跪	꺄	貴	gwai3	跪	gwai6

帶	댕	大	땡	帶	daai3	大	daai6
保	볼	部	뵵	保	bou2	部	bou6
再	징	在	징	再	zoi3	在	zoi6
詩	싱	時	싱	詩	si1	時	si4
好	훙	號	훙	好	hou2	號	hou6
衣	잉	已	잉	衣	ji1	已	ji5

<표-55> 『東國正韻』의 한자음의 청탁과 광동어의 음조·양조의 대응 관계

위 표에서 초성(성모)만을 대응 시킨 것은 아래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				광동어			
한자	청음	한자	탁음	한자	음조	한자	양조
貴	ㄱ	跪	ㄱ	貴	g 3	跪	g 6
帶	ㄷ	大	ㄷ	帶	d 3	大	d 6
保	ㅂ	部	ㅂ	保	b 2	部	b 6
再	ㅈ	在	ㅈ	再	z 3	在	z 6
詩	ㅅ	時	ㅅ	詩	s 1	時	s 4
好	ㅎ	號	ㅎ	好	h 2	號	h 6
衣	ㅇ	已	ㅇ	衣	y 1	已	y 5

<표-56> 『東國正韻』의 한자음의 청탁과 광동어의 음조·양조의 대응 관계

위 표에서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무성음과 유성음의 분절 자질로 설명하지 않고, 초분절 자질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東國正韻』 23자모의 자질이 모두 설명된다. 또한, 초분절 자질로써, 무성음에서 청탁의 자질이 변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탁의 자질이 변별되는 물리적 원인은 음성의 공명강에 작용하는 무게중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음색의 차이이다.

광동어의 성조는 9성 6조 체계이며, 9성은 6조에 입성 3개를 더한 것이다. 입성의 음높이는 음평(陰平)(1성), 음거(陰去)(3성), 양거(陽去)(6성)와 일치하므로, 음높이를 기준으로 광동어는 6개의 조치를 갖는다. 6개의 조치 중 평조는 3개인데, 3개의 평조 중 하나의 성조를 단번에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음높이 이외의 다른 정보가 성조 구분에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명강에 작용하는 힘의 무게중심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음색이라 할 수 있으며, 언어생활에서 음높이보다는 음색 차이가 실질적인 성조 구분에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음계를 구분하려면 이론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소리에 대한 노출이 필요한데, 언어생활에서는 음높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높이는 성조의 표기를 명확히 해주고, 음색은 청취 측면에서 구분되는 성조의 실체라 할 수 있다. 월어의 6조의 조치는 각각 1성(55), 2성(35), 3성(33), 4성(21), 5성(13), 6성(22)이다. 이 중 1성, 2성, 3성을 음조로 분류하고, 4성, 5성, 6성을 양조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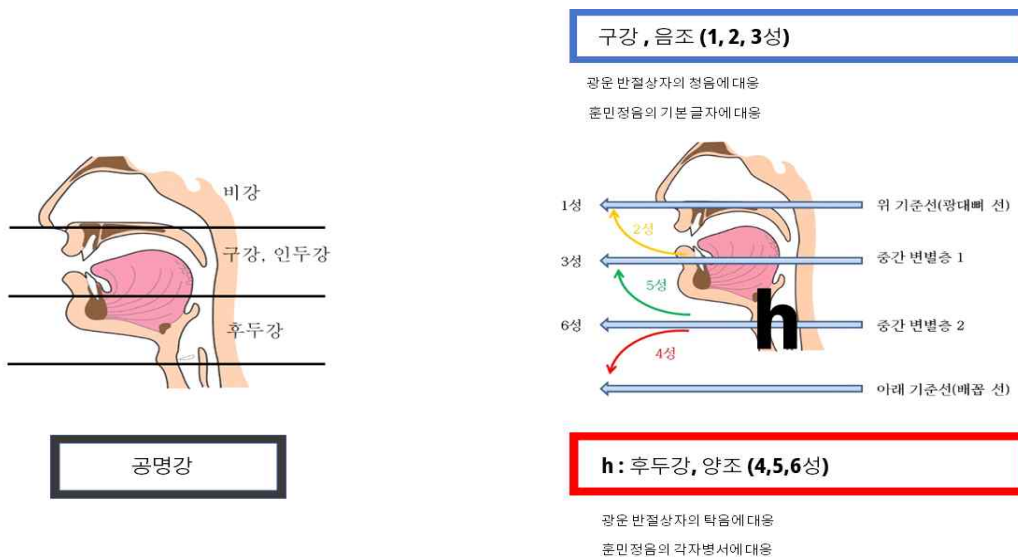
광동어의 성조 표기는 병음 방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숫자 ‘1, 2, 3, 4, 5, 6’으로 나타낸다. ‘예일로마자표기법’과 ‘황석릉표기법’에서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화처럼 부호로 나타냈는데, 이 중 주목할 점은 예일로마자표기법에서 양조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h’이다. 여기서 ‘h’는 성문 마찰음을 뜻하는 부호가 아닌 후두강, 즉 성문 자체를 뜻하

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병음 방안의 6조 표기		무게중심				
香港語言學學會	耶魯	耶魯(正統)	黃錫凌	萬國音標	廣州話	劉錫祥
1	1	ˉ	ˊ 높음	1	1	1
2	2	ˊ	ˋ 높음	2	2	2
3	3		ˋ 높음	3	3	3
4	4	h	ˋ 낮음	4	4	4
5	5	h	ˋ 낮음	5	5	5
6	6	h	ˋ 낮음	6	6	6

<그림-198> 여러 병음 방안의 6조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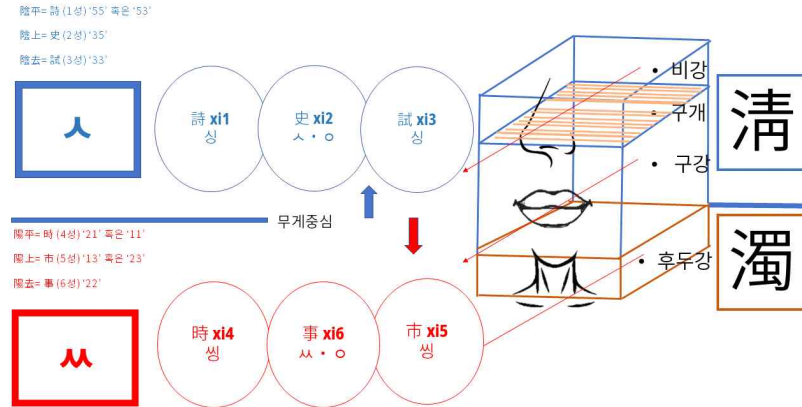
공명강의 무게중심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음조·양조를 도식화한 것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99> 공명강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광동어의 음조와 양조

광동어의 9성 6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음조와 양조를 구분하는 훈련을 진행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陰平(詩xi¹)·陰上(史xi²)·陰去(試xi³)·陽平(時xi⁴)·陽上(市xi⁵)

·陽去(事xi⁶)를 구분하여 연습하는 것이다. 詩·史·試·時·市·事 중 음조에 해당하는 詩·史·試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음 및 『廣韻』 반절상자의 청음에 대응하며, 양조에 해당하는 時·市·事는 『東國正韻』 한자음의 탁음 및 『廣韻』 반절상자의 탁음에 대응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200>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과 광동어의 음조·양조

2.3. 칼그렌 연구의 한계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무성음과 유성음의 분절 자질의 대립으로 설명했을 경우, 오방언과 일본 한자음의 청탁은 설명이 되지만, 광동어와 한국 한자음의 청탁은 설명되지 않는다. 현재 칼그렌의 연구를 바탕으로 오방언과 일부 상방언 지역을 제외한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유성음이 무성음화 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다. 실제로 유성음이 무성음화 되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청탁이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방언과 일부 상방언 만의 특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조유형분포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²⁰⁾ 오방언과 일부 상방언의 성조 유형 분포는 대다수의 남방 방언과는 다른 분포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 방언 성조 분포 연구(이옥주, 이경민)

중국 방언 지도



오방언 및 일부 상방언의 성조 유형 분포는 대다수의 남방 방언과는 다른 분포를 보인다.

<그림-201> 중국어 방언 성조 분포 연구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개연성에 대한 가능성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칼그렌 연구의 한계는 『訓民正音』 「解例本」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 훈민정음으로 한어 중고음의 청탁의 자질을 주음하고 있는 『東國正韻』 한자음, 『東國正韻』 한자음 표기에서 현실 한자음 표기의 계승 양상에서 드러난다.

청탁의 자질이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확실한 것이라면, 이 자질을 바탕으로 『東國正韻』 한자음의 훈민정음 표기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탁 표기를 위한 각 자병서에서 우리 한자음에서 변별 자질이라고 볼 수 없는 ‘ㄱ-ㄲ’, ‘ㄷ-ㄸ’, ‘ㅂ-ㅃ’, ‘ㅈ-ㅉ’, ‘ㅎ-ㅎㅎ’은 제외하더라도, 『東國正韻』 한자음의 ‘ㅈ’이 『訓民正音』 「諺解本」에서 우리말 어휘의 ‘ㅈ’에 해당하는 점과 『訓蒙字會』에서 ‘ㅈ’을 ‘ㅈ’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에서 전탁 ‘ㅈ’을 유성음인 [z]로 볼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전탁 ‘ㅈ’을 유성음 [z]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z]가 우리 입말에서 어떻게 발화되던 우리 입말에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한자음에서도 동시에 탁성의 자질을 갖게 된다. 이는 『東國正韻』 서문에서 청탁은 우리 입말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나, 자음에서는 탁성이 없다는 설명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전청 ‘ㅎ’과 불청불탁 ‘ㅇ’은 우리말에서는 변별 자질이 아니지만, 중국 한자음에서는 변별 자질인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말에서 체로 음가로 드러나는 ‘ㅎ’과 ‘ㅇ’을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설명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것이며 이는 중국 한자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ㅎ’과 ‘ㅎㅎ’역시 우리말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15세기에 우리 입말에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변별 자질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어의 음운에서 성조는 초분절 자질로 구분되는 변별 자질인데, 칼그렌의 『中國音韻學研究』에서 한어 중고음의 평·상·거·입을 제외하고 실제 중국 방언의 성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방언의 음운자질을 변별 자질로서만 설명하는 한계가 있다.

2.4. 국내의 청탁과 관련한 선행 연구

우리 선조는 일찍이 한어 중고음의 청탁의 자질을 음소문자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음소문자의 자질을 설명하고 있는 『訓民正音』 「解例本」을 남겼다. 이밖에 『東國正韻』,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訓蒙字會』 외 많은 수의 불경언해를 통해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과 그 다음 세대가 선택한 훈민정음을 비교·고찰할 수 있다. 우리 한자음을 바탕으로 정음을 표기하고자 한 한자음, 우리 현실 한자음을 표기하고자 한 한자음, 중국 근대음을 훈민정음으로 전사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한자음, 중국 근대음을 전사한 한자음, 진언 표기를 위한 한자음 등 실로 많은 자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의 자질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칼그렌 이후의 중국 음운학자의 청탁에 관한 학설을 전제로 우리 한자음의 자질을 연구해왔다.²¹⁾

‘ㅎ’과 ‘ㅇ’을 제외하면, 청탁의 자질은 곧 각자병서(各自並書)에 대한 연구로 귀결될 수 있

20) 이옥주, 이경민, 「중국어 방언 분포 연구」, 『중어중문학』 제81집, 2020, 252쪽.

21) 중고음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단지 중국이나 일본 또는 칼그렌 등의 재구음을 가져다가 설명의 편의 과정에서 여러 학자 중 특정 재구음을 취하여 그 재구음에 대한 검토나 비판이 거의 없이 적용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다. 김대성, 「止攝 諸韻의 中古音 再構, -한일중 및 베트남·티베트 자료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제52집, 7-8쪽.

는데,²²⁾ 이와 관련하여 유성음설(有聲音說), 경음설(硬音說), 중자음설(重子音說)²³⁾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유성음설은 칼그렌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경음설 역시 전탁음에 대한 자질을 유성음으로 봤으나, 국어에서 전탁음 자질[+장애성, +유성성]이 없기 때문에 전탁음 표기를 위해 국어의 장애음 계열에서 경음을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²⁴⁾ 유성음설과 경음설은 창과 방패처럼 서로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 각자병서가 유성음일 경우, 우리말에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없음을 설명하지 못하며, 각자병서가 경음일 경우, 동국정운 편찬자가 전탁음 표기를 위해 전탁음의 자질과 상반되는 자질을 사용했다는 뜻이 되는데,²⁵⁾ 이는 『東國正韻』 편찬자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추측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의 자질에 관해, 『東國正韻』 서문에서 “우리 나라의 말소리에 청탁(淸濁)의 분별이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글자음(字音)에는 오직 탁성(濁聲)이 없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을 것인가.(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해 이기문은 위 기록은 종래에도 여러 차례 論難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청음을 평음으로, 탁음을 된소리로 해석함으로써만 비로소 이해된다. 즉 15세기 중엽의 동음(東音)에는 된소리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동음에도 된소리는 두셋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이런 해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언문지(諺文志)에 “近日東俗 除雙쌍喫끼 二字之外 都無全濁之聲”이라 있음이 주목된다. 현대에는 ‘ㅍ’가 더 추가된 셈이다.”고 설명했다.²⁶⁾ 하지만 언문지는 1824년에 제작된 서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초기 훈민정음의 이해를 위한 접근 가능한 정보가 현재보다 더 적었을지 모른다. 雙, 喫, 氏은 각각 전청, 차청, 전탁 글자로 『東國正韻』 한자음으로 ‘쌍’, ‘격’, ‘씨’로 표기되고, 『訓蒙字會』에서 ‘ㅍ’, ‘ㄱ’, ‘ㅅ’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한자음의 탁음을 된소리로 해

22) 各自並書의 음가는 한동안 학계의 주된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도수회(1971), 오정란(1988), 박창원(1990) 등에 비교적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즉 各自並書 음가에 대한 학설은 크게 有聲音說과 硬音說로 나뉜다. 여기서 有聲音說은 전탁음이 중국어에 있어서 유성음이므로 이 전탁음의 표기를 위한 各自並書의 음가는 유성음일 것이라는 논리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에 硬音說은 各自並書가 국어에 쓰인 용례들을 검토하고 신명균(1933), 또한 훈민정음 당사자들이 전탁음에 대해 가진 관념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이기문(1955) 각자병서의 음가는 된소리(경음)였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鄭仁浩, 「중세어 ‘ㅍ, ㅎ’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제110권, 2010, p.243.

23) 중자음 geminate(중첩음): 연속되는 동일 발음, 보통 자음의 장음화로 나타난다. 이정민·배영남(1982:311), 중자음은 동일 조음의 연쇄이다. 이는 조음의 지속 또는 조음 동작의 연장이기 때문에 장자음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자음은 보통 음절 경계가 개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Catford 1977:210), 모든 밀폐자음에는 세 때(temps)가 구별된다. 밀폐 내지 내파와 장단간 지속할 수 있는 억지(tenue)와, 개방 내지 외파가 그것이다. 가령 t와 같은 단순한 한 자음의 발출에 있어서는 외파가 내파에 곧 뒤따르기 때문에 억지는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지속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이에 반하여 우리가 중자음이라고 일컫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세 때가 확연히 나타난다. 중자음이란 짧은 자음보다는 더욱 힘있게 발음되는 장자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Vendryes(1921)을 이기문(1955:242)에서 재인용.

24) 15세기 국어의 장애음 계열에서 유성과 무성의 대립은 없었으므로, 『東國正韻』에서 파악한 전탁음이 한어 성운학에서 갖는 전탁음 자질인 [+장애성, +유성성]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시의 조선의 음운학자들에게 있어서 전탁음이란 것은 국어의 장애음 계열에서 변별적 음운으로 존재하였던 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무림, 『홍무정운역훈』, 신구문화사, 2006년, 43쪽.

25) 한어 병음으로 ‘b-, d-, z-, j-, zh-, g-’로 시작되는 무기음은 성조의 고저(高低)에 따라 음의 성질이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즉, 1성(55)과 4성(51)과 같이 고조(高調)로 시작하면 경음(硬音, 우리말의 ㅍ, ㄷ, ㄱ, ㅈ 등과 같이 강하게 발음되는 음)으로 발음되고, 2성(35)과 3성(214)과 같이 저조(低調)로 시작하면 평음(平音, 우리말의 ㅂ, ㄸ, ㄴ, ㅊ 등과 같은 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이해우, 『현대 중국어 음운론』, 신아사, 2017, 50쪽.

26) 이기문, 『훈몽자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94-95쪽.

석하기에 타당한 근거라 보기 어렵다.

이 밖에 정경일은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한자음 교정이라는 성격에 맞추기 위하여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전탁음을 체계 안에 설정한 것이라 분석하여 『東國正韻』에 전탁음으로 표기된 자음이 다시 현실음에서 청음으로 바뀐 경우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당시 현실음의 변화를 무시하고 전탁음을 체계 속에 존재시키고자 하는 태도는 마치 『洪武正韻』이 “一以中原雅音爲定”이라고 하면서도 『中原音韻』의 당시 전탁음이 탈락된 음운체계나 입성 탈락의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禮部韻略』이나 『古今韻會舉要』의 체계만을 받아들여 전탁음의 계열을 분립시킨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²⁷⁾

청탁에 관한 선행연구로, 유성음설, 경음설, 중자음설, 및 체계를 지키기 위한 표기상의 목적 등에 관한 주장이 있었지만, 한어 중고음의 전탁을 유성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비판이나, 훈민정음의 현실 한자음 표기로의 계승 양상을 바탕으로 음운 자질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東國正韻』 한자음의 청탁과 광동어의 음조·양조의 대응 관계와 더불어, 『東國正韻』의 ‘ㅍ’에서 『訓蒙字會』의 ‘ㅍ’으로 계승 양상은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논거이다.

2.5. 『東國正韻』의 ‘ㅍ’, 『訓蒙字會』의 ‘ㅍ’

『東國正韻』 서문을 통해, 우리 한자음에서 청탁이 음운 변별 자질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청탁을 구분한 목적은 글을 배우기에 앞서 올바른 성운(聲韻)의 이치를 교육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청탁에 관한 직접적이 설명인 “我國語音, 其清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理”는 우리 입말의 음성에서 청탁의 구분이 중국의 어음과 다름이 없지만, 한자음에서 탁음이 음운 변별 자질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청탁을 초분절 자질로 인식하면 음운 자질의 양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ㄱ-ㄲ, ㄷ-ㄸ, ㅂ-ㅃ, ㅈ-ㅉ, ㅎ-ㆁ, ㅇ-ㅇ’는 우리 한자음에서 모두 음운 변별자질이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ㅍ-ㅑ’도 음운 변별 자질이 아니어야 『東國正韻』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청탁의 내용에 부합한다. 만약 ㅑ이 [z]라면 ‘ㅑ-ㅑ’이 우리 한자음에서도 변별 자질이 되어버리는데, 이 경우 우리 한자음에 탁성이 없다고 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ㅑ-ㅑ’이 우리 한자음에서 변별 자질이 아닌 것은 『東國正韻』의 ‘ㅑ’이 실제 한자음²⁹⁾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에서 ‘ㅑ’으로 표기되는 것을 통해 확인

27) 정경일, 『한국 운서의 이해』, 아카넷, 2003, 105쪽.

28) 『東國正韻』 서문: 성음(聲音)은 기운에서 나는 것이니, 청탁(淸濁)이란 것은 음양(陰陽)의 분류(分類)로서 천지의 도(道)이요, 사성(四聲)이란 것은 조화(造化)의 단서(端緒)로서 사시(四時)의 운행이라, 천지의 도(道)가 어지러우면 음양이 그 자리를 뒤바꾸고, 사시(四時)의 운행이 문란하면 조화(造化)가 그 차례를 잃게 되나니, 지극하도다 성운(聲韻)의 묘함(妙)이여. 음양(陰陽)의 문턱은 심오(深奧)하고 조화(造化)의 기틀은 은밀한지고. 더구나 글자[書契]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는 성인의 도(道)가 천지에 의탁했고, 글자[書契]가 만들어진 뒤에는 성인의 도가 서책(書冊)에 실렸으니, 성인의 도를 연구하려면 마땅히 글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하고, 글의 뜻을 알기 위한 요령은 마땅히 성운(聲韻)부터 알아야 하니, 성운은 곧 도를 배우는 시작(權輿)인지라, 또한 어찌 쉽게 능통할 수 있으랴. 이것이 우리 성상(聖上)께서 성운(聲韻)에 마음을 두시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시어 지침(指針)을 만드셔서 억만대의 모든 후생들을 길 열어 주신 까닭이다.

29) 우리나라의 실제 한자음이라 부른 것은 한자(漢字)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뒤 그 발음이 국어의 음운 체계에 동화되어 버린 것을 말한다. 『訓蒙字會』의 한자음이 반드시 당시의 동음 그대로가 아님 그 범례의 5조에 명기되어 있고, 동음을 채택한 최초의 문헌은 아니지만 3천 이상의 한자를 가지고 있어 동음의 좋은 편람 구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런 생각은 전체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기문, 『훈몽자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3, 94-95쪽.

할 수 있다.

최세진은 『訓蒙字會』에서 전탁 사모(邪母)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모두 ‘ㅅ’으로 표기한다.

邪母(齒頭音) * 『東國正韻』의 邪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正韻 (1447)	訓蒙字會 (1527)	全韻玉篇 (1796)	反切 (廣韻)	中古音		中原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席	邪	·꺄 → 꺄	·꺄(器皿) → 꺄	·꺄	祥易	梗開三入昔邪全濁	zjek	si	ci ²
袖	邪	·꺄 → 꺄	·꺄(腹飾) → 꺄	·꺄	似祐	流開三去宥邪全濁	zju	siəu	ciou ⁴
序	邪	·꺄 → 꺄	·꺄(儒學) → 꺄	·꺄	徐呂	遇開三上語邪全濁	zjo	siu	cy ⁴
餽	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祥吏	止開三去志邪全濁	zi	si	ɿ ⁴
燼	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徐刀	臻開三去震邪全濁	zjen	siən	tɕin ⁴
象	邪	·꺄 → 꺄	·꺄(獸畜) → 꺄	·꺄	徐兩	宕開三上養邪全濁	zjan	siən	ciən ⁴
旋	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似宣	山合三平仙邪全濁	zjuæn	siuən	cyən ²
縷	邪	·꺄 → 꺄	·꺄(腹飾) → 꺄	·꺄	徐辭	止合三去至邪全濁	zjuei	sui	suei ⁴
楯	邪	·꺄 → 꺄	·꺄(宮宅) → 꺄	·꺄	許邊	臻合三平諄邪全濁	zjuen		suən ³
松	邪	·꺄 → 꺄	·꺄(樹木) → 꺄	·꺄	祥容	通合三平鍾邪全濁	zjuon	siun	sun ¹

<그림-202> 『東國正韻』과 『訓蒙字會』 한자음의 사모(邪母) 비교

최세진은 『訓蒙字會』에서 전탁 선모(禪母)에 해당하는 한자음을 모두 ‘ㅅ’으로 표기한다.

禪母(正齒三等) * 『東國正韻』의 邪母(ㄷ)에 해당

字例	聲母	東國正韻 (1447)	訓蒙字會 (1527)	全韻玉篇 (1796)	反切	中古音		中原音韻 (1324)	普通話
						廣韻 (1008)	董同龢		
箴	禪	·꺄 → 꺄	·꺄(器皿) → 꺄	·꺄	是征	梗開三平清禪全濁	zjer		ts ^h ɛn ²
十	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是執	深開三入緝禪全濁	zjep	si	ɕi ²
殖	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常職	曾開三入職禪全濁	zjek		ts ^l ²
臣	禪	·꺄 → 꺄	·꺄(人類) → 꺄	·꺄	植鄰	臻開三平真禪全濁	zjen	ts ^h ien	ts ^h ɛn ²
裳	禪	·꺄 → 꺄	·꺄(腹飾) → 꺄	·꺄	市羊	宕開三平陽禪全濁	zjan	ts ^h ian	ts ^h ən ²
蟾	禪	·꺄 → 꺄	·꺄(昆蟲) → 꺄	·꺄	視占	咸開三平鹽禪全濁	zjæm	ts ^h iem	ts ^h ən ²
噤	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時制	蟹開三去祭禪全濁	zjæi	si	ɕi ⁴
睚	禪	·꺄 → 꺄	·꺄(身體) → 꺄	·꺄	視佳	止合三平脂禪全濁	zjuei		suei ²
醇	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常倫	臻合三平諄禪全濁	zjuen	ts ^h iuən	ts ^h uən ²
熟	禪	·꺄 → 꺄	·꺄(雜語) → 꺄	·꺄	殊六	通合三入屋禪全濁	zjuk	siu	su ²

<그림-203> 『東國正韻』과 『訓蒙字會』 한자음의 선모(禪母) 비교

한어 중고음의 치음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우리 한자음에서 변별 자질이 되는 사모와 선모에서, 『東國正韻』 한자음의 ‘ㅅ’을 『訓蒙字會』에서 ‘ㅅ’으로 표기한 객관적인 사실은 한어 중고음의 청탁을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논거이다. 현재의 중국 음운학계가 이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세종과 『東國正韻』 편찬자가 인식하고 있는 청탁의 음운 자질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으로 설명이 가능한 범주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칼그렌의 『中國音韻學研究』 집필 기간은 1915년부터 1926까지의 10년으로, 칼그렌의 나이 26세에서 36세 사이의 업적이다.³⁰⁾ 그의 발견 및 중국음운학자의 동의 만을 전제로 우리 선조의 성운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청탁이 무성음과 유성음에 대응

30) 著者略歷: 高本漢 (Karlgren, Klas Bernhard Johannes) 生於 1889 年十月五日。1915年得 Upsala 大學文學博士學位。1915 至 1918 年任 Upsala 大學副教授, 1918 年起任 Goteborg 大學遠東語言文化教授, 1931 年起任: Goteborg 大學校長。曾來中國遊歷,並在山西住過幾年。高本漢(高本漢, 칼그렌) 著, 조원임·이방계 합역(合譯), 『中國音韻學研究』, 1939, 9쪽.

이 잘되는 이유는 청탁이 범어(梵語)의 전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인도의 승려 혹은 중국의 승려에게 있어 범어에는 있는 음소이지만, 한어에는 없는 음소를 체계적으로 음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이다. 특히 범어의 유성음은 성대 깊숙한 곳에서 발성하는 묵직한 소리로, 한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자질을 체계적으로 음역하기 위해 어떤 한자음의 특징을 활용했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칼그렌이 근거로 삼은 오방언과 일본 한자음(漢音, 吳音)에도 한어 중고음의 특징이 남아있지만,³¹⁾ 광둥어와 한국 한자음에도 한어 중고음의 특징이 남아있다. 중국 광둥 지역과 한국의 거리는 상당하고, 직접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한어 중고음의 입성이 남아 있는 등 현재까지도 한자음이 비슷하므로 한어 중고음의 음운 연구에 실질적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둥어의 입성은 절운계 운서의 평상거/입의 四聲 체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광둥어에서 탁음이 유성음이었고, 후에 청음의 무성음으로 되었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보인다.

2.6. 『사성통해』의 ‘ㅍ’과 ‘ㅑ’, 합용병서

최세진은 『訓蒙字會』에서 현실 한자음에 대한 표기를 진행한 것 이외에도, 『사성통해(四聲通解)』에서 중국 근대음 표기에 대한 작업도 진행했다. 『四聲通解』에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표기를 계승하여 齒頭와 正齒의 구분을 ‘스ㅑㅑㅑㅑ’와 ‘스ㅑㅑㅑㅑ’로 표기하는 한편,³²⁾ 『洪武正韻譯訓』과 달리 입성의 표기를 하지 않아, 보다 현실에 가까운 근대음 표기를 추구했다. 최세진이 『訓蒙字會』에서 『東國正韻』 한자음의 ‘ㅑ’를 ‘ㅑ’로 표기한 것과, 『四聲通解』에서 무성음 [s]로 추정되는 전탁 邪母·禪母를 각각 ‘ㅑ’과 ‘ㅑ’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전탁자를 표기하기 위한 각자병서는 유성음의 자질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최세진이 ‘ㅑ’ 혹은 ‘ㅑ’과 ‘ㅑ’를 유성음인 [z]로 인식했다면, 중국 현실 근대음 표기를 위한 『四聲通解』에서 ‘ㅑ’과 ‘ㅑ’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四聲通解』 한자음과 『中原音韻』의 추정음을 비교한 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

사모(邪母)

차례	성모	동국 경운	사성 통해	중원 음운
鷓	邪	성, 땅	성	
席	邪	·씩	씩	si
涎	邪	·현	현	siɛn
習	邪	·씩, 꺾	씩	siɛm
習	邪	·씩	씩	si
序	邪	·성	쑤	siu
詞	邪	·성	스	si
寺 ²⁷⁾	邪	·성 ·성	스	si
涎	邪	·현	현	siɛn
涎	邪	·현	쑤	sui
松 ²⁸⁾	邪	·성	쑤	siuŋ

<그림-204> 『四聲通解』와 『中原音韻』 한자음의 사모(邪母) 비교

31) 칼그렌은 일본 음역과 관련해서, 漢和大辭林과 漢和大字典을 참조했다.(關於日本譯音我用的是漢和大辭林跟漢和大字典), 고본한(高本漢, 칼그렌) 著, 조원임·이방계 합역(合譯), 『中國音韻學研究』, 1939, 542쪽.

선모(禪母)

자례	성모	동국정운	사성통해	중원음운
城	禪	성	성	tʃʰiɛŋ
盛 ²⁷	禪	성 ·성	성	tʃʰiɛŋ
盛 ²⁸	禪	성 ·성	성 ←	siɛŋ
石	禪	·석	석 ←	ʃi
善	禪	·선 ·선	선 ←	ʃiɛn
時	禪	성	·성 ←	ʃi
臣	禪	선	·선 ←	tʃʰiɛn
辰	禪	선	·선 ·선 ←	tʃʰiɛn
瞻 ²⁹	禪	·섬	·섬 ·섬 ←	ʃiɛm
樹 ²⁹	禪	·송 ·송	·송 ·송 ←	ʃiu
樹 ³⁰	禪	·송 ·송	·송 ·송 ←	ʃiu
誰	禪	·위	·위 ←	ʃui
數 ³⁰	禪	·수	·수 ←	ʃiu

<그림-205> 『四聲通解』와 『中原音韻』 한자음의 선모(禪母) 비교

최세진이 훈민정음의 전탁 ‘ㅅ’을 유성음 [ʒ]로 인식했다면, 중국 근대음과 관련이 있는 『四聲通解』에서 전탁 사모(邪母)·선모(禪母)의 표기를 위해 ‘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四聲通解』에서 今俗音 등을 풀이하여 설명하기 위해, 우리말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된소리에 해당하는 어휘에 대해 각자병서가 아닌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있다.

자례	『四聲通解』음	우리말 어휘	현음
萋	류	물뚝	류
扮	반	꾸미다	반
淘	탈	빨이다	쌀 일도
螳	탕	물뚝구으리	버마재비 당.사마귀 당
橈	강	빨플	미음강
餡	팜	떡소	떡소 함

<그림-206> 『四聲通解』의 우리말 어휘

만약 각자병서가 우리말의 된소리에 해당하고, 한어 중고음의 전탁과 관련해서는 표기상의 수단이긴 했지만, 『四聲通解』의 우리말 어휘 중 ‘꾸미다’, ‘물뚝구으리’를, 어째서 ‘꾸미다’, ‘물뚝구으리’로 표기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32) 『訓民正音』 「解例本」에서는 齒頭音을 경구개 혹은 치조음으로 보고, 正齒音을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漢語의 舌尖前音을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ㄱ ㅋ ㅅ ㅆ 는 用於齒頭하고, 【이 소리는 우리 나라의 소리에서 엷으니 혀끝이 윗니의 머리에 닿느니라.】 ㄱ ㅋ ㅅ ㅆ 는 用於正齒하나니 【이 소리는 우리 나라의 소리에서 두터우니 혀끝이 아랫잇몸에 닿느니라.】 (나찬연, 『쉽게 읽는 월인석보 서』, 도서출판 경진, 2017, 68쪽.)

3. 결론

『東國正韻』과 『訓蒙字會』 한자음의 훈민정음 표기와 계승 양상을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東國正韻』 23자모에서 『廣韻』 41성류의 전탁 齒頭 邪母, 正齒 3등 禪母에 대응하는 ‘ㅅ’이 『訓蒙字會』에서는 일률적으로 ‘ㅅ’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어 중고음의 전탁의 조음 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유성음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어 중고음의 체계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 『東國正韻』 23자모와 현실 한자음을 반영하고 있는 『訓蒙字會』의 한자음 표기를 근거로 했을 때, 전탁의 조음 방식을 국제음성기호에서 규정하는 유성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한어 중고음의 邪母를 현재 오방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z]라 한다면, 『東國正韻』에서 邪母의 표기를 위해, ‘ㅅ’이 아닌 ‘ㅆ’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 『東國正韻』에서 청탁을 구분하지만, 齒音에서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지 않고, 正齒에서 等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東國正韻』 23자모의 청·탁, 『廣韻』 반절상자의 청·탁, 광동어의 음조·양조가 일률적인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東國正韻』 23자모의 음운 자질에 대한 연구는 분절 자질을 넘어 초분절 자질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훈민정음의 음가 추정에 있어 국제음성기호의 분절 자질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국제음성기호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이 주된 음운자질로 활용되는 유럽어의 분석에 최적화된 것으로, 국제음성기호가 아닌 초분절 자질을 바탕으로 한 훈민정음의 자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牙(ㄱ-ㄱ) · 舌(ㄷ-ㄷ) · 脣(ㅂ-ㅂ) · 齒(ㅈ-ㅆ) · 齒(ㅅ-ㅅ) · 喉(ㅎ-ㅎ) · 喉(ㅎ-ㅇ)에서 청탁의 대립을 음소문자로 표기함에 있어 획의 사용의 일관성을 살필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이 자질문자라는 증거이며, 본 연구가 초분절 자질의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자질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訓蒙字會》에 나타난 近代漢音系 차용어

蕭悅寧
(光云大)

목차

1. 들어가며
2. 近代漢音系 차용어의 판별 기준
3. 《訓蒙字會》에 나타난 近代漢音系 차용어
 - 3.1 近代漢音系 차용어 목록
 - 3.2 목록에서 제외된 차용어
 - 3.3 새로 추가된 차용어
 - 3.4 추가 설명이 필요한 차용어
4. 나오며

1. 들어가며

《訓蒙字會》(1527)는 崔世珍이 한자 초학자를 위해 편찬한 교재이다. 여기에 수록된 한자 3360개에 각각 訓民正音으로 그 음과 訓을 표기하였는데 이 한자음의 상당수가 중국 近代音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周知하는 사실이며 한자의 訓 중에 近代漢語로부터 차용된 어휘가 있다는 것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런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李基文(1965)에서는 이런 차용어를 소개하면서 그 일부의 출처를 《訓蒙字會》의 것을 인용하였다. 그런 단어는 총 22개가 있다.

보비(寶貝), 통(銅), 더모(蛾蟬), 투구(頭盔), 수스(繆兒), 토으(條兒), 휘(靴), 상투(上頭), 노(羅), 비단(匹段), 즈우샤/주사(縐紗), 무즈(篋子), 즈디(紫的), 쇠즈(刷子), 고리(筭箒), 조리(笊籬), 피리(篳篥), 변시(匾食), 천량(錢糧), 슈슈(蜀黍), 비치(白菜), 노고(鑼鍋)

한편, 李基文(1999)에서는 기존의 논의 위에 “지지(梘子)”와 “방패(旁牌)” 두 단어를 추가하였다.

南豐鉉(1968)에서는 《訓蒙字會》를 직접 분석하지 않았지만 《釋譜詳節》, 《月印釋譜》, 《龍飛御天歌》 등 15세기에 간행된 언해 문헌을 중심으로 총 138개의 단어를 검토하였다. 거기에 “직접차용”이라고 언급된 단어 중 《訓蒙字會》에도 보이는 것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노(羅), 더(笛), 듀석(鑰石), 보비(寶貝), 비단(匹段), 쇼(褥)¹⁾, 즈디(紫的), 천량(錢糧), 초

(燭), 통(銅), 휘(靴)

최근에 李準煥(2019)에서 《訓蒙字會》의 訓에 실린 한자음을 고찰하면서 일부 한자음이 近代漢音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한자음 연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이지만 차용어를 간접적으로 분석해 주었다고 할 수는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 단어가 漢語 近代音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춧돌(柱礎), 독(蠶), 구화(菊花), 모과(木瓜), 모욕(沐浴), 계즈(芥子), 복도(幞頭), 무궁화(木槿花), 방패(旁牌), 나평(臘享)

이외에는 사전에서 《訓蒙字會》의 예를 제시하면서 해당 단어가 近代漢語의 차용임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박재연·이현희 주편(2016)에서는 《訓蒙字會》에 수록된 “샤약(芍藥)”, “색스(色兒/殿兒)”, “주춧돌(柱礎)”와 “다대(達達 1)” 네 단어에 대해서만 “중국어 직접 차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김무림(2020)에서는 《訓蒙字會》에도 나타난 다음 단어들이 近代漢語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訓蒙字會》의 예를 직접 인용한 것은 “비치”, “샤약”, “슈슈”와 “피리” 네 단어뿐이다.

계즈(芥子), 모과(木瓜), 무궁화(木槿花), 보비(寶貝), 비단(匹段), 비치(白菜), 샤약(芍藥), 슈슈(蜀黍), 시근치(赤根菜), 요(褥), 초(燭), 투구(頭盔), 피리(薺栗)

필자는 蕭悅寧(2014)에서 漢語의 近代音과 對照하고 중국 문헌의 용례를 제시하면서 117개 近代漢音系 차용어의 語源을 분석하였는데, 당시에는 漢語 譯學書 10種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訓蒙字會》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 25개의 차용어는 《訓蒙字會》에도 나타난 것이니, 《訓蒙字會》에 실린 近代漢音系 차용어의 語源을 입증하는데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 24개의 차용어는 다음과 같다.

계즈(芥子), 광조리(筐箎籬), 노(羅), 노고(羅鍋), 다대(達達, 변시(匾食), 보비(寶貝), 비단(匹段), 비양(白楊), 비치(白菜), 샤즈(刷子), 선비(先輩), 슈슈(蜀黍), 시근치(赤根菜), 양즈(樣子), 요(褥), 조리(箎籬), 좌오(座兒), 즈디(紫的), 천량(錢糧), 치질(刺질), 통(銅), 투구(頭盔), 휘(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訓蒙字會》에 실린 近代漢音系 차용어에 관한 설명은 여러 곳에 散在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면적인 정리와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꿔 말해서 《訓蒙字會》에 나타난 近代漢音系 차용어가 총 몇 개인지, 이 단어들이 어떤 방법에 의해 검증되었는지에 대해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近代漢音系 차용어의 판별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訓蒙字會》의 訓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차용어를 일일이 찾아낼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그 語源이 이미 검증된 것을 제외하고 語源 확인이 필요한 차용어에 대해서만 음운론적 연관성을 주요 근거로 설명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었지만 설명이 더 필요한 단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1) 《訓蒙字會》에서는 “褥 요 속”으로 되어 있다. “속”은 “褥”의 한국한자음이고 해당 차용어는 訓인 “요”로 보아야 한다.

2. 近代漢音系 차용어의 판별 기준

“近代漢語 차용어”나 “近代中國語系 차용어”를 사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고에서는 필자가 사용해 온 “近代漢音系 차용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굳이 “漢音系”라고 하는 것은 近代漢語 시기에 들어온 모든 차용어가 다 近代漢音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甘藷”라는 단어는 분명히 近代漢語 시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近代漢語의 발음, 즉 近代漢音을 반영한 “간저”로 읽히지 않았고 한국한자음인 “감저”로 발음된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近代漢語 시기에 차용된 단어”가 아니라 “近代漢語의 입말에서 차용되어 近代漢語의 발음을 반영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近代漢音系 차용어”라고 하여야 그 뜻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

李基文(196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차용어들의 原漢字를 한국한자음으로 읽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近代漢音系 차용어는 늘 近代漢音을 온전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차용어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필자가 蕭悅寧(2014:18-20)에서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을 약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채택하고자 한다.

- (i) 단어의 일부만 近代漢音과 음운론적 대응 관계를 보여도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간주한다.

여기서의 “음운론적 대응 관계”는 주로 入聲 韻尾 /-p/, /-t/, /-k/의 소실, 陽聲 韻尾 /-m/이 /-n/으로 바뀐 것 등을 말한 것이다.

- (ii) 차용 이후 한국한자음으로 바뀌고, 이른바 한자어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차용 당시에 近代漢音을 반영했다면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본다.

이는 앞서 언급한 李基文(1965)에서의 지적을 고려하여 세운 기준이다. 이런 종류의 차용어들은 한국어에 들어온 후 한국한자음에 이끌려 음이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기록된 語形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iii) 차용 당시에는 한국한자음과 일치하였으나 이후에 한국한자음과 일치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단어를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간주한다.

중세 한국한자음 중에 近代漢音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화냥”(花娘)은 한국한자음으로 읽어도 “화냥”이고 近代漢音으로 읽어도 “화냥”이다. 이런 단어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娘”의 한국한자음이 나중에 “냥”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냥”은 “화냥”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는 “화냥”이 한국한자음과 다른 계통임을 示唆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近代漢音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한자음과도 다른 단어들은 일단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단, 해당 語形이 中古音을 반영한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近代漢音系 차용어가 近代漢音을 항상 규칙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일종의 “청취 오류”로 인해 語形이 바뀌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해당 단어가 中古音의 반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 (v)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어법이나 의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차용어를 판별하는 데에 있어서는 음운론적 설명을 우선시해야 하나, 음운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어의 구조가 近代漢語 시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또한 그 단어의 의미가 近代漢語 시기의 것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訓蒙字會》에 나타난 近代漢音系 차용어

3.1 近代漢音系 차용어 목록

앞서 제시한 기준으로 《訓蒙字會》의 訓을 살펴본 결과, 총 48개의 近代漢音系 차용어를 찾아냈다. 그 語源과 用例 및 출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성조 표기는 생략하였다.

번호	차용어	어원	용례	출처	
				叡山本	東中本
1	계즈	芥子	芥 계줏 개	上7b	上14a
2	광조리	筐筥籬	筐 광조리 게	中7a	中13a
			筐 광조리 광	中7a	中13a
			籬 광조리 비	中10a	中19b
3	구화	菊花	菊 구핥 국	上4a	上7b
4	노	羅	羅 놏 라	中15a	中30b
5	노고	鑼鍋	鑿 노고 오	中6a	中10b
6	다대	鞑鞑	鞑 다대 달	中2b	中4a
7	단디	罐/塏子	罐 단디 관	中7a	中12b
8	당쉬	湯水	漿 당쉬 장 熟粟米爲之	中10b	中20b
9	더	笛	管 더 관	中16a	中32b
			簫 더 약	中16a	中32b
			笛 더 덕	中16a	中32b
10	모과	木瓜	楸 모과트 무	上6a	上11a
11	모욕	沐浴	浴 모욕 욱 cf. 沐 머리 ㄹ물 목	下5b	下11a
12	무궁화	木槿花	槿 무궁화 근	上4a	上7b
			薺 무궁화 순	上4a	上7b
13	무즈	穞子	穞 무즈 모	中15a	中30b
			穞 무즈 갈 ²⁾	中15a	中30b
14	미시	米食	麩 미시 초 俗呼一麵	中10a	中20b
			麵飴麩粉		
			糗 미시 구 乾飯屑	中10a	中20b
15	바조	筩竹	筩 바조 파	中4a	中6b
			籬 바조 리	中4a	中6b
16	방패	旁牌	干 방패 간 俗呼旁牌	中13b	中27b
17	보빅	寶貝	寶 보빅 보	中15a	中31a
18	복도	幞頭	幞 복도 복	中11a	中22b
			弁 복도 변	中11a	中22b
19	번시	匾食	飩 만두 둔	中10a	中20a

			餽—卽변시		
20	비단	匹段	段 비단 단 帛 바던 빅	中15a 中15a	中30b 中30b
21	빅양	白楊	蒿 俗呼—草 又蓬— 又青—빅양	上5a	上9a
22	빅치	白菜	菘 빅치 송 俗呼白菜	上7b	上14a
23	샤약	芍藥	芍 샤약 삭 藥 샤약 약	上4a 上4a	上7b 上7b
24	상투	上頭	髻 상투 계	中12b	中25a
25	좌즈	刷子	刷 좌즈 좌	中7b	中14b
26	쇄스	色子/色兒	骰 쇠스 투	中9b	中19a
27	세토	細條	縑 세톳 토 俗呼—兒 細—曰呂公— 總稱繫腰	中11b	中23b
28	선비	先輩	儒 선비 슈	上18a	上34a
29	수스	綫兒	縑 수스 슈 俗呼—兒	中11b	中23b
30	슈슈	蜀黍	黍 기장 서 不粘者為— 粘者為秫 又슈슈曰蜀—	上6b 上7a	上12b
31	슈질	繡-	繡 슈질 슈	下9a	下19b
32	시근치	赤根菜	菠 시근치 파 蔞 시근치 룡 俗呼菠—菜 又呼赤根菜 又呼菠菜	上8a 上8a	上14b 上14b
33	싱양	生薑	薑 싱양 쌍	上7b	上4a
34	양즈	樣子	姿 양즈 즈 態 양즈 틱	下11b 下11b	下26b 下26b
35	연좌스	輓座兒	鞦 연좌스 덩 俗呼輓座兒	中13b	
36	요	褥	褥 요 속	中6b	中11b
37	조리	箎籬	箎 조리 조 簞 조리 리	中7a 中7a	中13a 中13a
38	쥬쥬	柱礎	礎 쥬쥬 초 磳 쥬쥬 상 磧 쥬쥬 길 碣 쥬쥬 석	中4a 中4a 中4a 中4a	中6b 中6b 中6b 中6b
39	즈디	紫的	紫 즈딘 즈	中15a	中30a
40	쵸	燭	燭 쵸 촉	中8a	中15a
41	천량	錢糧	賄 천량 줄 회 賂 천량 줄 리	下9b 下9b	下21b 下21b
42	치질	刺-	刺 치질 척	下9a	下19b
43	츄기	瓷器	瓷 츄기 즈	中9b	中18b
44	투구	頭盔	胄 투구 듀 鍪 투구 모	中14a 中14a	中28a 中28a
45	통	銅	銅 구리 동 黃—듀석 紅—통	中15a,b	中31b
46	피리	觜篋/篋篋	觜 피리 필 篋 피리 립	中16a 中16a	中32b 中32b

47	회화	槐花	槐 회화트 괴	上5b	上10b
48	휘	靴	靴 휘트 화	中11a	中22b

<표1: 《訓蒙字會》에 수록된 近代漢音系 차용어>

3.2 목록에서 제외된 차용어

<표1>을 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분류되었지만 본고에서 제외된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토크(條兒)

이 단어는 李基文(1965)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토크”는 “縹 세뿔 토크 俗呼—兒”(叢山本 中11b; 東中本 中23b)에서 나온 것인데, 正音字로 표기된 語形이 없고 “俗呼—兒”라는 한문 설명만 있으니 해당 단어가 近代漢音이 반영된 “토크”로 읽혔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즈우샤/주사(縐紗)

“즈우샤/주사”도 李基文(1965)에서 제시한 단어이다. “縐 무릎 추 俗呼—紗”(叢山本 中15a; 東中本 中31a)에서 볼 수 있듯이 “俗呼—紗”라는 설명만 있을 뿐, 正音字로 표기된 “즈우샤”는 없다. 따라서 이 단어도 차용어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³⁾

(3) 디모(蚰蟥)

李基文(1965)에서 제시한 또 하나의 단어는 “디모”이다. “디모”는 “蚰 디못 디”와 “蟥 디못 모”(叢山本 上12b; 東中本 上24a) 두 용례가 있는데, 近代漢音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蚰”은 세 개의 음이 있으며, 《字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

“蚰 徒德切, 音特, 關中謂蛇毒曰蚰。又他蓋切, 音態, 《方言》: ‘蟒, 宋、魏之間謂之蚰。又湯德切, 音忒, 義同。’⁵⁾

이 글자는 《中原音韻》이나 《洪武正韻箋》에 수록되지 않아 정확한 近代音을 알 수 없으나, 위에서 제시한 徒德切, 他蓋切과 湯德切 세 음을 고려할 때 “디”는 일단 徒德切과 湯德切의 近代漢音 韻母인 /ə/와 거리가 있어 近代漢音의 차용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他蓋

2) 원문에는 “毛+鬪”로 되어 있다.

3) 縐紗를 近代漢音으로 차용한 “즈우샤”(《譯語類解》)와 “주사”(《方言類釋》)가 있다. 그러나 《訓蒙字會》에 한글로 표기된 語形이 보이지 않으므로 적어도 “《訓蒙字會》의 近代漢音系 차용어 목록”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4) 본고의 漢語 中古音 및 近代音 再構는 주로 李珍華·周長楫(1999)을 따른다. 李珍華·周長楫(1999)에 없는 내용은 韻典網(<https://ytenx.org/>)을 이용하여 해당 음운 정보를 확보한다. “蚰”의 경우 李珍華·周長楫(1999)에 해당 내용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음운 정보를 확인하였다.

5) 教育部異體字字典 참조.

https://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word_attribute.rbt?quote_code=QzEyMjUx

컷은 近代漢音에서 */thai/로 읽어야 하는데 聲母 /th/는 “딤”의 初聲 /ㄷ/과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匹”과 “匹段”이 각각 “비”와 “비단”으로 차용된 사례를 생각하면 “蟻”가 “딤”으로 차용된 것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蟬”이다. “蟬”는 “瑁”의 異體字이다.⁶⁾ “蟬”의 近代音은 明母齊微韻去聲(妹小韻)으로 */mui/로 再構되어 “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딤모”는 近代漢音의 차용어라기 보다는 韓國한자음과 일치하는 語形으로 간주하여 차용어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4) 고리(筲箕)

李基文(1965)에서 제시한 “고리”는 “딤모”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단어는 “筲 高리 高”(叢山本 中7a; 東中本 中13a)와 “筲 高리 柳器”(叢山本 中7a; 東中本 中13a) 두 군데에서 보인다. “고리”는 “筲箕”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筲箕”는 “栲栳”로도 쓰인다.⁷⁾

“栲”는 《中原音韻》에서 溪母蕭豪韻上聲에 속하여 */khau/로 再構된다. “栳”는 來母蕭豪韻上聲의 글자로서 */lau/로 再構된다. 둘 다 “고리”와 거리가 있으므로 “고리”를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고리”는 “筲箕”의 韓國한자음인 “고로”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名物紀畧·器用部》의 “栲栳高리, 俗轉高리, 誤翻爲栲栳, 一作筲箕”라는 설명을 봤을 때, “고리”는 近代漢音의 차용어라기보다는 韓國한자음으로 읽히는 “고로”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5) 지지(梔子)

“지지”는 “梔 지깃 지”(叢山本 上4a; 東中本 上7b)에 나타난 단어이다. 李基文(1999)에서 이 단어를 漢語 “梔子”에서 온 것으로 보았는데, 《四聲通解》에서 “梔”는 “지”, “子”는 “즈”로 표기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지즈”가 韓國에 들어와 “지지”가 되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과연 그런가?

“梔”의 中古音은 */tɕie/(止開三平支章)로 再構되며 近代音은 */tɕʷ/(照母支思韻陰平)로 再構된다. “子”는 中古音과 近代音이 각각 */tsiə/(止開三上止精)와 */tsʷ/(精母支思韻上聲)이다. 近代漢音의 차용어라면 “즈즈”, “즈즈”, “즈즈” 또는 “즈즈”로 표기되어야 자연스러운데 왜 “지지”로 되었을까? 실제로 對譯漢音에서 “子”의 韻母는 16세기 문헌에서 “·”였고 17~19세기 문헌에서는 “一”였다. “梔”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止開三平支章에 속하는 “支”의 對譯漢音 역시 16세기 문헌에서는 “·”로, 17~19세기 문헌에서는 “一”로 나타났다.(蔡瑛純 2002:214-215) 이를 생각하면 “지지”를 中古音의 殘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무림(2020:58)에서도 “가지(茄子)”의 語源을 설명하면서 “子”를 “지”로 받아들인 것은 中古音에 기반을 두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지”는 비록 “梔子”에서 왔지만 “梔子”의 近代音 차용어라기보다는 中古音을 반영한 것이므로 차용어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6) 教育部異體字字典 “蟬”자의 “研訂說明” 참조.
https://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word_attribute.rbt?quote_code=QTAYNTg5LTAwNg

7) 教育部異體字字典 참조.
https://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word_attribute.rbt?quote_code=QzA5NTM4

(6) 듀석(鋤鉞)

“듀석”은 “鋤 듀석 듀”(叡山本 中15b; 東中本 中31b)와 “鉞 듀석 석”(叡山本 中15b; 東中本 中31b) 두 용례가 있다. 《訓蒙字會》의 예를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南豐鉉(1968)에서 이 “듀석”을 이른바 직접차용의 단어로 보았다. 그러나 “듀석”은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석”은 入聲 韻尾가 남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近代漢音이 아닌 한국한자음임에 틀림없다. “鋤”의 近代漢音은 透母尤侯韻陰平이므로 */thəu/로 읽어야 하는데, 이는 “듀”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듀석”을 차용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7) 독(蠹)

“독”은 “蠹 독 독”(叡山本 中14b; 東中本 中29a)에 나타난 단어이다. “蠹”은 한국한자음에서 “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訓이 “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近代音의 층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李準煥(2019)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은 入聲 韻尾인 “ㄱ”이 남아 있는 형태이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차용어 판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8) 나평(臘享)

“나평”은 “臘 나평 납 습也 습祭衆神”(叡山本 上1b; 東中本 上2a)에서 보인 단어이다. 李準煥(2019)에서는 “나평(臘享)”의 “나”를 入聲 韻尾가 탈락한 近代音을 반영한 것이 한국어에 들어온 후 /ㄹ/~ㄴ/의 대치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혁(貫革)>과녁”, “설함(舌盒)>서랍”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近代漢音의 차용인 “라”가 “나”로 교체됐다기보다는 “납형”이라는 한국한자음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본고는 이런 이유로 “나평”을 近代漢音系 차용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3 새로 추가된 차용어

이 부분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밝혀지지 않은 단어들의 음운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그 語源을 검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1) 단디(壇子)

<표1>의 차용어 7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차용어는 “罐 단디 관”에서 나온 용례이다. “단디”는 “罐子” 또는 “壇子”의 近代漢音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罐”과 “壇”은 서로 통하는 글자이므로 같이 논의해도 무방하다. 이 두 글자는 《中原音韻》에 수록되지 않아 近代音에 관한 음운 정보가 없으나, 《廣韻》에서 “罐”은 咸開一平覃定에 속하므로 */dɔm/으로 再構되며 한국한자음에서는 “담”으로 읽힌다. “壇 향아리 담 亦作罈”(叡山本 中7a; 東中本 中12b)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동일 문헌에 수록된 “壇” 자는 “담”으로 되어 있다.

“罐”의 漢語 現代音이 /than/인 것을 고려하면 “단”은 */dɔm/에서 /than/으로 변해 가는

단계의 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디”와 “子”의 관계는 설명하기 어렵다. 近代漢音系 차용어에서의 접미사 “子”는 보통 “즈”나 “즈”로 나타나는데, “지”도 아닌 “디”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饘子”를 항아리의 의미로 쓰는 중국 문헌의 예는 다음과 같다.

太祖心生一計，將小牛殺了一隻，同眾孩子洗剝乾淨，將一饘子盛了，架在山坡，尋些柴草煨爛，與眾孩子食之。(《英烈傳》)

(2) 당취(湯水)

이 차용어는 “漿 當취 장 熟粟米爲之”에서 나타났다.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에서는 “당취”를 “당수”와 “조당수”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당수”는 “우리나라 전래 음식의 하나”로, “쌀, 좁쌀, 보리, 녹두 따위의 곡식을 물에 불려서 간 가루나 마른 메밀가루에 술을 조금 넣고 물을 부어 미음같이 쏜다.”고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조당수”는 “좁쌀을 물에 불린 다음 갈아서 묽게 쏜 음식”이다. 이 “조당수”와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어 “속탕수(粟湯水)”가 있는데 이는 “당수”가 “湯水”와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湯水”의 近代漢音を 차용한 “탕쇠”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湯水茶飯: 탕쇠와 차반이(《翻譯老乞大》·下39a)

“탕”은 “湯”의 近代漢音인 */thap/(透母江陽韻陰平)을 반영한 것이며, “쇠”는 “水”의 */sui/(審母齊微韻上聲)를 반영한 것이다. “당취”에서 “탕”이 아닌 “당”으로 漢語의 */thap/과 대응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의 평음이 語頭 위치에 있을 때 상당한 정도의 有氣性を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匹”*/phi/와 “匹段”*/phi tuon/을 “비”와 “비단”으로 차용한 것과 같다.⁸⁾ “취”가 “水”의 중세 한국한자음인 “슈”와 일치하지 않고 對譯漢音 “취”와 일치하는 것도 이 단어가 近代漢音의 차용임을 말해 준다. 漢語의 “湯水”는 “끓인 물”과 “국물이 있는 음식”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後者에 해당되는 용례는 다음과 같다.

在園中廚內另做了湯水給他吃。(《紅樓夢》第六九回)

(3) 미시(米食)

“미숫가루”의 “미수”의 語源인 “미시”는 “麩 미시 초”, “糲 미시 구”와 “糲 미시 후”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미시”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한국한자음으로 읽히는 “미식”이란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데, 그 語源에 대해 “糜食”과 “米食” 두 가지 說이 있다.

《鼎俎志》〈糲麩之類·總論〉에서 “麩”에 대해 설명한 다음 “東俗呼為‘糜食’”이라고 하였다. “麩”가 조선에서 “糜食”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名物紀畧》〈飲食部〉에서는 “麩麩，俗言米食米食”이라 하여 “미식”의 한자 語形을 “米食”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

8) “비”의 예는 “五箇黑帖裏布: 거문 털릭 뵈 닛 비”(《翻譯老乞大》·上51b)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비”의 사용은 같은 쪽에 있는 “十箇白毛施布: 빅 모시뵈 열 필”과 대조적이다.

목해야 할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진 “食, 華音시”라는 설명이다. 이는 “미식”의 同義語인 “미시”가 近代漢音系 차용어임을 말해 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미”는 “糜”와 “米”의 近代漢音과 한국한자음 양쪽에 모두 부합하는 음이다. “糜”는 주로 粥을 뜻하는데, 볶아서 만든 “미시”를 “糜”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맞지 않으므로 “미”의 語源을 “米”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는 “食”의 近代音인 */ʃi/(審母齊微韻陽平)를 반영한 것이다. 齊微韻 중 知照系 聲母에 속했던 “食”은 明代에 와서 捲舌音化를 겪으면서 支思韻에 합류되었고 現代 漢語에서는 /ʃu/로 발음된다. 하지만 조선에서 편찬한 漢語 譯學書를 보면 “食”은 對譯漢音에서 그 韻母가 19세기까지 계속 “ㅣ”로 유지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蔡瑛純(2002)에서는 知照系의 捲舌音化가 상대적으로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對譯漢音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시”처럼 “食”의 近代漢音을 차용한 또 다른 차용어는 만두를 뜻하는 “면시”(匾食)이다.

중국 문헌에서 “糜食”의 용례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粥”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初生莢仁，作糜食尤易睡。(清·曹庭棟《養生隨筆》“榆皮粥”)

반면 “米食”은 주로 “쌀로 만든 음식”의 의미로 쓰인다.

溫公祭儀，庶羞麵食米食共十五品。今須得一簡省之法，方可。(北宋·《朱子語類》)

이는 “미시”의 語源이 “糜食”이 아니라 “米食”이라는 본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4) 바조(筴竹)

“바조”는 “筴 바조 파”와 “籬 바조 리”에 나타난 단어이다. 가시가 있는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有刺竹籬)를 뜻하는 “筴”의 中古音은 假開二平麻幫이며, 近代音은 幫母家麻韻陰平이다. 둘 다 */pa/로 再構된다. 李準煥(2019)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한자음에서 “파”로 읽은 것은 아마도 聲符 “巴”의 영향과 중세 한국한자음에 “바”라는 음이 없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한자음이 “파”인데도 “바조”라는 語形으로 쓰인 것은 그 이전 시기(=中古音)의 음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새로 유입된 近代音 층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後者를 인정하는 경우 새로 차용된 近代音에 의해 일종의 “저항력”이 생겨 “筴”의 한국한자음인 “파”로 변할 것을 막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는 본고에서 “子”로 보지 않고 “竹”으로 본다. “바조” 외에는 “바즈”도 존재했다. 또한 현대 한국어에 “파자”로 읽히는 “筴子”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나 近代漢語 문헌에서는 “筴子”로 쓰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子”가 왜 “조”로 대응되는지를 설명하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筴子” 대신 “筴竹”을 이 단어의 語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竹”의 漢語 近代音이 照母魚模韻(入聲作)上聲이므로 */tʃiu/로 再構할 수 있다. 처음에는 */ju/로 차용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ju/ > /jo/의 변화를 겪었다는 假說을 세워 보고 향후에 계속 검증하도록 한다.

“바조”를 “筍竹”의 近代漢音 차용으로 본다면 단어의 의미로 語源을 설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棘竹，一名筍竹，節皆有刺，數十莖為叢。南夷種以為城，猝不可攻。(《太平廣記》)

위 문장은 北宋의 《太平廣記》에서 《西陽雜俎》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筍竹”은 가시가 있는 대나무인데, 남방의 소수민족들이 그것을 심어서 城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울타리를 만드는 데에 쓰는 “바조”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5) 세토토(細條)

“세토토”는 “縹 세토토”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 설명 뒤에 “俗呼一兒，細一曰呂公一，總稱繫腰”라는 한문 설명이 보인다. 이 부분을 통해 일단 “細條”라는 한자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세토토”가 “細條”에서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토토”를 무슨 근거로 近代漢音系 차용어라고 볼 수 있는가?

“細”는 心母齊微韻去聲이라는 近代音을 가진 글자로서 한국어로 차용되면 “시”로 표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세”는 近代漢音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한자음임에 틀림없다. 단어 전체가 近代漢音으로 차용된 후에 “細”만 한국한자음에 이끌린 결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李基文(196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近代漢音系 차용어들이 흔히 보이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縹”는 “條”의 異體字로서 실을 엮어서 만든 끈을 뜻한다. “條”의 漢語 中古音은 效開一平豪透(土刀切)이며 近代音은 透母蕭豪韻陰平이라 둘 다 */thau/로 再構할 수 있다. 透母字이기 때문에 중세 한국한자음에서 “토토”로 대응된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똑같은 效開一平豪透(土刀切)에 속하는 “饜”, “叨”, “慆”, “滔”, “韜”는 중세 한국한자음에서 모두 “도”로 읽힌다. 土刀切의 음을 가진 다른 한자들이 한국어에서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縹” 혼자만 有氣音 聲母 “ㅌ”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는 새로 유입된 近代音 층위에 의해 透母의 중요성이 한 번 더 “강화”되어 “도”로의 변화에 저항한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문헌에서는 “細條”가 한 단어로 쓰이는 용례를 찾을 수 없지만, 《訓蒙字會》의 설명 “細一曰呂公一” 자체가 이미 “細條”라는 단어의 존재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슈(繡)질

“슈질”은 “繡 슈질 슈”에 나타난 단어인데 “치질”과 함께 “한자어 어근+ 고유어 접사”의 구조로 보인다. 여기서 접미사 “-질”은 “가위질”, “부채질”의 “-질”과 동일한 것이다. 필자는 “치질”의 “치”가 “刺”의 近代漢音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蕭悅寧 2014:154-155) 당시에도 “슈질”을 알고 있었는데, “슈”가 “繡”의 한국한자음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차용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繡”의 近代音은 心母尤侯韻去聲인데 */siau/로 再構할 수 있다. “슈”는 */siau/의 반영일 수도 있고 한국한자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刺繡”를 하나의 단어로 많이 사용해 왔다는 점과 “슈질”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 “치질”이 近代漢音의 차용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슈질”의

“슈”는 “繡”의 한국한자음이라기보다 近代漢音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차용어 목록에 포함하였다. “刺繡”가 近代漢語 시기의 문헌에 쓰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不做東君造化，金針刺繡羣芳樣。(《京本通俗小說·碾玉觀音》)
夫見其舉止端方，喜而留之，命伴女公子刺繡。(清·吳熾昌《客窗閑話初集·瘦馬》)

(7) 싱양(生薑)

“싱양”은 “薑 싱양 짱”에서 찾은 용례이다. “싱”은 “生”의 중세 한국한자음에 이끌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生”의 近代漢音을 차용한 것이라면 “생채”(生菜)처럼 “생”으로 되어야 16~17세기의 對譯漢音과 일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이다.

“薑”의 漢語 中古音은 宕開三平陽見이므로 */kjaŋ/으로 再構할 수 있고, 近代音은 見母江陽韻陰平이라 */kiaŋ/으로 再構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싱양”의 “양”은 中古音의 韻母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近代音의 韻母를 반영한 것인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싱양 짱”에서 볼 수 있듯이 崔世珍이 표시한 한국한자음은 “짱”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주로 “강”으로 되어 있다. 한국한자음에서 韻母가 ㅙ ”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싱양”에서는 /-iaŋ/을 반영한 “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투(繡)”의 경우와 같이 近代漢音의 영향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싱양”을 일단 차용어 목록에 넣기로 한다. “양”에 聲母가 없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 문제는 향후의 연구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8) 츠기(瓷器)

“츠기”는 “瓷 츠기 즈”에 나타난 단어이다. 이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한국한자음이 “즈”인데도 訓은 “츠기”로 되어 있다. 이는 “츠”가 “즈”와 같은 층위의 음이 아님을 말해 준다.

“瓷”은 中古音에서 止開三平脂從으로 읽혔는데 近代音에 와서 淸母支思韻陽平으로 바뀌었다. 이는 全濁 聲母가 無聲音化되면서 平聲은 有氣音化되고 仄聲은 無聲 無氣音이 된 사례이다. 따라서 “瓷”의 近代漢音은 */tshɿ/로 再構할 수 있고, “츠”는 그런 音價를 반영한 것이다. “器”가 近代漢音인 溪母齊微韻去聲을 반영하지 않고 無氣音인 “기”로 대응되는 것은 아마도 당시의 한국한자음에 이끌린 결과일 것이다. 近代漢語 시기의 중국 문헌에서 “瓷器”의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本朝瓷器，用白地青花，間裝五色，爲古今之冠。(明·沈德符《野獲編·玩具·瓷器》)

(9) 회화(槐花)

“회화”는 “槐 회화 괴”에서 쓰인 단어이다. “회화 괴”가 보여주듯이 한국한자음은 “괴”인데 訓은 “회화”로 되어 있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회화”라는 표제어에 대해 “『옛말』 회화나무의 꽃”이라고 하고 《물보》(상:9)의 용례 “槐花 회화”를 語源 정보로

제공하면서도 “회화”를 고유어로 처리하였다. 《고어대사전》에서도 “회화나무 회(槐)”, “회화씨 두닐굽 나출 습끼라(吞槐子二七枚)” 등의 예문을 보이면서 “회화”를 “檜花”로 표시하였다.

“회화”는 “槐花”에서 온 것이다. “槐”의 中古音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ɣwei/로 再構된 蟹合二平皆匣(戶乖切)이며, 다른 하나는 */ɣuni/로 再構된 蟹合一平灰匣(戶恢切)이다. 近代音은 曉母皆來韻陽平인데 */huai/로 再構된다. 匣母의 글자가 한국한자음에서 “ㅎ” 初聲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니, “회”를 “槐”의 한국한자음으로 보아도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新增類合》에도 “회화 회”라는 용례가 있다. 그러나 “槐”의 한국한자음은 대부분 “괴”로 기록되었고 현재도 “괴”로 읽히고 있다. “회화”라는 단어에서 “ㅎ” 초성이 유지되는 것은 아무래도 近代漢音의 */h/ 聲母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로 유입된 층위로 인해 일종의 “저항력”이 생겨 “괴”로 변할 것을 막아낸 것이 아닌가 싶다.

“槐花”는 近代漢語 시기 이전부터 많이 등장했다. 특히 唐詩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다.

槐花雨潤新秋地, 桐葉風翻欲夜天。(唐·白居易《秘省後廳》)

3.4 추가 설명이 필요한 차용어

(1) 쥬쥬(柱礎)

“쥬쥬”는 “礎 쥬쥬 초”, “磗 쥬쥬 상”, “磧 쥬쥬 길”과 “礎 쥬쥬 석”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고어대사전》에서는 “쥬(礎)”만 “중국어 직접 차용어”로 보고 있다. 李準煥(2019)에서 “쥬(柱)”는 舌上音이 正齒音에 합류한 이후의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쥬(礎)”는 近代音 魚模韻을 반영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tʃu/가 “쥬”로 대응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6세기에 /ʃ/ 아래에서의 /ɾ/와 /ɲ/의 구별이 혼동됐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쥬쥬” 전체를 近代漢音의 차용으로 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柱”의 近代音은 照母魚模韻去聲인데 보통 */tʃiu/로 再構된다. “쥬”가 */tʃiu/에 대응되는 것은 當然之事이다. “礎”의 近代音은 穿母魚模韻上聲으로 */tʃhu/로 再構된다. 聲母와 韻母를 나눠서 본다면 李準煥(2019)에서 지적한 것처럼 /ɲ/와 /-u/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聲母이다. 捲舌音 聲母인 /tʃh-/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ʃ/만으로는 부족하다. /ɾ/ 대신 /ɲ/를 써야 /ʃ/이 口蓋音化가 되어 /tʃh-/와 비슷하게 들린다. “縐紗”를 “즈우샤”로 대응시킨 것도 이와 같다. “紗”의 近代音은 */ʃa/(審母家麻韻陰平)로, 介音 /-i/가 없는 韻母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차용되었을 때 “샤”로 대응되는 것은 捲舌 聲母 /ʃ-/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蕭悅寧 2014:142, 申祐先 2015:90)

4. 나오며

지금까지 본고에서 명확한 판별 기준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로 《訓蒙字會》에 수록된 48개의 近代漢音系 차용어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8개의 단어, “툄으”, “즈우샤”, “디모”, “고리”, “지지”, “듀석”, “독”, “나평”을 차용어 목록에서 제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기존 연구에서 近代漢音系 차용어로 제시되지 않았던 “단디”, “당쉬”, “미시”, “바조”, “세톄”, “슈질”, “싱양”, “츄기”, “회화” 등 총 9개의 차용어에 대하여 近代漢音과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고, 그 語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던 “쥬쥬”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近代漢音系 차용어를 문헌에서 찾아내는 기초 작업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본고에서 보여 준 것처럼 語源이 명확하지 않은 차용어들은 아직 여기저기에 散在해 있다. 향후 다른 문헌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近代漢音系 차용어의 全貌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ㄱ) 原典 資料

《名物紀畧》朴在淵·具仕會·李在弘 校注(2015), 서울: 學古房.

《林園經濟志 권41-42·鼎俎志1》徐有渠 著, 徐宇輔 校, 임원경제연구소 譯(2020). 서울: 풍석문화재단.

《訓蒙字會》(叡山, 東中本)影印本(1971/1995), 서울: 檀國大學校 出版部.

(ㄴ) 字典/辭典

高文達 主編(1992), 《近代漢語詞典》, 北京: 知識出版社.

權仁瀚(2009), 《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서울: 제이앤씨.

김무림(2020), 《국어 어원사전》, 서울: 지식과 교양.

박재연·이현희 주편(2016), 《고어대사전》,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李珍華·周長楫(1999), 《漢字古今音表(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서울: 어문각.

(ㄷ) 單行本

徐時儀(2013), 《近代漢語詞彙學》, 廣州: 暨南大學出版社.

王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研究》, 서울: 東亞出版社.

張光宇(2019), 《漢語語音發展史: 歷史語言學的理論與實踐》, 新北: 臺灣商務印書館.

蔡瑛純(2002), 《李朝朝漢對音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ㄹ) 論文

南豐鉉(1968), 〈15世紀 諺解 文獻에 나타난 正音 表記의 中國系 借用 語辭 考察〉, 《國語國文學》 제39·40권.

蕭悅寧(2014), 《韓國語 近代漢音系 借用語 研究》,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論文.

- 蕭悅寧(2015), 〈近代漢音借詞“선비”考〉, 《中國言語研究》第61輯, 韓國中國言語學會.
申祐先(2015), 《韓國漢字音歷史層次研究》, 國立臺灣大學博士論文中國文學系博士論文.
李基文(1965), 〈近世中國語 借用語에 對하여〉, 《아시아연구》.
李基文(1999), 〈訓蒙字會 小考〉, 《어문연구》 27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李準煥(2019), 〈《訓蒙字會》의 訓에 실린 한자음 고찰〉, 《大東文化研究》 제105집.

(ㄷ)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教育部異體字字典 <https://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home.do>

教育部重編國語辭典修訂本 <http://dict.revised.moe.edu.tw/cbdic/index.html>

北京大學 中國語言學研究中心 語料庫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韻典網 <https://ytenx.org/>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훈몽자회』에 반영된 교육적 의미 탐색(1)

- 「언문자모」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김부연(신라대학교)

차례

1. 서론
2. 「언문자모」의 기능과 구성
3. 「언문자모」의 내용 분석을 통한 이론적 근거 탐색
4. 결론

1. 서론

『훈몽자회』가 지닌 국어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 텍스트는 「언문자모」이다. 「언문자모」는 『훈몽자회』 편찬 당시 세간에 알려져 있던 내용을 옮겨서 수록한 것으로, 『훈몽자회』와는 별개로 이미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는 텍스트를 삽입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르면 「언문자모」는 『훈몽자회』의 기생 텍스트가 아닌 독자성을 가진 개별 텍스트로 존재해 왔다는 뜻이 된다.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인 인용이나 언급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생겨날 수도 있다. 그 결과 그 텍스트와 관련된 또 다른 텍스트가 존재하게 된다. 특별히 「언문자모」가 한글 학습서라는 점에서 한글과 관련된 다른 텍스트와의 영향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글 학습서를 제작하는데 한글 이론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참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두 텍스트가 각각 이론서와 학습서의 기능을 전제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언문자모」의 원텍스트 내지 자료 텍스트가 될 것이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은 「언문자모」에 어떠한 형태로든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일찍이 「언문자모」와 『훈민정음』 해례본이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기문, 1971; 안병희, 1985 등)과는 달리 최근에 「언문자모」의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상당히 다르다는 주장(강창석, 2014)이 제기되었다.¹⁾ 이렇듯 「언문자모」와 『훈민정음』 해례본이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은 두 문헌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함을 일깨워준다. 그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문자모」의 내용과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독자적 텍스트로 자리매김한 「언문자모」의 결과적 지식이 무엇을 근거로 도출된 것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언문자모」의 필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훈민정음』 해례본 가운데 어

1) 강창석(2014)에서는 「언문자모」를 ‘누가’, ‘언제’ 썼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는데, 작성 주체는 세종이며, 「언문자모」가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언문자모」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두 텍스트 간의 관계를 새롭게 타진해 보았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로서의 의의를 둔다.

편 지식이 언문의 기본적·필수적 지식으로 인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 탐색은 한글 학습 교재의 시초가 되는 「언문자모」 텍스트의 교육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²⁾

2. 「언문자모」의 기능과 구성

2.1. 「범례」를 통해 본 「언문자모」의 기능

「범례」의 후반부인 아홉 번째 조항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不解諺文 故今乃并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 次學字會 則庶可有曉誨之益矣 其不通文字者亦皆學諺而知字 則雖無師授亦將得爲通文之人矣³⁾(진한 글씨체 및 밑줄: 필자)

위 (1)의 조항은 언문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는 한자 주석에 대한 이해가 더욱 명료해져 조금 더 빠르게 한자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며, 언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언문자모」를 익히기만 하면 한자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언문이 한자보다 배우기 쉽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범례」 아홉 번째 조항을 통해 「언문자모」가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 부록의 텍스트는 언문을 모르는 사람에게 언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必多不解諺文”을 통해 당시 언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 드러난다. 언문을 터득하지 못한 아동들이 스스로 언문을 학습할 수 있는, 이른바 한글 학습 텍스트인 것이다. 「언문자모」는 『삼운성회(三韻聲彙)』(1751)의 ‘언자초중종성지도(諺字初中終聲之圖)’, 『진언집(眞言集)』(1800)의 ‘언본십육자모(諺本十六字母)’, 『언문지(諺文志)』의 ‘류씨교정초성이십오모(柳氏校定初聲二十五母)’ 등에 영향을 주었고, 개화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글을 깨치는 데 유용한 학습 도구인 반절표(反切表)가 상용화되는 데 역사적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정황들은 「언문자모」가 『훈몽자회』 텍스트에 따른 광배(光背) 효과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지닌 한글 학습용 텍스트로서의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기능에 말미암은 것이다.

둘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한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한자를 독학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교육 기회 확대에 공헌한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자 학습에 변화를 보이는데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제시해 주는 형식을 취한다. 한자 학습에 보조 수단으로 한글이 이용되었음을 볼 때, 「언문자모」는 한자 학습서의 보조 텍스트로서 스승 없이 혼자서 한자를 학습하는 아동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는 『훈몽자회』의 편찬 동기에 부합하는 것으로

2) 『훈몽자회』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 텍스트들을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호를 사용한다.

1) 1책(冊)의 전체 텍스트: ㉠ 『훈몽자회』

2) 『훈몽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텍스트: ㉡ 「인」, 「범례」, 「언문자모」,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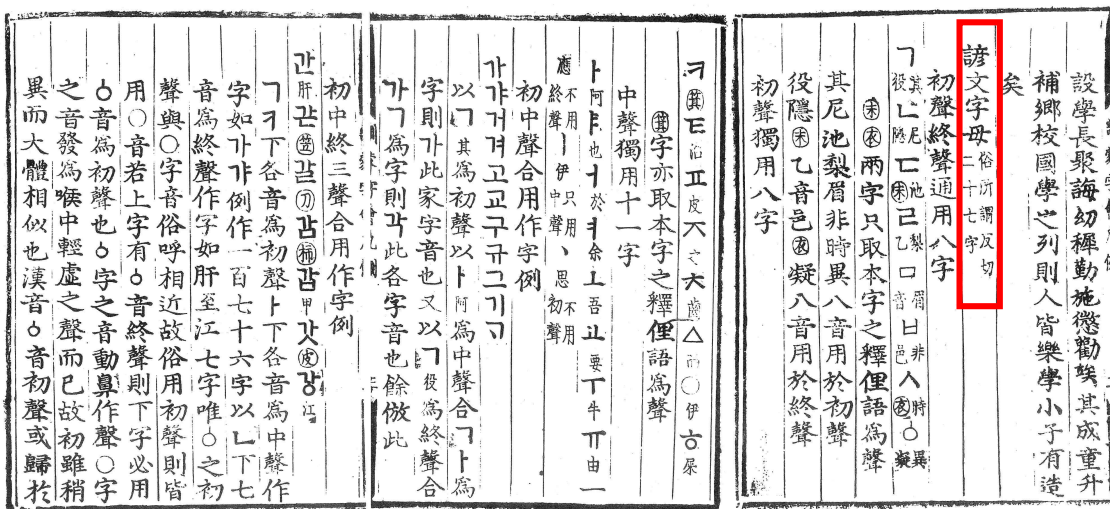
3) [현대어 번역] 무릇 시골이나 지방 사람들 가운데 언문을 모르는 이가 많을 것이므로 이제 「언문자모」를 함께 적어놓아 그들로 하여금 먼저 언문을 배운 다음 『훈몽자회』를 공부하게 하면 대체로 밝게 깨우치는 데 유익할 것이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역시 모두 언문을 배우고 『훈몽자회』를 알면, 비록 스승의 가르침이 없더라도 한문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진한 글씨체 및 밑줄: 필자)

최세진이 의도하는 본질적 기능이다. 「언문자모」를 통해 먼저 한글을 익혀야 『훈몽자회』의 「목록」에 기술된 한글 주해를 보고 해당 한자의 음과 뜻을 배울 수가 있다.

2.2. 『훈몽자회』의 이본과 「언문자모」의 내용 체계

「언문자모」의 내용 체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현전하는 『훈몽자회』의 이본(異本)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훈몽자회』의 이본(異本)은 현재 1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하나 확실하지 않다. 대표적인 현전 이본으로는 일본 소장본과 국내 소장본이 있다. 전자에는 예산문고본(이하 예산본), 동경대학교 중앙도서관본(이하 동경대본), 존경각문고본(이하 존경각본)이 있으며, 후자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하 규장각본)과 1969년 범문사에서 영인한 범문사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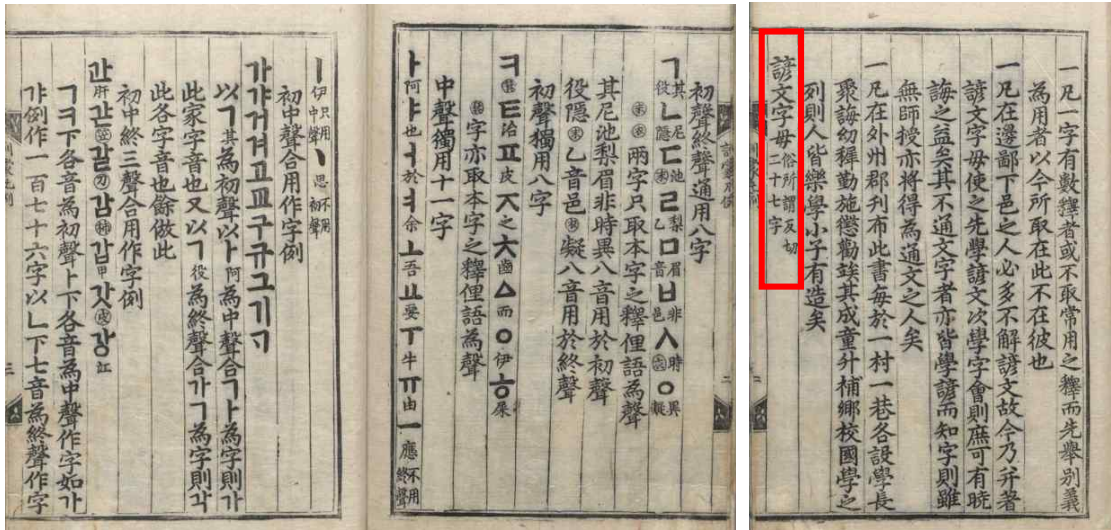
아래 [사진 1]은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알려진 예산본이다. 체제는 매 면 10행과 각 행 18자 배열의 활자본으로 판식이 다른 이본들과는 유독 다르다. 「범례」의 경우 한 칸을 내려 조항을 나타내는 ‘一’을 제외하면 각 행 16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진 2]는 규장각본이다. 목판본으로 표지 이면에 “萬曆四十一年九月日 內賜訓蒙字會一件江華上 左承旨臣李”라는 내사기(內賜記)가 있는데, 이 해는 광해군 5년(1613)으로 임진왜란 후에 간행된 최초의 것으로 보고 있다. 매 면 10행과 각 행 19자 배열의 목판본이다. 「범례」의 경우 한 칸을 내려 쓰는 것은 초간본과 공통적인데, 조항을 나타내는 ‘一’을 제외해도 각 행을 19자로 배열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⁴⁾



[사진 1] 『훈몽자회』 예산본(4L-5L)5)

4) 이상의 『훈몽자회』의 이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기문(1971)을 참조.

5) 본 발표문에 제시한 예산본은 1973년 대제각에서 발행한 『訓蒙字會 影印本』을 참고하였다.



[사진 2] 『훈몽자회』 규장각본(7ㄴ-8ㄴ)

이본 간 기본 형식 체재에 차이를 보이지만 「범례」의 마지막 조항이 끝나면서 “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가 시작되고 「언문자모」를 이루는 내용 구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언문자모」는 크게 ‘자모’에 관한 부분과 ‘음절 합자(合字)’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성조와 방점 표기’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초성자와 종성자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초성자로만 쓰일 수 있는 여덟 자(ㅋ, ㆁ, ㆁ, ㆁ, ㆁ, ㆁ, ㆁ, ㆁ), 중성자 열한 자(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ㅛ)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서 이들을 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 음절 합자(合字)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초성자와 중성자로만 글자를 만드는 예를 먼저 보여주고, 완전체로서 종성자까지 합해 글자를 만드는 예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음절을 이룬 글자에 얹히는 운소인 성조와 그 성조를 표기하는 방점법을 알려준다.

3. 「언문자모」의 내용 분석을 통한 이론적 근거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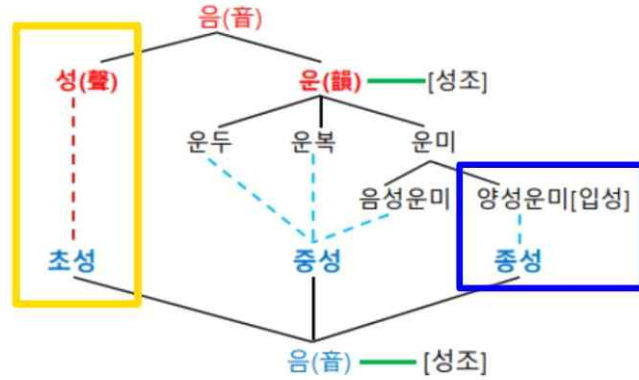
3.1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ㄱ其役 ㄴ尼隱 ㄷ池^㉞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ㅅ時^㉞ ㅇ異凝
 ㉞^㉞兩字只取本字之釋 俚語爲聲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 用於初聲
 役隱^㉞乙音邑^㉞凝八音 用於終聲

(1) 특징

초성의 자리와 종성의 자리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음자로 여덟 개가 있음을 밝히고, 이들이 각각 제 위치에서 어떤 소리로 발음되는지를 제시하였다. 대강의 원칙은 이러하다. 초성

에서 날 때의 소리와 종성에서 날 때의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한자를 선정하였다. 이 때 첫 번째 한자는 아래 [그림 1]의 ‘성(聲)’에 해당하는 음을 취하여 우리말 초성에서 나는 소리를, 두 번째 한자는 [그림 1]의 양성운미에 해당하는 음을 취하여 종성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림 1] 중국어와 우리말의 음절 구조 대응 관계

첫 번째 한자인 ‘其, 尼, 池, 梨, 眉, 非, 時, 異’는 초성에 사용되는 자음을 보인 것이고, 두 번째 한자인 ‘役, 隱, 末, 乙, 音, 邑, 衣, 癡’은 종성에 사용되는 자음을 보인 것이다. 논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워 한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한자는 해당 성모와 모음 ‘ㅣ’를 가진 것을, 두 번째 한자는 성모가 zero이면서 모음 ‘ㅡ’를 지닌 양성운미를 취하였다. 여기서 [옥], [은], [웃] 음을 지닌 한자가 없으므로 양성운미에 주목하여 그와 유사한 음을 가진 한자를 취하였다. 한자 ‘役’은 [옥]과 유사한 음을 가진 한자로 선택되었고, ‘末, 衣’는 혼독자의 음을 취하여 각각 [은], [웃]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언문 자모를 표기하다 보니 다소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나타난다. 한자는 표의적 기능은 물론 표음적 기능까지도 우리말을 적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언문자모」에서 취한 한자 사용법은 일반적인 차자표기법과 다르다. 한자의 표음적 기능은 물론 표의적 기능까지 표음적으로 사용하는 등 특수한 한자 사용의 예를 보여 준다.

(2) ‘초성종성통용팔자’의 이론적 근거 탐색

가. 제자 원리와 ‘초성종성통용팔자’

훈민정음 상형의 대상은 말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움직임이나 발음기관 자체이다. 곧 관찰의 대상이 말소리였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본떠서 문자화한 것이 훈민정음이다. 이러한 까닭에 자연스럽게 상형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에는 기본 음소가 어떻게 조음이 되는지에 대한 주요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2)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ㄴ。象舌附上腭之形。脣音ㅁ。象口形。齒音ㅅ。象齒形。喉音ㅇ。象喉形。⁶⁾ [정음해례 1ㄴ:4-6]

오음(五音)의 조음 방식은 <제자해>에서 상형의 제자 원리를 통해 파악된다. ‘아음’은 혀의 뒷부분을 들어 입천장의 안쪽인 여린입천장을 막아 소리를 내고, ‘설음’은 혀끝을 윗잇몸이나 센입천장에 대서 소리를 내며, ‘순음’은 입술을 작용시켜서 소리를 낸다. ‘치음’은 윗니가 주요 발음기관으로서 혀끝을 윗잇몸이나 센입천장에 바짝 붙이거나 댔다가 조금만 열어서 소리를 낸다. 후음은 후두나 성문 등이 작용하여 나는 소리이다.

상형의 제자 원리는 초성으로 소리를 낼 때와 종성으로 소리 낼 때 발음기관의 움직임은 자세히 살펴서 ‘초성종성통용’ 여덟 자가 문자화되는 과정은 물론, 그것이 ‘초성종성통용팔자’의 명칭을 삼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내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나.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과 8종성 표기

<예의>는 세종이 집필한 부분으로 훈민정음에 대한 표준 사항, 즉 주요 핵심과 기본 정보를 간략하게 안내하는 텍스트이다. 이 가운데 ‘초성종성통용팔자’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항은 다음 (3)과 같다.

(3) ㄱ終聲復用初聲。[정음3ㄴ:6]

이는 “종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같이 사용(공유)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김부연, 2018:53).⁷⁾ 종성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적는 데 사용한 글자를 쓰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음소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초성종성통용팔자’는 ‘終聲復用初聲’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ㄴ’에 대해 그 음가를 초성에서는 한자 ‘ㄴ’로, 종성에서는 한자 ‘隱’으로 소개했다는 것은 초성과 종성이 모두 같은 특성을 가진 자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모든 초성자를 종성을 적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초성종성통용’하되 그 글자는 ‘여덟 자’로 한정한다. 이러한 사실은 <종성해>의 8종성 표기에서 근거한다.

(4) 然ㄱㅇㄴㄷㅂㅅㅈㅊ八字可足用也。[정음해례 18ㄴ:4-5]

위 (4)는 ‘終聲復用初聲’를 전제한다. 모든 초성자를 종성에 쓸 수 있지만 실제 종성에는 이 가운데 ‘ㄱㅇㄴㄷㅂㅅㅈㅊ’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음절 말 위치에서 자음의 중화가 일어나 변별되는 자음이 ‘ㄱㅇㄴㄷㅂㅅㅈㅊ’ 여덟 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초성자 중 여덟 글자만 종성자 표기로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초성종성통용팔자’이다. 결과적으로 ‘초성종성통용팔자’는 <예의>의 ‘終聲復用初聲’과 <종성해>의 ‘八字可足用’ 두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개념이 된다.

6) [현대어 번역]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설음 ㄴ은 혀가 위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순음 ㅁ은 입 모양을 본떴다. 치음 ㅅ은 이 모양을 본떴다. 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7) 이 한 문장에 대해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제자 규정과 표기 규정으로 대분되어 왔는데, 제자 규정과 표기 규정의 절충안으로 현재 가장 타당한 논의로 주목받고 있다(강신향, 2010:127; 정우영, 2014; 김부연, 2018 참조).

다. 완급에 따른 종성의 대립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종성 위치에서 소리 나는 자음의 음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종성 위치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는 ‘완급(緩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5)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如牙之○與ㄱ爲對。而○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而緩。舌之ㄴㄷ。脣之ㅁㅂ。齒之ㅅㅈ。喉之ㅇㅎ。其緩急相對。亦猶是也。⁸⁾ [정음해례 18ㄴ:4-19ㄱ:1]

<종성해>에는 8종성 표기에 이어서 종성자는 완급(緩急)에 의해 각 오음 안에서 대립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느린 소리를 촉급(促急)하게 내면 소리가 변해 빨리 끝닿는 소리가 되고(○→ㄱ), 반대로 빨리 끝닿는 소리를 느리게 내면 변해서 느린 소리가 되는 것(ㄱ→○)이다. 아음, 설음, 순음은 완급 관계에 의한 대립쌍 ‘ㅇ↔ㄱ, ㄴ↔ㄷ, ㅁ↔ㅂ’ 모두 8종성자에 포함되나 치음과 후음은 그렇지 못하다. 이론상 후음 ‘ㅇ↔ㅎ’도 완급 대립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먼저 후음자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종성 표기법에서 제외되며⁹⁾, ‘ㅎ’은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 없다. 치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ㅅ’만 8종성에 채택된 것을 보면 치음의 종성은 완급의 관계로 설명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8종성에 포함되는 ‘ㄹ’에 대해 ‘ㄷ’이 변해서 가벼워진 것이고 느린 소리가 되었다고 하여 ‘ㄷ’과의 또 다른 완급의 관계로 파악된다.¹⁰⁾ 전청자 ‘ㄷ’은 설음의 불청불탁자(ㄴ↔ㄷ), 반설음의 불청불탁자(ㄹ↔ㄷ)와 이중의 완급 대립을 이룬다(이상 김부연, 2018:157-160 참고).

이처럼 ‘완급’을 통해 종성의 불청불탁자 ‘ㅇ, ㄴ, ㄹ, ㅁ’은 느리게 끝닿는 소리로, 전청자 ‘ㄱ, ㄷ, ㅂ, ㅅ’은 빠르게 끝닿는 소리가 된다. ‘초성종성통용팔자’에 각 종성에서의 자음을 공명음과 장애음을 가진 소리로 한자음을 취한 것을 보면 <종성해>에서 설명한 완급 대립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라. 초성종성통용팔자의 형성 결과

8) 오음의 느리고 급한 소리는 또한 각기 대립이 된다. 아음의 ○은 ㄱ과 대립이 되는데, ○음을 촉급하게 발음하면 변해서 ㄱ이 되어서 소리가 급해지고, ㄱ을 느리게 내면 변해서 ○이 되어서 느려진다. 설음의 ㄴ과 ㄷ, 순음의 ㅁ과 ㅂ, 치음의 ㅅ과 ㅈ, 후음의 ㅇ과 ㅎ도 그 완급이 서로 대립됨이 또한 이와 같다.

9) 且○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 [정음해례 18ㄱ:8-18ㄴ:1]
[현대어번역] 또한 ‘ㅇ’ 나타내는 소리는 맑고 비어서 있어 굳이 종성의 위치에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종성만으로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김유범 외, 2020:163).

10) 且半舌之ㄷ。當用於諺。而不可用於文。如入聲之擘字。終聲當用ㄷ。而俗習讀爲ㄹ。蓋ㄷ變而爲輕也。若用ㄹ爲擘之終。則其聲舒緩。不爲入也。 [정음해례 19ㄱ:1-5]
[현대어번역] 또한 반설음자 ㄹ은 우리말의 종성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한자음의 종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입성에 해당하는 한자 ‘擘[별]’의 음을 적을 때에는 종성자 ㄷ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 ㄹ로 읽는 것은 종성 ㄷ의 소리가 변해서 가벼워진 까닭이다. 만 ‘擘[별]’의 한자음을 적을 때 종성자로 ㄹ을 사용한다면, 그 소리가 천천히 끝달아 입성이 되지 못한다(김유범 외, 2020:169).

	아음		설음계		순음		치음	
상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음		혀가 윗잇몸에 닿음		입 모양		이 모양	
완	ㄱ	凝	ㄴ	隱	ㄹ	音		
급	ㄷ	役	ㄷ	未	ㅂ	邑	人	衣

[표 1] 상형 원리와 완급 대립으로 형성된 ‘초성종성통용팔자’

결과적으로 ‘초성종성통용팔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서 설명한 상형의 제자 원리와 <종성해>의 8종성의 완급 대립이라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다. ‘초성종성통용팔자’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ㅊ
초성자의 발음	其	尼	池	梨	肩	非	時	異
종성자의 발음	役	隱	未	乙	音	邑	衣	凝
명칭	기역 [기억]	니은	디귤 [디음]	리을	미음	비음	시읏 [시웃]	이응
배열	아음 기본자	설음계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순음 기본자 가획자		치음 기본자	후음 (←아음)

[표 2]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내용 정리

이러한 명칭은 음절 안에서 자음자가 사용되는 위치와 소리를 보여주는 매우 체계적인 명명이다. 초성의 자리와 종성의 자리에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취한 한자의 음이 결국 자음자의 명칭이 되었다. 다만, ‘기역, 디귤, 시읏’에 해당하는 ‘其, 役, 池, 末, 時, 衣’ 전체 규칙에 어긋나 있다. 최세진은 분명 ‘기억, 디은, 시읏’으로 파악하였을 것이나 이 음들을 나타낼 한자가 없어 불가피 예외로 처리하게 되었음을 ‘ㅇ’ 표시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이 고착화되어 아직도 ‘기역, 디귤, 시읏’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억, 티을’처럼 한자음으로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역사적 관례에서 벗어나 통일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

마. ‘초성종성통용팔자’의 배열 문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초성 17자의 제자 이론을 설명할 때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반설음-반치음’ 칠음(七音)으로 구성하였다.¹¹⁾ 이는 중국 운서의 일반적인 배열순서를 따른 것으로 「언문자모」의 ‘초성종성통용팔자’와 ‘초성독용팔자’에도 이러한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11) 칠음(七音)은 송대(宋代) 정초(鄭樵)의 『통지·칠음략(通志·七音略)』에서 오음(五音)을 바탕으로 하되, 이에 반설음과 반치음을 추가하여 성모(聲母)를 7개의 음으로 발전시킨 바 있다.

앞서 자음자의 명칭을 삼는 데 명확한 원칙을 정한 것과 같이 배열의 순서에서도 일련의 규칙이 드러난다.

먼저 기본 배열 순서는 오음(五音)을 바탕으로 하여 ‘아음자-설음자-순음자-치음자(-후음자)’의 순으로 나열한다. 다만 반설음자 ‘ㄹ梨乙’을 설음에서 함께 다루었는데 이는 최세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 반설음자 ‘ㄹ’과 반치음자 ‘△’에 대한 상형의 대상을 각각 ‘혀’와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¹²⁾ 이 내용을 근거로 반설음 제자(制字) 근원이 동일한 설음 자리에 ‘ㄹ梨乙’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초성종성통용’ 여덟 자를 각 음의 ‘기본자-가획자-이체자’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위 [표 2]에서 ‘아음(기본자ㄱ)-설음계(기본자ㄴ-가획자ㄷ-이체자ㄹ)-순음(기본자ㅁ-가획자ㅂ)’의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자해>에서 설명한 초성자의 제자 원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초성자의 제자 원리에서 말소리의 세어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이 더해지는 글자의 모양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였다.

그런데 자모 배열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ㅇ異癡’은 후음이 아니다. ‘초성종성통용팔자’에는 후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오음(五音)의 순서에 따라 순음자 뒤에 배열된 것을 두고 이를 후음자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엄격히 따지면 아음의 불청불탁자이다. 그런데 왜 후음자의 자리에 ‘ㅇ異癡’을 두었는가? 이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필자가 ‘ㅇ異癡’을 아음자가 아닌 후음자로 착각했을 가능성에 있다(강신항, 2010:258, 강창석, 2014:45).¹³⁾ 둘째, 당시 ‘ㅇ’과 ‘ㅇ’의 혼란상이 반영된 것이다. 뒤에서 다룰 ‘초중종삼성합용작자례’(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6)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6) 唯ㅇ之初聲與ㅇ字音俗呼相近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 若上字有ㅇ音終聲則下字必用ㅇ音爲初聲也¹⁴⁾

위 내용은 당시 언어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중들이 초성에서의 ‘ㅇ’을 ‘ㅇ’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초성의 ‘ㅇ’이 ‘ㅇ’과 비슷하여 초성에서는 모두 ‘ㅇ’을 쓴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고유어 표기에서 ‘ㅇ’이 초성으로만 사용되었고, [ŋ]의 음가를 나타내는 글자는 ‘ㅇ’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려울’¹⁵⁾과 ‘서예’는 초성자 ‘ㅇ’의 용례에 제시된 어휘이고, ‘굴병’과 ‘올창’은 종성자 ‘ㅇ’의 용례이다. 그리고 ‘아아’¹⁶⁾는 중성자 ‘ㅏ’의 용례로 제시된 것인데, 이들 용례를 통

12) 半舌音ㄹ. 半齒音△.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정음해례2ㄱ:2-4]

(반설음자 ㄹ과 반치음자 △ 또한 각각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과 이의 모양을 본떴지만 그 체를 달리한 것으로 획을 더한 뜻은 없다.)

13) 강창석(2014:45-46)에서는 「언문자모」를 만든 당사자(세종)가 ‘ㅇ’을 후음자로 오판하였고, 이의 잘못을 깨달아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작하면서 비로소 아음자로 바로잡은 것이라 해석하였다. 제자 당시 아음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ㅇ’과 같은 자형을 만들었을 리 없다는 것인데, 아음의 불청불탁자 ‘ㅇ’의 제자 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4) [현대어 번역] 초성으로 쓰인 ‘ㅇ’은 ㅇ으로 나는 자음과 대중들의 발음이 서로 가까우므로 대중의 초성을 쓰면 모두 ㅇ이다. 만일 앞글자의 종성이 ‘ㅇ’음일 때는 뒷글자의 초성에 반드시 ‘ㅇ’음을 쓴다(강신항, 2010:259를 참조하여 필자가 문맥에 맞게 다듬음).

15) 『훈몽자회』의 「목록」 上:18에서 려울의 대역 한자인 ‘獮’을 ‘녕우리’라 풀이하고 있어 ‘려울’의 형태가 16세기 국어에서는 ‘녕우리’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6) ‘아아’는 현대 국어의 ‘잉아’(綜)로 베틀의 날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실을 말한

해 ‘ㅇ’/ŋ/은 종성에서 실현되며, 초성의 자리에는 음가가 없는 ‘ㅇ’(zero)으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다. 어두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비어두 음절(어중) 초성으로 발음되었다고 보는데, 실제 비어두 음절의 초성 ‘ㅇ’/ŋ/은 어두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된다. ‘방울’과 ‘바울’이 교체되는 등 수의적으로 ‘ㅇ’이 초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ㅇ’의 경우 고유어에서 연철보다 분철 표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ㅇ’이 종성으로만 발음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초성종성통용팔자’ 중 하나인 아음의 불청불탁자 ‘ㅇ’은 실제로 종성 위치에서 실현될 뿐 초성자로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6)에 이어서 초성에서의 ‘ㅇ’과 ‘ㅇ’을 혼동하는 이유를 아래 (7)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7) ㅇ字之音動鼻作聲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故初雖稍異而大體相似也 漢音ㅇ音初聲或歸於尼音或ㅇㅇ相混無別¹⁷⁾

이러한 내용은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다음 (8)과 같이 잘 설명되어 있다.

(8) 가. 唯牙之ㅇ。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喻多相混用¹⁸⁾ [정음해례 3ㄴ:7-4ㄱ:1]

나. 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¹⁹⁾ [정음해례 18ㄱ:8]

위 (8가)는 <제자해>에서 아음 ‘ㅇ’의 음가가 연구개 비음[ŋ]이며, 후음 ‘ㅇ’과 소리가 비슷하다고 하였다. 후음 ‘ㅇ’의 음가는 (8나)의 <종성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소리가 맑고 비어 있다(ㅇ聲淡而虛)는 것은 곧 음가가 없다는 뜻이다. 다시 (8가)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운서에서 초성에 연구개 비음 [ŋ]을 가진 의모(疑母)와 초성의 음가가 없는 유모(喻母)가 서로 많이 혼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근대음 이후 중국의 운서에서 의모가 음가를 잃어 유모에 합류되어 의모 ‘ㅇ’과 유모 ‘ㅇ’의 소리가 잘 구분되지 않았다. 공교롭게 당시 우리 국어에서도 어두 음절의 초성에서 ‘ㅇ’이 쓰이지 않았고 후음 ‘ㅇ’으로 나타나게 된다. 「언문자모」에서도 ‘ㅇ’/ŋ/이었던 것이 후대에 /n/이 되거나 소실된 상황을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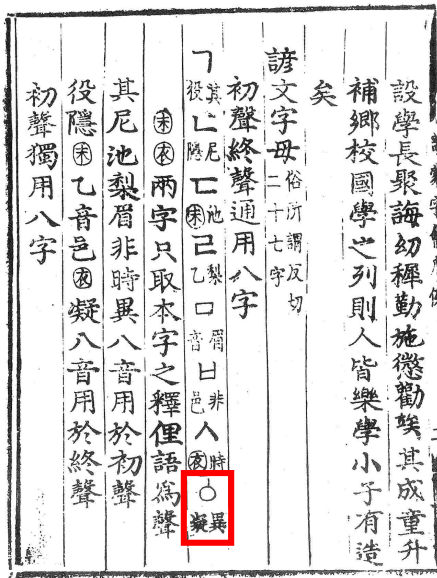
‘초성종성통용팔자’의 배열순서에서 아음자 ‘ㅇ異癡’을 후음자 자리에 배치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異癡’에서 초성의 음가를 나타낸 ‘異’는 유모(喻母), 즉 후음의 불청불탁음 ‘ㅇ’[zero]로 초성에서 ‘ㅇ’이 ‘ㅇ’로 되는 언어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종성의 음가인 ‘癡’은 의모(疑母), 즉 아음의 불청불탁음 ‘ㅇ’/ŋ/이 온전히 실현되는 한자음이다. 이렇듯 ‘ㅇ’이 초성 자리에서는 후음자 ‘ㅇ’으로 표기되므로 결과적으로 후음의 자리에 ‘ㅇ異癡’을 배치한 것이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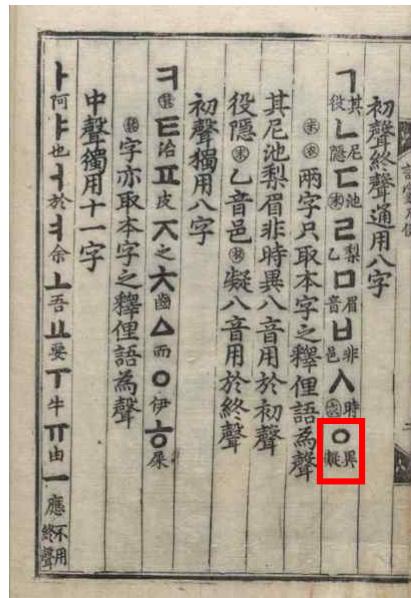
17) [현대어 번역] ‘ㅇ’자의 소리는 코를 움직여 소리를 내고, ㅇ자의 음은 목구멍 속에서 내어서 가볍게 비어 있는 소리뿐이니 처음에는 비록 조금 다르나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 한음의 ‘ㅇ’음 초성은 ‘ㄴ’음과 같아졌거나 혹은 ‘ㅇ’과 ‘ㅇ’이 서로 섞여서 구별이 없게 되었다(강신항, 2010:259 참조).

18) [현대어 번역] 아음자 ㅇ이 나타내는 소리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지만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와 그 소리가 후음자 ㅇ과 서로 닮았다. 운서에서는 의모(疑母)와 초성의 유모(喻母)가 서로 많이 혼용되고 있다.

19) [현대어 번역] ㅇ이 나타내는 소리는 맑고 비어 있어



[사진 3] 『훈몽자회』 예산본(4ㄴ)



[사진 4] 『훈몽자회』 규장각본(4ㄴ)

위 [사진 4]인 임진왜란 이후 최초 판본인 규장각본에는 ‘ㅇ’이 아닌 후음자 ‘ㅇ’로 표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음자 ‘ㅇ’은 후음자 ‘ㅇ’으로 통합되는데 글자는 없어지고 소리 값만 남는다. 초성에서는 음가가 없고 종성에서 연구개 비음 [ŋ]의 음가를 갖는다. 달리 말해 ‘ㅇ’은 초성 자리에서는 표기는 되지만 실제 음가가 없고, 종성 자리에서는 /ŋ/을 대신한다.

3.2.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ㄱ(鞮) ㅌ治 ㅍ皮 ㅈ之 ㅊ齒 ㅊ而 ㅇ伊 ㅎ屎
 ①字亦取本字之釋 俚語爲聲

(1) 특징

초성과 종성에 통용되었던 여덟 글자를 먼저 제시한 다음, 이어서 나머지 초성으로만 쓰이는 여덟자 ‘ㄱ, ㅌ, ㅍ, ㅈ, ㅊ, ㅇ, ㅎ’를 제시하였다. ‘초성종성독용팔자’와 마찬가지로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서 초성에서만 사용되는 자음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鞮(기), 治[티], 皮[피], 之[지], 齒[치], 而[시], 伊[이], 屎[히]와 같이 1음절의 한자음으로 나타냈다.

‘초성종성독용팔자’와 ‘초성독용팔자’는 낱자의 명칭을 각각 2음절과 1음절로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 해당 자음이 초성과 종성에 모두 쓰이면 2음절을 취해야 하겠지만 ‘初聲獨用, 즉 초성자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1음절에 한한다. 현대 국어에서 ‘기읃, 티읃, 피읃, 지읃, 치읃, 시읃, 히읃’으로 명칭이 2음절로 바뀐 것은 이들이 ‘초성독용’이 아닌 ‘초성종성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2) ‘초성독용팔자’의 이론적 근거

가. 초성의 개념과 초성자의 실제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해>에는 초성의 개념에 대해 아래 (9)와 같이 정의한다.

(9) 正音初聲。卽韻書之字母也。聲音由此而生。故曰母。²⁰⁾ [정음해례14ㄴ:6-7]

앞서 [그림 1]에서와 같이 중국 성운학에서는 한 음을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로 나누어 파악하였는데, 이때 성모가 훈민정음의 초성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9)에서 ‘자모(字母)’란 곧 성모를 뜻하는 것으로 훈민정음의 초성은 성모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초성해>에서는 초성자의 실례를 다음 (10)과 같이 설명한다.

(10) 快字初聲是ㄱ。ㄱ與ㅈ而爲ㄲ。 [정음해례14ㄴ:8-15ㄱ:1]

예컨대 한자 ‘快’는 운서에서 성모 ‘kʰ’와 운모 ‘wæi’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때 ‘kʰ’가 훈민정음 초성자 ‘ㄱ’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훈민정음의 초성은 성모의 특성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성모로써 초성과 초성자의 성격을 설명한다. 이러한 초성의 성격에 대해 「언문자모」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ㄱ, ㅌ, ㅍ, ㅈ, ㅊ, ㅇ, ㅎ’ 등은 초성에서 사용되는 자음자로서 현실 한자음의 성모를 나타나되 ‘ㅣ’모음을 가진 1음절 한자음으로 음가를 나타낸다.

흥미로운 것은 ‘ㄱ’의 경우 다른 초성독용자들과 달리 “^㉑字亦取本字之釋 俚語爲聲²¹⁾”이라 하여 한자의 훈을 취하였다. ‘[키]’ 음을 가진 한자가 없어 ‘키’라는 뜻을 가진 한자 ‘箕’를 선택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에 모음자 ‘ㅣ’의 용례로 “^㉒爲箕”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ㄱ-^㉑-[키]’는 우리말 뜻이 지닌 음상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로 매우 특징적이다.

	ㄱ	ㅌ	ㅍ	ㅈ	ㅊ	ㅅ	ㅇ	ㅎ
초성자의 발음	㉑	治	皮	之	齒	而	伊	屎
명칭	키	티	피	지	치	시	이	히
배열	아음	설음	순음	치음계			후음	
	가획자	가획자	가획자	가획자	가획자	이체자	기본자	가획자

[표 3]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내용 정리

위 [표 3]과 같이 ‘초성독용팔자’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초성종성통용팔자’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초성독용팔자’ 역시 ‘오음(五音)을 바탕으로 한 ‘아음자-설음자-순음자-치음자-후음자’의 순으로 배열한다. 다만 반치음자 ‘ㅅ而’를 치음에서 함께 다루었는데 이것 역시 ‘초성종성통용팔자’의 반설음자와 같은 맥락이다. <제자해>에서 반치음자 ‘ㅅ’에 대한 상형의 대상을

20) 정음의 초성은 곧 운서의 자모(字母=성모)이다. 말소리는 이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모(母)라고 한 것이다.

21) [현대어 번역] 키(箕)자는 역시 이 글자의 새김을 취하여 우리말 새김으로 소리를 삶는다.

각각 ‘이(齒)’라고 설명한 바²²⁾, 이 내용을 토대로 반치음 제자(制字)의 근원이 동일한 치음에 ‘△而’를 배치하고 치음계의 낱자를 ‘기본자-가획자-이체자’의 순으로 배열한다. ‘초성독용팔자’ 또한 ‘아음(가획자ㄱ)-설음(가획자ㅌ)-순음(가획자ㅍ)-치음계(기본자ㅈ-가획자ㅊ-이체자△)-후음(기본자ㅇ-가획자ㅎ)’의 순으로 초성자 제자 원리에 근거한 배열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나. ‘ㅎ’가 제외된 언문 27자

한편, 「언문자모」에는 훈민정음 초성 17자 중에서 후음의 전청자 ‘ㅎ’가 제외되어 있다. 그 결과 훈민정음 28자와 달리 언문 27자가 된 것인데²³⁾, ‘ㅎ’가 제외된 정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합자해>에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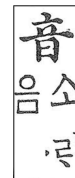
(1) 初聲之ㄷ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 [정음해례 22ㄴ:3-4]

위 (1)의 내용은 우리말에서는 초성자 ‘ㅎ’과 ‘ㅇ’이 음운론적으로 변별되지 않아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운학의 자모 체계에서 ‘ㅎ’은 영모(影母)에 해당하는 후두파열음 [ʔ]이다. 그러나 이 후두파열음 [ʔ]은 우리말 음운이 아니었고, 현실 한자음에서도 영모의 한자음이 유모(喻母, zero)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초성에 표기된 ‘ㅎ’은 음가가 없는 ‘ㅇ’에 해당하는 것이다(김유범 외, 2020:193 참조).

실제 훈민정음 창제 당시 ‘ㅎ’은 고유어 표기에서 초성에 사용된 예가 없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에서도 초성자 용례에서 표제어 ‘ㅎ’을 배제하고 아예 다루지 않았으며, 종성에서도 ‘ㅎ’로 병서 표기되어 ‘ㅎ’이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ㅎ’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이다.



[사진 5] 『훈민정음』 언해본 서강대본과 복원본(1ㄱ)



[사진 6] 『훈몽자회』 예산본(상:15)

위 [사진 5]는 ‘音’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초성에 후음의 전청자가 사용된 ‘흙’으로 표기되었다. <합자해>의 내용으로 미루어 초성에 쓰인 ‘ㅎ’은 음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실은 [사진 6]의 『훈몽자회』 「목록」에서 ‘音’이 후음의 전청자가 아닌 불청불탁자 ‘음’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후두파열음 [ʔ]은 우리말 음운이 아니기 때문에 후두파열

22) 半舌音ㄷ。半齒音△。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畫之義焉。 [정음해례2ㄱ:2-4]

(반설음자 ㄷ과 반치음자 △ 또한 각각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과 이의 모양을 본떴지만 그 체를 달리한 것으로 획을 더한 뜻은 없다.)

23)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세종에게 아뢰, 이른바 최만리 등이 언문 반대 상소문에서 “二十七字諺文足以立身於世”(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라 하면서 언문 27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문자모」의 27자 목록과 동일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첫 번째 기사 참조.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602020_001)

음을 나타내는 후음의 전청자 ‘ㅎ’를 적는다 해도 그것이 음운론적으로 변별되지 않아 음가가 없는 ‘ㅇ’과 같게 된다. 그래서 [사진 6]과와 같이 현실 한자음에서 초성에 후음의 전청자 ‘ㅎ’를 대신하여 ‘ㅇ’을 표기해도 특별히 음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통용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ㅎ’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후음자의 체계를 세우는데 가획자로서 자리하지만, 후두파열음 나타내는 ‘ㅎ’은 당시 국어의 음운 체계에 들지 않았다. 「언문자모」의 자음자에 후음의 전청자 ‘ㅎ’이 없는 것은 「언문자모」 집필 당시에는 더이상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 소실된 글자임을 말해준다.

3.3. 중성독용십일자(中聲獨用十一字)

ㄱ	阿	ㄷ	也	ㄴ	於	ㄹ	餘	ㅇ	音	ㅇ	要	ㄷ	牛	ㅍ	由
一	應	不用	終	聲	丨	伊	只用	中	聲	·	思	不用	初	聲	

(1) 특징

자음자에 이어서 모음자에 대한 것으로 중성에 쓰이는 낱자 열 한 자와 각 명칭을 소개하였다. 모음자를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른바 초출자와 재출자를 먼저 제시하고, 기본자를 가장 마지막에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마지막 기본자 ‘一, 丨, ·’의 명칭을 부여한 방식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에서 초성자와 중성자를 소개하는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다. 초성자와 중성자 각각 하나씩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 ⑫와 같다.

⑫ 가. ㄷ. 齒音。如卽字初發聲 [정음 2ㄱ:5]

나. 一。如卽字中聲 [정음 3ㄱ:3]

위 ⑫와 같이 <예의>에서는 한자음을 통해 해당 초성자 및 중성자의 음가를 제시하였다. 한 자음의 음절 짜임새를 초성, 중성 등으로 분석하였고, 위 예의 경우 동일한 한자 ‘卽’을 사용하여 초성과 중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언문자모」의 ‘중성독용십일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고 이는 기본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一應不用終聲”에서 중성을 안 쓴다는 것은 ‘ㅇ’음에서 ‘一’음만 취한다는 것이고, “丨伊只用中聲”에서 단지 중성만 쓴다는 것은 초성인 ‘ㅇ’을 안 쓴다는 말이다. 그리고 “·思不用初聲”에서 초성을 안 쓴다는 것은 ‘스’음에서 ‘·’음만 취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말 음절 구조 분석 방법인 삼분법을 바탕으로 한자음의 음절 짜임새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한 결과 각 기본자들의 명칭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丨伊只用中聲”의 한자 ‘伊’는 ‘초성독용팔자’에서 후음자 ‘ㅇ’의 명칭을 부여하는 데 이미 사용된 바 있다. 동일한 한자를 가지고서 초성은 후음의 불청불탁자 ‘ㅇ’의 명칭을 나타내고, 나머지 중성은 중성자 ‘丨’의 명칭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었다.

(2) ‘중성독용팔자’의 이론적 근거

‘중성독용팔자’에 제시된 중성자는 오늘날의 모음자 배열순서에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배열된 것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높다. 훈민정음의 모음자 배열은 모음자를 만드는 방식을 기준으로 기본자(·, ㅡ, ㅣ)-초출자(ㄱ, ㅋ, ㆁ, ㆁ)-재출자(ㄴ, ㄷ, ㄹ, ㄷ, ㄹ) 순이기 때문에 ‘중성독용팔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내린 선부른 판단이라 생각한다. 「언문자모」에서 제시한 모음자의 배열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그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13) 가.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一 ㄱ ㄴ ㄷ ㄹ 是也。縱者在初聲之右。ㅣ ㅏ ㅑ ㅓ ㅕ 是也。²⁴⁾

[정음해례 20ㄴ:6-8]

나. · 一 ㄱ ㄴ ㄷ ㄹ 是也。附書初聲之下。ㅣ ㅏ ㅑ ㅓ ㅕ 是也。附書於右。[정음4ㄱ:1-3]

우선 ‘중성독용11자’의 모음자 배열순서가 기본자를 제외하고 (13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3가)는 <합자해>에서 중성자의 글자 모양에 따른 초성자의 배치를 설명하였다. 점의 모양을 한 것(·)과 가로진 중성자(· 一 ㄱ ㄴ ㄷ ㄹ)는 초성자의 아래에 위치하며, 모양이 세로진 것(ㅣ ㅏ ㅑ ㅓ ㅕ)은 초성자의 오른쪽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3나)는 <예의>의 부서법으로 (13가)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끈 핵심 주제(topic)가 된다.

위 (13) 모두 가로로 긴 획을 가진 것과 세로로 긴 획을 가진 것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중성자의 배치에 변화를 보인다. (13나)의 <예의>에서는 배열순서가 중성자의 제자 순서가 반영된 기본자-초출자-재출자 순인데, (13가)의 <합자해>에서는 글자 조합의 단계를 고려한 배열로 바뀌었다. (13나)에서 가로로 긴 획을 가진 것과 세로로 긴 획을 가진 것을 구분하되 기본자-초출자-재출자로 배열한 것은 <예의> 텍스트 내의 중성자 제자 규정에 제시된 배열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13가)의 배열 변화는 기본자-초출자-재출자의 순서를 유지하되 음성적으로 문자적으로 합쳐지는 과정이 단계적인 낱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중성자의 단계적 배열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되는 음성적 특성과 글자 모양을 이루는 결합 양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 (14)와 같이 <제자해>의 중성자 제자 방식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14) ㄱ 與 · 同而口蹙。其形則 · 與 一 合而成。取天地初交之義也。ㅏ 與 · 同而口張。其形則 · 與 · 合而成。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ㄴ 與 一 同而口蹙。其形則 一 與 · 合而成。亦取天地初交之義也。ㅑ 與 一 同而口張。其形則 · 與 ㅏ 合而成。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ㄷ 與 ㄱ 同而起於 ㅏ。ㅓ 與 ㅑ 同而起於 ㅏ。ㄹ 與 ㄴ 同而起於 ㅏ。ㅕ 與 ㅓ 同而起於 ㅏ。· ㅏ ㅑ ㅓ ㅕ 始於天地。爲初出也。ㅏ ㅑ ㅓ ㅕ 起於 ㅏ 而兼乎人。爲再出也。· ㅏ ㅑ ㅓ ㅕ 之一其圓者。取其初生之義也。ㅏ ㅑ ㅓ ㅕ 之二其圓者。取其再生之義也。· ㅏ ㅑ ㅓ ㅕ 之圓居上與外者。以其出於天而爲陽也。ㅏ ㅑ ㅓ ㅕ 之圓居下與內者。以其出於地而爲陰也。²⁵⁾ [정음해례 5ㄱ:2-6ㄱ:5]

24) [현대어 번역] 중성자 가운데 ·, ㅡ, ㅣ, ㄱ, ㅋ, ㆁ, ㆁ와 같이 점의 모양을 한 것과 가로로 긴 획을 가진 것은 초성자 아래에 놓인다. 중성자 가운데 ㅣ, ㅏ, ㅑ, ㅓ, ㅕ와 같이 세로로 긴 획을 가진 것은 초성자의 오른쪽에 놓인다(김유범 외, 2020:174).

25) [현대어 번역] ㄱ가 나타내는 소리는 ·와 동일하나 입이 오므려지고, 글자의 모양은 ·가 ㅡ와 합쳐져 이루어졌으니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난 뜻을 취한 것이다. ㅏ가 나타내는 소리는 ·와 동일하나 입이 벌어지고, 글자 모양은 ㅏ가 ·와 합쳐져 이루어졌으니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 발현될 때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취한 것이다. ㄴ가 나타내는 소리는 ㅡ와 동일하나 입이 오므려지고, 글자 모양은 ㄴ가 ·와 합쳐져 이루어졌으니, 또한 하늘과 땅의 작용이 사물에 발현될 때 사람을 기다려 이루어짐을 취한 것이다. ㅓ가 나

기본자를 제외하고 위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합자해>에 제시된 중성자의 단계적 배열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²⁶⁾

ㅏ	ㅑ	ㅓ	ㅕ
·의 조음점 구장(口張)	→ ㅏ同의 起於	—의 조음점 구장(口張)	→ ㅓ同의 起於
단모음자	→ 이중모음자	단모음자	→ 이중모음자
+ ·	→ + :	· +	→ : +
초출자	→ 재출자	초출자	→ 재출자

ㅗ	ㅛ	ㅜ	ㅠ
·의 조음점 구축(口鑿)	→ ㅗ同의 起於	—의 조음점 구축(口鑿)	→ ㅜ同의 起於
단모음자	→ 이중모음자	단모음자	→ 이중모음자
· + —	→ ·· + —	— + ·	→ — + ··
초출자	→ 재출자	초출자	→ 재출자

[그림 2] <합자해>의 중성자 배열 방식

위 [그림 2]에서 단순한 초출자-재출자의 배열이 아니라 조음점 및 입술 모양 등의 음성적 특성과 글자 모양을 이루는 결합 양상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배열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초출자와 재출자 모두 흘글자이다. 먼저 초출자 ‘ㅏ, ㅓ’는 ‘·’와 조음점이 같거나 유사하고(·同出), ‘ㅑ, ㅕ’는 ‘—’와 조음점이 같거나 유사하다(一同出)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이들은 각각 ‘구장(口張)’과 ‘구축(口鑿)’ 자질에 의해 변별된다. 여기서 구축(口鑿)은 일반적으로 원순성 자질로 이해되어 ‘ㅗ, ㅛ’는 원순 모음으로 발음된다. 이에 대응되는 ‘구장(口張)’은 평순 자질이므로 입술을 벌리는 정도, 즉 개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ㅏ’는 ‘·’와 조음점이 같거나 유사하지만 입술을 벌리는 정도가 ‘·’보다 더 크고, ‘ㅑ’는 ‘—’와 조음점이 같거나 유사하지만 입술을 벌리는 정도가 ‘—’보다 더 크다. 그리고 재출자 ‘ㅑ, ㅕ, ㅛ, ㅠ’는 초출자 ‘ㅏ, ㅓ, ㅗ, ㅜ’에 ‘起於 |’라는 음성적 특징이 더해진 것이다. 소리가 ‘起於 |’에서 시작되었을 뿐 초출자 ‘ㅏ, ㅓ, ㅗ, ㅜ’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타내는 소리는 ㅗ와 동일하나 |의 소리에서 시작된다.ㅑ가 나타내는 소리는 ㅏ와 동일하나 |의 소리에서 시작된다.ㅠ가 나타내는 소리는 ㅜ와 같으나 |의 소리에서 시작된다.ㅕ가 나타내는 소리는 ㅓ와 동일하나 |의 소리에서 시작된다.ㅏㅑㅓㅕ는 하늘과 땅에서 시작되어 처음 생겨난 것이다.ㅛㅑㅕ는 사람을 상징하는 |가 나타내는 소리를 겸하고 있으니 다시 생겨난 것이다.ㅏㅑㅓㅕ에서 ㅏ가 하나인 것은 처음 생겨난 뜻을 취한 것이다.ㅛㅑㅕ에서 ㅏ가 두 개인 것은 다시 생겨난 뜻을 취한 것이다.ㅏㅑㅛㅑ에서 ㅏ가 위와 바깥쪽에 놓인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나와 양(陽)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ㅓㅑㅕ에서 ㅓ가 아래나 안쪽에 놓인 것은 그것이 땅에서 나와 음(陰)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김유범 외, 2020:107-113 참조).

26) <예의>와 <합자해>에 제시된 모음자의 배열순서에 대해 김부연(2018)에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합자해>의 모음자 배열순서가 선(先) 텍스트들과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김부연(2018:245-248) 참조.

헤레본 <합자해>	中聲則圓者橫者在初聲之下。 · 一 ㄱ ㅍ ㅈ ㅊ 是也。	縱者在初聲之右。 ㅏ ㅑ ㅓ ㅕ 是也。
언문자모	ㄱ ㅍ ㅈ ㅊ ㅍ ㅈ ㅊ ㅍ ㅈ ㅊ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표 4] <합자해>와 「언문자모」의 중성자 배열 순서 비교

위 [표 4]와 같이 <합자해>의 단계적인 중성자 배열 방식이 「언문자모」에서도 확인된다(기본자 제외). 이론적 지식이 되는 제자 방식의 배열 순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언문자모」가 이론서가 아닌 학습서라는 텍스트의 기능에 주목할 수 있을 듯하다. 초출자와 재출자의 관계가 단모음과 'ㄱ계 상향식 이중모음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때 음성적인 단계인 변화에 발음의 편리성이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유사성은 글자 모양에도 반영된다. 문자적 차원에서 글자 모양의 조합 양상은 표상적 기능 면에서 지각의 용이성과 필서(筆書)의 편의성을 갖는다. '중성독용십일자' 중 초출자와 재출자의 단계적 배열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중성자의 발음	阿	也	於	餘	ㅍ	ㅈ	ㅊ	ㅍ
명칭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배열	초출자	재출자	초출자	재출자	초출자	재출자	초출자	재출자
	+ ·	+ :	· +	: +	· + 一	· · + 一	一 + ·	一 + · ·
	·의 조음점	起於	一의 조음점	起於	·의 조음점	起於	一의 조음점	起於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양성 모음	음성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비원순 모음				원순 모음			

[표 5] '중성독용십일자' 중 초출자와 재출자의 단계적 배열 순서

3.4. 초중성합용작자례(初中聲合用作字例)와 초중종삼성합용작자례(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

初中聲合用作字例 가가거겨고교구규그기 ㄱ 以 ㄱ 其爲初聲 以 ㅏ 爲中聲 合 ㅏ ㅑ 爲字則가 此家字音也 又以 ㅓ 爲終聲 合 ㅑ ㅓ 爲字則각 此各字音也 餘倣此 ²⁷⁾
--

27) [현대어 번역] ㄱ으로써 초성을 삼고 ㅏ로써 중성을 삼아 ㅏ과 ㅑ를 합하여 글자를 만들면 '가'가 되니 이것이 '가(家)'자의 음이다. 또 ㄱ으로써 중성을 삼아 ㅑ와 ㅓ를 합하여 글자를 만들면 '각'이 되니 이것이 '각(各)'자의 음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강신향, 2020:259).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
간肝 간(ㄱ) 갈(ㄴ) 감(ㄷ) 갑甲 갓(ㅌ) 강江
ㄱ下各音爲初聲 ㄴ下各音爲中聲作字 如가가例作一百七十六字 以ㄴ下七音爲終聲
作字如肝至江七字 28)
唯○之初聲與○字音俗呼相近故俗用初聲則皆用○音 若上字有○音終聲則下字必用○
音爲初聲也 ○字之音動鼻作聲○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故初雖稍異而大體相
似也 漢音○音初聲或歸於尼音或○○相混無別29)

(1) ‘초중성합용작자례’의 특징

‘중성독용십일자’에 이어서 음절 합자(合字), 즉 모아쓰기에 관한 내용이 시작된다. 먼저 ‘초중성합용작자례’에서는 ‘초중성통용팔자’의 초성자 ‘ㄱ其役’과 ‘중성독용십일자’를 합자(合字)하여 ‘가,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ㄱ’ 이상 11자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초성자 ‘ㄱ’과 중성자 ‘ㅏ’를 합용한 ‘가’가 한자 ‘家’의 음이며, 또 ‘가’에 중성자 ‘ㄱ’을 합용한 ‘각’이 한자 ‘各’의 음이라고 설명한다. ‘초중성합용작자례’라는 제목의 의미를 넘어 초성자와 중성자를 합자한 글자에 중성자까지 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한편, 이 부분에서 앞서 살핀 ‘초중성통용팔자’와 ‘초성독용팔자’, 그리고 ‘중성독용십일자’의 낱자 이름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각 낱자의 이름을 알아야 ‘ㄱ(기역)’에 ‘ㅏ(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이 ‘가’에 다시 ‘ㄱ(기역)’을 받치면 ‘각’이라는 글자 합성법을 배울 수 있가 있다.

(2) ‘초중종삼성합용작자례’의 특징

‘초중종삼성합용작자례’는 ‘초중성통용팔자’를 합용하는 방법으로서, ‘초중성합용작자례’에서 설명한 초성자 ‘ㄱ’과 중성자 ‘ㅏ’를 합용한 ‘가’에 중성자 ‘ㄱ’을 합용한 ‘각’과 같은 음절 글자를 구성하는 방법,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동일한 초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에 ‘초중성통용팔자’가 교체 방법과 예를 보여 준다.

‘초중성합용작자례’의 “以ㄱ其爲初聲 以ㄴ阿爲中聲 合ㄱㄴ爲字則가 此家字音也 又以ㄱ役爲終聲 合가ㄱ爲字則각 此各字音也 餘倣此”와 연결하여 ‘초중종삼성합용작자례’ 제목 뒤에 7개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두 가지 설명을 덧붙여 기술하였다. 첫 번째는 먼저 ‘초중성통용팔자’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과 ‘초성독용팔자’인 ‘ㅋ, ㆁ,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를 결합하면 176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초성자 16와 중성자 11자를 합용하는 방법으로 ‘초중

28) [현대어 번역] ㄱ 아래 각 음은 초성이 되고, ㄴ 아래 각 음은 중성이 되어 글자를 만드니 ‘가가’와 같이 하여 176글자를 만들고, ㄴ 아래 7음으로써 중성을 삼아 글자를 만드니 ‘간(肝)’부터 ‘강(江)’까지의 일곱 자와 같다(강신항, 2010:259).

29) [현대어 번역] 다만 초성으로 쓰인 ‘ㅇ’은 ‘ㅇ’과 발음이 가까워 초성에서 ‘ㅇ’을 쓴다. 만일 뒷글자에 ‘ㅇ’이 있으면 아래 글자에는 반드시 ‘ㅇ’을 써서 초성을 삼는다. ‘ㅇ’자의 소리는 코를 움직여 소리를 내고, ‘ㅇ’자의 음은 목구멍 속에서 내어서 가볍게 비어 있는 소리뿐이니 처음에는 비록 조금 다르나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 한음의 ‘ㅇ’음 초성은 ‘ㄴ’음과 같아졌거나 혹은 ‘ㅇ’과 ‘ㅇ’이 서로 섞여서 구별이 없게 되었다(강신항, 2010:259).

성합용작자례’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는 국어의 음절 단위가 되는데 이와 같은 음절표가 바로 ‘반절표’의 시초가 된다. 그 다음 이렇게 종성자가 없는 176자에 각각 ‘초중성통용팔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합하면 ‘(각各), 간肝, 갈ᄃᆞ, 갈ᄃᆞ, 감ᄃᆞ, 갑甲, 갓ᄃᆞ, 강江’과 같이 받침을 갖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오늘날 ‘받침’이라는 용어가 종성자에 대한 문자론적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7개의 예 가운데 ‘강江’에서 종성자를 ‘ㅇ’으로 표기하지 않고 ‘ㅇ’으로 표기한 데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앞서 ‘초중성통용팔자’에서 후음의 자리에 놓인 ‘ㅇ異凝’의 음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³⁰⁾ 당시 ‘ㅇ’과 ‘ㅇ’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상을 ‘강江’으로 보고 주고 있고, ‘초중성통용팔자’에 속하는 ‘ㅇ’은 실제 종성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라 해석된다.

(3) ‘초중성합용작자례’와 ‘초중중삼성합용작자례’의 이론적 근거

‘초중성합용작자례’와 ‘초중중삼성합용작자례’에서 제시한 음절 합자의 방법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 중 부서법(附書法)와 성음법(成音法)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만큼 매우 밀접하다.³¹⁾

(15) 가. · 一 ㄱ ㄷ ㅂ ㅅ ㅁ 附書初聲之下。 | ㅏ ㅑ ㅓ ㅕ ㅗ 附書於右。 [정음4ㄱ:1-3]

나. 凡字必合而成音。 [정음4ㄱ:3-4]

먼저 (15가)는 <예의>의 부서법으로 음절핵인 중성자를 중심으로 초성자를 합하여 쓰는 표기법이고, (15나)는 <예의>의 성음법으로 종성자의 위치가 추가되어 모아쓰기로서의 전형을 보여준다. 부서법에서는 음절핵을 나타내는 CV 구조를, 성음법에서는 종성자까지 갖춰진 음절 구성 완전체인 CVC 구조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법이 「언문자모」의 ‘초중성합용작자례’와 ‘초중중삼성합용작자례’에도 반영되어 있다.

부서법은 음절핵의 위치를 제시한 것으로 온전히 중성 11자에 중점을 둔 표기 규정이다.³²⁾ 종성자까지 받쳐 쓰는 부서(附書)는 성음법에서 완성된다. ‘초중성합용작자례’는 제목과 제시된 예가 초성자와 중성자의 음절 구성에 대한 것으로 <예의>의 부서법과 일치한다. 그런데 내부 설명에서 초성자와 중성자의 음절 구성에 다시 종성자를 합한 것까지 다루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又以 ㄱ 役爲終聲 ㅅ가 ㄱ爲字則각 此各字音也 餘倣此”는 뒤에 이어질 ‘초중중삼성합용작자례’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물론 ‘초중성합용작자례’에서 종성자를 다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 홍기문(1946)에서도 <예의>의 부서법에 대해 초성자와 중성자뿐 아니라 종성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종성자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종성자가 초성자·중성자에 붙여 쓰는 것이 당

30) 본 발표문의 ‘초중성통용팔자’에서 ‘ㅇ異凝’의 배열순서와 관련하여 ‘ㅇ’과 ‘ㅇ’의 혼란상에 대해 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한다.

31) <예의>의 부서법과 성음법은 <해례>에서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초성해>에서는 초성자의 위치를, <중성해>에서 중성자의 위치를, <종성해>에서 종성자의 위치를 설명한다. <합자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울러서 모아쓰기 방식을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부연(2020) 참조.

32) 정우영(2014:128)에서도 부서법에 대해 중성 11자는 음절 합자를 위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필수적 표기 규정으로 보았고, 음절 구조상 종성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는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연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³³⁾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초성자와 중성자의 자리매김에서 하단의 중성자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배정이 되고, 이에 따라 중성자가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마련이다. “以 ㄱ其爲初聲 以 卜阿爲中聲 合 ㄱ 卜 爲字則가 此家字音也”에 한정하지 않고 “又以 ㄱ 役爲終聲 合가 ㄱ 爲字則각 此各字音也 餘倣此”까지 확대되는 것처럼 말이다. 초성자와 중성자의 상하좌우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이들 아래에 중성자가 자리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음절 합자의 방식을 음절 구성 요소의 순서대로 기술되었다.

‘초중성합용작자례’와 ‘초중중삼성합용작자례’ 사이에 “以 ㄱ其爲初聲 以 卜阿爲中聲 合 ㄱ 卜 爲字則가 此家字音也 又以 ㄱ 役爲終聲 合가 ㄱ 爲字則각 此各字音也 餘倣此”를 놓음으로써 둘 사이 음절 합자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연결해 주어 정보 전달의 효과는 물론 정보 수용의 효율까지 기대할 수 있다.

3.5. 성조와 방점

凡字音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爲準平聲無點上聲二點去聲入聲皆一點平聲哀而安上聲而舉去聲清而遠入聲直而促諺解亦同³⁴⁾

믈윗 글字·조·음음·의·노·픈·며 ㄴ·가·오·미 :다 字·조·스·겨·틱 點·덤·이 이시·며 :업·스·며 하·며 :저·금·으로 ·보·라·물 사·믈·거·시·니 ㄴ·가·온·소·리·옛·字·조·는·平·평·聲·성·이·니·點·덤·이·업·고·기·리·혀·나·중·들·타·는·소·리·옛·字·조·는·上·상·聲·성·이·니·點·덤·이·돌·히·오·곤·고·바·르·노·픈·소·리·옛·字·조·는·去·거·聲·성·이·니·點·덤·이·하·나·히·오·곤·고·쌔·른·소·리·옛·字·조·는·入·입·聲·성·이·니·點·덤·이·하·나·히·라·諺·언·문·문·으로·사·김·흔·디·흔·가·지·라 ·또 字·조·들·히·본·뎃·소·리·두고·다·른·뽏·다·른·소·리·로·뽏·면·그·달·이·뽏·는·소·리·로·그·조·귀·에·돌·임·하·느·니 行·널·힉·平·평·聲·성·本·본·음·음·行·저·제·항·平·평·聲·성·行·:·힉·덕·힉·去·거·聲·성³⁵⁾

(1) 특징

「언문자모」의 마지막 부분에는 별도의 제목 없이 성조에 대한 한문 원문과 언해문, 그리고 ‘平上去入定位之圖’로 끝을 맺는다. ‘초중성통용-초성독용-중성독용-초중성합용작자례-초중중삼성합용작자례’ 등 낱자에서부터 초성자중성자·중성자의 완전체로서의 음절 합자(合字)로 이어지고, 완전체의 음절에 얹혀 동시에 실현되는 사성(四聲)과 그 표기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음절 구성에 대한 필수 제반 규정들이 대단히 치밀하게 짜인 단계적 제시 방식을 취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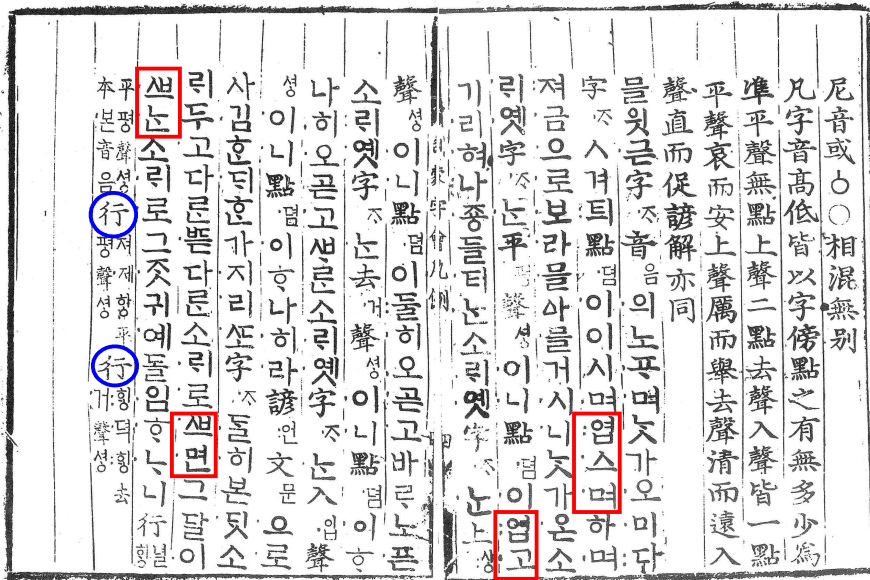
33) 정우영(2014:128)에서도 초성과 중성 위치만 지정해주면 중성 위치는 그 아래라는 것이 자동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굳이 중성과의 부서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34) [현대어 번역] 무릇 한자음의 고저는 모두 글자 옆의 점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니, 평성은 점이 없고, 상성은 두 점이며, 거성과 입성은 모두 한 점이다. 평성은 슬픈 듯 편안하며, 상성은 거세고 들리며, 거성은 맑고 멀며, 입성은 곧고 빠르니 언해도 역시 같다(강신항, 2010:260).

35) [현대어 번역] 무릇 한자의 음의 높고 낮음이 다 글자 곁에 점이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표를 삼을 것이니 낮은 소리의 글자는 평성이니 점이 없고, 길고 나중에 들리는 소리의 글자는 상성이니 점이 두이요, 곧고 바로 높은 소리의 글자는 거성이니 점이 하나요, 곧고 빠른 소리의 글자는 입성이니 점이 하나이다. 언문으로 풀어도 마찬가지이다. 또 글자들이 원래의 소리를 두고 다른 뜻이나 다른 소리를 가지고 그 자구에 돌리어서 (표시) 하니 行 다닐 힉, 평성, 본음. 行 저자 항, 평성. 行 행적 :행, 거성(강신항, 2010:260).

다. 매우 짧고 간략한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체계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특별히 이 문헌에 와서야 비로소 ‘傍點’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텍스트 내 다른 부분들과 달리 언해까지 이루어져 있어 당시 성조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밝혀 두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훈몽자회』 예산본에는 사성에 대한 언해문에 일부 오류가 나타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기문(1971:50)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목판본인 동경대본, 존경각본 등에서 바로잡은 사항을 참고하여 교정한 언해문을 제시하였다.



[사진 7] 『훈몽자회』 예산본(67-1)

위 [사진 7]에서 표시된 부분을 교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7의 7행 ‘업스면’은 ‘:업스면’으로 교정하였고, 9행의 ‘업고’는 붓으로 고친 흔적이 보이는데 다른 판본에서는 모두 ‘업’으로 고쳐져 있어 ‘업’으로 수정하였다. 68의 6행과 7행에 보이는 ‘쓰면’, ‘쓰면’을 각각 ‘쓰면’, ‘쓰면’으로 교정하였다. 마지막 8행의 ‘行’들은 각각 ‘行’과 ‘行’으로 권점 표기를 취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이기문, 1971 참조).

(2) 성조와 방점의 이론적 근거

중세 국어의 성조와 그것을 표기하는 방점에 대한 내용으로 『훈민정음』 해례본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지어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언해문이 있어 『훈민정음』 언해본과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내용 요소별로 나누어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의 어떤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악해 본다.

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한 이해

- 1) 凡字音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爲準

중세 국어 시기 문헌에 보이는 방점은 말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음절 단위로 합자(合字)한 글자의 옆에 점을 찍어 그 점의 개수로 우리말의 높낮이를 구별하였다. 이처럼 성조를 표기하기 위해 찍은 점을 ‘방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가 「언문자모」의 이 대목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 平聲無點上聲二點去聲入聲皆一點

방점(傍點)한 점의 개수로 성조를 구분하는 방법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설명한 것과 대단히 밀접하다.³⁶⁾

- (16) 가. 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 [정음 4ㄱ:4-6]
 나. 凡字之左。加一點爲去聲。二點爲上聲。無點爲平聲。 [정음해례 22ㄱ:2-3]

(16가)는 <예의>의 방점법이고, (16나)는 <합자해>에서 우리말의 성조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공통적으로 성조의 표기는 거성은 한 점, 상성은 두 점을 찍어서 표현하였으며, 평성은 점을 찍지 않는다. 그리고 「언문자모」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순서로 성조를 나열하였지만, <예의>와 <합자해>에서는 ‘거성, 상성, 평성, 입성’의 순서로 나열하였다. 전자의 배열순서는 ‘저조(低調)’에서 ‘고조(高調)’로 말소리가 높아지는 정도를 반영한 것이라면, 후자의 배열은 방점의 순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글자 왼쪽에 점을 하나 찍는 거성부터 시작하여 두 점을 찍는 상성, 그리고 점을 찍지 않는 무표지의 평성을 마지막에 놓았다.

그런데 입성은 이들과 다른 차원으로 이해된다. (16가)의 <예의>에서도 입성을 평성, 상성, 거성과 별도로 기술하였고, (16나)의 <합자해>에서는 고유어에서 입성의 방점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언문자모」에서는 “去聲入聲皆一點”이라 하여 거성과 입성이 같은 방점을 취한다고 말한다. 평성과 상성, 그리고 거성까지는 일정한 방점법을 준수하지만 입성은 거성과 같을 따름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입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7) 而文之入聲。與去聲相似。諺之入聲無定。或似平聲。如긴爲柱。넙爲脅。或似上聲。如:난爲穀。:깁爲繪。或似去聲。如:문爲釘。·입爲口之類。其加點則與平上去同。³⁷⁾[정음해례 22ㄱ:3-8]
 (진한 글씨체 및 밑줄: 필자)

위 (17) 내용은 「언문자모」의 “去聲入聲皆一點”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특히 밑줄 친 부분에서 한자음의 입성이 거성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운서의 성조 체계에서 거성과 입성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한자음에서는 거성과

36) ()의 [현대어 번역] 가. 음절 단위로 모아쓴 글자의 왼쪽에 점 하나를 찍으면 거성이요. 점 두 개를 찍으면 상성이며, 점을 찍지 않으면 평성이다. 입성은 점을 찍는 방식은 마찬가지로이나 그 소리가 촉급하다(김유범 외, 2020:74).

나. 글자마다 왼쪽에 점 하나를 찍으면 거성이 되고, 점 두 개를 찍으면 상성이 되고, 점을 찍지 않으면 평성이 된다(김유범 외, 2020:188).

37) [현대어 번역] 한자음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다. 고유어의 입성은 일정하지 않아서 평성과 비슷한 ‘긴’, ‘넙’, 상성과 비슷한 ‘:난’, ‘:깁’, 거성과 비슷한 ‘:문’, ‘·입’ 등의 예가 있다. 입성의 경우 점을 더하는 것은 평성, 상성, 거성과 동일하다(김유범 외, 2020:189)

입성이 동일하게 높은 소리로 실현된(文之入聲。與去聲相似) 까닭에 방점 또한 한자음의 입성이 거성의 것과 같아진 것(去聲入聲皆一點)이다. 이어서 (17)에서 “고유어의 입성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한자음의 입성과 고유어의 입성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자음의 입성은 거성으로 나타나지만, 고유어의 입성은 평성적 입성, 상성적 입성, 거성적 입성으로 나타난다.

결국 「언문자모」에서 다루고 있는 성조와 방점의 대상은 고유어가 아닌 한자음임을 알 수가 있다. 「언문자모」에서 말한 “去聲入聲皆一點”은 『훈몽자회』의 「목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훈몽자회』 한자음의 입성자에 대한 성조의 반영 실태를 보면 대부분 거성에 대응한다. 이는 한자음의 입성이 대체로 높은 소리로 실현됨을 뜻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방점도 거성과 동일하게 한 점을 취하게 된다.³⁸⁾

3) 平聲哀而安上聲厲而舉去聲清而遠入聲直而促

이 내용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가진 음상(音像)을 통해 각 성조의 특성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은 중국 당나라 처충(處忠)이 지은 『원화운보(元和韻譜)』에 그대로 나온다.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促”이라 하여 중국 운서에서 사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표현이라 전해지는데, 「언문자모」에서도 성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내용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합자해>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8) 平聲安而和。春也。萬物舒泰。上聲和而舉。夏也。萬物漸盛。去聲舉而壯。秋也。萬物成熟。入聲促而塞。冬也。萬物閉藏。³⁹⁾ [정음해례 22ㄱ:8-22ㄴ:3]

「언문자모」에서는 『원화운보』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합자해>에서는 위 (18)에서 보듯 한자를 바꾸거나 사시(四時)를 추가하는 등 일부 변형을 보인다. 『원화운보』를 비롯하여 <합자해>와 「언문자모」에 이르기까지 성조의 특성을 자연과 결부하고자 한 동양의 전통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⁴⁰⁾

「언문자모」에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특성이 ‘哀-安’, ‘厲-舉’, ‘清-遠’, ‘直-促’의 의미로 상징되는데, 『원화운보』의 것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우리말의 상황에 맞추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한문 원문에서는 사성(四聲)의 음가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언해문을 통해서 사성의 음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 부분은 『훈민정음』 언해본에도 잘 드러나 있어 비교해서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언문자모」에서는 평성을 ‘낮가운 소리’, 상성을 ‘기리혀 나중 들티는 소리’, 거성을 ‘곧고 바르 노픈 소리’, 입성을 ‘곧고 썩은 소리’라 하였다.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는 평성을 ‘뭇낮가쁜 소리’, 상성을 ‘쳐서미 낮갑고 乃終이 노픈 소리’, 거성을 ‘뭇노픈 소리’, 입성을 ‘썰리 굻돋는 소리’라 하는데 이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38) 이렇게 한국 한자음에서 입성이 거성과 같아짐을 볼 수 있다. 『동국정운』에서도 성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거성과 입성의 방점이 모두 한 점을 취하고 있다.

39) [현대어 번역] 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러워서 봄에 해당하니 만물이 여유롭고 평온하다. 상성은 조화롭고 왕성하여 여름에 해당하니 만물이 점점 번성한다. 거성은 풍성하고 장엄하여 가을에 해당하니 만물이 무르익는다. 입성은 빠르게 끝달아 겨울에 해당하니 만물이 숨고 감추어짐과 같다(김유범 외, 2020:191을 참고하여 필자가 일부 다듬음.)

40) 강신항(2010:164) ‘각주123’에서 『원화운보(元和韻譜)』, 『옥약시가결(玉鑰匙歌訣)』, 『음론(音論)』 등 중국 운서에서 사성을 설명할 때 흔히 인용되는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다. 『훈몽자회』 범례와 『번역노걸대박통사』 범례 등에도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사성	「언문자모」	『훈민정음』 언해본
평성	낮가온 소리	뭇낮가븐 소리
상성	기리혀 나중 들티는 소리	쳐서미 낮갑고 乃終이 노푼 소리
거성	곧고 바른 노푼 소리	뭇노푼 소리
입성	곧고 썩은 소리	썰리 굷돋는 소리

[표 6] 「언문자모」와 『훈민정음』 언해본의 사성의 음가 비교

위 [표 6]을 통해 평성은 낮은 소리이고, 상성은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이며, 거성은 높은 소리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자료의 비교를 통해 사성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거성에서 『훈민정음』 언해본의 ‘뭇노푼’의 ‘뭇’이 「언문자모」에서는 ‘곧고 바른’과 대응이 된다. 평성의 경우에는 ‘뭇낮가븐’의 ‘뭇’에 대응되는 표현은 없다. 그리고 「언문자모」의 상성 ‘기리혀 나중 들티는 소리’(길고 나중에 들리는 소리)에서 높낮이는 물론 『훈민정음』 언해본과 달리 길이도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언해문에 추가된 내용과 ‘평상거입정위지도(平上去入定位之圖)’

언해문에서 마지막 세 행에 달하는 아래 (19) 부분은 한문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다.

(19) ㅅ 字·조·돌·히·본·뫼·소·리·두·고·다·른·뽀·다·른·소·리·로·뽀·면·그·달·이·뽀·는·소·리·로·그·조·귀·예·돌·임·ㅎ·니 行·널·형·ㅍ·평·형·성·本·본·음·음·行·저·제·항·ㅍ·평·형·성·行·ㅎ·덕·형·去·거·형·성

특히 ‘行’자에 대한 예는 동일한 한자가 하나 이상의 뜻이나 음으로 사용될 경우 그 본뜻과 본음 이외의 경우에는 평성과 상성같이 사성(四聲) 권점(圈點)을 표시한다는 규정이다. 제시된 예를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0) ‘다닐 행’의 경우 본뜻과 본음을 갖는 평성이므로 권점을 표시하지 않는다. □- 行
 ‘저자 항’의 경우 본뜻과 본음이 달라진 평성이므로 평성 자리에 권점을 표시한다. ◻- 行
 ‘행적 :행’의 경우 본뜻이 달라진 거성이므로 거성의 자리에 권점을 표시한다.⁴¹⁾ □[◦]- 行[◦]

마지막으로 ‘평상거입정위지도(平上去入定位之圖)’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해문에 추가된 내용과 관계된 그림으로 판단된다. 성조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보충하면서 중앙에는 한자의 권점 표시 방식을 도식화하였다.

41) “行[◦]:형·덕·형 去:거·형·성”의 경우 한자에는 ‘行[◦]’으로 거성의 권점을 취하였는데 한자음 표기에는 ‘:형’에는 두 점의 상성으로 되어 있어 성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사진 8] 『훈몽자회』 예산본의 ‘平上去入定位之圖’(77)

‘평상거입정위지도(平上去入定位之圖)’의 하단에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관계를 다음 (21)과 같이 비유하였다.

(21) 平평上상去去·거거·입입如여人인自自·조조平평地地·디디昇승上上·상상行행去去·거거還還入入·입입之지意의
 平평上上:상상去去·거거·입입 :네·조·는·사·르·미·平평地地·로·브·터·올·아·든·녀·가·도·로·드·러·옴·과·거·튼
 ·쁘·디·라

한자가 의미에 따라 복수의 성조를 가질 때는 권점을 통해 성조를 구별해 줄 수 있다. 중앙에 제시된 그림은 한자 ‘國’을 가지고 권점 표시 방법을 보여준 것인데, 그림을 참고하여 한자(□)를 중심으로 권점(○)을 상하좌우에 배치한다. 평성은 ◻, 상성은 ◻, 거성은 ◻, 입성은 ◻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해당 한자가 본래 의미와 음으로 사용될 때는 성조 표시를 하지 않고, 음이나 뜻이 본래와 달라졌을 때 위치를 통해 성조를 구별하여 표기한다.

언해문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평상거입정위지도(平上去入定位之圖)’는 엄밀히 따지면 고유어 방점법이 아니라 한자의 권점 표시에 대한 안내이다. 다시 말해 한글 학습이 아닌 아니라 한자 학습, 즉 『훈몽자회』의 「목록」을 통해 한자를 익히는 데 필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언문자모」의 ‘초중성통용-초성독용-중성독용-초중성합용작자례-초중중삼성합용작자례’에서 제시한 일련의 내용들과는 괴리가 있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4. 결론

참고문헌

- 강신항(2010),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창석(2014), 「『諺文字母』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사회』 22,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7-52.
- 김부연(2018),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국어교육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부연(2020), 「국어사 자료로 본 최초 한글 표기 규정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73, 국어교육학회, 147-425.
- 김유범 외(2020), 『훈민정음 해례본』, 역락.
- 김주필(2009), 「諺文字母의 反切的 運用과 反切表의 性格」, 『한국학논총』 3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491-518.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동방학지 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93-821.
- 이기문(1971), 『訓蒙字會研究』, 한국문화연구소.
- 이동림(1975), 「訓民正音의 創製經緯에 대하여: ‘諺文字母二十七字’는 最初原案이다」, 『國語國文學論文集』 9,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7-22.
- 정우영(2014), 「『訓民正音』 해례본 ‘例義篇’과 ‘解例篇’의 상관관계 분석」, 『國語學』 72, 국어학회, 103-153.
- 채 완(1999), 「『훈몽자회』와 한글 맞춤법」, 『새국어생활』 9-3, 국립국어원.
- 한재영(1999), 「國語表記史 속의 崔世珍」, 『어문연구』 2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21-251.
-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上·下)』. 서울신문사.

“사자(四字) 구성으로 살펴본 <훈몽자회>의 유의어 분류
체계 연구” 토론문

주지연(영남대)

(별지 참조)

『訓蒙字會』의 구조 분석과 수록자에 관한 이해에 관한 토론

위진(국립국어원)

이 글은 崔世珍이 편찬한 『訓蒙字會』(1527)를 구조적 관점에서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로 나누어 책의 구성, 표제어의 분포, 한문 주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훈몽자회』의 편찬 의도가 단순히 한자 학습의 목적을 넘어 한자를 매개로 한 의미, 음, 자형, 한자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훈몽자회』에 대한 연구가 서지, 언문자모, 한자의 범주, 표제어의 음훈 등 부분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글은 『훈몽자회』에 대한 기존 연구를 아우르면서도 『훈몽자회』의 서문(引)과 범례, 언문자모 및 음절 형성(성조 포함), 표제자의 범주(目錄), 표제자에 딸린 한문 주석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언문자모나 음훈에 가려 관심을 받지 못하던 한문 주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표제자에 딸린 한문 주석을 하나하나 분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훈몽자회』와 다른 한자학습서의 음훈에만 관심을 두었던 저에게, 『훈몽자회』를 새로운 시각, 곧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 준 필자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따라서 이 글의 토론은 발표자의 논지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읽는 과정에서 생겼던 궁금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첫째,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보면, 『훈몽자회』의 편찬 의도는 발표자의 결론대로 종합적인 한자 정보 제공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구조는 현재의 국어사전 정보 제공 방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 책의 전체 구성: 『훈몽자회』 인(引)과 범례 → 일러두기(4쪽~9쪽)
- 거시 구조: ① 목록 → (전문) 분야(10쪽)
 - ② 全實之字와 半實半虛字 → 품사(11쪽~12쪽)
- 미시 구조: ① (15쪽~17쪽)
 - X作 유형: 本作, 正作→규범 표기, 古作→옛말, 今作→신어, 詩作→문학어
 - 與X同 유형: 비슷한말
 - X……亦曰Y: 참고 어휘
- ② (18쪽) 성조 정보 제시 유형: 장단으로 의미 구분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국어사전의 정보 제공 방식과 본격적으로 견주어 보면, 『훈몽자회』의 편찬 의도를 한자 정보 종합 제시로 보고자 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더해서, 혹시 중국의 한자 교육용 교재에 『훈몽자회』와 비슷한 체재를 가진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관 출신이면서 중국어에 박학했던 최세진이었으므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훈몽자회』의 체제가 어떤 경로로 구성되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둘째, 19쪽 '4.3. 한자어 사용, 의미, 사용 범위, 사용 분야 관련 정보'에 제시된 유형별 정보 제시 방식이 의미상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X名' 유형은 의미와 지시 대상이

같은 것을, ‘X曰’ 유형은 표제자와 관련한 한자어의 사용 양상 및 이들 한자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어를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呼, 謂, 稱, 云’ 유형 구분도 비슷합니다.

유형별로 제시된 예문만 보아도 표제어와 한자 사이의 관계가 다양해서, 정보 제공 방식을 일반화하기 어려웠을 발표자의 고충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에 능통한 저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각 유형에 사용된 한자의 의미와 쓰임에 변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훈몽자회』 내에서 한문 주석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함께, 16세기 당시에 쓰인 자전류나 문헌에서 한자 ‘名, 曰, 呼, 謂, 稱, 云, 作’의 의미 차이와 쓰임을 분석하여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소훈(서울시립대)

이 연구는 <훈몽자회>에 나타난 용기류 한자 중에서 분류사로도 쓰이고 있는 ‘盞’과 ‘杯’에 대해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단명결 선생님 논의에 따르면 한국어 ‘잔’과 ‘배’는 일찍이 중국어에서 차용되어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발달 양상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 두 언어를 함께 살펴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헌이라고 해서 한문에 나타난 예도 한국어 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의 자료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고 있으나 분석과 다소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어에서 ‘잔’의 다른 의미인 ‘등불’로서 조선시대와 근대에 분류사 용법이 있었는가?

둘째, 한국어에서 ‘배’가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 분류사 용법이 있었는가?

한국어 ‘잔(盞)’은 발표문에서와 같이 꽤 이른 시기에 중국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잔’이 문헌상에서 고려 후기부터 보이지만 이 때 분류사로 쓰인 예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용기류 명사 ‘잔’은 그 이전에 차용되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등의 한문 문헌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문헌에 쓰였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어에 실질적으로 쓰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한문이지만 한국 문헌에 술을 담아 마시는 용기의 여러 명칭 중 ‘잔’이 선택된 것과 <훈몽자회>에 있는 용기류 한자 ‘罍, 盞, 杯, 觴’이 ‘잔 가, 잔 잔, 잔 비, 잔 상’으로 모두 그 훈이 ‘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잔’이 술 등을 담아 마시는 용기명으로 고착된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잔’이 분류사로도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용기류 명사는 그것이 단일어이고 대중화되어 쓰인다면 분류사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救急簡易方』에서 ‘盞’에 주로 대응되는 것은 ‘되’입니다. ‘되’가 분량을 헤아리는 그릇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잔’에 대응되는 고유어에는 석주연(201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스’류가 있습니다. ‘보스, 보시기, 보’ 등은 ‘국물이 있는 반찬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데, 고대에 술, 차 등을 담는 그릇 명칭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액체류를 담는 그릇 총칭이 ‘보스’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救急簡易方』에서 ‘盞’을 ‘보스’가 아닌 ‘되’로 언해한 것은 정확한 분량을 나타내기 위해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잔’이나 ‘보스’보다 ‘되’로 언해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대에 이미 도량형이 통일이 되었으므로 치료방문에 대한 분량 단위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되’를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헌 안에 ‘되’와 ‘잔’의 용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잔’의 분류사 용법이 안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보다 정확한 분량을 기록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한 것이 아닌지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몽어노걸대』(1790)에서 ‘참기름 한 잔’이라 나타난 것으로 이전 시대보다 범주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류사 자체의 의미 범주 확장이라기보다 용기 ‘잔’에 담을

수 있는 액체류에 대한 부분은 모두 ‘잔’이라는 분류사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4) 예문 ‘粥一盞’을 보면 15세기에 죽을 ‘잔’으로 수량화하였으며 『구급간이방』에서도 ‘젓 기름 혼 잔을 입에’라는 예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4) 예문은 언해문이 아니라 한문이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등잔’의 경우, 용어는 중국어에서 차용되었겠지만 ‘잔’ 자체가 ‘등불’의 의미로 확장된 것이 차용되었다기보다 ‘등불’을 잔 모양의 그릇에 담아 사용했으므로 ‘등잔’이라고 명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잔’이 일반 명사로든 분류사로든 ‘술, 차 등의 액체를 담은 오목한 그릇’의 의미로 한국어에 정착했고 ‘등잔’으로는 의미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잔’을 세는 기능으로서의 분류사 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즉 일반 명사 ‘잔’은 고대에 차용되어 분류사로 발달하여 고착하였고 당나라시기 ‘등잔’으로 의미 확장된 분류사는 차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도 논의했듯이 (56) ‘일잔등’은 한자어를 고유어로 언해하지 않고 한자어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차용했다고 해서 그것을 한국어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영어 표현을 차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58)에서도 분류사로 쓰이기는 했으나 이 역시 한문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배(杯)’도 마찬가지입니다.

‘배(杯)’는 명사로도 한국어에 쓰인 예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시한 자료는 한문뿐이므로 이것은 마찬가지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배’ 자체가 단일어로 쓰인 예는 없지만 어근으로서 쓰인 ‘角杯’와 ‘高杯’는 오늘날에도 유물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고대 유물로 각각 ‘뿔잔’과 ‘굽잔’이라고도 하는데 ‘각배, 고배’는 한문에 쓰인 용어입니다.(여기서 ‘잔’은 거의 고유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배’ 자체는 일반 명사로 한국어에 쓰이지 않았으므로 분류사로도 쓰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일배, 삼배’는 한국어 수량 표현이 아닙니다. 분량을 수량화하여 나타낼 경우 분류사 앞에 오는 숫자는 고유어입니다.(‘소주 일 병’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님) 그러므로 (64)~(71)의 예문에는 언해된 문장에 나타난 ‘一杯水’와 같은 표현은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한문을 언해할 때 한자어를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도 ‘술 삼 배’란 예가 있는데 이는 제사 때 주로 쓰는 말로 이는 의례 용어가 그대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배’에서 인용한 예문의 문헌을 보면 한문을 언해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전 소설의 경우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문본에도 한자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65)의 시조는 한국어로 지어지기는 했으나 시조의 경우도 한자어나 한문 표현이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는 조선시대 한국어에서 ‘배’가 분류사로 쓰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은 “<訓蒙字會>의 한·중 한자어 容器성 분류사 통시적 연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국정운> ‘쓰’과 <훈몽자회> ‘ㅅ’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조선 전기 청·탁음에 대한 연구” 토론문

신성철(순천대)

(별지 참조)

“<훈몽자회>에 나타난 近代漢音系 차용어” 토론문

김석영(한국교원대)

(별지 참조)

“<훈몽자회>에 대한 국어교육적 의미 탐색” 토론문

박형우(한국교원대)

(별지 참조)

<연구윤리 규정>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사학회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연구에 관한 윤리 및 그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논저자의 연구윤리

제3조(표절 금지)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7조(공정성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학교,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 선임 조건) 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출판이사,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사자를 꺾지 않는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 투고 내용,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실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제13조(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 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을 밝히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정중한 표현)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심사 논문 유출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

-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 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

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의 접수)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를 위임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및 통보) 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판정 결과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

제25조(투고 논문의 제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

제27조(사후심사의 절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

제2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